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1호 2008. 9

차례

특집 야스쿠니신사 관련 제 문제

- 마크 셸든 | 전쟁과 역사의 기억 그리고 아태지역의 미래 - 미일과 야스쿠니 문제 7
위나이밍 | 타이완의 야스쿠니신사 문제 - 역사 인식과 충돌 31
박중현 | 역사 화해를 위한 '다원주의 역사 수업' 가능성 모색
- 야스쿠니 수업을 중심으로 51

논문

- 김희선 | 高句麗 長安城과 新羅 王京-街路區劃 방식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89
이병건 | 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담의 건축적 의미 연구 135
윤휘탁 | '以古爲今' : 중국의 민족문제와 중화민족 국가관 185
하지연 | 韓末 · 日帝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한국관 213
최영호 |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263
김경남 |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305
한정선 |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 한류와 혐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사회 361

Contents

Special Issue Issues on Yasukuni Shrine

- Mark Selden | War, Historical Memory and the Future of the Asia Pacific: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Yasukuni Problem 7
- Yu, Naiming | Yasukuni Shrine Problem in Taiwan – On historical recognitions
and conflicts 31
- Park, Joonghyun | Seeking the Possibility of ‘Pluralistic History Teaching’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 Focused on the learning of Yasukuni 51

Articles

- Kim, Heesun | The Koguryo Jangan castle and the capital of Silla 89
- Lee, Byeonggun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Balhae Brick
Pagoda in Northeast Asia 135
- Yoon, Hwytak | China’s Ethnic Issue and Han Chinese National Ideology 185
- Ha, Jiyeon | Kikuchi Kenzo’s Colonial Activities in Korea and His Recognition
on Korea during the Empire of Korea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213
- Choi, Youngho | Colonial Thoughts of Japanese in Korea during their Re-
patriation 263
- Kim, Kyungnam | The Japanese’ Return and Changing Recognition from the
Colonial Joseon 305
- Han, Jungsun | Understanding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through “Korea
Wave” and “Hate Korea Wave” 361

특집

야스쿠니신사 관련 제 문제



전쟁과 역사의 기억 그리고 아태지역의 미래

- 미일과 야스쿠니 문제 -

마크 셸든 |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

일제 식민기와 태평양전쟁에 그 뿌리를 둔 채 아직까지도 논란이 가시지 않은 야스쿠니[靖國신사나 일본군 위안부, 난징[南京] 대학살 같은 문제들은 아태지역의 미래와 미일 관계를 놓고 볼 때 무척 중요하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냉전기의 흥분이 가시고, 한중일이 경제는 물론 문화면에서도 서로 긍정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오늘날, 그 전쟁에 대한 기억과 증언들이 지역적·세계적인 갈등을 거듭 촉발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가와 사회학자, 인문학자들이 재구성하는 기억의 전쟁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런 불화의 근저를 이루며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전제를 무한정 반복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필자는 우선 '야스쿠니 문제'를 맨 앞에 놓는다.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쟁, 천황제, 종교, 정체성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휘발성이 큰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다루기가 어려울 듯하다.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비교 민족주의 문제를 밝히고, 야스쿠니 문제가 어떻게 미일 관계와 깊이 얽혀 있는지를 논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일본 내 민족주의의 특징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를 처

음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미국을 포함하는 태평양 지역 내 국가와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에 공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2008년 5월 방일 기간 중에 있었던 와세다대학 강연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적대감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비추어 평화를 확보하는 거울로 쓰기 위해 과거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¹⁾

일본과 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야스쿠니 문제’와 우리 시대를 풍미하는 민족주의에 관해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이 문제를 60년 넘게 일본 정치계를 장악해온 미일 관계의 틀 안에 묶으로써 그동안 일본만이 유지해온 시각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야스쿠니 민족주의’는 한국과 중국, 미국 등 다른 아태지역 국가의 민족주의라는 좀 더 너른 범위 안에서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야스쿠니와 민족주의, 일본을 전쟁으로 이끈 천황, 식민주의에 대한 기억, 전쟁 등과 관련하여 일본 국민들 사이에 생긴 깊은 간격을 인식하기 위해 ‘일본성’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려면 앞서 말한 문제들에 대한 획일적인 이해와는 결별해야 한다. 각각의 강조점은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넘어서야 하고, 아태지역에서 긴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아울러 선택이 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고의 저장소라 할 인문학과 사회과학 각 분야가 도전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

야스쿠니신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천황과 관계가 밀접한 신도 사원이자, 메이지[明治] 시대에서 태평양전쟁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신사는 일본의 전통을 불러낸다. 그러나 이를 단지 일본만의 것으로

1) 『아사히신문』(2008. 5. 11). 그의 방문은 10년 전인 1998년에 방일한 장쩌민[江澤民] 주석에 이어 중국 정상의 두 번째 일본 방문이다. 장쩌민 주석은 전쟁 중에 일본이 행한 잔혹행위에 대해 강연했고, 이로 인해 그의 방문은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는 시각은 이 시대를 풍미하는 민족주의를 특징짓는 여러 요소를 간과하는 일이고, 일제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이념의 틀을 만드는 데 끼친 중요한 지역적·세계적 영향력, 특히 미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 새로이 태동한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야스쿠니신사에 깃든 본질적인 일본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국내의 논쟁을 짓누르는 동시에 이웃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그런데 이 신사의 일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다. 일본의 민족주의자들은 자부심의 정치를 갈구하며 일본의 전쟁 범죄를 다룬 도쿄[東京]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냉소를 보내고, 이제 사과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지만, 한중 내 비판자들은 물론 일본 내 진보주의자와 평화주의자와도 공유하는 점이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환영하고, 아태지역에 진출한 일본군의 공적을 찬양하는 유슈칸[遊就館] 박물관 내 전시물의 적법성을 방어하며, '유럽'의 식민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며 일본을 추앙하는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모든 행위를 두고 역사의 판정을 뒤엎는 불법적 시도라거나 일본이 이웃 나라들의 따귀를 때린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진보주의자들이나, 야스쿠니신사에 대해서는 으레 일본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I. 야스쿠니신사와 미일 관계

물론 야스쿠니신사는 신도와 천황제의 결합이라는 점이나 건축, 의식, 식민주의와 전쟁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 천황, 거기에 안치된 일본군 전사자 등과 같은 요소를 놓고 볼 때 본질적으로 일본만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편집자인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가 유슈칸 박물관의 전시물을 두고

한 말처럼, “그 시설은 군국주의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념관을 둘러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마지막 전쟁은 사실상 일본이 이겼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²⁾

그러나 이 시대의 민족주의와 야스쿠니 문제를 좀 더 광범한 지역적·세계적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한 분석가들은 일본과 아태지역의 전후 60년사와 우리 시대의 권력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천황과 야스쿠니신사의 전후 위치를 포함하여 일본의 모든 정치·사회 분야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친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필자는 국가가 통제하는 민족주의의 공통점들만이 아니라 야스쿠니의 특징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야스쿠니가 전후의 일본 정치, 특히 미일 관계에 대해 일본인들 사이에 불러일으킨 다양한 반응을 밝히고, 그 밖의 지역, 특히 미국에서 행해지는 전쟁 기념식에 대해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사실 메이지시대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야스쿠니신사는 특히 전쟁기(1931~1945)에 들어와 개인의 희생과 영예를 천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각인과 더불어 유족들의 슬픔을 전물자를 신으로 모시는 애국적 신명으로 바꾸는 ‘감정의 연금술(다카하시 데쓰야가의 표현)’에서 그 핵심이 되었다. 수많은 일본군과 민간인을 희생시킨 식민주의와 전쟁의 목표를 지난 60년에 걸쳐 암

2) 종전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쓴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사설을 보라.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과 ‘자유주의적’인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종종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는 데 비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문제에서는 동일한 시각을 드러낸다. 야스쿠니신사와 민족주의, 일본의 국제 관계. <http://japanfocus.org/products/details/1918>.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공동 사설에서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할 국립묘지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와 와타나베 쓰네히코 글. <http://japanfocus.org/products/details/2124>. 『요미우리신문』은 22부로 된 ‘전쟁 책임’이라는 시리즈물을 실었다. 이 글은 아직도 해당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yomiuri.co.jp/dy/features/0007>, 이 연속물은 나중에 “누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 노구교 사건에서 진주만까지”라는 제목을 달고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일본어판과 영어판, 중국어판이 있다. http://www.amazon.com/s/ref=nb_ss_b?url=search-alias%3Dstripbooks&field-keywords=yomiuri%2C+who+was+responsible%3F&x=0&y=0.

목적으로 합법화하는 한편, 여당인 자민당과 강력한 유권자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해온 것은 전사자 유가족을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온 일본 정부의 아낌없는 금전적 보상을 이어감으로써 이를 봉인한 연금술이다.³⁾ 이것과 나란히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高揚의 연금술, 또는 망각의 연금술이다. 다시 말해 전쟁 기간에 저지른 잔혹한 전쟁 범죄를 잊게 하고, 천황과 황국의 이름 아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노역자를 착취하고,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부수고, 가족을 학살한 사실을 잊게 하는 연금술인 것이다.

모든 국가는 국가가 선포한 목표를 위해 군과 민간인이 기꺼이 나서서 싸우고, 또 그렇게 싸우다 죽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죽은 이들의 희생(즉, 자국 국민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고양하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민족 해방, 혁명 등의 이름 아래 무장 투쟁을 통해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는 집단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야스쿠니신사의 상징성이 세부적인 면에서 유별난 특징이 있다면,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쟁을 통한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현상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부터 태평양전쟁까지 246만 명에 이르는 전몰자를 합산한 야스쿠니신사는 전후시기에 천황과 전쟁, 황민, 황국을 잇는 중심 상징으로 떠올랐다.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생겨난 백만 명이 넘는 일본 민간인 희생자는 국립 소와 기념 박물관인 쇼와칸(昭和館)에서 기념하고 있지만, 영웅들의 만신전인 야스쿠니신사에서는 제외되었다.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쇼와칸은 전쟁 수행 노력의 증추 구실을 한 후방, 특히 여성들의 헌신을 보여준다. 천황 중심적인 신도와 군을 둘러싼 상무의 靈氣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결합이 결여된 탓에, 쇼와칸에서도 전쟁 중 후방을 휩쓴 죽음과 파괴는 가려져 있다. 다시 말해,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된 폭격으로 파괴된 일본의 도시와 수십만 명의 죽음을 알리는 전시물이 없는 것이다. 죽음의 이미지만 없는 게 아니라 적국인 미국이나 중국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충성과

3) 야스쿠니신사에 안치된 한국인 병사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전 후 일본 시민권을 잃음으로써 생존자들조차 일본 정부가 주는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내 이야기이지, 죽음과 파괴 이야기가 아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인들의 희생도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제시된 신사와 기념관에서 당연히 배제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으로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싸우다 전사한 28,000명의 타이완인과 21,000명의 한국 인들은 그중 예외라 하겠는데, 현재 이들의 후손은 일본 신사에 모셔진 조상들의 합사철폐를 요구하고 있다.⁴⁾ 야스쿠니신사를 비롯한 일본 내 기념관과 박물관에서 오로지 일본인 전몰자들만 기념하는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예외라기보다 정상이라 하겠다. 워싱턴의 전쟁기념관에서도 베트남인과 한국인 희생자들은 제외하고 있고, 런던의 전쟁기념관에서도 독일인 희생자들은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전후 시기 들어 일본의 전쟁기념관 건립에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생겨났다. 미군정 기간 동안 ‘야스쿠니 문제’는 다른 여러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아태지역은 물론 그 바깥 지역과도 밀접히 관련된 미일 관계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렌즈를 통해서 본 야스쿠니 문제는 미군의 일본 내 영구주둔의 산물이자, 히로히토[迪官裕仁] 천황이 미국에 종속된 상태로 왕위를 유지하면서 일본 정치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 미국의 결정이 낳은 결과였다. 이는 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미국의 고집에 따른 것이기도 했는데, 그 결과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정부와 준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야스쿠니 문제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은 시대의 맥락, 특히 60년 넘게 미군이 장악한 아태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된 전략적 질서에 일본이 종속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본과 아시아, 더 나아가 뒤에 미국이 일본의 물류와 재정적 지원을 업고서 벌인 일련의 전쟁을 통해 확립한 미일 관계에 대한 반향까지 포함된다.

4) 야스쿠니신사 측은 이들의 요구는 물론 그곳에 합사된 오키나와 병사와 민간인 후손들의 합사철폐 요구에 대해 전몰자를 모시는 문제는 자신들에게만 권한이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한국전쟁과 인도차이나전쟁을 시작으로 그 뒤를 이은 걸프전쟁과 아프간 전쟁, 이라크전쟁은 엄청난 수의 아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아태지역의 운곽을 바꾸어 놓았다. 일본과 한국에서 시작하여 동으로는 괌, 서로는 중동의 이란과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군사기지의 제국은 결국 아태지역을 차지한 미군의 위력에 대한 물리적 표현인 동시에 미국의 힘에 종속된 일본의 위치를 드러낸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국의 힘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일본이 수행하는 지역적·세계적 역할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와 의식 내에서 야스쿠니신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도 무척 중요하다.

미국의 역할은 1951년에 체결되어 미군정기를 끝내고 미국이 만든 무수한 대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이 차지한 종속적 위치를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된 미일안보조약(AMPPPO)과 더불어, 특히 오키나와에 집중된 미군의 일본 내 영구 주둔이라는 말로 정의된다. 이는 전쟁과 제국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표현되는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황은 개전 또는 전쟁 지속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공식적으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점령군 당국과 일본 정부 양측에서 그가 손수 개입한 덕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찬사까지 얻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국민들도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 행위와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반추하는 개인적 의무에서 풀려났다. 천황은 전쟁 범죄자로 도쿄재판에 넘겨지기는커녕, 재판정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조차 면제받았다.⁵⁾ 재판관들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일부 군부

5)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 그리고 그를 왕위에 유지시키고 도쿄재판에서 그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관한 완전한 분석은 허버트 P. 빅스(Herbert P. Bix)가 쓴 『전쟁 책임과 역사의 기억 : 히로히토의 유령(War Responsibility and Historical Memory : Hirohito's Apparition, Japan Focus)』을 참고하라. <http://japanfocus.org/products/details/2741>.

신사의 정치학과 전몰자에 대한 역사 논의는 아키코 다케나카(Akiko Takenaka)가 쓴 『신사 정치학 : 야스쿠니신사의 전몰자와 전범(Enshrinement Politics : War Dead and War Criminals at Yasukuni Shrine)』을 보라. <http://japanfocus.org/products/details/2443>.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니타 히토시(Nitta Hitoshi)가 다음의 글에서 강력한 논조를 펴보인다. "And Why Shouldn't the Prime Minister Worship at Yasukuni? A Personal View," John Breen, ed., *Yasukuni, the*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B급과 C급 전범으로 분류된 수 천 명의 하위 장교 및 경찰 간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을 마감했다. 결국 전쟁 기간 중 일본의 최고 사령관 구실을 한 천황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식민주의와 전쟁 기간에 저들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따라서 미국은 야스쿠니 문제는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군정이 시행되는 동안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와 공식적 유대관계가 끊긴 채, '사실' 종교단체라는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그럼에도 이 신사는 식민주의와 전쟁의 기억을 옹호하면서, 상호 화해의 길을 닦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제의 전쟁 범죄와 잔혹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중 내 전쟁 피해자는 물론 미국 전쟁포로 같은 승리자들 사이에서도 들려오는 목소리까지 거부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상징물로 남아 있다.

공식적으로는 그 위치가 어떠한지, 야스쿠니신사와 천황 간의 밀접한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히로히토 천황은 종전 이후 여덟 차례나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그곳에 안치된 전몰자들의 영혼과 천황 사이의 유대관계를 확고하게 키워갔다. 히로히토의 참배는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규정된 14인을 합사한 1978년 이후에 중단되었지만, 허버트 빅스가 '히로히토의 망령'이라고 말한 천황과 야스쿠니신사와 전쟁과 제국을 잇는 상징성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남아 있다. 국가와 야스쿠니신사를 잇는 상징성은 1985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시작했고, 2001~2006년까지 이어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연례 참배로 확고해진 일본 총리의 공식 참배를 통해 지속되었다. 미국의 일본 점령과 미일안보조약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 공세의 궤도 안에 일본을 가두어 놓았다.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책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앞서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과 화

해하라는 압력을 막는 일본의 보호막 구실을 했다. 사실 미국은 한국전을 통한 중국 봉쇄에 발맞추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정치·경제적인 유대관계가 재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일 간의 관계는 주로 역사 서술과 야스쿠니신사 문제로 정치적 갈등을 자주 겪었지만, 1970년에 이루어진 미중 간 국교 수립 덕에 급속한 확대의 길로 들어섰다. 새 천년에 들어선 이후 중국이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미일의 주요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지역 내 4강 간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중 및 중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동안, 중국 요인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그 중요성과 복잡성에서 크게 성장했다. 2008년 봄 현재,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제1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일본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둘 간의 무역액은 총 2,370억 달러에 이른다.⁶⁾

2001년과 2006년 사이에 있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그리고 그보다 정도가 덜하긴 하지만 최근에 새로이 분출된 난징 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일본 교과서 내 민족주의를 둘러싼 설전이 낳은 한 가지 결과는 그 뒤로 5년이 지나도록 중국과 일본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한일 간에도 그랬지만, 이 아시아의 두 강대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특히 중일 간에 닌자오/셴카쿠 군도를 둘러싼 영토 및 석유·가스 문제가 촉발된 때와도 맞물린다. 이와 유사하게 한일 관계 역시 야스쿠니를 둘러싼 민족주의와 독도에 집중된 영토 분쟁으로 악화되었고,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교류의 급격한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유익한 영향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지역의 충돌은 종종 야스쿠니 문제와 관련된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에서 생겨난 어려움과 나란히 진행되어 왔다. 고이즈미의 뒤를 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총리가 되기 전에는 종전 기념일인 8월 15일이 되면 빠뜨리지 않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2006년 6월, 아베 총리는 양국 간 대화의 전제조건으

6) Reuters, 2008. 5. 4.

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지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완강히 거절했다. “우리는 일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전몰장병에 대한 우리의 추모 감정이 이런 식으로 훼손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놔두지도 않겠다.” 말은 이렇게 했으나 그는 총리직에 있는 동안 공식적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했고, 이는 그의 뒤를 이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권력이 고이즈미에서 아베와 후쿠다로 옮겨가고, 일본 경제계와 학계의 영향력 있는 집단 내에서 일본의 미래와 관련한 한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격렬한 충돌을 그만두고 지역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논의를 재개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한 동안 신민족주의 경향을 반영하는 작가와 만화가, 영화 제작자들은 끊임없이 태평양전쟁을 재현해내고, 식민 지배의 선의를 옹호하며 한국과 중국을 비방해 왔다. 그러나 매튜 페니(Mathew Penney)가 지적한 대로, 최근에 나온 중국 관련 책들은 중국이 이런 성과를 강조하며 중일 간 친선을 향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⁷⁾

II. 획일성의 거울로 본 일본

일본의 신민족주의 비판자들은 일본을 식민주의와 전쟁시기의 기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찬양하는 획일적인 국가로 볼 때가 많다. 그러나 전후 시기를 통틀어 일본 국민들은 크게는 식민주의와 전쟁시기 전체, 작게는 야스쿠니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7) “Foundations of Cooperation : Imagining the Future of Sino-Japanese Relations,” *Japan Focus*, <http://japanfocus.org/products/details/2713>.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국외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국론 분열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편집인들이 참배 중지를 요구하며 내놓은 공동성명과 한일 및 중일 간 경제 협력에 해가 되므로 참배를 중지하라는 오사가 지역 경제동우회의 요청, 또 고이즈미 총리와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그의 참배 행위가 위헌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넌지시 지적한 야마사키 다쿠(山岐拓) 자민당 의원의 성명 등이 좋은 예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지지 아래 헌법을 수정하여 일본의 해외 군사 활동을 합법화려는 자민당의 노력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의 정서였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반 시민의 강력한 지지 덕에 1895~1945년까지 거의 지속적인 전쟁 상태에 놓였던 일본이 60년 넘게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었듯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지지는 일본의 전시 행위에 비판적인 상당한 정도의 국민 정서와 일치한다. 물론 야스쿠니 문제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0년에 걸친 평화와 일본의 평화주의는 반세기 넘게 일본 안보의 보루 구실을 해 온 미국 군사력의 틀, 즉 미일 안보조약과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은 평화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1962년부터 15년간 일본유족회를 이끈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1889~1977)는 도조 내각에서 대장성 장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유족회는 야스쿠니신사와 자민당을 보호하는 정치적 보루 역할을 해 왔고, 이에 발맞추어 자민당은 종전 이후 60년 동안 계속 유족회 회원들을 재정적으로 도왔다. 가야는 도쿄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뒤 10년을 복역했고, 풀려난 뒤에는 대장성 장관직까지 올랐다. 그는 회고록에서 일본이 저지른 대미 전쟁을 비난하고, 전쟁 중에 자신이 맡은 역할을 비판했다. 그가 지적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가 회고록을 쓰던 당시 못지않게 지금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국민들 스스로 지도자들의 책임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데 대

해 무척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대로 일본 국민들이 법률적·윤리적 면에서 내리는 그런 판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천황에 초점을 맞춘 전쟁 이념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히로히토가 왕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럼으로써 그의 즉위 초기를 특징짓던 식민주의와 전쟁에 대해 스스로 진지하게 비판하거나 그런 정책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을 꾸짖기 어렵게 만든 미국의 점령 정책 역시 그런 장애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남긴 전쟁기록을 해결하려는 일본 국민들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다. 미국의 정책 및 일본 민족주의와 연관된 장애물을 마주하고서도 상당한 수의 일본인들, 특히 전쟁 세대에 속한 이들은 그 파멸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고, 전쟁시기에 형성된 천황과 식민주의, 국체의 이념들을 거부함으로써 전쟁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려 했다. 예를 들어,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의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활동에서 헌신과 지략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군 위안부, 기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두고 정부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리고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궤멸적 패배에서 얻은 교훈에 큰 영향을 받아 평생 동안 평화주의자의 시각에서 군사적 경향에 맞섰다. 예를 들어 개전과 더불어 꺼지고만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운동의 번덕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평화주의와 반전 학문, 행동주의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다.

일본의 신민족주의 부활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페르시아만에 군대와 함대를 보낸 일은 물론, 야스쿠니신사와 교과서 민족주의를 포함한 최근 동향에 우려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지난 60년 동안 전쟁에 나선 적이 없고, 헌법 개정을 옹호하는 이들이 헌법 제9조를 없애려는 노력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비록 일본 사회가 전쟁의 기억과 헌법 제9조에 대한 여론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여기던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미국이 앞장선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 민주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일본 내 민족주의의 부활은 미일 안보관계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민족주의의 전 세계적 발호와 미국의 힘과 정책에 대한 응답을 반영하는 이런 동일한 현상의 흔적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긴 해도, 한국이나 중국 같은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아태지역에서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중의 민족주의를 공동의 미래에 유익하도록 통제하는 데 달려 있다는 뜻이다.

Ⅲ. 야스쿠니 민족주의와 미일동맹의 정치 논리

고이즈미 총리는 해마다 빠뜨리지 않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신의 5년 임기를 특징짓는 두 가지 주요한 상징적·실질적 활동으로 삼아 대외에 과시했다(나머지 하나는 미국이 벌인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육상 자위대를 파견하고 페르시아만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 일이었다). 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까지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으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을지언정 일본 내에서는 그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 주었다. 이는 분명 일본을 미국이 기획한 지역 및 세계 전략으로 몰아붙이려는 고이즈미의 결심이 워낙 확고했기에 야스쿠니의 존재가 커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이즈미의 후계자들은 비록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망설였으나, 갈수록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일본의 군사적 활동범위를 확장해갔다. 일례로 아베 전 총리의 경우, 헌법을 수정하려는 과정에 돌입하기도 했다. 거번 매크맥이 관찰했듯이, 갈수록 커지는 일본의 대미 의존과 종속에 필요한 것은 민족주의라는 극장이다. 그런 극장이 있어야 민족주의를 일본 국민들의 구미에 좀 더 잘 맞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의식과 상징을 써서 긍정하고 찬미하게 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육해공 자위대를 페르시아만의 전쟁 지역

에 파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동아시아의 영국이 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류의 야단스러운 의식과 유숙칸을 통해서 하는 것과 유사한 교육 활동이 필수적이다. 민족주의자들의 허장성세는 지나친 대미 의존이라는 현실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이즈미와 아베, 후쿠다 내각이 이라크전쟁에서 수행한 대미 지원과 부시 행정부의 전 지구적 ‘대테러 전쟁’ 덕에 야스쿠니 민족주의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야스쿠니 민족주의는 태평양전쟁의 합법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를 강화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태평양전쟁에서 생긴 미일 간 충돌을 떠올리게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강화된 미일안보조약과 충돌할 잠재성을 지닌다.

법과 정의에 대한 국제 규범을 비웃는 부시 정부를 비판하는 나라들이 많아진 오늘날,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와 관타나모 감옥 수감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하면서 제네바협약을 비웃고,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나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경제 문제에서 군사 문제로 개입을 확장하는 미국의 야망에 일본이 온순하게 따르는 현실은 자민당이 국내에서 민족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성명서 구실을 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중요성을 더욱 키운다. 이를 달리 말하면, 미 해병대 8,000명을 오키나와에서 괄으로 이동시키는 비용으로 60억 달러(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액을 대고, 일본과 오키나와, 더 나아가 아태지역 곳곳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구축 시기에 맞춰 이 지역 내에서 더욱 확장된 군사적 역할을 하려는 데 열심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확장하기 위해 뭘가를 더 내놓으려면 무엇보다 국내에서 민족주의 신조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점 진화해가는 이 동맹의 성격은 아태지역과 중동을 담당하는 미 1군단의 지역 본부를 워싱턴주에서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캠프 자마로 이전한 사실, 그리고 일본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의 생명선을 지키겠다고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과 이 지역의 ‘대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주둔을 목적으로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에 해상사위대를 파견한 사실에 잘 나타난다. 2006년 6월에 괄 근해에서 닷새에 걸쳐 미군 주도로 실시된 ‘용감한 방패’ 작전은 요코

스카에 기반을 둔 키티호크 함대와 기타 일본에 모항이 있는 군함들을 포함하여 모두 세 척의 항공모함과 25척의 군함을 동원한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의 육해공군과 해안경비대가 한곳에 모여 실시한 군사훈련이었다. 베트남전쟁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행한 것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이 군사훈련에는 오키나와에 기지가 있는 미 해병대 제3원정대와 제5공군을 포함하여 22,000명의 병력에 280대의 전투기가 참여했다. 중국에서도 장교 한 명을 옹저버로 보내 이 훈련에 참여하긴 했지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그 때문에), 어쨌든 이는 북한과 중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 신호였다. 야스쿠니 현상을 이해하는 이의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덕에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들인 아시아 이웃 국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래, 중일 및 한일 간 경제 관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다. 그러나 정치적 관계를 보면 가장 좋을 때라고 해도 번덕이 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중 두드러진 사례는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다오위다오/센카쿠 및 오키노토리시마를 두고 벌이는 영토분쟁이다. 일본과 한중 사이의 긴장 관계는 천연가스과 어업권 문제는 물론 야스쿠니신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대변되는 전쟁기억과 뒤엉켜 더욱 크게 달아오르는 중이다. 일본과 이웃 국가들 간의 외교 문제는 식민주의와 전쟁이라는 미해결의 역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형성된 중요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영토 및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야스쿠니 민족주의로 인해 더 커지고, 이는 또다시 일본의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적 반응을 되살리면서, 팽창하고 있는 경제·문화적 관계에 내재한 기회들을 탕진하게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신 야스쿠니 민족주의는 일본을 법정에서 세워 반평화·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리고, 전범으로 유죄가 입증된 7인의 최고위 군사·정치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명한 도쿄재판의 판결을 통해 영구히 남게 된 일본제국과 15년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인 해석을 받아

들이는 데서 오는 깊은 불안감도 반영한다. 다시 말해, 만일 야스쿠니 민족주의가 한국과 중국을 직접적인 과녁으로 삼아 도쿄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문을 던지고, 그 전쟁이 아시아를 해방시키려던 일본의 노력이라는 등 전시 천황 중심의 민족주의라는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일본의 전쟁과 식민주의의 미덕을 강조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유슈칸 박물관이 이 새로운(사실은 오래된 것이다) 야스쿠니 민족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쟁과 그 전쟁이 남긴 유산, 다시 말해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국가에서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IV. 21세기의 민족주의와 전쟁

일본의 야스쿠니 문제는 민족주의가 우리 시대를 압도하는 이념이라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전쟁과 국제적 갈등의 시대에 나오는 언론 발표와 대중들의 의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동북아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국가 사이를 갈라놓고 대중의 정서에 불을 지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 민족주의일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는 미소 대결 시대의 종말과 강대해진 중국의 등장, '대테러전'과 관련된 미국의 호전적 행위 등에 부추김을 받아 아시아 곳곳에서 새로운 분출구를 찾고 있다. 20세기를 통틀어 민족주의는 세계 어디서나 전쟁의 시너노릇을 해 왔다. 전쟁은 민족주의에 강력한 자극제 구실을 했고, 다시 민족주의는 여러 나라를 연거푸 전쟁으로 내몰았으며, 지금 그 전쟁들이 남긴 기억은 민족주의 역사 유산의 틀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을 통한 민족주의와 관련된 미국의 신사, 다시 말해 미국의 야스쿠니

신사는 그동안 이 나라가 수행한 여러 전쟁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납골당이라 할 알링턴묘지이다. 미 육군이 관리를 맡고 있는 이 묘지에는 26만 명이 넘는 영령들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는 묘비가 없다. 그대신 일본인들만이 아니라 일제의 황군 소속으로 참전한 5만여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 대만인 전사자들까지 포함된 명부가 신사의 문화적 중심으로 보존되어 일본의 역사적·종교적 상상력에 핵심 구실을 하고 있다.⁸⁾ 사실 미국의 전쟁 민족주의는 전장에서 산화한 미군 전사자들을 추적하여 주검을 회수하는 활동이 필수적인데,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우쓰미 아이코의 지적대로, 백만 명이 넘는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채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⁹⁾ 이를 두고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했고 미국은 오늘날 세계의 패권국가이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 못지않게 전몰장병의 추념과 관련된 일본인들의 관념이 미국인과 다른 이유도 크다. 미국은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국과 인도차이나, 이라크에 있는 전장까지 가서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해 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당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몰자들의 유해를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령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는 데 있다. 패전 이래로 일본이 아태지역 곳곳에 널린 수십만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공식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야스쿠니와 알링턴 두 장소가 공유하는 사항은 미국과 일본 모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정의롭고도 영웅적인 전투를 치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찬미하는 전쟁기록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역사를 기념할 때는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겨 다른 전쟁들보다 우

8) Andrew M. McGreevy, "Arlington National Cemetery and Yasukuni Jinja : History," *Memory, and the Sacred*, Japan Focus, <http://japanfocus.org/products/details/1786>

9) Mark Selden and Alvin So eds., 2004, "Japanese Racism, War, and the POW Experience," *War and State Terroris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Asia-Pacific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Lanham : Rowman & Littlefield, pp. 119~142.

선시한다. 예를 들어, 알링턴에 가서 미국이 그동안 치른 전쟁에 대한 자기비판적 반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전쟁 중에 희생자들이 처했던 곤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기나긴 20세기 내내 계속된 전쟁에서 미국이 까마득히 떨어진 전쟁터와 어떤 경제적·전략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욱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더욱 보기 어려운 내용은 60여 개가 넘는 일본 도시에 대한 소이탄 공습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탄 공격,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에이전트 오렌지와 네이팜탄 공격,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에 대한 조직적 고문 등 최고위층의 허락에 따라 미군이 저지른 갖가지 잔혹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인식이다.

전쟁기념관은 어느 곳에 있건 (오키나와의 것은 드문 예외에 속한다) 전쟁에 나선 조국의 용기를 찬미하고 자국 군대의 고통만을 인정하는 한편, 민간인의 죽음과 고통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기념관에서는 군관민을 두고 말할 수 없이 사악한 공동의 적에 맞선 완벽한 합일체로 정의내린다. 민족주의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이 그랬듯이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전쟁에 깃든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나, 오늘날의 일본에서 보듯 국가가 행하는 상징적 행위가 전쟁 피해자들에게 반감을 사거나, 화해를 가로막거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만들어낼 때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미일의 전쟁 민족주의는 미국의 점령 정책과 그에 따라 형성된 미일 간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나온 결과와 뒤엉켜 있다. 그러나 눈을 국제적으로 돌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국경을 벗어난 곳에서 거의 끊임없이 전쟁에 몰두한 나라를 꼽자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집중되어 왔다. 아마도 이는 미일 두 나라 중 일본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제는 영구적 전쟁 구조에 뿌리를 내린 미국의 신민족주의의 성격을 인식하고 분석할 때가 되었다. 여기에는 1,000군데가 넘는 해외 군사기지를 연결하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영구히 지속되어야 할 ‘대테러전’을 세계를 위한 미국의 임무로 보는 전략적 개념에 제도적인 기반을 둔 미국의

전쟁 목표는 꺾박받는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형태와 역사기억을 비교해 보면,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저들의 전쟁기록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위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앞서 일본이 야기한 전쟁과 잔혹행위와 식민주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한 사과와 배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런 수단은 희생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일본과 이웃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태평양전쟁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결론 도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이웃 나라를 침략한 지 60년이 흘렀다는 사실은 공통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장차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옛 전쟁의 유령들을 쉬게 하는 데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민족주의와 전쟁 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는 논의에서 필자는 모든 민족주의를 동등하게 여기고 싶지는 않다. 특히 침략과 식민화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인 반식민 민족주의와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는 분명히 구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민족주의와 피해자의 민족주의는 둘 다 끝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로운 맹목적 애국주의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V. 야스쿠니 정치에서 아태지역 갈등 감소와 통합으로

필자는 천황 중심의 민족주의와 대결의 재연을 으뜸으로 여기는 역사적 기억에 바탕을 둔 야스쿠니 정치학을 넘어선 저 앞을 내다보면서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 내 화합의 싹으로 돌아날 희망찬 대안들에 대해, 또 최근

몇 년 동안 강력한 반동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히 이어지는 경제적 통합과 문화적 교류의 힘을 북돋우는 긴장 감소의 가능성에 대해 잠시 숙고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의 500년 역사에서 세 번째로 맞는 위대한 시기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18세기에 그 정점에 이르렀던 중국 중심의 조공 무역 질서,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의 시대였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 중심으로 펼쳐진 대동아공영권 시기에 뒤이은 것이다. 종전 후 미국이 패권을 잡고 아시아에 세운 질서는 19세기의 식민주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통합보다는 지역의 분열·분리에, 그리고 미국의 패권 지역 내에서 양자 간 보안과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특권에 그 기초를 두었다.

1970년에 시작된 미중 간 수교와 20세기 마지막 십수 년 사이에 피어난 아시아 경제의 부흥은 지역 내 유대관계가 재구축되고 중국이 지역 및 세계의 강자로 재부상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았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유럽연합과 같이 유럽의회와 공통 통화, 공통 사법조직 등을 통해 구현된 것과 같이 긴밀한 정치적·안보적·법적·외교적 통합을 낳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역 내 경제적 통합은 무역과 투자, 기술 이전 등의 면에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은 현재 서로 최고의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 파트너가 되었고, 종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세 나라 모두 아시아 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 지역에서 미국은 전략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와 금융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은 쇠퇴일로로 걸었다. 최근 몇 년간은 이 같은 지역 통합의 유형은 영화와 TV,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놀랄 만한 수준의 문화적 교류(비록 외국인 혐오증적 반응이 없지는 않았으나)에 따라 크게 강화되었다. 한중일 삼국의 교류는 특히 문화 영역에서 커다란 역동성과 강렬함을 보여 왔다. 이와 동시에 아세안, 최근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에 집중된 지역 통합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지역 문제에 활발히 간여하게 되고 일본은 좀 더 과묵

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북핵과 조미 관계에 초점을 맞춘 6자 회담에서도 반복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다른 지역 조직들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중에서도 남아시아 지역연합(SAARC)과 러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상하이 그룹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외교가 활발하다는 점과 그런 중국을 상대로 미일이 경쟁한다는 점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요약하자면, 중국이 최근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일본은 경제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대미 종속적 동맹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며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역 내 조직에 별로 간여하지 않았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상호 협조적인 경제·문화적 영역에 내재한 협조적이고 조화로운 가능성들을 인식하는 데에는 주요한 장애물들이 있다. 일본의 민족주의 또는 미일이 주도하는 질서의 정치적·전술적 차원과 충돌할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두 국가의 지정학적 요인은 떠오르는 중국을 누르고 한국의 통일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새 천년의 중심 딜레마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보다야말로 불타오르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남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내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갈등의 악순환을 더욱 키울 뿐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자기 조국과 거기서 생긴 민족주의의 뿌리 및 결과,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협조적 전망의 존재와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전과 함께 찾아온 막강한 영향력 덕에 미국은 오랫동안 자신의 잔혹 행위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미국의 잔혹 행위는 특히 두드러지는 것만 보더라도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탄 공격에서 절정을 이룬 일본 도시에 대한 공습 작전, 대부분이 민간인인 한국인 200여만 명, 베트남인 200~30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책, 그리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영토 대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불러온 정책 등이 있다.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평가는, 특히 미국인에 의한 것이라

면, 반드시 미일 관계라는 변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일 양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를 되돌아보고, 정부에 의한 사과와 보상이라는 형태를 통해 죄과를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기나긴 20세기를 통틀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역사는 대개 국가와 국가가 벌인 전쟁, 국가가 관련된 민족주의 의제 사이에 나란히 붙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자랑스러운 전통도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두드러지게 기여한 바가 있다. 사실 난징 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신사, 731부대 같은 일본의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에 관한 탁월한 연구는 바로 그런 기여에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저항을 꺾어버리기 위해 적용한 일본군의 산코 사쿠센(三光作戰, 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뺏어라)은 중국이나 기타 외국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진정한 소명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호전적인 민족주의의 편협한 논리를 뛰어넘고, 침략 전쟁과 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을 통제하려는 중요한 노력에 기여하는 윤리와 국제법의 잣대를 자기 조국에 우선적으로 들이대어야 한다.

역사는 중요하다. 독일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전쟁에 이은 화해의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기억상실증을 이겨내고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를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데 있다. 가장 악독한 잔학 행위는 반드시 침략 국가가 저지르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잔학 행위나 전쟁 범죄가 침략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전쟁이 남긴 해로운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지금, 아태지역은 60년 전에 끝났으면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기억을 진동시키는 전쟁에서 미해결로 남은 전투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치러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ABSTRACT]**War, Historical Memory and the Future of the Asia Pacific: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Yasukuni Problem**

Mark Selden

The issues that continue to swirl around Yasukuni Shrine, the military comfort women, the Nanjing Massacre and other controversies rooted in colonialism and the Asia-Pacific War are critical to the future of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US-Japan relationship. Why, six decades later, at a time when Cold War passions have faded, and when the economies and even cultures of China, Japan and Korea are deeply and positively intertwined, do the issues of war, war memory, and war representation repeatedly threaten to explode into regional and global conflict? Are the memory wars reenacted by historians, social scientists and humanists condemned to reify indefinitely the national and nationalistic premises that underlie these persistent disputes and pave the way to conflict and war?

In addressing these issues, I will foreground the “Yasukuni problem,” perhaps the most intractable of these volatile questions because it is so deeply embedded in the complex set of issues surrounding Japanese empire, war, emperor, religion and identity. I hope thereby to clarify issues of comparative nationalisms, to show the ways in which Yasukuni issues are deeply intertwined with the US-Japan relationship, and to point to certain distinctive charac-

teristics of Japanese nationalism that have made the problem so intractable. It is important to state clearly at the outset the reason for undertaking this analysis: it is to search for resolution of the problem in ways that will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nations and peoples of 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including Japan, Chin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will emphasize three points about the “Yasukuni Problem” and contemporary nationalisms that seem absent in much of the discussion in Japan, Asia and internationally. The first is the need to transcend an exclusively Japanese perspective by locating the issu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Japan-US relationship that has dominated Japanese politics for more than six decades; the second is the importance of locating “Yasukuni nationalism” within the broader purview of competing nationalisms in the Asia Pacific, including Chinese, Korean and US nationalisms; the third requires that we deconstruct “the Japanese,” to recognize deep fissures among the Japanese people with respect to Yasukuni, nationalism, the emperor in whose name Japan fought, and memories of colonialism and war.

keywords

war, historical memory, the future of the Asia Pacific, Yasukuni Problem, history matters, reconciliation, war crimes, US-Japan alliance, Yasukuni nationalism, state terrorism

타이완의 야스쿠니신사 문제

- 역사 인식과 충돌 -

위나이밍[于乃明] | 타이완정치대학 교수

I. 머리말

현재 야스쿠니[靖國]신사에는 일본 메이지 전후부터 수행한 일본의 국내외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 명의 혼령이 모셔져 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전사자로, 약 210만 명에 달한다.¹⁾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혼령을 모신 엄숙하고 신성한 야스쿠니신사가 왜 아시아 각국에서 끊임없는 정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야스쿠니신사에 당시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되어 목숨을 잃은 약 2만 8천 명의 타이완인과 약 2만 1천 명의 조선인 혼령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8년부터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을 지휘하여 아시아, 특히 한중일 삼국에 엄청난 사상자를 낳은 일본의 A급 전범 14명의 혼령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이다.²⁾ 또

1) 陳學文, 2001, 「靖國神社與日本軍國主義」, 『歷史月刊』 163, 112쪽; 「國際輿論嚴厲抨擊」, 『中國人民日報』, 2001. 8. 16; 「日本爲何不認真反省歷史」, 『中國人民日報』, 2001. 8. 16.

2) 小堀桂一郎, 2004, 「靖國·英靈「分祀」論の妄を弁ず」, 『正論』 2004年 5月號, 60~

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등은 총리 임기 중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피해국들에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떠올리게 했다.³⁾

특히 고이즈미는 2005년에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발언하여 중국대륙과 한국의 비난을 샀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후 1895년 일본에 할양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타이완[臺灣]에서도 고이즈미 발언을 계기로 2005년 경부터 야스쿠니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타이완에서 야스쿠니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臺聯黨의 주석 쑤진창[蘇進強]이 2005년 4월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두정성[杜正勝]이 쑤진창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무소속의 입법위원 가오진 쑤메이[高金素梅]와 국민당 입법위원 리칭화[李慶華] 등이 이를 비난하였다. 이를 계기로 타이완인들도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타이완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에스닉 그룹 사회이다. 즉 타이완 원주민이 2%이며, 明末 이래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사람들(本省人이라고 한다)은 민난[閩南]족 73%, 하카[客家]인 12% 정도이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 직후부터 1949년 10월 장제스[蔣介石]의 피난 때에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外省人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13% 정도이다. 이들은 민족별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나 민족 정체성이 매우 달랐으며, 당연히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타이완인들의 관심은 많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 문제가 역사·정치와 관련된 비교적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 논문도 많지 않다.⁴⁾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신문 등의 기사를 바탕

69쪽.

3) 陳學文, 2001, 앞의 글, 110쪽.

4) 타이완의 야스쿠니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王清峰·高金素梅, 2005, 「參拜靖國神社—道 ! 謝罪! 賠償!」, 『海峽評論』 173 ; 高金

으로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해 타이완의 민족별 관점을 대표하는 민난족 출신의 리덩후이[李登輝]와 타이완 원주민 출신의 가오진 쑤메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현재 타이완인들이 야스쿠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민난족과 야스쿠니신사 - 리덩후이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올해 나이 86세의 리덩후이는 타이완 총인구의 73% 정도를 차지하는 민난족 출신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타이완 제7대~제9대 총통과 중국 국민당 당주석을 겸임했던 인물이다. 그가 재임한 12년간의 공과 실에 대한 평가도 입장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그는 장징궈[蔣經國]의 만년의 정책을 이어받아 타이완의 개방과 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당 내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臺灣化를 추진하고 兩岸 관계를 긴장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타이완과 대륙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리덩후이는 선거 표심을 고려해 臺灣化를 강조하면서 중국적인 색채를 약화시켰다.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도 중국 역사를 자국사로 가르치던 것을 바꾸어 타이완 역사만을 자국사로 가르치기 시작하여, 중국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나 마찬가지로 되었고, 항일 내지는 반일과 관련된 내용도 줄어들었

素梅, 2005, 「日與夜不能竝存：加害者和被害者的靈魂不可能和平共存—強烈抗議「臺聯」赴日參拜靖國神社」, 『海峽評論』 173 ; 傅琪貽, 2005, 「靖國神社與臺灣高砂義勇隊」, 『日本綜合情報』 5 ; 江迅, 2005, 「小泉不參拜靖國神社?」, 『亞洲週刊』 19-2 ; 高橋哲哉, 2006, 「靖國是日本的 문화嗎?」, 『二十一世紀』 90 ; 黃自進·李宗儒, 2006, 「中日歷史認知的衝突—以首相靖國神社參拜為例」, 『東亞論壇』 453 ; 劉江永, 2006, 「從日本宗教文化角度看靖國神社問題」, 『歷史月刊』 217 ; 高橋哲哉, 2007, 「靖國問題和歷史認識」, 『文化研究』 4 ; 中島光孝, 2007, 「還我祖靈：臺灣原住民族和靖國神社」, 人間.

다. 이러한 조치는 민난족의 정치적 응집력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리덩후이의 타이완화를 민난족 출신의 천수이벤(陳水扁)도 이어갔다. 국민당 주석을 역임했던 시기, 리덩후이는 국민당을 國民黨, 新黨, 親民黨으로 나누었는데, 2000년 국민당이 집권에 실패하자 그는 다시 臺灣團結聯盟(臺聯黨)을 창설해 집권당인 民進黨과 최대 야당인 國民黨에 견줄 제3세력을 형성하였다.

리덩후이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은 기존 국민당 주류와는 크게 달랐다. 이는 민난족의 과거사와 관련이 있다. 즉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타이완은 다시 중국령으로 수복되어 국민당 군대가 타이완으로 들어갔지만, 당시 타이완인들이 기대했던 조국의 군대는 軍紀가 허술하여 타이완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중 1947년 타이완 자치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을 국민당 군대가 학살한 2·28 사건이 발생하여 본성인의 외성인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생겼다.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옮겨온 후에는 국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반란평정 동원령을 발표하여 계엄 체제를 실시하는 등 고압적인 반공산당 통치를 실시하였다. 1949년 장제스를 따라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건너간 外省人들은 공산당이 혁명 초기 및 정권 수립 초기에 공포정치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오로 인해 국민당의 반공·백색 전제정치 실시에 대해서는 침묵 내지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취했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한 후 1979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 2·28사건과 메이리다오 사건을 경험한 타이완의 대다수 본성인들은 자연히 中華民國과 오랜 기간 집권했던 국민당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었다.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게 된 많은 본성인이 집권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들이 뒤에 民進黨을 조직하였다. 민진당에는 민난족 후예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치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서방진영의 일원인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일본에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 등 표면적으로는 배일적인 색채를 보이지 않았지만, 外省人들은 대부분 8년간 일본인에 항전했던 비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敵國 일본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 排日的이었다.

그러나 총통 재임 중에 리덩후이는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스물두살 전에는 일본인이었으며⁵⁾ 일본 식민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토대학에서 수학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이전에 일본인이었음을 자처한 리덩후이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그는 중화민국의 현직 원수이며 국민당 주석이었으므로, 베이징에서뿐만 아니라 타이완 내에서도 국민당, 신당, 친민당 및 대부분의 매스컴의 질타를 받았다.

리덩후이는 일본과 줄곧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에는 타이완 교포와 친타이완파 일본 인사들로 이루어진 리덩후이 클럽이 있을 정도로, 그는 정계·학계·재계를 막론하고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2000년 총통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일본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압박하였으므로 처음 두 번은 도쿄[東京]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일본 아키타 國際教養大 총장 나카지마 미네오[中嶋嶺雄]의 배려로 부인 청원후이[曾文惠], 며느리, 손녀, 臺灣獨立建國聯盟 주석 황자오탕[黃昭堂] 등과 함께 학술·문화 교류라는 명목으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된다.

그의 방문으로 일본에는 리덩후이 열풍이 불었지만,⁶⁾ 타이완 각계 인사들은 리덩후이의 방일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했다. 당시 타이완에서는 장제스의 기념관인 中正紀念堂의 명칭을 '國立臺灣民主紀念館'으로 바꾸려 하였던 中正紀念堂 正名 사건을 계기로 '일본 통치 시대의 타이완 역사를 어떻게 재인식해야 할까'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따라서 일본 방문 때의 리덩후이의 행위는 고찰할 만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당시 그가 주로 방문한 지역

5) 司馬遼太郎, 1995, 「續 李登輝さん」, 『街道をゆく40, 臺灣紀行』, 朝日新聞社, 104~105쪽; 司馬遼太郎, 1995, 「續 李登輝先生」, 『街道漫歩 臺灣紀行』, 東販出版社, 116~118쪽. 2007년 6월 6일자 『聯合報』의 사설 「社論 李登輝日本行: 皇民遊子衣錦返鄉?」에서는 李登輝가 22세까지 자신은 일본인이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였다.

6) 「都跟臺灣沒關係?」, 『聯合報』, 2007. 6. 1.

은 도쿄와 아키타(秋田)로, 그는 일본 동북 지역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다.

그러다가 6월 7일 그는 갑자기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62년 전 자원병으로 南洋에서 전투하다 필리핀에서 전사한 큰형을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힌다.⁷⁾ 리덩후이의 큰형은 당시 전투 중에 전사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었다. 그의 생전 사진이 야스쿠니신사의 유슈칸(遊就館)에 있는데, 이름은 리덩진(李登欽)이며, 일본 이름은 이와사토 다케노리(岩里武則)이다. 야스쿠니신사는 ‘海軍上等 機關兵 이와사토 다케노리, 昭和 20년(1945) 2월 25일 전사, 전사장소 루손섬 마닐라시’라고 기재하였다.⁸⁾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리덩후이의 굳은 결심은 일본과 해외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 측은 일본 측이 리덩후이의 방일을 돕는 것은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중일 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리덩후이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결정은 개인의 신앙적인 자유이므로, 그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덩후이가 야스쿠니신사 방문을 결정하자, 타이완에서는 다시 한번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비판의 화살을 날린 타이완 원주민 출신 입법의원 가오진쑤메이의 공격에 이어 국민당 입법의원 왕진핑(王金平), 홍시우주(洪秀柱), 레이시 조안나, 親民黨 주석 제임스 쑹추위(宋楚瑜) 등이 비판을 퍼부었다. 그러나 민진당 입법의원 가오즈펑(高志鵬), 臺聯黨 주석 쑤진창 등은 리덩후이를 옹호했다.

리덩후이는 일본의 전 문부대신 미우라 슈문(三浦朱門)과 그의 작가 아내 소노 아야코(曾野綾子)를 대동하고 야스쿠니신사에 도착했다. 야스쿠니신사의 난부 토시아키(南部利昭) 宮司는 성대한 환영의식으로 그를 맞이했으며, 신사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리덩후이는 유족의 신분으로 본전에 참배했다. 그는

7) 「拜胞兄李登輝今赴靖國」, 『聯合報』, 2007. 6. 7; 「李登輝今到靖國神社參拜」, 『自由時報』, 2007. 6. 7.

8) 「李登輝參拜靖國神社」, 『自由時報』, 2007. 6. 8.

일본 神道の 정화의식을 받고 본전에서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려 절한 후 목도를 하여 형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해 그가 60여 년 동안 품어온 소원을 풀었다. 리덩후이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자신의 형을 위해 제사를 지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신사에 헌금도 했다.⁹⁾

리덩후이가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한 것은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마음속에 간직한 염원을 풀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수상급의 대우를 해준데다, 원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체가 상징적으로 군국주의를 연상시켰으며, 게다가 야스쿠니신사 방문 전후 그의 여러 가지 언행이 타이완 내 많은 반대파의 불만을 샀다. 예를 들어 그는 과거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면서 타이완에 문명을 가져다주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방일 기간 중에 고토 신페이학회에서 고토 신페이상을 받고,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 통치했을 때 실시한 교육이 타이완의 문명 현대화 건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고토 신페이가 그의 정신적 멘토라고 밝혔다.¹⁰⁾ 식민 통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식민 통치했던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워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국민당 입법위원 레이 시 조안나와 홍시우주는 리덩후이의 친형 '이와사 토 다케노리'의 혼령이 1983년 10월 이미 신추 페이푸[新竹北埔]의 지화[濟化]궁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전쟁에 징집되어 불행하게 전사한 타이완 국적 일본 병의 3만 명 가까운 혼령이 지화궁에 안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¹¹⁾

리덩후이는 부친 리진룡[李金龍]이 세상을 떠나기 전 큰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집안에 위패를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지화궁 측에서는 리진룡이 생전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가족 연락

9) 「李登輝參拜靖國 陣仗媲美首相」, 『聯合報』, 2007. 6. 8.

10) 「李登輝參拜靖國 陣仗媲美首相」, 『聯合報』, 2007. 6. 8; 「赴靖國神社參拜 李登輝：該做的事做到了」, 『中央社』, 2007. 6. 9.

11) 「政院：參拜靖國神社卻會引起爭議/參拜靖國神社惹非議，蘇進強：勿以北京觀點扭曲」, 『中國時報』, 2005. 4. 6; 「魂歸何處？李兄牌位20年前迎回新竹」, 『聯合報』, 2007. 6. 1.

부에 리진홍의 서명이 남아 있지만, 리덩후이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¹²⁾ 만일 지화궁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리덩후이가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역사 및 정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연상하게 한다.¹³⁾

리덩후이 반대 세력들은 식민 통치와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리덩후이가 일본인을 지나치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개인감정으로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리덩후이가 釣魚島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리덩후이는 자신의 친형의 명복을 빈다는 구실로 야스쿠니를 참배하여 일본 정치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선전하였고¹⁴⁾ 일본 병사들이 아시아의 이웃 나라를 침략한 폭력 행위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으로 합리화하였다.

이에 반해 중화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타이베이의 중례츠(忠烈祠)에 모셔진 영령에 대해서는 타이완을 위해 전사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죽음이 대부분 타이완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리덩후이의 이 발언은 민난족 출신의 民進黨와 臺聯黨 사람들의 중례츠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민난족 출신의 젊은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북벌, 공산당 소탕, 항일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뿐 아니라, 1958년 중국이 타이완 군사기지 金門을 포격하였을 때 전사한 병사들, SARS가 유행한 시기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료진 등이 중례츠에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은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¹⁵⁾

리덩후이는 중례츠와 야스쿠니신사를 함께 언급하여 심지어는 중례츠의

12) 「魂歸何處? 李兄牌位20年前迎回新竹」, 『聯合報』, 2007. 6. 1.

13) 「社論 李登輝日本行: 皇民遊子衣錦返鄉?」, 『聯合報』, 2007. 6. 6.

14) 「參拜靖國挨批 李: 是個人的事」, 『聯合報』, 2007. 6. 10.

15) 「拜胞兄李登輝今赴靖國」, 『聯合報』, 2007. 6. 7; 「忠烈祠無臺灣魂? 阿輝伯錯了」, 『聯合報』, 2007. 6. 10.

가치와 의미를 고의적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반대자들은 리덩후이가 일본에 아첨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리덩후이가 정말 타이완의 영웅인지, 일본의 어둡광대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¹⁶⁾ 리덩후이는 일본 방문기간 동안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으며, 줄곧 기분이 좋아 보였다.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 빈틈없는 환대를 받아, 리덩후이는 기분 좋은 방일 일정을 마쳤다.

그러나 많은 타이완인은 전에 살던 곳을 방문한 노인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었다. 일본인이자라면 침략한 일본의 죄행에 대해 가장 큰 위안이 되므로 교토를 그리워하며 일본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타국의 국가 원수를 해외에 유랑하는 진귀한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¹⁷⁾ 그러나 리덩후이를 지지하는 臺聯黨은 리덩후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타이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타이완인의 역사와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상처를 건드려 또 다시 타이완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리덩후이는 심지어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처리하는 데 너무 약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야스쿠니 문제는 원래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만든 것이며, 중국과 남한 정부가 국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이 문제를 빌미로 관심을 돌리려 하였다고 말하였다.¹⁸⁾ 리덩후이의 발언을 지지하는 측은, 심지어 ‘泛藍陣營(국민당)’이 중국을 따라 춤추고 있으며,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전범 14명을 들먹이며 리덩후이를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중심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¹⁹⁾ 리덩후이는 일본에서 「2007년 이후의 세계정세」를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과 도전을 가볍게 생각해서

16) 「社論 李登輝日本行：皇民遊子衣錦返鄉?」, 『聯合報』, 2007. 6. 6.

17) 「輝伯訪日 臺日右翼合謀?」, 『聯合報』, 2007. 6. 3.

18) 「參拜 靖國挨批 李：是個人的事」, 『聯合報』, 2007. 6. 10.

19) 「一邊批戰犯一邊拜元兇」, 『自由時報』, 2007. 6. 1 ; http://www.hi-on.org.tw/bulletins.jsp?b_ID=69598.

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덩후이의 친일·반중국적 성향은 리덩후이의 일본 콤플렉스를 잘 보여준다.²⁰⁾

리덩후이가 귀국하자 대련당과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공항에 나가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그를 환영했다. 리덩후이의 야스쿠니 방문 후 타이완 내에는 리덩후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는 야스쿠니 문제가 단순한 종교·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과 정치적 입장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리덩후이에 대한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는 타이완 내 중국 반대 세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리덩후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총리였던 아베 신조[安倍晉三]는 그가 리덩후이의 팬이며, 앞으로도 리덩후이를 힘껏 받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리덩후이가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기 드문 주요 외국 정치인이라면서 리덩후이에게서 일본의 전통 정신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한 현대화된 민주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²¹⁾ 아베 신조 외에도 그가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에서 용감히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한 일본인들이 많았다. 그의 행위는 중국의 발전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던 일본을 크게 고무하는 것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이완 매스컴에서는 과거 살던 곳을 돌아본 리덩후이의 문화·학술적인 방문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각각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젊은이들이 새로운 첨단된 일본 상품을 좋아하지만 말고, 과거 식민지였던 타이완을 포함하여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의 비참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이상 리덩후이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일본에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민난족 출신의 60세 이상의 民進黨과 臺聯黨 지지자들의 일본에

20) 「李參拜靖國神社‘哥可享冥福了」, 『自由時報』, 2007. 6. 8; 「阿輝伯 斯德哥爾摩症?」, 『聯合報』, 2007. 6. 10.

21) 陳宗逸, 2007, 「李登輝訪日掀旋風 另類臺灣奇蹟」, 『新臺灣新聞』 585; <http://www.newtaiwan.com.tw/bulletinview.jsp?bulletinid=69730>.

대한 생각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민진당 인사들은 올해 (2008)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잉지우[馬英九]가 장제스와 장징궈의 유해를 안치한 츠후[慈湖]의 兩蔣靈을 참배한 것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²²⁾ 그들은 많은 타이완인을 살해한 장제스가 일본의 A급 전범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반정부에서 말미암은 반국가적 의식은 민난족 출신 타이완인이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바라보는 정신적인 배경이 된 것이다.

Ⅲ. 타이완 원주민과 야스쿠니신사 - 가오진 쑤메이와 오사카 소송

야스쿠니신사와 관련된 타이완의 또 하나의 대표적 인물은 연예인 출신의 원주민 입법의원 가오진 쑤메이이다. 그녀의 부친은 안휘성 출신의 外省人이며, 어머니는 타이완 원주민 타얌[泰雅]족 출신으로, 가오진 쑤메이의 원주민 이름은 치와스 아리다.²³⁾ 현재 타이완 내 원주민은 48만 9천 명 정도로 타이완 전체 인구의 2%(2008. 6. 현재) 정도를 차지한다.

타이완 원주민은 일본 식민 통치 시기에 고압적인 통치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南洋으로 징집되어 일본을 위해 싸워야만 하였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 통치 시기 일본인에 의해 징집돼 남양으로 파병된 후 타향에서 전사한 원주민 다카사고[高砂] 의용대의 혼령이 모셔져 있는데, 그녀는 원주민 신분으로 야스쿠니신사와 계속해서 교섭하였다. 2002~2006년까지 그녀는 다

22) 「且看『百舉待廢』, 『聯合報』, 2008. 4. 10; 「馬英九的靖國神社」, 『自由時報』, 2008. 4. 6.

23) 中島光孝, 2006, 『還我祖靈-臺灣原住民と靖國神社』, 白澤社, 36쪽.

카사고 의용대원 후손들과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여러 차례 방문해 선조들의 혼령의 합사철폐를 요구했다. 또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일본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야스쿠니신사에서 원주민의 혼령을 제사 지내면서 후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면서 일본 측에게 정신적인 배상으로 일화 1만 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쿠니신사와 정교 분리 문제에 대해 가오진 쑤메이가 일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의 관심이 쏠렸다. 이것은 가오진 쑤메이가 타이완 원주민 조상을 위해 일본 총리, 일본 정부, 야스쿠니신사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보상을 요구한 사건인데 꽤 소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는 타이완 야스쿠니 소송으로 불리는데, 아시아 국가가 제기한 9건의 소송 중 하나이다. 2005년 이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 타이완의 신문 보도는 많지 않아서 주요한 보도는 단지 『신신원(新新聞)』이라는 주간지에만 보도되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매스컴, 심지어 NHK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이나 집중 보도하는 등 타이완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다.²⁴⁾

가오진 쑤메이는 타이완 원주민 입법위원 신분으로 개인적으로 기부를 받아 여행 경비를 만들었다. 그녀는 2002년 8월 12일 다카사고 의용대 유족들과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가서 조상들의 혼령 합사를 중지하고 조상의 혼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스쿠니 측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혼령은 共通神이므로 분리해 제사지낼 수 없으며, 당시 원주민들은 일본인 신분이었다고 하면서 가오진 쑤메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²⁵⁾ 그러자 그녀는 2003년 2월 17일 원주민 유족 124명과 함께 오사카 지방법원에 야

24) 「高金素梅跨海控訴為兩代滅族討公道」, 『新新聞』 851, 2003. 7. 37~42쪽; 「臺灣民衆控告小泉參拜神社」, 『BBC Chinese網站』, 2003. 2. 17; http://news.bbs.co.uk/chines/trad/hi/newsid_2770000/newsid_2770700/2770701.stm; 「臺灣原住民赴日討公道」, 『新新聞』 851, 2003. 7; 「抗議小泉再參拜靖國神社-韓國退伍兵殺豬洩憤」, 『中國日報網站』, 2002. 4. 24; <http://big5.china.com.cn/chinese/WISI/137158.htm>.

25) 田中伸尙, 2004, 「小泉靖國參拜違憲訴訟」, 『世界』 726, 45쪽.

스쿠니신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리고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²⁶⁾

가오진 쑤메이는 일본 점령 시기에 타이완의 원주민들이 2세대에 걸쳐 일본인의 폭력에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원주민들로 구성된 다카사고 의용대가 일본에 강제 징집되어 남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하여, 야스쿠니신사에는 그 혼령이 합사되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타이완인 2만 7836명의 혼령이 합사되어 있는데, 그중에 타이완 원주민 조상의 혼령도 포함되어 있다.

가오진 쑤메이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²⁷⁾ ① 일본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²⁸⁾ ②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²⁹⁾ ③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원주민 후손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정신적인 배상과 함께 이후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가오진 쑤메이의 타이완 야스쿠니 소송 건에는 타이완인 외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원고로 참여했다. 그녀를 도운 타이완 학계 인사로는 푸치이[傅琪貽, 과거 일본 이름 藤井志津枝], 이장이[伊章義], 샤주지우[夏鑄九] 등이 있었는데,³⁰⁾ 푸치이의 선생 쉬지에린[許介麟]은 타이완의 권위 있는 일본 정치 연구가이며, 하카[客家] 출신이었다.

가오진 쑤메이의 반대 세력은 쉬지에린을 국민당의 어용학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장은 하카 출신이었으며 샤주지우는外省人 출신의 학자였다. 가오진 쑤메이의 소송을 책임진 일본 변호단의 단장은 종교계 인물로, 그는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야스쿠니신사의 명망을 높이기 위한 행위

26) 田中伸尙, 2004, 앞의 글, 45쪽.

27) 田中伸尙, 2004, 앞의 글, 46쪽.

28) 植村勝慶ほか, 2004, 『現代憲法入門』, 一橋出版, 56쪽; 憲法教育普及協議會, 2003, 『教科書・日本國憲法』, 一橋出版.

29) 植村勝慶ほか, 2004, 앞의 책, 57~59쪽; 澁谷秀樹, 2002, 『憲法への招待』, 岩波書店, 87~92쪽. 일본 헌법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고 공권력이 종교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해서 政教를 분리하고 있다.

30) 『臺灣原住民赴日討公道』, 『新新聞』, 2003. 7. 2.

라고 생각하여 가오진 쑤메이를 도왔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04년 2월 27일과 5월 13일에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기각당했는데, 기각 사유는 법률상 원고가 강제력이 없고, 원고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바 없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말하는 이익을 침범당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당시 오사카 판결이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가 위헌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판단을 피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오사카 판결의 소극성은 고이즈미 편들기나 마찬가지로이며, 또 고이즈미가 반드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견지하는 것은 일본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약속과 같다고 생각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가오진 쑤메이는 일본 헌법은 공직자가 공개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왜 재판장은 고이즈미 총리가 헌법을 어겼다는 것을 판결할 용기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³¹⁾ 이에 대해 일본 학자 다나카 노부마사[田中伸尚]는 가오진 쑤메이가 오사카 판결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녀가 비록 일본어나 법률 제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리한 사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³²⁾

가오진 쑤메이가 원주민 다카사고 의용대원 유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논하자, 일본 소년비행대(少飛隊로 약칭) 타이완 사무국장 치우치야오[邱其堯]는 가오진 쑤메이의 행동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그녀가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가오진 쑤메이가 이렇게 일본을 반대하고 적으로 삼고 모욕하는 의식을 선동한다면 타이완과 일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치우치야오에 따르면 과거 중일전쟁은 타이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타이완은 마땅히 일본과 같은 진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³³⁾ 그러나 치우치야오의 관점은 역사적 인식을 결여한 냉전 체제적인 사고만을 현저히 보여준다.

31) 植村勝慶ほか, 2004, 앞의 책.

32) 田中伸尚, 2004, 앞의 글, 43쪽.

33) 「台灣少飛會事務局長が高金素梅及び藤井志津江に送った抗議文」, 2003. 5. 6.
<http://myweb.hinet.net/homea/ktftw/shiohikai2.html>.

가오진 쑤메이는 오사카 소송에서 고이즈미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는 과정에서 타이완 당국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일본과 중국 관계를 고려하여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보았다. 당시 타이완에서는 민난족 출신의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있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 논점과 이와 관련된 여론의 반응에 대해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위헌임을 아시아에서 제기한 소송은 총 9건으로, 6건을 법원에서 심리하였는데, 그중에는 가오진 쑤메이의 오사카 소송 외에 도쿄,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오키나와[沖縄] 등의 소송이 있다. 오사카 소송이 2004년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기각당한 외에, 마쓰야마 지방법원도 총리의 참배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즉 고이즈미의 참배가 公務이건 사적인 행위이건 모두 원고와 관계없다고 보았다. 여론은 이러한 판결을 일본 사법 당국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⁴⁾

그러나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총리의 참배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 고이즈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8월 15일에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법원에서 고이즈미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데 중요한 쟁점은 참배 행위가 공무원이 아니면 사적인 행위인가였다.

이는 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총리가 참배하였을 때, 그리고 참배 전과 참배 후의 대응 태도가 어떠하였는가이다. 참배 당시에 ① 그는 공무원 차량을 타고 있었으며, ② 비서관을 대동했고, ③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서명했다. 또 참배 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총재로 당선되면 반드시 8월 15일 전몰자의 위령제에 참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참배 후에는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정성껏 참배하였다”고 밝혔다.³⁵⁾

34) 田中伸尙, 2004, 앞의 글, 47~49쪽.

35) 田中伸尙, 2004, 앞의 글, 21쪽.

상술한 세 가지 정황에서 볼 때,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는 분명 정치적 인 의도가 있는 공무 행위였다. 그러나 마쓰야마와 오사카의 판결은 가오진 쑤메이의 말처럼 재판장이 감히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판결 결과가 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것일까? 이는 현재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국가주의적 분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1989년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약진으로 우파 세력이 국가주의를 선동하기 좋게 되었다.³⁶⁾

현재 매해 8월 15일 종전 기념일에는 야스쿠니신사에 과거 皇軍의 유족들이 모여 전사자를 애도하는데, 이들은 '기미가요[君が代]'를 부르고 당시 쇼와[昭和] 천황의 停戰 조서 방송을 들으며 죽은 혼령을 위해 기도한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스쿠니신사가 우파 세력의 활동 거점이라고 지적하였다.³⁷⁾

마쓰야마 소송의 원고 변호단 단장인 기쿠치 마사아키[釋氏政昭]는 과거 국가와 종교가 결합하여 잔혹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도리어 반성을 몰랐다. 이것을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며 한탄하였다. 그는 이것이 國家神道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사법학자가 일본에서 타이완 소송을 심리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때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가주의 때문에 사법 심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⁸⁾

오사카 소송이 기각되자 가오진 쑤메이는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계속 싸우기로 하고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타이완인들은 가오진 쑤메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야스쿠니신사를 떠올린다. 2005년 4월에 臺聯黨 주석 쑤진창이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자 그녀는 즉각 질책을 퍼부었다. 2005년 6월 14일에는 60명의 타이완 원주민을 이끌고 또 한 차례 일본에 가서 야

36) 田中伸尚, 2004, 앞의 글, 42쪽; 「駁斥日本右翼勢力的奇談怪論」, 『中國人民日報』, 2001. 8. 15; 「日本經濟困境與右傾化」, 『中國人民日報』, 2001. 8. 18; 「從小泉靖國神社看所謂‘民族意識」, 『中國人民日報』, 2001. 8. 21.

37) 陳學文, 2001, 앞의 글, 111쪽; 楊鈞池, 2003, 「日本‘政教分離’的思想演變過程及影響」, 『新世紀宗教研究』 2卷 2期, 224~225쪽.

38) 楊鈞池, 2003, 위의 글, 221쪽.

스쿠니신사를 방문했다. 방문단에는 타얄족, 파이완[排灣]족, 부논[布農]족, 야메이[亞美]족, 다오[達悟]족, 가바란[噶瑪蘭]족, 푸이마[卑南]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는 야스쿠니신사 측의 묵인 하에 제1도리이[鳥居] 부근에서 민족 전통 복장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조상의 혼령을 타이완으로 영접하는 원주민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가오진 쑤메이의 주장은 “분명히 일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일본을 위해 순국한 신으로 받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신으로 만들어 사당에 모시는 것은 피해자인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모욕이며,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은 민족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선조의 혼백을 고국으로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날 일본 우익 세력과 경찰에 저지당했다.

2005년 6월 17일 오사카 고등법원의 ‘원고심문’ 때에 가오진 쑤메이는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왜 타이완 원주민들이 야스쿠니신사에서 조상의 혼백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설명했다. 그 결과 2005년 9월 30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일본 헌법 20조에서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³⁹⁾

가오진 쑤메이는 타이완 원주민의 조상인 다카사고 의용대원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대항하면서 일본 법정에 고소하였다. 그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정치적으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러한 행동이 타이완과 일본 간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원주민 신분으로 확실하게 발언할 수 있는 역사적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그녀가 오랜 세월 용기를 내서 일본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완의 소수민족이 일본에 가지고 있던 오랜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타이완 원주민의 후예들은, 리덩후이와 천수

39) 中島光孝, 2006, 앞의 책, 168쪽; 「小泉參拜靖國神社, 任內第五次/小泉執意參拜, 中韓抗議」, 『自由時報』, 2005. 10. 18.

이번이 집권했던 시기에 일본에 대해 취한 태도에 대해, 外省人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표명하였다.

IV. 맺음말

일본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였으나 유독 타이완만이 이와 관련해 의견이 나뉘어졌다. 이러한 정황은 타이완의 다양한 에스닉(족군)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식과 국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⁴⁰⁾

리덩후이로 대표되는 민난족의 경우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는 있지만 일본이 타이완을 점령하였던 시기에 기득권자이거나 일본 식민 통치의 수혜자로서, 1947년의 2·28사건 이후 親日·反中 사상과 감정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外省人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당 통치 집단이 전후 反共을 내세우고 타이완에서 백색공포정치를 실시하였고, 국제사회의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 국가의 중국 포위 고리의 하나로 타이완이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민난족의 親日·反中 태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 때문에 자연히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타이완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가오진 쑤메이로 상징되는 타이완 원주민과 外省人은 백여 년의 역사에서 줄곧 일본인은 가해자, 그들은 피해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히 친일 감정이 생길 수 없었다. 그런데 외성인의 경우 냉전체제가 해제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반공 의식이 약화되고, 분단 40~50년이 지나 고국에 대한 향수가 나날이 짙어지면서, 이러한 감정이 친중국적인 태도로 바뀌어, 야스쿠니 문제에서도 고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40) 「媚中仇日加深國家認同分歧」, 『自由時報』, 2005. 6. 20.

원주민에게 민난족의 조상은 수백 년간 침입자 혹은 약탈자에 불과하였으나, 결국 침입자들이 다수가 되고 자신들은 소수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타이완은 원주민, 外省人, 客家 등 소수민족이 연합하여 다수의 민난족의 정치적인 독점에 대항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것이 대세가 되었다. 정치적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서도 일치하도록 추세를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한 원주민과 外省人의 반응이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 타이완에서 선거표를 의식하고 대륙과의 교류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약화시킬 것을 두려워한 민난족은 친일·반중적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이미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민난족을 결집시켜 선거에 동원하고자 했다. 따라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그들의 표현은 다른 민족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다.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이지만, 그 주변 국가에서는 역사적·외교적 문제이다.⁴¹⁾ 그러나 타이완에서는 야스쿠니 문제가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는 타이완의 역사, 국제 환경, 정치 발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타이완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41) 「赴靖國神社祭拜 李登輝：該做的事做到了」, 『中央社』, 2007. 6. 9. <http://www.epochtimes.com/b5/7/6/9/n1738975.htm>.

[ABSTRACT]

Yasukuni Shrine Problem in Taiwan
– On historical recognitions and conflicts –

Yu, Naiming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people of Japan questions Yasukuni Shrine because of 14 convicted class A war criminals during World War II are worshipped, which shows strong militarism. They also protest against the current Prime Minister for visiting the Shrine.

However, Taiwan is a country with several ethnic groups, therefore Taiwanese have different views on Yasukuni depending on ethnic groups, which have different historical recognition and experiences.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background and reasons behind this phenomenon and to highlight the contrasting views presented by Li denghui from Minan ethnic group and Kaochin Sumei from Native ethnic group of Taiwan.

keywords

Yasukuni Shrine Problem in Taiwan, ethnic groups, historical recognition, historical experiences, Li denghui, Minan ethnic group, Kaochin Sumei, Native ethnic group of Taiwan

역사 화해를 위한 '다원주의 역사 수업' 가능성 모색

- 야스쿠니 수업을 중심으로 -

박중현 | 양재고등학교 역사교사

I. 머리말

동아시아는 역사 분쟁으로 21세기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2005년 일본에서 후쇼사판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다시 검정을 통과하였고, 독도 영유권 논쟁까지 겹치면서 동아시아는 연초부터 열전에 돌입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총리 취임 이후 2006년까지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하였다. 2005년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랭하였을 당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불가 방침을 전달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일본 외상의 예정된 방중을 거부하였고, 그 해 11월 APEC 총회 때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교과서, 독도 문제에 대하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인 군인, 군속과 그 유족 252명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무렵인 2001년 야스쿠니에 본인과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사된 명부(영세부)의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¹⁾ 2008년 6월 초부터 리이[李纒] 감독의 영화 「야스쿠니[靖國]」가 일본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 영화는 상영관을 빌려 주지 않거나 상영계획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겨우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야스쿠니신사는 ‘무단 촬영’을 이유로 장면의 삭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야스쿠니신사는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008년 5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합군총사령부의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종교시설 단체참배를 금지하면서 야스쿠니 방문도 못하게 한 1949년 문부성 지침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각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에 전달하고, 소·중학교 학교단위의 야스쿠니 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여론은 즉각 항의하였다.²⁾

일본에서 야스쿠니신사를 통한 역사 강좌는 진보적 그룹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센터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스쿠니 시민강좌를 열고 있다. 또 일부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수업을 만들고자 하였다.³⁾ 이를 접하고서 필자는 야스쿠니신사를 활용한 수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왜 역사가 재미없는 과목이 되었는가에 대

-
- 1) 장완익, 2001,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소송의 의의와 진상규명의 필요성」, 『한국인 합사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3쪽.
 - 2)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까지 이를 비판하였다(2008. 5. 26 사설 참조).
 - 3) 야스쿠니신사에 붙어 있는 遊就館의 명칭은 『순자』의 권학편에서 따온 것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전쟁박물관이다. 견학을 통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에 경계를 보임과 동시에 기왕의 비판적 강좌를 확대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는 글도 있다(吉野典子, 2003, 「靖國神社新遊就館見學記」, 『歴史地理教育』 653호, 86~90쪽 참조).

한 자기 반성을 하곤 한다.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도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핑계 때문에 수업 진행은 결국 강의식, 암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야스쿠니 수업은 이러한 반성에 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였다.

국가 간에 문제가 되는 현상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자신의 입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견해들을 파악하는 것은 수업에 흥미를 불러올 수 있고, 이를 계기로 2007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목표에 있는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⁴⁾

2007년 고시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는 것은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수업이 이미 196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국제이해 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이가라시 요시오[五十嵐良雄]는 진정한 현실인식, 진정한 세계인식에 대하여 “생활 현실이야말로 우리들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자신들의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사상의 형성”을 주장하였다.⁵⁾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자원 선점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개최하고, 후쿠다 총리는 정부개발원조(ODA) 확대를 약속하였다.⁶⁾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일본의 대학원 학생들의 부속학교에서의 1주일간 교육실습의 주제는 ‘아프리카’였다. 3시간에 걸쳐 역사, 식민지 개발, 아동의 노동 등을 다루었다. 초콜릿과 문어를 소재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수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세계사 수업은 어떤가 생각하게 되었다.

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을 교과과 내용에 담도록 하였다.

5) 五十嵐良雄, 1969, 『國際教育論序說』, 東京:現代評論社, 12~13쪽.

6) 일본 정부는 2008년 5월 28일부터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사히신문』에서는 아프리카의 농업 진흥을 위해 일본이 앞장설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朝日新聞』, 2008. 5. 28, 「アフリカ開発回帰會議—食糧と氣候という難題」 참조).

본고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Suzuki)의 다원주의이다. 그는 세계를 보는 시각을 원리주의와 다원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다원주의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된다. 다원주의는 사회과 교육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국경을 초월한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원주의로 나뉘게 된다.⁷⁾ 이러한 다원주의는 보편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로 설명되기도 한다.

종교적으로는 크리스티교 신학이 타 종교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 중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한다. 크리스티교의 종교 독점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다원주의는 다양한 종교가 각자의 방식대로 신 혹은 실재를 인식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을 인정한다.⁸⁾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이러한 다원주의적 역사교육에 관한 연구 중에는 구난희의 국제이해교육의 시점에서 발해사 학습을 통하여 한일관계의 상대화를 도모하는 연구가 있었다.⁹⁾ 황지숙은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의 방향을 상정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사가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각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학습 방안을 궁리하였다.¹⁰⁾ 김한중은 캐나다의 역사교육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교육을 사회문화사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 교육은 자국사보다는 세계사의 영역에서 논의되며, 한국처럼 민족문화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¹¹⁾

7) 노찬옥, 200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 교육적 함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0쪽.

8) 길희성, 2003, 「종교다원주의: 역사적 배경, 이론, 실천」,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철학과현실사, 225~232쪽.

9) 구난희, 2003, 「國際이해 증진을 위한 발해·일본 교류사 학습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황지숙, 2006,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김한중, 2006, 「다문화 사회의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4, 9~10쪽.

본고에서 언급하는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적 다원주의 또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가깝지만 그 지향점은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원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역사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원주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역사 화해'란 대립의 주체를 상대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 중국 등과의 역사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길이 '역사 화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화 또는 객관화의 관점이 중요하고, 역사분쟁의 상황에서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지향점은 '역사를 통한 세계시민의 양성'이란 측면에서 국제이해교육이라는 큰 틀을 갖고자 한다.

본고의 전개는 먼저 이러한 수업을 하는 시각으로서의 시점,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야스쿠니신사'를 소재로 역사 화해를 생각하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으나 다원주의 수업 보고와 비판적 그룹의 야스쿠니 견학 등을 보면서 수업을 준비하였다. 다만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본 수업의 목적은 야스쿠니 비판 그 자체는 아니다. 비판을 넘어서 야스쿠니 문제의 소재를 이해하고, 그를 위한 이론적 틀로 다원주의 시각을 도입하였다. 수업 자료로는 이미 발간된 공동교재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계획을 세웠다. 사실의 전달에 그치는 수업보다 이러한 수업이 야스쿠니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 사회를 돌아보는 시각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II. 수업 실천의 시점

1_ 문제의 소재

한국의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원 학생에게 “야스쿠니가 종종 외교 문제화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사회과 교육을 전공하는 그는 “어려운 이야기이다”라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다나카 노부아키[田中伸尚]는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야스쿠니 문제는 아무리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아시아인을 만나면 꼭 듣는 것이 교과서와 야스쿠니 문제이다”라고 한다.¹²⁾ 동아시아사의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역사교육의 소재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신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조차 없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스쿠니를 수업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수업 실천이 보고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야스쿠니를 통한 수업 실천은 찾기 힘들었다.

다나카는 대학에서 야스쿠니 수업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름을 들은 적은 있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누가 합사되어 있는가”, “경영은 누가 하는가” 등이었다.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없었다. 90분 짜리 세 시간으로 진행된 수업의 결과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으며 수업을 받음에 따라 의문이 풀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미지가 바뀌었다”¹³⁾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필자도 역사 수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였다.

야스쿠니 문제가 동아시아의 화두가 되었던 2005년 6월 『니혼게이지이 [日本經濟]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참배하는 편이 좋다(38%)”와 “참배하지 않는 편이 좋다(36%)”는 적극 찬성과 적극 반대가 비슷하지만 “참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15.7%)”, “참배하지 않더라도 좋다(8.6%)”로 나타나 찬성과 반대가 55% 대 4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12) 田中伸尚, 2006, 「國家はなぜ戦死者を追悼するのか-靖國問題と国立追悼施設構想をめぐって」, 『歴史地理教育』 651, 58~59쪽.

13) 早川明夫, 2006, 「大學生は靖國神社をどうみているか-靖國神社のアンケートをして」, 『歴史地理教育』 651, 64~69쪽.

“당연하다(17%)”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35.2%)”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39.3%에 불과하였다. 이는 결국 야스쿠니에 문제가 있음을 일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¹⁴⁾ 주변국의 항의를 이해하면서 참배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야스쿠니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필자의 두 차례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한중일 공동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 중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집필자가 본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 동아리 활동 과정을 경험으로 학생들과 함께 펴낸 『10대들의 역사 리포트』(2003, 역사넷) 중에 야스쿠니 문제와 관련한 서술 때문이다. 당시 그 부분을 담당했던 학생은 “일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상대의 종교도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썼다. 그것을 필자가 수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당시 생각에는 필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야스쿠니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생각에 나타나는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한 반성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2_ 야스쿠니 문제란

야스쿠니 문제 전문가인 다카하시 데쓰야[高橋鐵也]에 따르면 야스쿠니에는 야스쿠니에 합사된 영령의 부인 또는 자손들이 갖는 유족 감정과 이곳에 ‘이유 없이’ 합사된 아시아 각국의 유족 또는 민족 감정이 얽혀 있다고 한다.¹⁵⁾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인 총 639명은 총리 참배의 위헌 확

14) 이외에도 야스쿠니신사의 현상을 유지하자는 측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은 61% : 31%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주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전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가 “다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06. 6. 30, 「賛否分かれる靖國參拜問題. 日本の價値観だけで良いのか」).

15) 高橋鐵也, 2005, 『야스쿠니문제』, 역사비평사, 19쪽.

인, 참배 금지, 원고의 종교적 인격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총리 참배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재판보조 참가’ 제도를 이용하여 야스쿠니신사 편에 서서 변론하였다.

남편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이와미 마스코는 “전사하면 반드시 야스쿠니에 혼령을 모셔 준다는 말을 듣고” 전사하였는데, 야스쿠니를 욕보이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의 몇억 배 굴욕이며” 그러한 것을 용서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갈가리 찢겨 피가 역류”할 고통이라고 하였다.¹⁶⁾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수천, 수만의 전사자를 야스쿠니에 안치하는 임시대제에는 전국의 유족들이 도쿄에 국비로 초청되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에서 치러지는 대제뿐만 아니라 신주쿠 교엔, 황궁, 우에노 동물원 등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군인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다.

야스쿠니의 이러한 행사의 시작은 청일전쟁과 대만출병¹⁷⁾에서 사망한 전사자를 국가가 제사하면서부터이다. 전쟁 후 무사 귀환한 장병들은 작위와 훈장, 장려금을 받고 금의환향하였으나 전사자의 유족에게는 약간의 부조밖에 없었다. 당시 『時事新報』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불공평함을 지적하였다.

동양의 정세는 날로 절박해지는데 ……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 …… 사나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 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영광을 전사자 및 그 유족에게 돌려, 그에 따라 전쟁터에서 쓰러지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¹⁸⁾

16) 高橋鐵也, 2005, 위의 책, 20쪽에서 재인용.

17) 대만전쟁은 청일전쟁 후 할양받은 타이완에서 불복종하였던 타이완인을 정벌한 것으로 야스쿠니신사에는 이 전쟁의 전사자를 ‘대만정토’라는 명목으로 1,130주 합사하고 있다.

18) 『時事新報』, 1895. 11. 14, 高橋鐵也, 「國家と犠牲」, NHKブックス, 80~81쪽에서 재인용.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전국 각지의 유족을 초청하여 천황이 직접 제주가 되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외아들의 죽음에 마냥 눈물만 흘리던 한 노인은 초혼제에서 '명예로운 전사'로 칭송받는 아들의 죽음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다. 유족은 감격의 눈물로 목이 메어 가족의 전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에 공감한 국민은 전쟁이 나면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만들었다.

반면 아마구치[山口]시에 사는 나카타니 야스코[中谷康子]는 자위관이었던 남편이 아마구치 호국신사에 합사된 것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1973년 소송을 내었다. 1, 2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1988년 최고법원은 “그것이 싫더라도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보낼 권리를 침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였다.¹⁹⁾ 그러나 그녀는 지금도 합사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소송은 야스쿠니에 합사된 일본인 유족들이 총리의 참배로 종교적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도쿄에서는 원고들이 총리의 참배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였다.

일본인 유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시아인에 대한 고통이다. 가오친 스메이[高金素梅]는 다카사고족이라는 불렀던 원주민 타이알족 출신의 타이완 국회의원이었다. 그녀는 일본군에게 목이 잘리는 타이알족 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결국 그녀는 “선조가 일본의 군국주의로 인해 희생되었는데, 희생자와 가해자인 일본 군인을 함께 제사지내고 있는 것은 더할 나위없는 굴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²⁰⁾

이희자의 아버지는 돌밖에 안 된 그녀와 어머니를 두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 전투에서 사망한 후 유족의 동의 없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었다. 그녀와 한국인 합사자들은 동경지법에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서 제외

19) 『朝日新聞』, 2008. 6. 2, 「自衛官合祀 '夫返して' 思い不變」.

20) 高橋鐵也, 2005, 앞의 책, 23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제국주의자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가고,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일본의 신이 되어 합사되어 있다. 합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빼내어 달라는 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²¹⁾ 재판에서 피고 측인 야스쿠니신사는 “야스쿠니는 종교시설이고, 종교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야스쿠니신사는 1869년 메이지 정부 성립과정의 전몰자를 위령하기 위해 도쿄 초혼사로 창건되었고, 십 년 뒤에는 야스쿠니신사로 개칭되었다. 1871년 ‘타이완 출병’부터 해외 파병에 따른 전사자의 합사가 시작되었다.²²⁾ 『時事新報』의 사설이 나오자 이를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1895년 12월 15일 오테라 야스즈미 육군 소장 이하 1,500명의 초혼식을 시작하였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임시대제에는 천황의 칙사 파견에 이어 메이지 천황이 직접 참배하였다. 야스쿠니는 이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전몰자 제사의 중심시설로 지위를 확립하였다.²³⁾

이렇게 만들어진 야스쿠니 신앙은 전쟁에 나가는 이에게는 비장한 결의를 다지게 하였고, 마지막에 ‘대일본 제국 만세’와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며 죽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야스쿠니의 사상은 결국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천황과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군인과 그 가족을 만들어 냈다. 야스쿠니가 러일전쟁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 범위를 만주사변 이후의 15년 전쟁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그 이전의 책임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21) 이희자, 2008. 5. 29. 동경지방법원 「第2次大戦戦歿犠牲者合祀廢止等請求事件—準備書面(原告7)」。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야스쿠니신사의 논리는 “전사한 시점에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도 당연히 일본인이다. 그리고 일본 병사로 싸우다 죽으면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모셔진다는 생각을 갖고 싸우다 죽었으므로” 합사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 남상구, 2006, 「야스쿠니신사 숭배 문제에 관한 고찰」, 『日本思想』 제10호, 172쪽.

22) 김대상, 2004, 「야스쿠니신사의 성격과 문제성」, 『韓日研究』 제15집, 4~7쪽 참조.

23) 필자의 답사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의 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양 옆에 있는 비석이나 승전 기념물들은 대부분이 청일·러일전쟁 때 것들이었다. 東海林次男, 2005, 「戦争が徴兵保険公社を破滅させた—靖國神社境内の建造物は語る」, 『歴史地理教育』 639, 76~81쪽 참조.

이다.²⁴⁾ 후소사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아시아 열시론에 이어 러일전쟁의 당위성을 서술하고, 아시아인의 해방을 제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결국 전쟁의 합리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²⁵⁾ 결국 야스쿠니 문제는 역사왜곡에서 교과서 문제와 한 배를 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총리는 일찍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많은 전몰자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A급 전범을 위해 참배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²⁶⁾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자식과 남편을 장하게 생각하는 국민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학생들이 갖는 의문이고, 야스쿠니 문제가 복잡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를 통한 제사는 전사자를 추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자를 현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일본 제국과 천황을 위한 또 다른 전쟁에 동원될 군인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야스쿠니신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쟁이란 어떤 것인가? 일본은 대만 출병 이후 거의 10년 간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빼면 모두가 자신들 스스로가 일으킨 전쟁이다. 따라서 야스쿠니를 통한 ‘감정의 연금술’로 전사자를 현창하고 새로운 전쟁에 필요한 전사자를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야스쿠니 합사를 반대하는 소송을 넘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묻어 버릴 수 없으며,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야스쿠니에 대한 현창은 결국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다시 그 전쟁으로 고통받을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은 자국 내 전사자의 현창이나 애국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가 받을 고통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24) 유용태, 2006, 『환호 속의 경중』, 휴머니스트, 265~268쪽.

25) 子どもと教科書全國ネット21編, 2001, 『こんな教科書子どもにわたせますか-つくる會の歴史・公民教科書批判』, 大月書店, 46~49쪽.

26) 일본 외무성, 2005,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 <http://www.kr.emb-japan.go.jp/>.

에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과 슬픔을 안겼고, 죄 없는 자국 국민들도 피해자로 만들었던 것에 대하여도 기억해야 한다.²⁷⁾

결국 야스쿠니 문제는 자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국내적 인식과 과거 전쟁 책임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이 닥쳐올 전쟁에 대하여도 그것을 물어야 하는 역사인식에 관련된 것이다. 수업에서는 야스쿠니 문제를 이해함과 동시에 일본이 자행한 전사자에 대한 헌장과 주변국에 피해를 가져다준 전쟁 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야스쿠니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일본 사회에서는 앞서의 설문 결과처럼 반 수 이상의 국민에게 별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야스쿠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실체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상호 신뢰의 회복과 미래 지향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란 점에서 수업을 실시하였다.

Ⅲ. 수업 실천의 방법

1_ 다원주의와 역사교육

랑케(L. V. Ranke)의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는 20세기 들어 카(E. H. Carr)의 '역사란 과거 사실과 역사가 사이의 부단한 대화'로 바뀌게 되었다. 역사교육에서도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과목의 성격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라고 정의하고

27) 高橋鐵也, 2004, 「야스쿠니와 식민지주의」, 『人文科學』 제86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쪽.

있다.²⁸⁾ 이는 역사에서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다. 함께 개정된 세계사 교육 과정에서는 더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사 학습이 중요함을 이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생활 방식이 존재 하였음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와 문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의 다원성을 세계사에서 강조해야 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중 세계사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한 '역사와 인간' 부분은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암묵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음으로써 세계사를 시험을 치르기 위한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전락시켰다. '왜(Why)'가 없는 수업은 어려운 지명, 인명, 구조적 연관성의 결여 등을 초래하였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9·11사건을 서술하면서, 이를 문명의 충돌로 보기보다 세계를 보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를 보는 단층에는 '원리주의(fundamentalism)'와 '다원주의(pluralism)'가 존재한다. 원리주의는 국민 구성이 복잡해지고, 물질문화와 국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차이의 경계선을 강조하는 심볼과 사상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원주의는 개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명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다양한 것과 결합시켜 파악한다. 특히 환경이 변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정체성 강조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용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²⁹⁾

테사의 다원주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문화주의'나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다. 가치나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간 사회란 인간이 갖는 가능성을 넓히는 역할을 목표로 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전통을 계승해가는 것이다. 결국 다원주의는 "다양한 국가나 소수민족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

29) Tessa Morris-Suzuki(テッサモリススズキ), 2002, 『批判的想像力のために—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 平凡社, 172~182쪽.

〈표 1〉 원리주의와 다원주의의 비교

내용	원리주의	다원주의
입장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치적 안정은 '전통적' 가치의 권위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음	문제의 발생시 건설적인 상호 교류와 적응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특징	주어진 것 단일, 고유한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	만들어진 것 복합적, 다양하며, 변화 가능한 것
기능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확대 가족, 젠다, 종교집단, 언어 등 다양한 것을 결합하고자 함
사회(국가)	경계가 강조되는 닫힌 사회	경계가 없는 열린 사회

* Tessa Morris-Suzuki(テッサモリス-スズキ), 2002, 『批判的想像力のために—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 平凡社, 172~187쪽에서 정리.

의 마찰 혹은 각각의 사회 내부의 마찰은 '문명'이라는 부동의 개념의 방어벽 배후에 감추어진 것에서가 아니라 건설적인 상호 교류와 적응에 따른 것이야말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³⁰⁾

다원주의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다양한 색깔과 취향을 가진, 여러 지역의 문명이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만들어 가는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원성까지도 열어두어 다원적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³¹⁾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을 이해하고, 수업으로 실천하고자 한 것으로 모리 사이조[森才三]의 연구가 있다. 그는 역사교육의 실천의 창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지금, 여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제로는 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세계)의 분단화', ② 역사교육에도 묻고 있는 '역사의 다원성'을 들고 있다. ①은 사회 자체에 관련된 문제이

30) Tessa Morris-Suzuki, 2002, 앞의 책, 185~186쪽.

31) 유용태, 2005,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사」,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337쪽.

며, ②는 역사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³²⁾

모리는 역사의 다원성 측면에서 '역사에 대한 진지함'에 주목한다. 이를 중시한다는 것은 어떠한 표상의 방법에도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정인 것이 아니다. '역사에 대한 진지함'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를 보는 다양한 시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타자의 역사 이해 방식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재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점검한다.³³⁾

일반적 역사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학생은 자신들이 "학습하고 있는 역사는 어떤 시점에서 구성된 것인가"라는 물음이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진다. 다원주의적 관점은 학생 스스로가 현재를 사는 역사가로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방향감을 갖게 할 수 있다.

2_ 역사 수업에서 다원주의적 관점

위와 같은 테사의 이론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할 때 — 특히 역사 화해라는 전제를 두었을 때 —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 간의 단절

둘째, 획일적 역사인식

국가 간의 단절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분쟁이 진행되면 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함에도 각국의 역사교육이 단절을 강조해 왔음을 말함이다. 분쟁을 촉발시킨 일본이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 중국 역시 자국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³⁴⁾ 최근의 역사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학

32) 森才三, 2003, 「'多元主義' 歴史授業の可能性—地域から歴史を考える」, 『社會科研究』第58號, 21쪽.

33) 森才三, 2003, 위의 글, 24쪽.

34) 한국은 고구려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전부터 제창되고 있

생들에게 혼란과 함께 자국 중심주의적 획일적 사고를 갖게 만든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시험 중심의 교육은 교과서에 쓰여진 것만을 외우고 답하게 만들었다. 종종 역사 관련 대학능력시험에 나오는 시사문제도 정해진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재 역사 수업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다원주의적 역사 수업이다. 국제이해교육에서는 주로 다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상대[他國]와 나[自國]에 대한 문화 이해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문화를 다원주의 축으로 구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³⁵⁾ 이를 위해 국가와 민족 간의 문화적 다원성과 가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수업방식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한 시대 혹은 한 사회의 모습을 단순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사고 유도보다는 다양한 역사 지식 간의 상호 연관을 간결한 논리로 설득시켜 이해시키고자 하는 ‘이해 추구’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수업을 마치고 난 학생들은 ‘머릿속이 환해지는 경험’, 즉 모든 의문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할 수도 없다.³⁶⁾

다원주의 역사 수업은 7차 ‘세계사’ 교육과정의 ‘가치·태도’ 영역의 목표 중 “사회적 갈등과 해결에 관한 이해를 통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류가 공유한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과 어울릴 수 있다. ‘가치·태도’ 영역의 목표는 “세계사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현대사회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대한” 이해로 확대하는 ‘이해’ 영역의 활동과 병행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³⁷⁾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 무기력, 충동적, 유치, 미숙, 자기본위, 또라이,

던 ‘애국주의’ 확산을 빌미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활용하였다. ‘애국주의’는 1990년대부터 중국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자신들이 처해 있던 열악한 상황에 따른 비하의식을 극복하려던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개혁과 개방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인민을 동참시키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윤휘탁, 2006, 『新중화주의』, 푸른역사, 84~107쪽 참조.

35) 佐藤郡衛, 2001, 『國際理解教育』, 明石書店, 35쪽.

36) 이영효·김한중, 1996, 「교실 역사 지식의 내용과 형식」, 『역사교육』 59집, 37쪽.

37) 이명희, 2000, 「세계사」,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1~192쪽.

현실적, 무관심, 엄함을 알지 못함, 무목표, 소시민적, 소극적, 보수적이라는 말로 청년을 지칭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³⁸⁾고 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자신들의 삶과 관련되었다고 느껴지는 이슈들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역사교육은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되었을 때 활기를 띠게 된다. 중요성(의미)에 대한 고려는 주제를 설명하고 지지하는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요하고 지속되는 이슈들에서 청소년이 자신들의 위치를 가능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³⁹⁾

이러한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역사가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해석이나 사실의 선택은 다 같이 쌍방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미묘하게, 어쩌면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은 현재와 과거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⁴⁰⁾

“왜 $1 \times 0 = 0$ 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 즉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진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세계사 또는 국제이해교육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⁴¹⁾ 이러한 시각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다른 집단이나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속 집단의 단기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미칠 긍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²⁾ 결국 세계사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국사적 인식을 넘어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질 때만이 지역공동체의 상호 이해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38) 栗原彬, 1995, 『やさしさのゆきえ-現代青年論』, 筑摩書房, 126쪽.

39) Martin Hunt, 2000, “Teaching historical significance,” *Issues in History Teaching*, London : Routledge, p. 40.

40) E. H. Carr, 김승일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범우사, 53쪽.

41) Miyuki Ohta, 2005, “My History of Learning Characterized by Many ‘why?’s,” *How To Learn and How to Live*, Tyokyo : Shohakusa, p. 30.

42) 구난희, 2003, 앞의 글, 17쪽.

IV. 수업 실천의 전개

1_ 다원주의적 역사 수업 계획

다원주의적 역사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수업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실천에서는 양케이트와 감상문, 때로는 텍스트까지가 학생 사고에 서로 영여 있는 소재로, 혹은 새로운 교재 편성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처럼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위에 충실한 수업기록을 제출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 주제에 대한 집단토의와 발표 수업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업기록은 누군가 객관적으로 수업 실천을 분석하고 검토한 소재이다. 일본의 역사교육자 협의회는 수업 실천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지식과 생각하는 힘과 살아가는 힘을 함께 추구하는 총합적 사회과론, 수업론, 학력론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수업에서 수업기록은 양케이트·감상문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⁴³⁾ 따라서 필자는 수업을 전개하면서 메모하고 내용을 녹화하여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교실에서의 이상적 대화는 교사가 간섭하거나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교실 담론은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혼돈과 갈등을 거쳐 학생들을 학습의 발견, 놀라움,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다.⁴⁴⁾ 다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맞고 틀리는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적 답안이 가능한 발문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활동 방식을 결정하고,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43) 宮原武夫, 1981, 『歴史の認識と授業』, 岩崎書店, 38쪽.

44) 이영효, 2006, 「'우리'와 '타자'에 대한 역사교실 담론 분석」, 『역사교육』 98, 141쪽.

역사적 평가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은 물론, 관련된 다른 지식, 자신의 역사관이나 사회관, 가치관이 종합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를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역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객관적 증거를 강조하지 않는다. 자신과 다르게 역사를 알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⁴⁵⁾

실제 2001년 발간된 후쇼사판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서장-역사예의 초대'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으로 시작한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왔는지, 즉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⁶⁾

역사 학습의 목적을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다. 후쇼사 교과서에서는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의도적 주장이 사실의 모든 것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현재의 평가가 부정되고, "과거 각 시대에는 각 시대의 선악이 따로 있다"는 역사관으로 연결되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긍정 또는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각자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다원주의는 아니다.

야스쿠니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 속에 어쩔 수 없다는 생

45) 김한중, 2007,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111~115쪽. 김한중은 역사인식을 '역사를 안다'로 정의하고 역사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 둘째 역사적 사실을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것, 셋째 역사적 행위의 인간 내면을 이해하는 것, 넷째 역사적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46) 藤岡信勝 外, 2001, 『新しい歴史教科書』, 夫桑社, 6쪽. 고등학교 교과서 중 역사 왜곡이 심하다고 비판을 받는 高等學校 『最新日本史』(2006, 明成社)의 경우에도 "우리들은 사람들의 일의 결과인 사실을 배우고 함께,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고, 역사 학습을 하고 싶은 것이다"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47) 石出法太, 2001, 『まちがいだらけの検定合格教科書』, 清木書店, 194~195쪽.

각을 갖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카하시의 논리 중의 두 번째, 일본 이외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토록 하는 것이다. 모든 전쟁 기억은 동일한 수준과 차원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억은 개인과 집단을 넘어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산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⁸⁾

교수와 학습의 목적이 역사의 이해에 있다고 하였을 때, 탐구라는 것은 그 이해를 얻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탐구식 교수 모형이다.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의 대상인 역사 내용(contents)이 역사적 사고 혹은 탐구 과정(process)을 통해서 학습자에 의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유의미적 이해(meaningful understanding)'가 역사 수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⁴⁹⁾ 본 수업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주장을 말하면서 탐구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매개 요인의 투입은 제안이나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업의 진행방식은 『미래를 여는 역사』의 야스쿠니 부분 글과 방송된 VTR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보아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매개 요인을 갖고, 역사적 맥락을 사고하는 과정으로 하였다.⁵⁰⁾ 현재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존재하는 첫 단원인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즉,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분량에 비하여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세계사는 외우는 수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다원주의적 수업 실천에서 기본 자료로는 기왕에 제작된 공동교재

48) 김상준, 2005, 「기억의 정치학 :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39집 5호, 220쪽.

49) 이영효, 1997, 「탐구식 역사교수 모형의 재인식」,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57~58쪽.

50) 송상현, 1997, 「역사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을 통한 '이해'의 문제」,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247~251쪽.

〈표 2〉 다원주의에 입각한 역사 수업의 연간 계획

수업 차수(단원명)	수업 내용	수업 자료	수업 방식
제1차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역사의 의미 (야스쿠니)	『미래를 여는 역사』 야스쿠니 동영상	발표와 토론
제2차시 (아시아 세계의 확대와 동서교류)	왜구	『마주보는 한일사』 『한일교류의 역사』 『일본 교과서』	토론
제3차시 (아시아 사회의 성숙)	임진왜란	『마주보는 한일사』 『조선통신사』	토론
제4차시 (아시아 사회의 성숙)	한국과 일본의 문화 (주거 양식)	『마주보는 한일사』	설명, 토론
제5차시 (전후 세계의 발전)	오키나와 전쟁	『미래를 여는 역사』, 사진자료	설명, 토론

* 수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차시와 제5차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를 활용하였다. 21세기 들어서 동아시아 역사전쟁이 지속되는 사이 동아시아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청소년 교류가 확대되는 등의 노력이 전개되었다.⁵¹⁾ 또한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공동교재의 제작 등은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공동교재의 제작은 유럽의 경우처럼 국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한중일 사이에 여러 공동교재가 제작되었지만 실제 수업에 사용되는 것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번듯한 교재의 제작보다 실제적 이용이 더욱 중요함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공동교재를 중심으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진자료나 일본의 교과서 부분들을 제공하여 상대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51)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는 일본 각지에서 지역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한목소리를 내게 하거나 한국의 자치단체와 함께 우경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였다.

다섯 시간 분량으로 일본과 관련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는 역사적 문제 인식을 통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탐색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학생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 인식을 발달시키고와 함께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론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_ 야스쿠니 수업의 실천 지도안의 작성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005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스쿠니 참배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하여 “(전몰자에 대한) 어떠한 추도의 방법이 좋은가는 다른 나라가 간섭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야스쿠니 문제의 핵심은 총리의 참배가 종교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A급 전범’ 합사 문제의 두 곳에 집약”되고 있다.⁵²⁾ 총리가 종교 시설에 공식 참배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것과 침략 전쟁의 주범을 영령으로 칭하는 종교 시설을 참배하는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것이다.⁵³⁾

1966년 후생성은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의 합사는 그들의 죽음도 ‘공무’ 중의 죽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합사할 수 있다는 제신신명표를 보냈다. 야스쿠니신사는 이때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합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1978년 A급 전범들의 ‘책임’은 없어졌다고 판단해서 합사되었다. 즉 이들의 합사는 전후 하나의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신사 독자의 정치적 판단이라 말하기도 한다.⁵⁴⁾ 야스쿠니신사의 책임 신관인 궁사의 판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2007년 국회도서관이 작성한 『靖國神社問題資料集』에 수록된 신사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회의 때마다 후생성의 직원이 신사까지 와서 합사를 말하고, 신사도 국가와 일체가 되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⁵⁵⁾

52) 田中伸尙, 2006, 앞의 글, 59쪽.

53) 高橋哲哉, 2004, 앞의 글, 1~12쪽 참조.

54) 松本健一, 2006, 『日・中・韓のナショナリズム-東アジア共同体への道』, 第3文明社, 19~20쪽.

이렇게 되면 합사문제는 다른 차원이 문제로 되고 만다. 일본의 헌법에서는 종교는 개인의 일에 속하는 것으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종교가 그 교의를 국법상의 제도로서 실현하려고 활동하고, 그 활동에 국가기관의 손을 빌리면, 국가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⁵⁶⁾

일부에서는 A급 전범의 합사를 철회한다면 야스쿠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다가하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분사를 시키고 나면 천황의 참배가 가능해진다. 또한 동경재판의 결과 처럼 A급 전범에게 전쟁 책임을 전가하고, 쇼와 천황과 일본 국민의 전쟁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전쟁 책임과 미래 인식에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일본이라는 일국사적 접근방식이다.

한국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일본과 다른 문제 인식을 갖고 이것을 수업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의 시점에서 첫째 관심인 '동아시아 국가 간의 단절'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야스쿠니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했다. 동아시아 각국이 야스쿠니 문제를 그렇게 비판함에도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야스쿠니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공동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의 '야스쿠니 문제'와 2005년 MBC TV에서 '천황의 나라 일본'이라는 광복 60주년 기념 특집으로 방영된 자료를 편집하여 야스쿠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를 여는 역사』의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야스쿠니신사의 성립과정과 합사자들,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입장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⁵⁷⁾ 2005년 MBC TV의 '천황의 나라 일본'에서는 8월에 야스쿠니신사를

55) 毎日新聞 '靖國'取材班, 2007, 『靖國戦後秘史』, 毎日新聞社, 142~143쪽. 일본 국 회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이때 공개된 야스쿠니신사의 내부자료들과 함께 이후 국회에서의 질의·답변 등을 기록한 회의록이 실려 있다.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document2007.html> 참조.

56) 三土修平, 2005, 『靖國問題の原點』, 日本評論社, 142~143쪽.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야스쿠니신사의 예대제 장면, 전쟁을 겪었던 이들의 증언 등을 수록하고 있다.

공동교재는 결국 다원주의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상대화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사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수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MBC의 자료는 주로 야스쿠니를 보는 일본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⁵⁷⁾

교실 수업에서 '우리'와 '타자'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은 결국 국가-민족 테제와 결합하면서 주체와 타자 모두에게 억압기제로 작용한다.⁵⁸⁾ '우리'와 '그들'을 넘어서는 역사의 역학관계에 대한 냉철한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일련의 수업들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타자'를 동아시아 세계의 정세 속에 위치시키고, 야스쿠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관심인 '획일적 역사인식'은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원주의 역사 수업에서 다원화라는 것은 각자의 다양한 의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 한, 즉 '역사에 대한 진지함'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왜 야스쿠니가 문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카하시가 말한 '감정의 연금술'에 의한 야스쿠니 헌창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다. 무조건적으로 거부시하였던 야스쿠니의 이미지에서 일단은 일본의 생각을 이해한다. 다음 단계로 '역사의 진지함'을 통하여 야스쿠니의 문제점을 짚어나갈 수 있다.

더 들어가면 합사와 분사의 문제, 종교적 성격의 문제, 일본 정부와 종교 시설의 문제 등 복잡한 것들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야스쿠니를 모두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서술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57) 한중일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34~235쪽.

58) MBC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야스쿠니 문제는 천황 또는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천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천황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았다.

59) 이영효, 2006, 앞의 글, 154쪽.

- 수업 과목 및 단원 : 세계사 과목, I.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제4 장 역사의 이해
- 수업 대상 : 고교 2학년
- 수업 목표
 - 역사가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린 것임을 알게 한다.
 - 야스쿠니신사의 특징을 알아 함께 일본인의 생각을 파악한다.
 - 야스쿠니신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수업 자료
 - 『미래를 여는 역사』 중 '야스쿠니 문제' : 야스쿠니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내용
 - MBC 광복 60주년 특집 '천황의 나라 일본' 중 야스쿠니신사 부분 (VTR, 2005. 8월 방영) : 천황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이지만 수업에서는 야스쿠니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러 가지 시각을 편집.
 - 일본 정부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공식 입장(2005. 10,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내용)
- 수업 전개의 개략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교사의 활동	학생의 활동
역사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의 정리 • 역사란 어떠한 것일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해석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야스쿠니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스쿠니의 존재 형태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여는 역사』 중 '야스쿠니 문제' -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 MBC 특집 '천황의 나라 일본' 중 야스쿠니신사 부분 V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스쿠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야스쿠니에 대한 상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스쿠니에 대한 느낌을 적는다. • 질문지를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역사의 다원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발표와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스쿠니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해결 방안의 탐색

3_ 수업의 전개

1) 수업의 도입부분

- 교사 :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 배웠는지 말해볼까?(머뭇거리는 학생 중 한 명을 지적함)
- 학생 : 역사는 시간, 공간 속에 인간이 존재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교사 : 잘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란 것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가 무엇이지요?
- 학생 : 과거에 있었던 일, 기록으로 남은 것, 있었던 것, 생각하고 싶은 것, 좋거나 나쁜 것.
- 교사 : 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 학생 : 좋은 것만을 기록, 싸움에서 이긴 것만 기록.
- 교사 :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하느냐 하면 역사가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 학생 : 문서나 증거들을 가지고 씁니다.
- 교사 : 그러면 그것은 모두 객관적일까? 어떤 사실을 갖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오늘은 세계사 시간이니까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갖고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 보자.(34명 중 22명이 들은 적이 있고, 12명은 없다고 답함)

2) 야스쿠니의 상대화

- 교사 : 지금부터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자료와 방송에서 방영한 VTR을 보겠습니다.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학습지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세요.
(『미래를 여는 역사』 중 ‘야스쿠니 문제’가 기록된 자료를 읽고,

MBC 에서 방영한 VTR을 시청한다.)

- 교사 :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에 대하여 비판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앞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나요?(그럴 수도 있다 18명, 비판받아야 한다 13명, 잘 모르겠다 3명. 재미있는 것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 학생 12명 중 10명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였다.)
- 교사 : 생각 밖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발표해 볼까?
 구○○ : 일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즉 일본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 :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절에 태극기를 달고 유관순의 명복을 비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원○○ : 나 역시 한국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희생생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 :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목숨을 잃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석 : 야스쿠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들이 이제껏 배워왔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였을 때 야스쿠니를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야스쿠니를 비판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을 상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유○○ 학생의 경우 『時事新報』가 주장하였고, 이후 야스쿠니 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현창과 추모의 기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애국이라고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 교사 : 그러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학생이나 '잘 모르겠다'고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 : 신사에 모셔진 혼령들은 일본에서는 영웅이지만,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일본의 시각에서만 야스쿠니를 보면 안 될 것 같다.

홍○○ : 전쟁을 일으킨 주요 인물들에게 참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전쟁에서 죽어간 일반 병사들을 추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박○○ :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현충일 등에 죽은 군인들을 기리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것에 대하여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신격화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인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 : 비판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 교사 : 그러면 맨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야스쿠니신사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야스쿠니를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 학생 : 일본의 생각이니 그대로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교사 : 그러면 매년 이런 문제가 계속될 터인데.
- 학생 : 일본도 다른 나라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 학생 :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참배를 하든 말든.
- 교사 : 네가 만약 전쟁에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인데, 계속 참배를 한다면 피해자의 기분은 어떨까?
- 학생 : 그러면 일본 정부가 참배를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 교사 : 일본의 죽은 영혼이나 유가족이 왜 참배를 하며, 공경하지 않는가라고 따지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나?
- 학생 :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니까.
- 학생 : 정말 추모하고 싶으면 밤에 몰래 하면 안 될까?
- 학생 : 일본 정부가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잘

못했으니까 참배를 안하는 것이라고.

- 교사 : 유족들이 받아들일까? 전에 베트남전쟁에 대해 사과하자고 한겨레신문이 말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문사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는데.
- 학생 : 베트남전쟁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두 명이 유사한 질문을 하였으나 이 시간에 다루기는 무리라 생각하여,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 교사 : 베트남전쟁은 내용이 많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국내에서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정도만 하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일본 정부의 설득까지 얘기를 했나?
- 학생 : 그래도 이웃 나라들과 평화스럽게 지내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학생 :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못을 사과하자고 정부를 압박해야죠.
- 학생 : 신사를 없애 버리면 참배를 하지 않을까요?
- 학생 : 누가 없애나?
- 학생 : 아.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쟁에 잘못했다고 하고, 너희도 그런 거 해라 그러면 어떨까요?
- 교사 :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왜 다른 나라는 참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 학생 : 아까 말했지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 교사 :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 터인데.
(조금 더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교사가 바라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과 이야기는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4) 수업의 마무리

- 교사 :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기다렸던 대답은 일본 정부나 시민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참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에서 참배를 않는다고 설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일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따

라서 우리는 일본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대하여 질 책임은 없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 학생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세계사를 배우면서 계속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V. 맺음말

야스쿠니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정보를 접한 것은 대중적인 언론을 통해서였다. 이들은 구체적 사실보다 주로 방송을 통해 증폭되는 일본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가 중첩되었을 것이다. 특히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갈등을 촉발시키는 내용들만 최근 한일관계에서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그 자체에 대한 생각에서 일본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국가 간 단절’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교사의 수업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원주의 역사 수업 측면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들과 임진왜란 수업을 6월에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그 평가에서 교사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이라크전쟁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⁶⁰⁾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자신들의 삶을 연결하며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 결국 다원주의 역사 수업의 한 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시간 수업이 아니라 연속 수업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토론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역사에 대

60) 박중현, 2006, 『‘미래를 여는 역사’ 발간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東京, 6쪽.

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본에 대한 것은 일본사라는 독자적 영역 속에서 통사적으로 개별 국가사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을 위한 내용에 있어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⁶¹⁾ 또한 세계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다. 체계적으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수업을 '일본사 특강'식으로 동아시아적 관련성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에 역사가 살아 있는 것이 되고,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필요는 결국 최근 새롭게 등장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의 연차록과 연결이 된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면서 국제시민 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교사의 발문 중에 등장하긴 하였으나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성까지 연결되었다.

최근 일본의 한 논문에서 기왕의 공동교재들이 윤봉길을 높이 평가한 것을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에서는 테러리즘이 시인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존송하는 역사관”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자폭 테러를 용인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⁶²⁾ 즉, 제국주의에 항거한 인물들로 미화한 것은 현실의 테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사카이 도시키(坂井俊樹)는 “테러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것과 안중

61) 구난희, 2003, 앞의 글, 37쪽.

62) 林雄介, 2008, 「東アジア共通歴史教材を讀んで-若干の問題提起」, 『歴史評論』 695號, 66~69쪽.

근·윤봉길의 행동은 다르며, “문제의 본질은 그 투쟁이 왜 일어났고, 어떤 이유로 그러한 방법을 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³⁾

이러한 문제의식은 야스쿠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죽은 영혼에 대한 추모의 차이와 테러의 차이가 살고 있는 지평과 상황의 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원주의적 역사 수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역사의식은 ‘역사의 진지함’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과 해결에 관한 이해를 통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류가 공유한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를 배양하려는 역사교육의 목표를 달성 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스쿠니 문제는 천황제 문제나 일본의 전쟁 책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 도쿄 재판, 미국의 아시아 정책 등을 설명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의 진지함’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의 단초를 마련하는 수업이었고, 세계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후의 수업 역시 동료 교사 또는 역사교육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 보다 완성된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63) 坂井俊樹, 2008, 「東アジア '歴史和解' と共通歴史教材—最近の議論をもとに考える」, 『社會科教育研究』 103號, 37쪽.

[ABSTRACT]Seeking the Possibility of 'Pluralistic History Teaching'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 Focused on the learning of Yasukuni -

Park, Joonghyun

Yasukuni-Shrine may be called a symbol of controversies over the view of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Yasukuni comprises the emotions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Japanese spirits departed and enshrined there and the race feelings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spirits from various Asian countries who are also enshrined there 'for no reason.' Japanese viewpoint of Yasukuni controversy is different from Koreans. After all, Yasukuni controversy is related to the view of history that Japan drove its own people to battlefields and is responsible for the past wars and future possible wars as well.

This thesis aims to reflect, in school classes, the praises devoted to the deceased so as to send Japanese people to war and the responsibilities of war criminals who brought damages to neighboring countries. The responsibility of war crime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considering the future of East Asia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Just acknowledging or, at least, perceiving the said responsibility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East Asian community to be formed.

Students' view of history is a product of the historical facts they already know, their other knowledge, their view of their history and society, and their own values. Based on their view of history, students

will contend that 'their knowledge of history' is correct, demonstrating or persuading others their correctness. In order to cultivate their ability to do that, they need to have a view of pluralism.

The pluralism advocated by Tessa Morris-Suzuki understands that the cultural identity of each individual is complex and does not link the identity to a nation or civilization but combines it with diverse nations and/or civilizations. In particular, Morris-Suzuki asserts that, when their surroundings have been changed, the same people will change their identity and stress a different identity. The pluralism will be also transformed according to changes of the society and/or amended according to changes of generations.

The pluralism recognizes that a value or identity is not given but created. The human society inherits multiple and diverse traditions, which are meant to expand the potentiality of humans. The pluralism also believes that conflicts between various nations or minorities or within a society is not hidden behind the barricade of the established concept of 'civilization.' The conflicts can be resolved through constructive mutual exchanges and adaptations.

History Teaching should recognize that history is not to be memorized but to be 'a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Such recognition enables students to have interest in history and lead an independent life in this globalization society, as intended by the school subject of history. It is concerned that the topic of 'Yasukuni controversy' will possibly accommodate the logic of Japanese people, but the concern can be surmounted by the teachers' epilogue and discussions among students.

With the help of the class of Yasukuni controversy, students have surpassed the linear history adopted in Korea and understood the

complex structure of Yasukuni. Furthermore, they have concern in such issues as have not been discussed in school classes. In a word, an effect of the history class of pluralism is that students have become able to connect historical facts with their current life and reinterpret the history. The effect has paved the way for the students to go forward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keywords

Historical Reconciliation, pluralism, Yasukuni-Shrine, Yasukuni controversy, View of history, Pluralistic History Teaching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高句麗 長安城과 新羅 王京

- 街路區劃 방식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김희선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I. 머리말

지금까지 新羅 王京은 唐 長安城의 영향을 받아 통일기 이후에나 街路區劃이 정비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¹⁾ 高句麗 도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라 도성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지거나,²⁾ 前期 平壤城과 관련하여 검토되었다.³⁾ 그러나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布置 시기는 고구려 長安城이 축조되기 시작한 6세기 중반 이후로 상정되며, 적어도 통일기 이전에 1차 정비가

- 1) 尹武炳, 1987, 「新羅王京의 坊制」,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集』.
- 2) 閔德植, 1989,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시고」(上), 『사총』 35, 50~51쪽. 민덕식은 신라 왕경의 초기 가로구획이 古式的이며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라가 당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도시계획에 입각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나, 고구려 도성과 신라 왕경의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 3) 양정석, 2004, 『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 196~199쪽. 양정석은 北魏로부터 영향을 받은 5~6세기 고구려의 사찰 조영방식과 평양 천도 직후의 도성계획이 황룡사의 금당 조영과 주변의 도성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고구려 장안성의 축조와 황룡사의 중건이 거의 동시대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坊의 분할방식이나 도로체계에서도 고구려 장안성과 상당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장안성과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방식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먼저 조선 후기의 문헌자료와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 방식과 도로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도와 발굴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 도성의 坊의 분할방식과 도로체계·營造尺 등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양국의 교섭관계와 문화교류 양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高句麗 長安城의 都城計劃

1_ 坊의 형태와 규모 및 分割方式

고구려 장안성의 坊의 형태와 규모는 먼저 조선 후기의 문헌자료에서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조선시대에는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 유적이 箕子

4)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장안성(後期 平壤城)에 앞서 먼저 前期 平壤城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長壽王代에 천도한 전기 평양성은 安鶴宮城인지 淸岩里土城인지 그 위치 비정조차 불명확하다. 또한 북한 학계에 의해 안학궁성에 가로구획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한인호·리호, 1991, 「안학궁터부근의 고구려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물자료나 발굴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본고에서 다루는 가로구획 방식의 문제는 坊의 형태와 규모, 도로의 실측치와 영조척 등을 바탕으로 논의되는 것이므로, 안학궁성이 전기 평양성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가로구획 방식을 논의하기는 어려움을 밝혀둔다. 다만 전기 평양성에서 가로구획의 시행 여부는 고구려 장안성에서 가로구획의 布置시기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발굴조사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의 井田遺制로 파악되었으나, 韓百謙은 宣祖 40년(1607)에 이 유적을 직접 조사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⁵⁾ 그는 田字形의 구획(坊)이 4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坊을 田으로, 1개의 방을 4등분한 소구획을 區라고 표기하였으며, 16개의 田(坊) 즉 64區가 하나의 큰 구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각 坊과 도로의 배치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箕田圖」를 남기고 있는데, 이 「기전도」에 그려진 坊의 형태를 보면 동서로 긴 장방형의 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자료인 『箕子志』(1879)⁶⁾의 「井田圖」에는 정방형으로 그려져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20세기 초에 들어서 일본인 학자 關野貞에 의해 이 遺制가 고구려의 도시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田字形 구획(坊)의 규모 또한 더욱 정확히 계측되었다.⁷⁾ 그는 外城 안에 남아 있던 도로의 네 귀퉁이에 세워진 石標(法樹)의 간격을 실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1坊의 길이가 양쪽 도로폭을 포함하면 高句麗尺으로 600척(약 213.6m)이며, 도로의 폭을 제외하면 500척(약 178.19m)임을 확인하였다.⁸⁾

이와 함께 1950년대 북한에 의해 또 다른 도로의 실측치도 확인되면서,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와 북한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고구려 장안성의 방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었다.

먼저 최희림은 한백겸의 「기전도」를 바탕으로 坊의 동서와 남북의 비례가 10 : 7로 구획된 것으로 보면서 1區(1개의 방을 4등분한 소구획)의 동서의 폭을 120m, 남북의 폭을 84m로 보았다.⁹⁾ 이는 현재의 中城壁에서부터 외성 안

5) “丁未(宣祖 40) 가을에 (中略) 平壤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箕田遺制를 보았다. 阡陌이 모두 정연하게 남아 있어 파괴되지 않았다. (中略) 그 가운데 舍毬門과 正陽門 사이의 구획이 가장 분명하였다. 그 제도는 모두 田字形을 이루었고, 田에는 4區가 있고, 매 區는 모두 70畝이다. 大路의 안에서 가로로 보아도 4田8區이고, 세로로 보아도 역시 4田8區이다.” (韓百謙, 『久菴遺稿』, 上, 箕田遺制說)

6) 『平壤續志』, 古蹟條 인용본.

7) 關野貞, 1928,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39-1.

8) 關野貞은 1尺을 0.356m로 산정하고 계측하였다.

9) 최희림,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의 동서대로까지의 실측치를 먼저 구한 다음,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坊과 도로의 개수를 「기전도」에서 확인하여 산출한 것이다. 즉 「기전도」에 따르면 이 구간에 4개의 坊(8개의 區)과 함께 中路 3條·小路 4條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구간의 실측치인 695~700m에서 도로폭의 합계(22.4m)를 뺀 수치를 8로 나누어 1區의 남북 길이를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중로와 소로의 도로폭은 직접 조사된 것이 아니라 대로의 도로폭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도로폭을 제외한 1區의 길이는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리화선은 「정전도」와 1930년대의 「평양시가지도」를 바탕으로 平川里 일대의 방의 형태를 정방형으로 보았다. 그는 정방형의 방이 1930년대까지 완전히 남아 있으므로, 방의 형태를 장방형으로 그린 「기전도」보다는 정방형으로 그린 「정전도」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1구의 1변의 길이는 85m로, 1방의 1변의 길이는 170m로 산출하였는데,¹⁰⁾ 산출 원리는 실측 구간만 다를 뿐 최희림의 1구의 남북 길이 산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연구자들에 따라 「기전도」와 「정전도」에 보이는 동서장방형이나 정방형 중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방의 형태가 설정된 반면, 한인호는 장안성의 지형조건에 맞게 장방형과 정방형의 구획들이 적절히 배합된 것으로 보았다. 즉 그는 외성 안의 방 전체를 장방형으로 복원하면 正陽門 서쪽 구간의 실측치와 맞지 않으며 정방형으로 복원하면 正陽門-含毬門 구간의 실측치와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양문-함구문 구간에는 동서 장방형의 방으로 1구가 동서 120m·남북 84m이며, 정양문 서쪽 구간에는 정방형의 방으로 1구의 1변이 84m인 것으로 보았다.¹¹⁾ 즉 최희림과 리화선의 견해를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일본인 연구자 龜田博은 1910년대의 「平壤」도판¹²⁾을 바탕으로 평

10) 리화선, 1989, 「고구려 평양성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9-1.

11) 한인호·리호, 1993, 「평양성외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1.

12) 1만분의 1 「平壤 二」(1916년 발행)와 5만분의 1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 上冊」

천리 일대의 방의 규모를 계측하여, 동서길이 182m, 남북길이 181.5m의 정방형의 방(도로폭 제외시 약 175m)을 산출하였다.¹³⁾ 이 역시 「기전도」에 보이는 방과 도로의 개수를 바탕으로 도판에서 추출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구려 장안성의 坊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高句麗 長安城의 坊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제 견해¹⁴⁾

구분	坊의 형태	坊의 규모 (m)
關野貞	정방형	1변 178.19
최희림	동서 장방형	동서 240 × 남북 168 (1區 동서 120 × 남북 84)
리화선	정방형	1변 170 (1區 1변 85)
한인호	동서 장방형과 정방형 혼합	① 동서 240 × 남북 168 ② 1변 168 (1區 1변 84)
龜田博	정방형	1변 175

현재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방의 형태와 규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와 외성의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안성의 가로구획은 외성이 둘러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시행되었고,¹⁵⁾ 외성의 형태 역시 方形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전도」에 보이는大路로 구획된 나머지 공간에 장방형이나 정방형 중 어느 한 형태로만 방 전체를 완전하게 전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 결과 연구자들의 해석이 분분해

(1903,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의 付圖를 바탕으로 하였다.

13) 龜田博, 2000, 『日韓古代宮都の研究』, 學生社.

14) 방의 규모는 도로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계측치이다.

15)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은 외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성에도 布置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성의 남쪽 평지대에 성문을 통하여 외성의 도로망 체계와 연결되는 대로의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한인호·리호, 1993, 앞의 글),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은 외성에만 국한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백겸은 『箕田遺制說』에서 함구문과 정양문 사이의 유적이 가장 선명하다고 하면서 「기전도」에 그 구획을 장방형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1930년대 평천리 일대에 남아 있던 방의 형태는 분명 장방형이 아닌 정방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호의 견해처럼 장방형과 정방형의 방이 적절하게 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즉 고구려 장안성에는 부정형의 평면형태에 외곽성이 둘러진 제한된 공간에 가로구획이 시행되어 크기가 다른 장방형과 정방형의 방이 포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방형의 방의 남북길이와 정방형의 1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양자의 일정한 연관성에 두 가지 형태의 방이 배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坊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산출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의 한계상 「기전도」에 보이는 방·도로의 개수와 그 배치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구할 수 있는 구간의 실측치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다만 외성 자체가 네모 반듯한 方形이 아닌데다 도로의 규모 또한 중로·소로의 경우에는 실측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오차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정방형의 1변의 길이와 장방형의 남북길이는 대략 168~178m로, 장방형의 동서길이는 240m로 그다지 큰 규모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坊의 분할방식에 대해서는 田字形의 4분할법이 적용되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이나 그가 그린 「기전도」를 보면 격자형의 도로망에 의해 매개 구획이 田字形으로 분할되어 1坊(田)이 4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구려 장안성의 1방은 十字形의 小路에 의해 4등분되는 4분할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가로구획의 분할선이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은 等間隔으로 토지 분할을 한 후 도로를 내고 있어, 도로폭에 따라 방과 택지의 면적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구려 장안성의 경우는 실측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로 외에 중로와 소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가로구획 방식을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 학자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에서 방의 크기는 坊과 坊, 區와 區 사이의 도로폭을 밝히고 도로의 중심축을 분할축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실제 도로의 중심축을 분할선으로 하지 않고서는 방의 크기와 택지의 규모를 일정한 체계로 유형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 장안성에서는 본래 도시를 계획할 때 우선 1坊의 규모를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하고 여기서 도로폭을 제외시킨 나머지를 주택구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1坊을 구획한 데서 4區의 면적과 4區의 동서남북에 만들 도로폭의 반을 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¹⁶⁾ 이에 따라 사방의 도로면적에 따라 방내의 실제 택지 면적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_ 道路體系

고구려 장안성의 도로체계 역시 먼저 한백점의 『기전유제설』을 바탕으로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¹⁷⁾ 이에 따르면 고구려 장안성에는 坊을 4분할하는 십자로운 小路와 방과 방 사이를 구획하는 坊間路인 中路, 방보다 큰 대구획을 구획하는 大路가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로체계의 양상은 「기전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古里門-多景門을 연결하는 동서대로와 車避門으로 통하는 남북대로, 북쪽으로 각각 함구문과 정양문으로 통하는 남북대로가 외성 안의 기본도로이며, 이러한 대로를 중심으로 중로와 소로가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동서로는 15개의 중로와 17개의 소로를, 남북으로는 13개의 중로와 12개의 소로를 내어 정연한 도로체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대로의 경우는 1953년의 북한에 의한 현지조사와 그 이전 關野貞의 실측조사에 의해 실제로도 확인되었으나, 중로의 경우는 「기전도」에 따

16) 閔德植, 1989, 앞의 글, 204쪽.

17) “區의 사이에는 1畝路가, 田의 사이에는 3畝路가 있다. 64區를 하나로 구획한 바깥 3면에는 9畝大路가 있는데, 이 대로는 두 성문(含毬門·正陽門)으로부터 詠歸亭 나루에 닿는다.” (韓百謙, 『久菴遺稿』上, 箕田遺制說)

르면 함구문 남북대로와 정양문 남북대로 사이에 남북으로 세 갈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20세기 초의 지적도에 따르면 남북로는 두 갈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⁸⁾ 소로의 경우는 실제로 확인된 바가 없어, 「기전도」와 실제 도로체계 사이의 오차에 대한 검증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구려 장안성의 도로가 대로·중로·소로로 유형화된 것은 사실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확인된 대로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關野貞은 도로의 폭을 정할 때 도로의 네 귀퉁이에 세웠던 法樹 간의 거리를 고구려적으로 실측하여 대로가 40척(약 14m)임을 확인하였다.¹⁹⁾ 이는 비록 발굴조사에 따라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의 四隅에 세워진 법수 간의 실측을 통해 도로폭을 추출한 방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關野貞이 조사했던 당시의 도로의 흔적이 한백검이 확인했던 17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당시의 석표가 고구려시기에 도로를 구획하고 세운 四隅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關野貞에 의해 추출된 대로(법수 간격)의 수치는 1950년대 북한 학계에 의해 확인된 수치와 동일하다.

1953년 북한 중앙역사박물관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거피문을 통과하는 남북대로의 법수 폭은 13.8~13.9m였으며, 함구문을 통하는 남북대로의 법수 폭은 13.9~14m였다. 이와 함께 1954년 김책공업대학 건물 기초공사 중 드러난 고리문에서 다경문을 연결하는 동서대로의 폭은 12.6~12.8m였고, 도로의 양측에는 약 60~70cm 폭의 側溝(배수로)가 확인되었는데, 이 측구까지 합한 폭은 약 13.8~14m로 실측되었다.

이처럼 외성 안의 대로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로와 소로의 도로폭도 함께 추산되었는데, 북한 학계의 연구자들은 「기전유제설」에 보이는 1·3·9畝路의 도로가 3배수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로·소로

18) 田中俊明, 2004, 「고구려 장안성의 평면구조」, 『제1회 고구려연구재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19) 關野貞, 1928, 앞의 글, 21~25쪽.

의 도로폭을 추산하였다.²⁰⁾ 즉, 측구를 포함하지 않은 대로의 폭이 약 12.6~12.8m이므로,²¹⁾ 중로는 4.2m로, 소로는 1.4m로 산정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실제로 확인된 수치는 아니므로 실제 수치와 일정한 오차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_ 營造尺

현재 고구려 장안성을 비롯한 현존하는 고구려유적에서 高句麗尺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高句麗尺'²²⁾이라는 명칭 그대로 고구려에서 자생한 척도가 장안성의 街路區劃은 물론 도성 조영의 척도기준으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의 고구려척에 대한 연구성과²³⁾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²⁴⁾

20) 최희립, 1978, 앞의 책 ; 리화선, 1989, 앞의 글 ; 한인호·리호, 1993, 앞의 글.

21) 리화선은 측구가 포함된 대로의 도로폭(14m)을 기준으로 중로와 소로의 도로폭을 산출하였는데, 중로·소로에는 측구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측구가 포함되지 않은 대로의 도로폭(12.6~12.8m)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2) 고대 일본 문헌인 『令集解』 등에는 '高麗尺'(후대의 高麗와 구분하기 위해 高句麗尺으로 통칭되고 있다)이라는 명칭 자체와 그 실제 사용 예가 확인되고 있다(『令義解』 권10, 雜令 第30 ; 『令集解』 권12, 田部).

23) 최근 윤선태에 의해 고구려척이 중국의 절대길이와 절대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생산량에 기초한 量田의 단위면적을 산출하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하였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尹善泰, 2002, 「韓國 古代의 尺度와 그 變化-高句麗尺의 誕生과 관련하여」, 『國史館論叢』 98).

24) 이에 반해 고구려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고구려척의 표준척이 남아 있지 않고 고구려척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유물·유적도 없으며 중국의 척도가 대부분 시기적으로 조금씩 길어져 가는 경향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고구려척을 계산에 따라 만들어진 상상의 척도로 규정한 것이다(新井宏, 1992, 『まぼろしの古代尺』, 吉川弘文館). 그러나 표준척이 남아 있지 않고 중국 척도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도 모든 척도가 그러한 범주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은 아니며, 표준척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비단 고구려척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朴贊興, 1995, 「高句麗尺에 대한 研究」, 『史叢』 44, 16~17쪽). 더구나 고구려척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令集解』의 고구려척 관련사료를 明法學者의 私的인 견해로 보면서 大寶令의 大尺은 唐大尺이며 고구려

고구려척이 장안성의 基準尺으로 사용된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연구자는 關野貞이다. 그는 현지조사를 통해 실측한 법수의 간격을 바탕으로 고구려 장안성이 35.6cm를 단위 길이로 하는 東魏尺(고구려척)을 기준으로 구획되었음을 확인하였다.²⁵⁾ 비록 그는 고구려척이 동위척에서 기원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으나,²⁶⁾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외성 안의 대로가 40척 그리고 1방의 1번 길이가 500척(도로 포함 600척)으로 구획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구려 장안성의 측도기준과 고구려척의 실제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실제 고구려 장안성의 대로와 각 성문·성벽 간의 실측치를 살펴보면 35cm를 단위길이로 하는²⁷⁾ 고구려척의 完數値를 확인할 수 있다.

척은 실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新井宏, 1992, 앞의 책, 102~103쪽). 그러나 관련사료에 전하는 和銅格의 尺數 변화 등이 이후의 慶雲格의 내용과도 서로 조응하고 있으므로, 대보령의 大尺이 고구려척이고 그것이 실제하였던 것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尹善泰, 2002, 앞의 글, 35쪽). 특히 고구려척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古韓尺’이라 이름지은 26.7cm의 척도가 隋唐 이전까지 삼국과 일본에서 널리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新井宏, 1992, 앞의 책; 新井宏, 2002, 『三國史記·遺事』記事에 의한 新羅王京 復元和 古韓尺, 『百濟研究』36), 기록에 분명히 보이는 고구려척을 부정하고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古韓尺’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朴贊興, 1995, 앞의 글, 17쪽).

25) 關野貞, 1928, 앞의 글.

26) 關野貞을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동위척과 고구려척을 같은 길이의 척도로 보면서 고구려척이 동위척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隋書』律曆志의 기록(東魏後尺 實比晉前尺一尺五寸八毫. 『隋書』권16, 志 第11 律曆上)에 의거하여 晉前尺(23.1cm)의 1,5008척(34.67cm)을 동위척의 길이로 보고, 이것이 『命集解』田部に 나오는 고구려척과 비슷한 길이임에 주목하였던 것이다(狩谷掖齋, 1835, 『本朝度考』, 『本朝度量權衡考』). 이러한 견해는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별다른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되었고, 발굴보고서 등에도 동위척과 고구려척은 같은 길이의 척도로 혼용되었다. 그러나 中國尺度史 연구자들에 의해 동위척에 대한 『隋書』律曆志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동위척은 晉前尺의 1,3008척이라는 『宋史』律曆志의 기록(東魏後尺 比晉前尺爲一尺三寸八毫. 『宋史』권71, 志 第24 律曆4)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曾武秀, 1990, 『中國歷代尺度概述』,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이로써 동위척은 晉前尺(23.1cm)의 1,3008배인 30.05cm가 되어 고구려척과는 그 길이가 전혀 다른 척임이 명확해졌다(申榮勳, 1975, 『韓國 古建築 斷章(上)』, 동산문화사, 73쪽; 朴贊興, 1995, 앞의 글, 10~21쪽).

27) 고구려척의 길이는 당대척의 1.2배로 35.16~37.44cm의 범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고구려의 건축물에 쓰인 고구려척의 길이를 종합해 보면 35~36cm로 볼 수

먼저 외성 안의 대로는 전술하였듯이 고구려적으로 40척(14m)이라는 뚜렷한 완수를 얻을 수 있으며, 측구를 제외하면 36척(12.6m)이므로 측구 또한 2척(0.7m)의 완수를 얻을 수 있다. 대로를 통해 추산된 중로와 소로 역시 12척(4.2m)과 4척(1.4m)이라는 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외성 안의 각 실측치도 마찬가지이다.²⁸⁾ 먼저 함구문과 정양문의 중심간 거리는²⁹⁾ 약 980m이고 이 구간의 남북거리는 약 700m로 확인되는데,³⁰⁾ 각각 고구려적으로 2,800척과 2,000척이라는 뚜렷한 완수를 얻을 수 있다. 정양문 중심에서 거피문 북향대로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약 1,050m로, 역시 고구려척 3000척이라는 뚜렷한 완수가 확인된다. 거피문에서 중성 남벽까지는 약 2,100m로 확인되는데, 이 역시 고구려척 6,000척이라는 완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함구문에서 외성동벽까지의 실측치는 약 260m로, 고구려적으로 환산하면 약 742.85척으로 이 구간만 완수를 얻을 수 없으나, 외성 동벽 구간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 기슭을 따라 안쪽으로 휘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실측치나 고구려시기 당시의 척수에도 일정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 장안성의 외성 안의 각 구간은 고구려척에 의해 일정한 단위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완수로 된 단위척 체계에 따라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있다(朴贊興, 1995, 앞의 글, 15~16쪽). 이 글에서는 북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35cm를 단위길이로 하여 계측하고자 한다.

28) 외성 안의 각 실측치는 북한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였다. 주 20) 참조.

29) 함구문의 위치는 현재 평양의 '나라길 시작점' 부근이고, 정양문의 위치는 창광내 거리 지점이라고 한다(한인호·리호, 1993, 앞의 글, 15쪽).

30) 정양문-함구문 구간의 남북길이와 같은 고리문-다경문을 잇는 동서대로에서 중성벽까지의 길이도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 695~700m로 확인되었다고 한다(과학백과출판사, 1978, 『고구려』, 105쪽).

31) 이는 여타 고구려유적의 고구려척 사용례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安鶴宮은 34.7~35cm를 1척으로 하는 고구려척에 따라서 조영되었으며(리화선, 1980, 「안학궁의 터자리 복원을 위한 몇가지 문제」, 『력사과학』 1980-1), 정릉사에 사용된 척도도 안학궁에 사용된 척도와 거의 비슷하여 34.7~35cm 길이를 갖는다(한인호, 1981, 「정릉사 건축의 평면구성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1-2). 또한 금강사에서

이 밖에 외성 안 각 구간의 실측치와 「기전도」에서 확인 가능한 坊의 개수를 바탕으로 추산된 1방의 규모를 고구려적으로 환산해 보면, 정방형 방의 경우 대략 500척의 완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방형 방의 경우는 대략 700척의 완수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실제로 확인된 실측치가 아니므로 역시 일정한 오차는 피할 수 없다.

이상에서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방식과 면밀히 비교·검토함으로써 이들 도성의 상관성과 가로구획 방식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Ⅲ. 新羅 王京의 都城計劃

1_ 坊의 형태와 규모 및 分割方式

지금까지 新羅 王京의 街路區劃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기록과 지적도, 발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라 왕경에 관한 관련 기록에 따르면³²⁾ 가장 작은 하위의 공간단위로서 坊이 있고 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里와 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³⁾ 坊이 행정단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는 35cm의 고구려척을 단위적으로 하여 35척을 기준으로 건축하였음이 확인되었다(리화선, 1986, 「고구려 금강사와 그 터자리 구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4).

32)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三國遺事』 권1, 紀異1 辰韓條; 『三國遺事』 권5, 遼隱8 念佛師條.

33) 坊(1,360개 또는 360개), 里(35개 또는 55개), 部(6개)의 수로 보아 방이 가장 작은 공간단위이고 이를 기초로 리와 부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산신성비 제3비」(591)의 喙部 主刀里'라는 명문은 부 아래에 리가 설정된 사실, 그리고 金入宅의 위치를 방명으로 표기한 것은 방이 리보다 작은 공간단위임을 각각 반영한다(余昊奎, 2002, 「新羅 都城의 空間構成과 王京制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 18, 38쪽).

도 없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방이 행정단위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방이 리보다 작은 하위의 단위로서 왕경의 가장 작은 최소 공간단위였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왕경의 長廣과 함께 각기 1,360坊 또는 360坊이라는 상이한 기록이 전하고 있어, 전체 왕경의 범위와 1방의 규모 설정에 따라 두 기록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⁴⁾ 그러나 관련기록에 전하는 왕경의 장광만으로는 그 범위를 설정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고,³⁵⁾ 방의 숫자를 전하는 두 기록 또한 모두 下代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면서도 방의 숫자에는 너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³⁶⁾ 현재로서는

34) 윤무병은 36방(360방)으로 구성된 왕경복원을 시도하였고(尹武炳, 1972, 「역사도시 경주의 보존에 대한 조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대한 연구』 1), 김병모와 장순용 역시 신라 왕경의 방의 수를 360방으로 파악하였다(金秉模, 1984, 「도시계획」, 『역사도시 경주』, 열화당; 張順鏞, 1976,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러나 민덕식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1,360방이 더 정확한 숫자라고 보았고(閔德植, 1989, 앞의 글), 최근에 연구성과를 발표한 龜田博 역시 『삼국유사』에 기록된 방의 숫자가 더 정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龜田博, 1993, 「新羅王京の地割り」, 『關西大學考古學研究室開設四十周年記念考古學論叢』). 이는 모두 왕도의 범위와 1방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악된 견해로서, 왕도의 범위와 1방의 규모에 대한 同 연구자들의 견해는 아래의 주 33)과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35) 연구자들에 따라 周尺, 唐尺, 高句麗尺을 기준으로 각기 그 범위가 산정되었다. 윤무병은 周尺을 적용하여 길이 3670m, 너비 3620m로 산정하였고(尹武炳, 1972, 앞의 글, 131쪽), 민덕식은 唐尺을 적용하여 길이 5424m, 너비 5323m로 추산한 다음 실제로는 사방 5600m였다고 보았다(閔德植, 1986, 「신라왕경의 도시설계와 운영에 관한 고찰」, 『백산학보』 33, 10~11쪽). 여호규는 고구려척을 적용하여 길이 5473.5~5565.8m, 너비 5372.0~5462.6m라는 추정치를 얻어 지적도상에서 확인되는 도시계획구역 범위와 대략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余昊奎, 2002, 앞의 글, 44~45쪽). 그러나 왕도의 長廣 기사의 시점은 지리지 기사가 景德王代 군현명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中代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金泰植, 1995, 「三國史記 地理志 新羅條의 史料의 檢討」,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9~244쪽) 당시에 당척을 기준으로 왕경의 범위를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고기 이래 고구려척으로 설정된 왕경의 범위를 기록한 것인지 명확치 않다.

36) 中代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三國史記』 지리지의 35리보다 下代의 상황을 전하는 『三國遺事』 기사의 55리는 중대 이후 도성의 공간범위가 확장되었을

어느 쪽이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신라 왕경의 坊의 형태와 규모 등 가로구획 방식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지형도·지적도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신라 왕경의 도성계획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개시한 藤田元春은 1만분의 1 지형도를 토대로 1坊의 크기를 사방 400척(高句麗尺, 약 140m)으로 보았고,³⁷⁾ 藤島亥治郎은 1200분의 1 지적도를 바탕으로 1방의 규모를 역시 사방 400척(고구려척, 약 140m)으로 파악하였다.³⁸⁾ 그러나 이후의 후속연구를 통해 신라 왕경의 방은 동서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파악되기 시작하는데, 먼저 齊藤忠은 1구역을 동서 152m와 남북 142m로 설정하였고,³⁹⁾ 윤무병은 1방의 크기를 동서 160m(460고구려척)와 남북 140m(400고구려척)로 설정하였다.⁴⁰⁾ 김병모와 장순용 역시 동서 160m(460고구려척)와 남북 140m(400고구려척)로 보았고,⁴¹⁾ 민덕식은 동서 164.5m(470고구려척)와 남북 140m(400고구려척)로,⁴²⁾

〈표 2〉 新羅 王京의 坊의 규모에 대한 제 견해⁴³⁾

(단위 : m)

구분	藤田元春	藤島亥治郎	齊藤忠	윤무병	민덕식	김병모	龜田博
동서	약 140 (400고구려척)	약 140 (400고구려척)	152 (504曲尺)	160 (460고구려척)	164.5 (470고구려척)	160 (460고구려척)	162 (450고구려척)
남북	약 140 (400고구려척)	약 140 (400고구려척)	142 (504曲尺)	140 (400고구려척)	140 (400고구려척)	140 (400고구려척)	144 (400고구려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전덕재, 1998, 「신라 6부명칭의 어의와 그 위치」, 『경주문화연구』 창간호), 같은 하대의 상황을 전하는 『三國遺事』 기록의 坊의 숫자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7) 藤田元春, 1929, 『都城考』, 『尺度綜考』.

38) 藤島亥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1)·(2), 『建築雜誌』; 藤島亥治郎, 1969, 『朝鮮建築史論』.

39) 齊藤忠, 1936, 『新羅의 王京跡』, 『夢殿』 15; 齊藤忠, 1973, 『新羅文化論攷』.

40) 尹武炳, 1972, 앞의 글.

41) 金秉模, 1984, 앞의 글; 張順鏞, 1976, 앞의 글.

42) 閔德植, 1989, 앞의 글.

43) 이 가운데 藤島亥治郎은 도로폭을 14m(40고구려척)와 28m(80고구려척)로 따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방의 규모는

龜田博은 동서 162m(450고구려척)와 남북 144m(400고구려척)로 설정하였다.⁴⁴⁾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처럼 신라 왕경의 방의 규모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동서 160~165m, 남북 140~145m로 설정됨을 알 수 있다.⁴⁵⁾ 앞으로도 지적도를 바탕으로 검토한 방의 규모는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더 정확한 방의 규모는 신라 왕경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으나, 기존의 지적도를 통한 검토와의 오차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⁶⁾

한편 방의 형태에 대해서는 방의 규모에 따라 동서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⁴⁷⁾ 다만 고구려 長安城에서 장방형의 방과 정방형의 방이 적절히 배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 왕경에서도 왕경 전체에 동서로 긴 장방형의 방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皇龍寺址 주변의 방의 형태는 다른 구획과 달리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皇龍寺 동편의 이른바 신라 왕경유적(S1E1지구)에 관한 구체적인 면모가 확인되었는데, 황룡사지 동편의 왕경유적 1구획은 외곽에 설치된 격자형의 도로에 의하여 다른 구획과 나누어지며, 가옥들은 도로 안쪽에 口字形으로 설치된 담장 내부로 한정되는 方形的 택지에 배치되어 있어, 신라 왕경의 최소 공간단위인 坊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사결과

163.9m(460고구려척)로 추산되므로(余昊奎, 2002, 앞의 글, 39쪽) 다른 연구자들의 동서길이와 거의 같다.

44) 龜田博, 1993, 앞의 글.

45) 余昊奎, 2002, 앞의 글, 40쪽.

46) 이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황룡사지 동편 왕경유적 주변의 도로 배치가 기존의 지적도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龜田博, 2000, 『日韓古代宮都の研究』, 學生社, 239쪽).

47) 藤田元春과 藤島亥治郎은 신라 왕경의 방의 형태를 정방형으로 파악하였는데, 특히 藤島亥治郎은 지적도에 가장 명확히 남아 있는 황룡사 부근의 리방구획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신라 왕경의 방의 형태를 정방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이 구획의 크기는 동서도로의 중심축간 거리가 167.5m, 남북도로의 중심축간 거리가 172.5m 내외로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⁴⁸⁾ 이러한 양상은 小京, 州治가 설치되었던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황룡사지 주변의 정방형의 리방구획은 우연하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인 조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⁹⁾

이처럼 신라 왕경의 방의 형태와 규모는 고구려 장안성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방의 분할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신라 왕경 역시 고구려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4분할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⁵⁰⁾ 현재까지의 발굴성과로는 방 내의 십자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방 내부의 우물에서 시작된 소규모의 側溝(배수로)가 다시 중규모의 측구에 연결되고 중규모의 측구가 다시 대규모의 측구에 접속되는 것을 볼 때, 도로 또한 이와 유사한 체계로 조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¹⁾ 즉 방과 방 사이의 도로나 리(대구획)와 리 사이의 도로 체계가 고구려 장안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신라 왕경의 매개 방도 십자형의 소로에 따라 4분할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신라 왕경에서도 가로구획의 분할선은 도로중심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자에 따라 신라 왕경 1방의 규모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은 본질적으로 신라 왕경의 방의 구획이 도로를 포함하여 계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적도상에 남아 있는 흔적을 보아도 신라 왕경의 방 전체가 동일한 규모로 계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신라 왕경의 방의 규모가 도로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인접한 도로의 규모에 따라 그 크기가 달랐기 때문으로

4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發掘調査報告書』 1.

49) 余昊奎, 2002, 앞의 글, 40~43쪽. 이와 함께 황룡사가 본래 신궁조영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황룡사 주변 구획만의 특수성일 가능성도 있다.

50) 藤田元春, 1929, 앞의 글; 田中俊明, 1988, 『韓國の古代遺跡』 1(新羅篇), 中央公論社, 254~266쪽.

51) 禹成勳, 1997, 「신라왕경 경주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3쪽.

생각된다.⁵²⁾ 즉 가로구획 당시 도로를 별도로 구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겹친 방은 도로의 폭만큼 방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다.⁵³⁾ 이처럼 신라 왕경 역시 고구려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방과 도로의 너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구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택지 또한 도로폭의 차이만큼 그 면적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라 왕경의 경우 방 내부의 택지는 대로에 면한 것이 소로에 면한 것보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각각의 주택은 담장을 공유하면서 이웃하고 있는데, 소로에 면한 문지의 간격이 대로에 면한 문지의 간격보다 좁게 나타나고 있다.⁵⁴⁾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 장안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엮을 것이다.

2_ 道路體系

현재 발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신라 왕경 도로는 21개소로서 현 경주시의 전역에 걸쳐 넓게 布置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먼저 황룡사지 동편의 왕경유적(S1E1구획)에서 南便 동서도로, 北便 동서도로, 西便 남북도로, 東便 남북도로가 각각 조사되었다.⁵⁵⁾ 이들 황룡사지 주변도로는 그 도로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편 동서도로는 12.7m에서 15.5m, 서편 남북도로는 12~13m, 북편 동서도로는 5.5~7.5m, 동편 남북도로는 5.5m 내외의 도로폭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남편 동서도로와 서편 남북도

52) 禹成勳, 1997, 앞의 글, 108쪽.

53) 閔德植, 1989, 앞의 글, 38쪽.

54) 이와 함께 도로와 인접한 택지 네 변에 배치된 가옥은 직접 도로쪽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은 반면, 택지 중앙부에 위치한 가옥들은 도로에서 택지로 통하는 소형도로 쪽으로 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의 택지 내 가옥 배치에 있어 사찰이나 귀족의 저택 등 격이 높은 건물은 출입이 용이한 도로변에 배치하는 택지 분할의 한 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556쪽).

5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446~455쪽.

로의 도로폭이 비교적 넓고, 북편 동서도로와 서편 남북도로의 도로폭이 좁은 데, 이를 통하여 비교적 넓은 폭을 가진 도로를 중심으로 몇 개의 坊을 합한 구획, 즉 방보다 더 넓은 구획(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⁵⁶⁾ 또한 모든 도로가 수차에 걸쳐 전면적인 개축 및 부분적으로 보수된 사실이 각 도로의 단면 조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황룡사지 주변도로가 그 도로폭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 규모의 유형화는 다른 신라 왕경도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립경주박물관부지 내 동서도로⁵⁷⁾는 황룡사지 남편 동서도로와 같은 규모로 15~16m의 도로폭이 확인되었으며, 城東洞 건물지 서편 남북도로⁵⁸⁾는 조사결과 확인된 도로폭이 13.4m 정도이지만 원래의 너비는 더 넓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왕경도로로서는 먼저 仁旺洞 556·566번지 도로유적⁵⁹⁾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상·하층으로 구분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조사되었는데, 동서도로는 상·하층 모두 側溝(배수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북도로는 도로폭이 10.2m 정도로 확인되었고 도로의 서단부에서 측구 형태를 띠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隍城洞 950-1·7번지 도로유적⁶⁰⁾ 또한 최대 너비 10.9m로서 모두 3차에 걸쳐 개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회 확장된 도로폭은 약 3.5m 정도가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산 왕정곡 남북도로⁶¹⁾도 도로폭이 약 10m로 확인되며, 개설 당시의 도로폭은 이보다 1~2m 정도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성해자 도로유적⁶²⁾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서 도

56) 전덕재, 2005, 「新羅 里坊制의 施行과 그 性格」,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6, 105쪽.

57) 國立慶州博物館, 2002,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

58) 朴方龍, 1995, 「新羅 都城의 交通路」, 『慶州史學』 16, 170쪽.

5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 發掘調査報告書』.

60) 韓國文化財保護團·(주)영우주택건설, 2005, 『慶州 隍城洞 950-1·7番地 共同住宅 新築敷地 發掘調査報告書』.

61) 朴方龍, 1995, 앞의 글, 273쪽.

6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4, 『年報』 4.

로폭이 9m 정도로 확인되었고, 도로의 동편에서 석축의 측구가 확인되었다. 芬皇寺 남편 동서도로⁶³⁾ 역시 도로폭이 9m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월성 석교 남편 남북도로⁶⁴⁾ 역시 도로폭이 9m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왕경도로로서는 먼저 東川洞 우방아파트 부지 남북도로⁶⁵⁾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크게 3개층의 도로가 확인되었는데, 도로폭은 6.5m 정도이며, 최상층의 도로에서 중앙부에 설치된 측구가 확인되었다. 황성동 535-8번지 도로유적⁶⁶⁾은 도로폭이 5.2m 내외로서 모두 2차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성동 537-2번지 도로유적⁶⁷⁾ 역시 도로폭이 5m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龍江洞 苑池 도로유적⁶⁸⁾도 도로폭이 5.2m 정도로 추정되었고, 도로와 관련된 측구가 확인되었다. 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도로유적⁶⁹⁾에서는 도로폭 6.5m 정도의 동서도로와 도로폭 3.5m 정도의 남북도로가 확인되었다. 西部洞 19번지 도로유적⁷⁰⁾의 동서도로는 도로폭이 4m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남편으로 川石으로 축조된 측구가 확인되었다. 남북도로는 도로폭이 약 10m 정도로서, 서편에서 측구가 확인되었다. 北門路 도로유적⁷¹⁾의 동서도로는 도로폭이 4m, 남북도로는 도로폭이 7~8m 정도로 확인되었다. 황성동 제철유적 동편 남북도로⁷²⁾ 역시 도로폭이 6.5m 정도로 확인되었고, 동천

6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年報』 5, 35~35쪽.

6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4, 『年報』 4, 23쪽.

65) 朴方龍, 1995, 앞의 글, 173쪽.

66)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2, 『慶州 隍城洞 遺蹟 537-1·10, 537-4, 535-8, 544-1·6番地 發掘調査 報告書』.

67) 韓國文化財保護財團·(주)大興住宅, 2001, 『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68) 嶺南文化財研究院·慶尙北道慶州教育廳, 2001, 『慶州龍江洞苑池遺蹟』.

6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2, 『王京遺蹟 I- 隍城初等學校 講堂敷地』.

7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71)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72) 國立慶州博物館, 1991, 『慶州隍城洞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住公아파트 建立敷地 第2次地區』.

〈표 3〉 新羅 王京道路의 규모

분류	도로명	도로폭(m)	비고
1	황룡사지 남편 동서도로	12.7~15.5	도로의 개축에 따라 최대 15.5m
	황룡사지 서편 남북도로	12~13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동서도로	15~16	
	성동동 건물지 서편 남북도로	13.4	원래 더 넓었을 가능성 있음
2	인왕동 556·566번지 도로유적	10.2	
	황성동 950-1·7번지 도로유적	10.9	
	남산 왕정곡 남북도로	10	
	월성해자 도로유적	9	
	분황사 남편 동서도로	9	
	월성 석교 남편 남북도로	9	
	서부동 19번지 남북도로	10	
3	황룡사지 북편 동서도로	5.5~7.5	
	황룡사지 동편 남북도로	5.5	
	동천동 우방아파트 부지 남북도로	6.5	
	황성동 535-8번지 도로유적	5.2	
	황성동 537-2번지 도로유적	5	
	용강동원지 도로유적	5.2	
	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동서도로	6.5	
	황성초등학교 강당부지 남북도로	3.5	
	서부동 19번지 동서도로	4	
	북문로 동서도로	4	
	북문로 남북도로	7~8	
	황성동 제철유적 동편 남북도로	6.5	
동천동 7B/L내 동서도로	6.5		

동 7B/L내 도시유적의 동서도로⁷³⁾는 도로폭이 6.5m 정도로 확인되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신라 왕경도로는 그 도로폭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5m 이상의 大路, 10m 내외의 中路, 5m 내외의 小路로 구분할 수 있다.⁷⁴⁾ 이 가운데 대로는 신라 왕경 분할체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坊보다 더 큰 단위공간을 구획하는 도로이며, 중로는 이를 다시 4분할하는 십자로, 소로는 왕경의 최소생활단위인 방을 다시 세분하는 십자 도로로 상정해 볼 수 있다.⁷⁵⁾ 특히 신라 왕경의 모든 도로는 특정 조영 방위에 축을 맞추어 그 조영 방위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왕경도로는 일정한 축과 도로폭을 유지한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조영되어 왕경 전체에 정연한 격자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라의 왕경도로는 일정한 조영 방위와 도로폭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교차양상 등에서도 일정한 유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신라 왕경의 도로체계는 고구려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대로·중로·소로로 유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구려 장안성의 도로가 신라 왕경보다 도로폭이 좁은 편인데, 이는 고구려 장안성에 外城이 둘러져 있어 공간이 제한된 가운데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이에 반해 신라 왕경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비교적 넓은 도로시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른바 朱雀大路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주작대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구려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신라 왕경 또한 주작대로로 기능한 대로의 존재와 그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73)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慶州大學校博物館, 1998, 「東川洞 7B/L內 都市遺蹟 發掘調查報告」, 指導委員會 會議資料.

74) 朴方龍, 1998, 「新羅 都城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6~178쪽;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556쪽.

7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일찍이 신라 왕경의 주작대로에 대해서는 城東洞 殿廊址로부터 月城 북쪽 중앙부로 이어지는 120m 너비의 남북대로의 존재를 상정하여, 이를 唐 長安城과 같은 주작대로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때 성동동 전랑지는 월성에 상대하는 北宮으로 해석되었다.⁷⁶⁾ 그러나 1998년 인왕동 소재 선덕여상 교사증축 예정부지 발굴조사에서 도로폭이 10m 내외로 확인됨으로써, 성동동 전랑지에서 월성에 이르는 주작대로의 존재는 부정되기에 이르렀다.⁷⁷⁾

이후 국립경주박물관 전시 및 수장고 건립부지 내에서 발굴조사된 남북대로의 도로폭이 최대 23.7m로 확인되면서, 이 도로가 신라 왕경의 주작대로로 기능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 왕경도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월성의 동편 담장과 황룡사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으므로 왕경의 중심대로로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국가적인 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⁷⁸⁾ 그러나 그 도로폭이 무려 23.7m임에도 측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이 도로를 왕경의 중심대로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⁷⁹⁾ 실제 신라 왕경의 중심대로로 기능한 도로에 측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위치상 왕경의 주요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 왕경의 주작대로라는 것이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즉,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내 남북대로가 신라 왕경의 주작대로로 기능하였다고 하여도,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신라 왕경의 대로가 15m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대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경내대로에 비해 적어도 3~4배 이상의 격절성을 보이는 唐 長安

76) 尹武炳, 1987, 「新羅王京의 坊制」,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集』.

7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앞의 책.

78) 朴方龍, 1998, 앞의 글, 182~184쪽.

79) 李恩碩, 2005, 「왕경에서 본 나정」, 『慶州 蘿井-神話에서 歷史로』, 중앙문화재연구원, 95~116쪽.

城의 주축대로와는 그 규모나 기능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_ 營造尺

신라 왕경의 街路區劃에 사용된 척도는 연구자에 따라 周尺이나⁸⁰⁾ 唐尺으로⁸¹⁾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高句麗尺이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일찍이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황룡사를 비롯한 신라 중고기 유적의 실측을 통해 신라에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척이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⁸²⁾ 황룡사의 건물지는 주변의 가로구획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황룡사의 영조척은 신라 왕경의 영조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일본인 학자들이 황룡사의 실측지에서 추출한 고구려척의 단위길 이와 그 영조척을 고구려척으로 파악한 견해는 최근까지의 후속연구를 통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⁸³⁾

황룡사의 영조척과 함께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역시 고구려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藤田元春과 藤島亥治郎에 의해 신라 왕경이 고구려척 400척을 단위로 분할된 것으로 파악된 이래,⁸⁴⁾ 이후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1坊의 규모는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산정되었

80) 禹成勳, 1997, 앞의 글, 106쪽.

81) 李宗峯, 1999, 「高麗時代 度量衡制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6쪽.

82) 米田美代治, 1944, 『韓國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米田美代治, 1975, 『韓國上代建築の研究』, 동산문화사.

83) 尹張燮, 1975, 「韓國의 造營尺度」,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權鶴洙, 1999, 「黃龍寺 建物址의 營造尺 분석」, 『韓國上古史學報』 31. 특히 권학수는 황룡사 금당의 정면과 측면의 초석 간의 거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구려척의 편차가 가장 적은 것을 밝히고 있다.

84) 藤田元春, 1929, 앞의 글; 藤島亥治郎, 1969, 앞의 책. 다만, 藤島亥治郎이 파악한 400고구려척에는 도로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는 도로폭을 40고구려척(14m)과 80고구려척(28m)으로 따로 산정하였다.

고,⁸⁵⁾ 가로구획 역시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⁸⁶⁾ 특히 최근의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따라 신라 왕경의 주요 도로 간의 계측거리가 모두 650m로 확인되어 고구려척으로 1800척이라는 完數가 확인되고 있다.⁸⁷⁾ 또한 前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도 신라 왕경의 도로유구는 15척(5.5m)인 소로, 25척(9m)인 중로, 45척(15.5m)인 대로로 구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성과는 대부분 지형도와 지적도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토대로 영조척을 추출해낸 것이므로 일정한 오차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자체가 여타 동아시아 도성과 달리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로구획의 흔적 자체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데다, 아직 신라 왕경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라 왕경의 영조척을 고구려척으로 단정짓기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황룡사지 주변의 왕경유적지를 구획하는 남북도로와 동서도로의 배치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논거로 삼았던 지적도에 거의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⁸⁸⁾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에 사용된 척도를 고구려척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신라의 중고기 유적과 왕경의 도시구획에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신라에 唐大尺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과는 다른 척보 환산법이 실

85) 지금까지 1방의 규모는 대체로 동서 160~165m, 남북 140~145m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고구려척으로는 동서 450~470척, 남북 400척으로 산정되고 있다. <표 2> 참조.

86) 金秉模, 1984, 앞의 글; 龜田博, 1993, 앞의 글.

87) 龜田博, 2000, 앞의 책, 223~238쪽. 龜田博은 1만분의 1 지도(『一萬分一朝鮮地形集成』, 1985, 栢西房)를 바탕으로 두 방향으로 나눈 도로 가운데 동일 방향의 주요 도로의 거리와 간격을 구체적으로 추출해 내었다. 이에 각 도로는 거리와 간격이 650m를 단위로 배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650m는 고구려척 1척을 약 0.361m로 계산하면 1800척이 된다. 따라서 지도에서 확인되는 구획의 동서 및 남북은 두 방향 모두 고구려척 1800척(1里)의 간격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88) 이와 함께 황룡사의 가람중축선과 왕경유적의 도로 사이에도 고구려척을 단위로 하는 일정한 계측거리가 확인된다(龜田博, 2000, 앞의 책, 239~247쪽).

시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에서는 통일기에 당대척을 사용했음에도 大尺 6척=1보제라는 당과는 완전히 다른 척보의 환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신라의 재래 척도제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척이 唐大尺의 1.2배라는 점에서 신라의 대척 6척=1보는 고구려척 5척=1보와 그 길이가 같으므로 신라에서 대척 6척=1보를 시행한 것은 고구려척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고대 일본에서도 당대척이 수용되기 이전에 고구려척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당과는 다른 대척 6척=1보제가 시행되었던 사실과 같은 것이다.⁸⁹⁾ 따라서 신라 중고기 유적을 비롯한 신라 왕경의 도시구획에 사용된 척도로 고구려척을 추출한 기존의 연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⁹⁰⁾

IV. 新羅 王京에 대한 高句麗의 영향

1_ 6세기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신라 왕경에 격자형의 도로망과 가로구획이 완비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그 도입시기는 적어도 통일기 이전 즉 중고기에 시행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⁹¹⁾ 연구자에 따라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布置 시기를 황룡사 축

89) 尹善泰, 2002, 앞의 글, 39~46쪽.

90) 지금까지 확인된 1방의 규모인 동서 450고구려척, 남북 400고구려척에 고구려척 6척1보제를 적용하면 완수가 되지 않지만 5척1보제로는 동서 90보 남북 80보라는 완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15고구려척인 소로와 45고구려척인 대로는 고구려척 6척1보제로는 완수가 나오지 않지만 5척1보제로는 3보와 9보라는 완수를 얻을 수 있다. 이로 보아 리방구획 설정에는 35.5~36.2cm 범위의 고구려척 5척1보제를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余昊奎, 2002, 앞의 글, 44~45쪽).

91)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이 완비된 시기를 통일기 이후로 보고

조(553) 이전으로 보기도 하였으나,⁹²⁾ 최근의 발굴성과에 따라 황룡사 축조 이후인 6세기 중후반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⁹³⁾ 따라서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이 도입된 통로는 고구려와 北齊로 압축된다.⁹⁴⁾ 그런데 신라가 북제와 교섭한 것은 6세기 중반에 단 2회에 불과하므로,⁹⁵⁾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 방식이 도입된 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고구려 장안성은 6세기 중후반에 축조되었고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밀접한 교섭관계를 유지하였다.⁹⁶⁾

먼저 신라는 고구려와 우호와 적대관계를 반복하면서 고구려로부터 문화

있지만, 그 상한시기만은 통일기 이전으로 보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92) 신창수, 1995, 「中古期 王京의 寺刹과 都市計劃」, 『新羅王京研究』, 136~137쪽; 朴方龍, 2001, 「皇龍寺와 新羅王京의 조성」,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2, 50~51쪽; 余昊奎, 2002, 앞의 글, 46~47쪽.

9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555쪽.

94) 동시기 南朝의 도성에는 坊制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백제 사비도성 또한 가로구획이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田中俊明, 2003, 「東아시아 都城制에서 高句麗 長安城」, 『白山學報』 67, 520쪽). 또한 백제 사비도성에 가로구획이 시행되었다 하여도, 현재로서는 사비도성 내 공간구성 방식에 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사비도성과 신라 왕경을 동일선상에서 살펴보기는 어렵다.

95) 신라는 진흥왕 14년(553)에 한강 유역을 확보한 이후 중국과 직접적인 교섭관계를 이루게 된다. 진흥왕 25년에 북제로부터 책봉을 받아 고구려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았으나(『北齊書』 권7, 武帝 河清 3년 12월조; 盧泰敦, 1984, 「5~6世紀 東亞細亞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盧泰敦, 1999, 『高句麗史研究』, 사계절) 이후의 대중교섭은 북제보다는 주로 南朝인 陳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564~578년까지 북제에 2회 사신을 파견한 반면 진에 8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고(『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眞興王條 및 眞平王條), 진에서도 565년 사신을 보내 경론 1700여 권을 보내는 등(『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眞興王 26年) 양국 사이에는 밀접한 교섭관계가 지속된다.

9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따르면 고구려 장안성은 陽原王 8년(552)에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축성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축성 당시의 刻字城石 자료에 따르면 시축된 지 14년 만인 平原王 8년(566)에 내성이 완성되었으며, 늦어도 평원왕 31년(589)에는 외성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김희선, 2005, 「고구려 長安城의 축성과정과 천도의 배경」, 『역사문화연구』 22; 김희선, 2008, 「6~8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高句麗 長安城」,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당시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화교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 장안성의 가로구획 방식이 신라 왕경의 정비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내용 참조.

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일찍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와 신라는 고구려의 우세하에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 사신의 前秦 파견이나⁹⁷⁾ 廣開土王代의 고구려군 출병, 신라 訥祗王의 즉위⁹⁸⁾ 등 신라의 내정 문제에 고구려가 깊숙이 관여할 정도로 신라는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백제와의 외교동맹을 필두로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눌지왕 34년(450)에는 悉直에서 고구려의 邊將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⁹⁹⁾ 慈悲王 7년(464)에는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병사 100인이 살해되는 등¹⁰⁰⁾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¹⁰¹⁾

결국 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양국관계는 전면적인 대결국면으로 접어든다.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동맹 이후에는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국을 번갈아 침략하는 양상을 보였으나,¹⁰²⁾ 475년에서 5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에는 신라를 주된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것은 481년 彌秩夫 전투,¹⁰³⁾ 484년 母山城 전투,¹⁰⁴⁾ 489년 狐山城 전투,¹⁰⁵⁾ 494년의 薩水原·犬牙城 전투,¹⁰⁶⁾ 496·497년 牛山城 전투¹⁰⁷⁾ 등 6회에 달한다.

97)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奈勿王 26년. 신라 사신이 前秦에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구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401~402쪽).

98)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訥祗王 즉위년.

9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訥祗王 34년.

100) 『日本書紀』 권14, 雄略 8년.

101) 이에 고구려는 장수왕 28년(454)에 신라 북변을 침범하고 장수왕 56년(468)에 말갈을 동원하여 悉直城을 공격하는 등 신라에 대한 견제를 취하였으나, 당시 백제와의 대치관계 때문에 신라에 대한 공세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鄭雲龍, 1994,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15, 45쪽).

102)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47~50쪽.

103)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炤知王 2년.

104)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炤知王 6년.

105)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長壽王 77년.

106)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文咨王 3년.

107)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文咨王 5·6년.

이렇듯 5세기 후반에 고구려는 신라를 강하게 압박하였다. 그런데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고구려의 제도와 문화는 신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신라는 고구려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의 세력 하에 있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는데, 이런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6세기 신라의 금석문에 보이는 軍主, 幢主와 같은 군사령관과 지휘관의 칭호는 그 기원이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고구려의 것을 신라가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성격 또한 유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관인 道使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고구려의 이른바 '北方佛教'가 전래되었다.¹⁰⁸⁾

이처럼 신라와 고구려 양국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일정한 교류를 맺어 왔다. 이와 같은 양상은 眞興王 12년(551) 신라의 한강유역 차지와 이른바 신라의 북진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대립관계로만 파악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적 교류 또한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는 선입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가 전면적인 대립관계에 들어선 시기에도 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계속되었듯이, 6세기 중반 이후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가로구획 방식을 비롯한 도성제의 영향을 받아들였다는 직접적인 관련기록은 없으나,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비해 현저하지는 않지만¹⁰⁹⁾ 여전히 지속적인 양국의 문화교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 왕정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진흥왕 12년(551) 이후 전개된 양국 사이의 긴장관계도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구려의 반격과 함께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맺어진 화평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는 신라의 북진을

108) 盧泰敦,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慶州史學』 16, 82쪽.

109) 이전에 비해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력이 감소된 것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한 이후 직접적인 對中交涉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신라 자체의 성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현 수준에서 저지하기 위해 신라와 화평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가 일단 신라와 화평을 맺은 데에는 서변의 위협이 주된 배경이 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남부 국경선에 안정을 취한 뒤 주력을 서북방으로 돌려 돌궐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힘썼다. 그에 따라 신라와 고구려 간에는 상당기간 평온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¹¹⁰⁾

오히려 동시기 신라는 백제와 치열한 상쟁관계에 있었다. 진흥왕 14년(553)에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백제가 탈환한 한강 하류지역을 기습 공격하였다. 이때부터 신라와 백제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긴 백제는 진흥왕 15년(554) 신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지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聖王마저 전사한다. 이 전투로 羅濟同盟은 완전히 깨지고 두 나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게 된다. 진흥왕 23년(562)에는 백제가 변경을 침입해 왔고, 眞平王 2년(577)에는 一善 지역에서 백제군의 침입을 격퇴하였으며, 진평왕 24년(602)에는 阿莫城에서 전투가 있었고 같은 왕 33년(611)에는 椴岾城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기도 하였다.¹¹¹⁾

이처럼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이 결렬된 이후 그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잠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양국의 우호관계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재탈환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펼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고구려의 재공세는 嬰陽王代 溫達의 출정¹¹²⁾으로 가시화된다.

실제로도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는 교전과 우호관계를 반복하는

110)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54쪽. 568년 진흥왕이 함흥 북방까지 순수하면서 남긴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서 “이웃 나라와 신의를 지키고 서로 화합하여 교류하며”라고 한 것은 당시 양국 관계의 일면을 나타내 준다.

111) 李宇泰, 1997, 「신라의 융성」, 『한국사』 7(삼국의 정치와 사회Ⅲ-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107~108쪽.

112)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嬰陽王 14·19년 및 『三國史記』 권45, 列傳5 溫達條.

가운데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양국 간의 문화교류 양상은 신라에 대한 고구려 불교문화의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의 승려 惠亮이 신라에 와서 첫 僧統이 되어 불교의 제반사를 총괄하였고, 北朝의 불상 양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고구려의 불교조각 양식은 6세기 후반의 반세기 동안 신라의 불상 양식에 주류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이나 宿水寺址 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황룡사지상은 조형적인 면에서 대체로 北魏末에서 東魏代의 북조 불상들과 유사한데, 신라 불교조각의 가장 초기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두 작품은 고구려의 조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북위와 동위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古式的 東魏 양식이 고수되는 점은 고구려 양식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¹³⁾

이와 관련하여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中原의 봉황리 햇골산마애불군상이 7세기 초로 편년되는 경주의 단석산마애불상군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점도 주목된다. 두 불상군은 圖像的으로 같은 구성과 구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도상은 중국에 없는 독특한 것이어서 신앙적·사상적 요인을 삼국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전자는 細長한 신체, 被巾의 존재, 倒置三角形의 연봉대좌, 대좌 옆의 獅子像의 존재 등 고구려 양식의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후자가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단석산마애불상군의 유적에는 銘文이 있어서 화랑도와 관계있는 미륵도량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진흥왕 37년(576)에 확립된 화랑제도가 고구려의 청소년 조직인 扈堂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¹¹⁴⁾

뿐만 아니라 고분자료들에도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교류가 잘 나타난다. 6세기 중반 이후 경주에서는 적석목곽분에서 석실봉토분으로의 묘제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경주 일원에서 확인된 석실봉토분은 구조의 전반적 양상이 삼

113) 최성은, 2000, 「신라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신라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7~66쪽.

114) 姜友邦, 1994, 「햇골산磨崖佛群과 斷石山磨崖佛群」,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 上.

국 중 고구려와 가장 유사하다. 즉 경주 일원 석실봉토분은 현실 평면이 방형, 장방형, 횡장방형이며 연도 위치는 중앙과 좌·우편재가 함께 하며 우편재 연도가 우세한 백제와는 달리 좌·우편재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신라는 공통된다. 특히 횡장방형의 현실은 多人 추가 합장에 따라 방형 현실에서 현실 폭이 증가한 결과로, 현재 횡장방형 현실은 集安 등 고구려 일부 지역과 통일이 신라 영역에서만 관찰되어 경주에서 석실봉토분의 등장에 미친 고구려의 영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주 이외에도 석실봉토분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영향은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였던 곳이나 신라에서 고구려로 나아가는 교통로상의 요지에서 두드러진다. 즉 여러 칸 구조의 포항 냉수리 석실이나 삼각고임식 천장의 의성 학미리 석실 등의 축조방식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¹¹⁵⁾

이처럼 6세기 중후반 이래 신라는 고구려와 우호와 교전관계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문화적 영향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¹¹⁶⁾ 전술하였듯이 실제 양국 도성의 가로구획 방식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이 감지된다.

2_ 新羅 王京 街路區劃의 布置時期

신라 왕경은 자연발생적인 집락이 점차 도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115) 강현숙, 2003, 「新羅 古墳美術에 보이는 高句麗 影響에 대하여」,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4, 7쪽.

116)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교류 양상은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 장안성의 축성과정을 나타내는 平壤城石刻에는 ‘之’를 종결어조사로 쓴 용례가 보이는데, 이러한 표기법은 동시기 중국 고전의 어디에도 쓰인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용례는 신라의 금석문이나 고문서에서 더 많이 확인되고 있어,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였고,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기법인 借字表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신라에서는 慶州 明活山城碑(551)를 기점으로 문장의 종결어조사로 ‘之’가 아닌 ‘也’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지만, 이러한 ‘之’의 용례는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그 용례가 확인되고 있다(李宇泰, 2006, 「新羅 金石文과 高句麗 金石文의 借字表記-그 起源과 影響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성처럼 정연한 가로구획의 설정이나 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¹⁷⁾ 즉 일종의 신도시와 같은 성격을 지녔던 여타 동아시아 도성과 달리 왕경 전체에 가로구획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왕경 전역에 가로구획이 일시에 정비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보다는 적어도 2~3차의 단계를 거쳐 완비되어 나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가로구획선의 각도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확인되고 있어,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¹¹⁸⁾ 즉 지형도·지적도에서 확인되는 도로의 방위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고,¹¹⁹⁾ 분황사 일대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가로구획선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¹²⁰⁾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은 단계적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²¹⁾

그렇다면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이 처음으로 布置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와

117) 李根雨, 2005, 「新羅의 都城과 日本의 都城」, 『新羅文化』 26.

118) 일찍이 藤島亥治郎은 지적도를 통한 검토를 통하여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이 3차에 걸쳐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발굴성과를 토대로 한 연구성과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즉 가로구획의 상한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처음부터 신라 왕경 전 지역이 동시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6세기 중후반을 전후하여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동서편의 중앙부 지역이 먼저 형성되었고, 이후 7세기 중후반~8세기에 이르러 경주 전역으로 확장된다고 보는 것이다. 藤島亥治郎, 1969, 앞의 책; 鬼頭清明, 1975, 「新羅 都城制 發達」, 『朝鮮建築史論集』 上; 余昊奎, 2002, 앞의 글; 李恩碩, 2002, 「新羅王京의 都市計劃」, 『東아시아의 古代都城』, 奈良文化財研究所創立50周年記念國際講演會 要旨集;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김교년, 2003, 「新羅王京의 發掘調査와 成果」, 『新羅王京調査의 成果와 意義』, 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 第12輯; 黃仁鎬, 2004, 「慶州 王京 道路를 통해 본 新羅 都市計劃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9) 도로의 두 방향을 지도상으로 계속하면 서쪽은 N2도50분E, 동쪽은 N1도25분W라고 한다. 모든 도로의 방위가 이 움직임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쪽과 서쪽으로 2개의 분별은 가능하다(龜田博, 2000, 앞의 책, 248~249쪽).

12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분황사 4차연도 발굴조사」, 『年報』 5; 신창수, 1999, 「분황사의 연혁과 발굴조사」, 『분황사의 재조명』.

121) 余昊奎, 2002, 앞의 글, 45쪽.

관련하여 일찍이 황룡사 창건 이전에 이미 가로구획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황룡사는 6세기 중반 이래 4차레나 개축되었지만 사역은 남쪽으로 8m 정도만 확장되었고, 황룡사지 남편 동서도로도 5차레나 개축되었지만 위치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황룡사 부지를 설정하던 6세기 중반 이전에 기본적인 도로망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¹²²⁾ 또한 황룡사 일대가 본래 저습지였으므로 리방구획이 서쪽인 大陵園 일대에서 먼저 시행된 다음 동쪽인 황룡사 일대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¹²³⁾

이러한 견해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의 발굴성과에 따르면 새로이 확인된 황룡사지 동편 왕경유적(S1E1구획)의 서편 남북도로의 초축연대는 황룡사 조성을 위해 늪지에 매립한 적갈색 점질토 상부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빨라도 6세기 중반 이후로 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S1E1구획 조성 당시에는 이미 황룡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1E1구획의 서편 외곽 남북도로도 황룡사 조성을 위해 늪지에 매립하여 다진 적갈색토층의 상부에서 황룡사 초기의 외곽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열 바깥에 접하여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S1E1구획은 황룡사가 창건되기 시작한 진흥왕 14년(553) 이후에 조성되었음이 유구의 층위상 선후관계로 밝혀졌다. 특히 S1E1구획의 조성 시기는 출토된 기와와 토기의 분석 결과 그 상한은 6세기 후반경에서 7세기경을 전후한 유물들로 검토되었다.¹²⁴⁾ 따라서 앞으로의 발굴조사와 연구성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의 상한시기는 황룡사 축조 이후인 6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²⁵⁾

122) 신창수, 1995, 앞의 글, 136~137쪽 ; 朴方龍, 2001, 앞의 글, 50~51쪽.

123) 余昊奎, 2002, 앞의 글, 46~47쪽.

12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앞의 책, 555쪽.

125) 현재 황룡사지 주변도로보다 축조연대가 조금 이른 도로유적으로는 인왕동 556번지 도로를 들 수 있다. 이 도로의 하층에서 출토된 고배는 현재의 편년관에 따르면 6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편년되므로 이 도로가 형성된 시기는 6세기 중반으로 볼 수 있다(李恩碩, 2002, 앞의 글). 그러나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은 단계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다 황룡사지 주변의 가로구획이 중심이 되어

현재 신라 왕경 전역에 가로구획이 완비된 시기는 통일기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¹²⁶⁾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이 도입된 시기는 황룡사 축조 이후로부터 통일기 이전의 어느 한 시기로 추측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善德女王代에 창건된 분황사(634)가 1坊의 구획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¹²⁷⁾ 주목된다. 이는 분황사 창건 당시 주변 지역이 가로구획으로 구획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술한 것처럼 분황사 일대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가로구획선이 중첩되고 있으며 분황사의 초석 아래에서 도로유구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분황사 가람을 조영하면서 종전의 황룡사를 기준으로 한 가로구획선과 건축물을 하층으로 매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가로구획선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¹²⁸⁾ 이를 통해 분황사 주변지역의 가로구획이 분황사 창건 이전에는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²⁹⁾

따라서 6세기 중후반에 황룡사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된 가로구획이 7세기 전반에는 분황사 일대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7세기 전반 이전에 황룡사와 분황사 일대를 중심으로 1차적인 가로구획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지적도를 통해 확인되는 가로구획의 범위는 대체로 남북으로는 황성동~포석정, 동서로는 서천~명활산 구간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¹³⁰⁾ 황룡사~

일차적인 가로구획이 정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의 상한시기는 황룡사지 주변 리방유적과 도로유적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황룡사지 주변도로보다 이른 도로유적과 왕경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축적된다면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의 상한시기는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발굴조사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6) 그동안 가로구획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가로구획이 왕경 전역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삼국통일 이후인 7세기 중후반을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文武王代, 神文王代, 孝昭王代, 景德王代 등으로 나뉘지만 통일기 이후로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127) 金秉模, 1984, 앞의 글, 131쪽.

128) 余昊奎, 2002, 앞의 글, 46쪽.

129) 양정석, 2004, 앞의 책.

130) 余昊奎, 2002, 앞의 글, 44쪽.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범위에 대한 제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쪽 경계선에 대

분황사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된 가로구획이 점차 왕경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¹³¹⁾ 그 완비시기는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듯이 7세기 중후반에서 8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이 어느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정비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분황사 창건(634) 이전에 기본적인 틀이 수립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기 이전, 즉 唐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일차적인 가로구획을 마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 왕경의 일차적인 가로구획 과정에서 北齊 鄴南城과 같은 중국 도성이나 고구려 장안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모두 상정할 수 있으나, 고구려와의 정치·문화적 관계를 고려할 때나 坊의 분할방식·도로체계에서의 유사성, 가로구획의 측량기준으로서 고구려척을 사용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고구려 장안성과의 관련성을 먼저 고려해야¹³²⁾ 할 것이다.

해서는 서천 서쪽에서도 가로구획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閔德植, 1989, 앞의 글), 대부분 서천까지로 보고 있다. 북쪽 경계선에 대해서는 북천과 서천 합류지점으로 보기도 하고(藤島亥治郎, 1969, 앞의 책), 북천 이북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張順鏞, 1976, 앞의 글; 禹成勳, 1997, 앞의 글), 황성동 등지에서도 도로유적이 확인되고 있다(國立慶州博物館, 1991, 앞의 책). 동쪽으로는 낭산 부근으로 보기도 하고(尹武炳, 1987, 앞의 글), 낭산과 명활산 중간지점 등으로 보고 있다(張順鏞, 1976, 앞의 글; 金秉模, 1984, 앞의 글). 서남쪽으로는 남천 부근으로 보거나(藤島亥治郎, 1969, 앞의 책), 포석정 부근까지 가로구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禹成勳, 1997, 앞의 글). 동남쪽으로는 사천왕사지 남쪽·망덕사지 북쪽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131) 지형상의 제약상 중고기에 북천 이북까지 가로구획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지금이 낮다. 그러나 현재 북천 이북에서도 도로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북천 이남과 이북으로 가로구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132) 다만 신라가 통일기를 전후하여 정치·문화적으로 당의 영향을 길게 받았던 점을 상기하면 唐 長安城의 가로구획 방식을 비롯한 도성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신라 중대의 관아는 月城과 그 북쪽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金洛中, 1998, 「신라 월성의 성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처럼 왕궁과 관아가 별도의 장소에 배치된 것은 당 장안성에 가까운 형태이다(余昊奎, 2001, 「신라중대 도성의 공간구조와 국가의례」, 『한국의 도성-都城 造營의 전통』,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도성의 街路區劃 방식에 초점을 맞춰 高句麗 長安城과 新羅 王京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겠다.

고구려 장안성의 坊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문헌자료에서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韓百謙의 『箕田圖』에는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箕子志』의 『井田圖』에는 정방형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기전도」·「정전도」와 外城의 실측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일찍이 북한 학계에서는 장안성의 방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백겸의 「기전도」를 바탕으로 한 견해에서는 동서 120m, 남북 84m의 동서장방형으로 파악하였고, 「정전도」와 1930년대의 「평양시가지도」를 바탕으로 한 견해에서는 1번 170m의 정방형으로 설정하였다. 두 견해를 종합하여 장안성의 지형조건에 맞게 장방형과 정방형의 구획들이 적절히 배합된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현재 고구려 장안성의 도시구획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방의 형태와 규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와 외성의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안성의 가로구획은 외성이 둘러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시행되었고, 외성의 형태 역시 方形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전도」에 보이는 大路로 구획된 나머지 공간에 장방형이나 정방형 중 어느 한 형태로만 방 전체를 완전하게 전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 결과 연구자들의 해석이 분분해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백겸은 『箕田遺制說』에서 畝毬門과 正陽門 사이의 유적이 가장 선명하다고 하면서 「기전도」에 그 구획을 장방형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1930년대 평천리 일대에 남아 있던 방의 형태는 장방형이 아닌 정방형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장안성

따라서 통일기 이후 왕경 전역으로 가로구획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당 장안성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 방의 형태는 장방형과 정방형의 방이 적절하게 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의 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지만,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왕경에서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의 관련자료로 미루어 볼 때, 坊이 리보다 작은 하위의 공간단위로 파악된다. 방의 형태는 지적도를 이용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서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동서 160~165m, 남북 140~145m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兩 도성의 坊의 형태와 규모는 지형적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변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방의 분할방식에서는 일정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찍부터 고구려 장안성의 坊에는 田字形의 4분할법이 적용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백겸의 『기전유제설』이나 그가 그린 「기전도」를 보면 격자형의 도로망에 따라 매개 구획이 田字形으로 분할되어 1坊(田)이 4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구려 장안성의 1방은 十字形의 小路에 의해 4등분되는 4분할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4분할법은 신라 왕경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발굴 성과로는 방내의 소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방 내부의 우물에서 시작된 소규모 측구가 다시 중규모의 측구에 연결되고 중규모의 측구가 다시 대규모의 측구에 접속되는 것을 볼 때, 도로 또한 이와 유사한 체계로 조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방과 방 사이의 도로나 리(대구획)와 리 사이의 도로 체계가 고구려 장안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신라 왕경의 매개 방도 십자형의 소로에 의해 4분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도성에는 가로구획 방식에서도 일정한 유사성이 확인된다. 양 도성은 等間隔으로 토지 분할을 한 후 도로를 내고 있어 도로폭에 따라 방과 택지의 면적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고구려 장안성에서는 우선 1坊의 규모를 일정한 면적으로 구획하고 여기서 도로폭을 제외시킨 나머지를 주택구역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신라 왕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고구려 장안성과 신라 왕경에는 가로구획의 측도기준으로서 高句麗

尺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 장안성은 關野貞에 의해 처음으로 실측된 이후 東魏尺에서 기원하는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축성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는 외성 안의 도로와 주택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던 標石 간의 간격을 실측하여 고구려 장안성이 35.6cm를 단위 길이로 하는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구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후속 연구를 통해 고구려척이 동위척에서 기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나, 이러한 그의 견해는 현재까지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장안성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고구려 유적에서 고구려척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高句麗尺'이라는 명칭 그대로 고구려에서 자생한 척도가 도성 조영의 측도기준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의 고구려척에 대한 연구성과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신라 왕경에 사용된 척도는 연구자에 따라 周尺이나 唐尺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고구려척이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찍이 신라 중고기 유적의 실측을 통해 신라에도 고구려척이 사용되었고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역시 고구려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신라에서 唐大尺이 수용되기 이전에 고구려척 5척=1보제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당과는 다른 척보 환산법인 당대척 6척=1보제가 실시되었으므로, 신라 왕경의 영조척을 고구려척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었던 척도가 신라 왕경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들 도성의 가로구획 방식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坊의 형태와 규모가 다르더라도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가로구획이 이루어지고 일정 단위로 전체가 구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측구가 축조되었기 때문에, 이들 도성은 기본적으로 동일 단위의 가로구획 방식에 따라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장안성과 신라 왕경에는 도로체계에서도 일정한 유사성이 확인된다. 먼저 고구려 장안성의 도로체계는 『기전유제설』에 따르면 坊을 4분할하는 십자로인 小路와 방과 방 사이를 구획하는 방간로인 中路, 방보다 큰 대구획을

구획하는 大路가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대로의 경우는 1953년의 북한에 의한 현지조사와 그 이전 關野貞의 실측조사에 의해 실제로도 확인되었다. 다만 중로의 경우는 「기전도」에 따르면 함구문 남북대로와 정양문 남북대로 사이에 남북으로 세 갈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20세기 초의 지적도에 따르면 남북로는 두 갈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소로의 경우는 실제로 확인된 바가 없어, 「기전도」와 실제 도로체계 사이의 오차에 대한 검증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구려 장안성의 도로가 대로·중로·소로로 유형화된 것은 사실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대로의 실측치를 바탕으로 중로와 소로의 도로폭도 함께 추산되었는데, 북한 학계의 연구자들은 『기전유제설』에 보이는 1·3·9畝路의 도로가 3배수로 확장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側溝를 포함하지 않은 대로의 폭이 약 12.6~12.8m(36척)이므로, 중로는 4.2m(12척)로, 소로는 1.4m(4척)로 산정하였다.

신라 왕경에서도 고구려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대로·중로·소로의 도로체계가 확인된다. 현재 발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신라 왕경 도로는 21개소로서 현 경주시의 전역에 걸쳐 布置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황룡사지 동편 왕경유적(S1E1지구)의 외곽에 설치된 도로유구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실측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도로는 너비에 따라 15m 이상의 대로, 10m 내외의 중로, 5m 내외의 소로 등 세 유형으로 분류되어 고구려 장안성의 도로체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 규모의 유형화는 다른 신라 왕경 도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신라 왕경에 격자형의 도로망과 가로구획이 완비된 시기는 주로 통일기 이후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그 도입시기는 통일기 이전, 즉 중고기에 시행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연구자에 따라 신라 왕경의 가로구획 布置 시기를 皇龍寺 축조(553) 이전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발굴성과에 따라 황룡사 축조 이후인 6세기 중후반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이 도입된 통로는 고구려와 北齊로 압축된다. 그런데 신라가 북제와 교섭한 것은 6세기 중반

에 단 2회에 불과하므로,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 방식이 도입된 것은 고구려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고구려와의 지리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나 도로체계에서의 유사성과 고구려적을 사용한 것을 염두에 둘 때도 마찬가지이다.

신라는 일찍이 고구려와 우호와 적대관계를 반복하면서 고구려로부터 문화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眞興王 12년(551) 신라의 한강유역 차지와 북진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대립관계로만 파악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적 교류 또한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는 선입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가 전면적인 대립관계에 들어선 시기에도 양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계속되었듯이, 6세기 중반 이후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제 北朝의 불상 양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고구려의 불교조각 양식이 6세기 후반의 반세기 동안 신라의 불상 양식에 주류로서 작용하였으며, 고분자료들에도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교류양상이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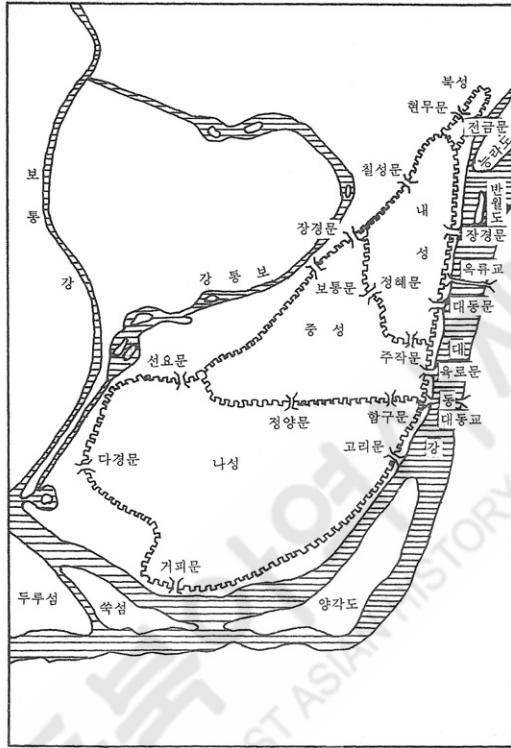
더구나 진흥왕 12년(551) 이후 전개된 양국 사이의 긴장관계도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구려의 반격과 함께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맺어진 화평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신라와 고구려 간에는 상당기간 평온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오히려 동시기 신라는 백제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이 결렬된 이후 그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잠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 왕경은 자연발생적인 집락이 점차 도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일종의 신도시와 같은 성격을 지녔던 여타 동아시아 도성과 달리 왕경 전체에 가로구획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왕경 전역에 가로구획이 일시에 정비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보다는 적어도 2~3차의 단계를 거쳐 완비되어 나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 가운데 신라 왕경에 가로구획이 도입된 시기는 황룡사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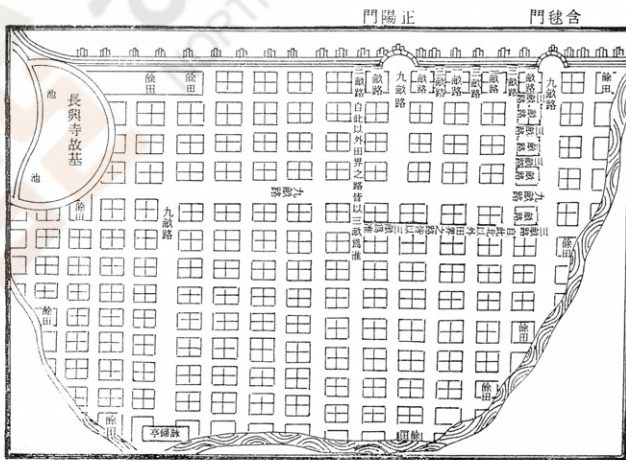
이후로부터 통일기 이전의 어느 한 시기로 추측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善德女王代에 창건된 芬皇寺(634)가 1坊의 구획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분황사 창건 당시 주변 지역이 가로구획으로 구획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분황사 일대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가로구획선이 중첩되고 있으며 분황사의 초석 아래에서 도로유구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분황사 주변지역의 가로구획이 분황사 창건 이전에는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7세기 전반 이전에 황룡사와 분황사 일대를 중심으로 1차적인 가로구획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라 왕경의 일차적인 가로구획 과정에서 北齊 鄴南城과 같은 중국 도성이나 고구려 장안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모두 상정할 수 있으나, 고구려와의 정치·문화적 관계를 고려할 때나 坊의 분할방식·도로체계의 유사성, 가로구획의 측량기준으로서 고구려척을 사용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고구려 장안성과의 관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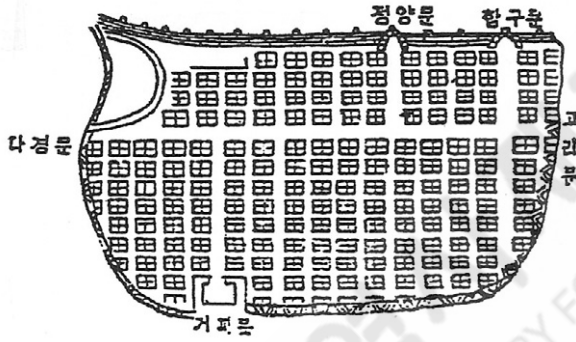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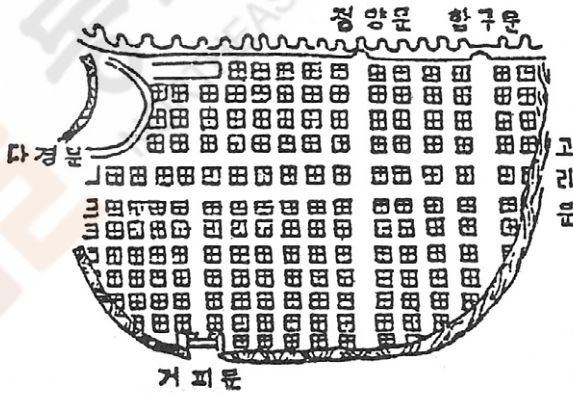
<도 1> 高句麗 長安城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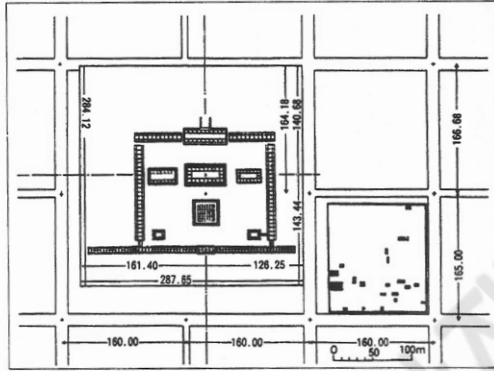
<도 2> 箕田圖 (韓百謙, 『久菴遺稿』上)



〈도 3〉 箕田圖 (한인호)



〈도 4〉 井田圖 (한인호)



〈도 5〉 皇龍寺址 주변의 구획과 도로
(龜田博, 2000, 『日韓古代宮都の研究』)



〈도 6〉 新羅王京의 街路區劃 범위
(禹成勳, 1997, 『신라왕경 경주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Koguryo Jangan castle and the capital of Silla

Kim, Heesu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iginal structure of the central area of the Koguryo Jangan castle(高句麗 長安城) and the capital of Silla(新羅 王京) by throwing on the capital-city system and district division.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Koguryo Jangan castle and the capital of Silla.

The Koguryo Jangan castle and the capital of Silla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Bang(坊) units, and both length of castle walls, road, and principal building were measured by Koguryo foot(高句麗尺). Besides both of the road system were divided into main road, middle road, and narrow roa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se similar characters of the Koguryo Jangan castle and the capital of Silla in relation to their connection. When the Koguryo Jangan castle was under construction, the Koguryo w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 with the Silla. In those days, the Silla initiated into the buddhist culture and form of ancient tomb to Koguryo. It is also regarded that influence of the capital-city system and district division was instruct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 district division of the capital of Silla was arr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guryo Jangan castle.

keywords

Koguryo Jangan castle, Capital of Silla, Bang units, capital-city system, district division



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탑의 건축적 의미 연구

이병진 | 동원대학 실내건축과 부교수

I. 서론

1_ 연구목적

흔히 '한국은 石塔의 나라', '중국은 磚塔의 나라', '일본은 木塔의 나라' 라고 한다.¹⁾ 그만큼 각 국가나 지역마다 탑을 세우는 방식은 자연환경에 따라 재료나 구조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 전래와 함께 인도에서 유입된 탑 양식은 여러 경로를 거쳐 한반도에 도달하였다. 한반도에 유입된 불교의 탑 양식은 대부분 중국 중원지역을 거쳐 목탑 형태로 유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는 木塔과 石塔뿐 아니라 磚塔과 土塔도 있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聖王 때 遼東城(현 압록강 부근 추정) 곁에 숲을 엮은 것 같은 탑이 있었고, 범상치 않아 그 자리에 7층

1) 高裕燮, 1993a, 「朝鮮의 磚塔에 대하여」,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高裕燮 全集 3, 通文館, 121쪽.

목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²⁾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고구려는 적어도 漢나라 이전 불탑 始原地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불교문화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목탑 이외에 전탑도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반도 지역에는 대부분 석탑만 현존하고 전탑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탑은 경주권역, 대구권역, 안동권역, 중부권역에서만 몇 개 존재한다.³⁾ 숫자도 적거니와 순수하게 흙을 소성해서 구운 벽돌로 구축된 탑이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재단해서 만든 模塼石塔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남한 학계에서는 전탑 존재를 중부지역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고구려·발해 영토였던 중국 동북지역에도 전탑이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遼寧省 瀋陽市에서 북쪽으로 40km 거리에 고구려 탑으로 알려진 전탑이 현존하고 있으며,⁴⁾ 吉林省에도 영광탑을 비롯하여 2개의 발해 전탑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발해 탑터 숫자는 고고학적 발굴결과로 총 12개에 이른다.⁵⁾ 사찰 내에 세워졌던 3개의 탑터, 사찰 밖에 5개의 탑터가 있으며, 본 연구 주제인 전탑은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영광탑, 화룡현 정효공주무덤탑터, 훈춘시 마적달탑터가 현존하고 있다. 이 3개의 탑과 탑터는 모두 묘지 위에 있었던 墓上建築으로 알려져 있어 집안시에 있는 고구려 장군총과도 상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탑 문화를 비롯한 불교문화가 중국 중원지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해시기에 건립된 전탑과 한반도 지역에 있는 전탑 그리고 중국 중원지역에 있는 전탑과의 비교를 통해 발해 전탑의 성격과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여, 전탑을 비롯한 발해의 불교문화가 중국 중원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건축사에

2) 一然,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遼東城의 育王塔」條.

3) 박홍국, 2000,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04쪽.

4) 신영훈, 2004, 『기마민족의 삶과 문화, 고구려』, 조선일보사, 191~195쪽.

5) 방학봉, 1998a, 『발해불교연구』, 연변대학출판사, 94~95쪽.

서 발해 전탑이 갖는 건축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는 도성과 산성을 비롯한 궁궐, 사찰, 살림집, 특수건축 등이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지역 문화를 자연스럽게 계승한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이다.

2_ 연구내용과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1930년대 일본이 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살펴보되 중국과 북한이 발해 유적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1950년대 후반 이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발해 유적에 대한 발굴사업은 일본이 먼저 시작하였지만 당시 그들의 시각은 발해의 문화적 우수성보다 일본 문화와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이러한 제국주의사관에서 벗어나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를 결성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발해의 문화적 특징이 제대로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발해 지역은 698~926년까지 229년간 발해가 관할했던 상경 용천부를 비롯한 5京, 즉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의 한반도 북부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있는 탑터를 중심으로 하였다. 한반도 지역은 연구목적에서 밝힌 경주, 대구, 안동, 중부권역 전탑을 살펴보되, 이 가운데 발해 전탑과 상관성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된 경북 칠곡군 송림사 전탑을 비롯한 4개의 순수 전탑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의 경우는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에 전탑이 집중적으로 세워졌던 西安市를 비롯한 陝西省 일대 전탑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3개의 발해 전탑과 전탑터를 중심으로 입지조건과 조형성을 비롯한 건축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건축적 특징은 재료, 평면과 입면, 구조형식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발해 전탑은 영광탑의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정효공주무덤탑터와 마적달탑터는 유적 주변에 벽돌을 비롯한 약간의 유물

들만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발해 전탑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결과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다섯째, 발해 전탑의 입지조건과 건축적 특징을 기초로 한반도 지역과 중국 중원지역의 전탑을 비교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탑이 갖는 건축사적 의미를 규명해 보았다.

여섯째, 논문의 전개순서는 제2절에서는 발해 전탑의 현황과 기존 연구성과를, 제3절에서는 전탑이 한국보다 크게 유행하였던 중국 중원지역의 전탑에 관한 전래와 건축형식을 고찰해 보았다. 제4절에서는 한국의 전탑에 관한 전래와 건축형식을 고찰하여 발해 전탑과의 비교고찰을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제5절에서는 발해와 주변국가, 즉 중국과 한국에 있는 전탑과의 비교를 통해 발해 전탑의 건축적 특징을 규명해 보았다.

II. 발해의 전탑

1_ 발해 전탑의 현황

고구려에 이어 그 영토를 계승한 발해는 종교에서도 고구려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특히 당시 크게 유행하였던 불교는 뿌리를 고구려에 두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번성했던 불교문화는 발해에 그대로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당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불교문화를 대거 받아들였다. 당 왕조는 640년경부터 신라를 비롯한 주변국 왕족들을 국학에 받아들여 당 문물이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⁶⁾ 발해 또한 중국과 문화

6) 임세권, 2004,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미술사학연구』 242·243호, 11쪽.

적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이는 大祚榮 집권 시기인 713년 12월 발해국 왕자가 당나라 도읍인 長安城에 이르러 교역을 하고 사원에 들어가 예배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⁷⁾

불교가 발해 지배층에까지 만연한 것은 3대 文王이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는 尊號를 사용하며 불교 신봉자임을 드러낸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金輪’과 ‘聖法’은 불교의 轉輪聖王 이념에서 유래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당나라 則天武后 존호에서 착안한 것이다. 측천무후와 같이 불교를 진흥시켜 불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大欽茂 넷째 딸로 알려진 眞孝公主 무덤탑이 佛塔 형식을 한 것으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정효공주와 같은 왕실 귀족신분 무덤을 불교의 묘탑 형식으로 하였다는 것은 당시 발해 사회는 상층부까지 불교가 대단히 신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찰이 발해 경내에 많이 조영되었다. 발해 관할 아래 있었던 지역의 도성과 지방에서는 절터, 탑터, 불상 등의 유적과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 절터로는 상경 용천부 지역에서 12곳, 구국 지역에서 1곳, 중경 현덕부 지역에서 13곳,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10곳, 연해주 지역에서 4곳, 남경 남해부 지역인 함경북도에서 2곳 등으로 총 42개 이상이다.⁹⁾ 또한 탑이나 탑터가 발견된 유적으로는 영광탑, 정효공주무덤탑터, 마적달탑터를 비롯하여 훈춘시 팔련성 동남탑터, 영안현 발해진 토대자탑터, 발해진 흥룡사 석등탑, 오매리탑터, 대성자고성탑터, 흥룡사 서쪽탑터, 영성고성탑터, 아브리코스탑터, 삼령툰무덤탑터 등 총 12곳에 이른다.¹⁰⁾

이 가운데 전탑으로 현존하거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유적은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영광탑과 화룡현 정효공주무덤탑터, 훈춘시 마적달탑터 3개뿐이

7) 『冊府元龜』 卷971 外臣部 朝貢4 開元 元年 12月.

8) 동북아역사재단,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312쪽.

9) 발해의 사찰유적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이 참고된다. 이병건, 2006, 「발해 사찰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高句麗研究』 第22輯, 高句麗研究會, 362~366쪽.

10) 방학봉, 1998b, 「발해의 탑터」, 『발해불교연구』, 연변대학출판사, 94~106쪽.

다. 본 절에서는 이 3개의 전탑 유적을 대상으로 발해 전탑의 현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영광탑

靈光塔은 吉林省 白山市 長白朝鮮族自治縣 시내에서 서북쪽에 있는 산 정상에 평탄한 구릉지에 있다. 시내에서 도보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 산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탑이 있는 정상까지 도로가 나 있어 차로도 접근하기에 쉬운 편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해발 820m되는 一覽峰이라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영광탑이 이 봉우리를 뒤에 두고 있어 마치 탑의 병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탑산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폭이 50m 가량 되는 압록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탑은 압록강 수면보다 약 100m 정도 높다. 압록강과 탑산 사이에는 동서길이 약 2km, 남북너비 약 1km 되는 분지가 있다. 이를 원래는 塔甸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주민들 거주지와 함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¹¹⁾ 서쪽으로도 계곡이 있어 시냇물이 북에서 남



(사진 1)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압록강 오른쪽)과 북한 해산시(압록강 왼쪽)

11) 방학봉, 1998b, 위의 글, 126쪽.



〈사진 2〉 영광탑 전경

을 향해 압록강으로 흘러들어간다. 탑산 기슭으로는 長白縣에서 臨江市로 통하는 압록강 강변도로가 있는데, 최근 도로가 말끔하게 확장 포장되어 장백으로 통하는 길이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장백현에 도달하는 방법이 二道白河를 통하는 편이 편리했지만, 지금은 임강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좋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장백현 시가지와 북한 혜산시가 마주보고 있는데, 북한 쪽으로는 도로와 함께 철길이 놓여 있다.

영광탑은 벽돌로 쌓은 造積式 전탑으로 정면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 탑의 평면형태는 한 변 길이가 3m 정도인 정방형 5층탑이다. 탑 지표면 아래는 무덤통로[通道], 무덤길[甬道], 무덤칸[地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면에 노

출된 부분은 5개의 塔身部와 屋蓋部가 있고, 맨 꼭대기에는 上輪部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통로는 무덤길 앞에 있고 무덤길을 향해 좌우 쪽으로 확장해 가며 지표면까지 땅을 파 통할 수 있게 11개 계단으로 만들어졌다. 무덤통로 좌우 벽과 계단은 모두 흙이고, 매 계단 중앙 부위에만 방형, 장방형, 마름모형 벽돌을 깔았다. 계단 중간에 깔은 벽돌은 중간이 계단 수평면보다 낮고, 그 좌우에 벽돌을 경사지게 세웠다. 따라서 계단 중앙은 오목한 '凹'자형 홈을 이루고 있는 격이다. 무덤통로를 정리할 때 바닥에서 접시와 항아리 파편이 발견되었고, 크기가 다른 2개의 주조한 풍경도 나왔다. 이 가운데 하나는 상태가 양호하고 소리도 좋아 원래 자리인 탑 처마에 달아 놓았다.¹²⁾

무덤길은 무덤통로 다음 무덤간 앞에 있다. 무덤길 좌우에는 벽돌을 쌓았고, 바닥도 벽돌을 깔았다. 무덤간은 무덤길 뒤편에 있는데, 좁은 장방형으로 남북길이 1.9m, 동서너비 1.42m, 높이 1.49m이다. 무덤간 벽은 벽돌로 여러 층이 되게 쌓았고, 방향은 탑 방향과 일치한다. 바닥에는 벽돌을 세 층으로 깔고 판돌을 덮었다. 무덤간 벽면과 천장에는 모두 백회를 발랐는데, 지금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벽면 대부분은 백회 상태이지만 간혹 붉은색을 칠한 것이 있었다. 이는 기둥을 형상화한 간단한 벽화로 추측된다. 무덤간 뒷벽 중앙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돌로 만든 台座가 있는데 그 상부는 평평하다. 탑 기초는 무덤간 마감돌 상부에 흙을 다져 쌓았는데 두께는 명확하지 않다. 지상에 드러난 탑은 흙을 다진 탑 기초 위에 방형벽돌, 규형벽돌, 마름모꼴 등 다각형 벽돌로 쌓았다.¹³⁾

탑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비바람의 침습으로 동남쪽으로 약 5° 정도 기울어져 있다. 1984년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수리를 진행하였는데 무덤간이 심하게 파괴되어 무덤간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어 막아버렸으며, 내부를 철지지대[鐵架]로 보강하였다. 아울러 1936년에 만들었던 상륜부를 다시 제작하

12)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70~75쪽.

13)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위의 책, 70~75쪽.

여 올려놓았으며, 風鐸도 새로 제작하여 달았다.¹⁴⁾

영광탑은 상륜부를 포함한 높이가 12.35m이다. 평면은 정방형의 5층탑이다. 제1층 탑신 폭은 3.3m, 높이는 옥신부와 옥개부를 합쳐 4.9m로 약 1 : 1.49의 비례이다.¹⁵⁾ 제2층 탑신 폭은 3.0m, 높이는 1.60m이다(1 : 0.53). 제3층 탑신 폭은 2.6m, 높이는 1.5m이다(1 : 0.58). 제4층 탑신 폭은 2.15m, 높이는 1.15m이다(1 : 0.53). 제5층 탑신 폭은 1.85m, 높이는 1.1m이다(1 : 0.59).¹⁶⁾ 상륜은 露盤 0.15m, 호룡불[胡虜] 형태 상륜 1.5m, 상륜 봉[鍼] 0.45m를 합쳐 2.1m에 이른다.

탑은 위로 가며 점차적으로 면적을 작게 하였다. 각 층은 모두 안솔림과 體感法이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솔림은 탑신부가 위로 올라가며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탑에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체감법 역시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탑신 높이가 위층으로 가며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¹⁷⁾ 영광탑은 안솔림과 체감법에 의거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춘 전탑이다.

매 층 옥개부는 처마를 내기 위해 방형과 마름모형 벽돌로 촘촘히 내쌓기를 하였다. 정면에서 보면 방형은 장방형 길이면으로 보이고, 마름모형은 모서리면처럼 보인다. 길이면과 모서리면을 교차해 가며 쌓았다. 1층 옥개부는 2단의 탑신 괴임을 놓고 길이면+모서리면+길이면+모서리면+길이면+모서리면+길이면+모서리면+길이면으로 총 9단의 받침을 내쌓고 마지막으로 맨 위 길이면 위에 밋밋한 처마선에 곡선미를 주기 위해 한 줄의 벽돌을 더 쌓았다. 추녀 부분에는 날렵한 처마선을 강조하기 위해 끝이 뾰족한 벽돌을 따로 제작

14)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74쪽.

15) 근래에 1층 탑신 하단부를 돌로 약 1.15m 둘러쌓았다. 4.9m는 그 마감돌을 걷어냈을 때의 높이이며, 현재 벽돌로 노출된 높이는 3.75m이다.

16)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에는 각층 높이를 1층부터 5층까지 5.07m, 1.65m, 1.50m, 1.20m, 1.44m로 기재하였으나 체감법에 따르면 4층보다 5층 높이가 더 낮아야 한다. 아마 5층 위 상륜부 일부까지 높이 산정에 들어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17) 張馭寰, 2006, 『中國佛教塔』, 科學出版社, 74쪽.



〈사진 3〉 영광탑 옥개부 처마 내쌓기 수법(남면 1층과 2층 옥개부)

하여 올려놓았다. 이에 비해 낙수면은 일정한 층단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 물매에 따라 곡을 잡고 벽돌로 덮었다. 또한 옥개부 끝에는 다시 2단의 탑신 괴임을 놓았다. 이와 같은 기법은 2층부터 5층까지 동일하다. 다만 옥개석 받침 수는 1층이 9개인데 위로 올라가며 8, 7, 6, 5로 1개씩 줄였고, 1층은 길이면에서 시작한 반면 2층은 모서리면, 3층은 다시 길이면, 4층은 모서리면, 5층은 다시 길이면으로 시작하였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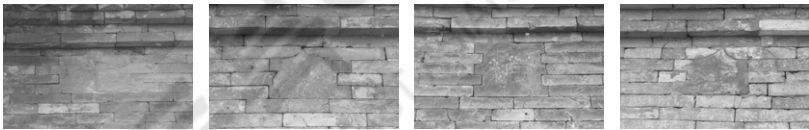
탑을 쌓은 장방형 벽돌 크기는 매우 다양했다. 길이×폭×높이가 18×18×6cm, 16×19.5×6cm, 34×35×6cm 등으로 두께만 6cm로 일정하고 나머지 길이와 폭은 각기 달랐다. 즉,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벽돌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탑신 제1층 남쪽 정면에는 아치형 문이 하나 있는데 지면에서 0.8m 높이에 있다. 너비는 0.95m, 높이는 1.635m이다. 문을 이루고 있는 아치형 개구부는 여러 형태의 벽돌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규형전은 길이×폭×높이가 19×18×6cm에서 19×6×3.5cm 등 다양했다. 탑신 제2·3·5층 정면에는 방형 감실이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벽감 길이와 너비는 각각 약

18)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70~75쪽.



〈사진 4〉 영광탑 남쪽 1층 탑신 중앙 아치형 문



〈사진 5〉 영광탑 문자형 벽돌

20cm이다. 탑신 정면 제4층과 동서 양 측면 제2층에서 5층까지에는 모두 방향의 세로 直楞窓이 있다. 세로 창 길이는 20cm이다. 탑 내부는 비어 있고, 매층 꼭대기[塔頂]는 모두穹隆式 천장이다.

남쪽 정면 아치형 문 상부 양측과 1층 탑신 동, 서, 북면 3면에는 문자를 형상화한 갈색 꽃무늬벽돌이 끼워져 있는데 동서 양면 것은 연꽃잎무늬 벽돌이고, 남북 양면은 구름무늬이다. 동면 것은 ‘國’자형이고, 남면 것은 ‘立’자형이며, 서면 것은 ‘王’자형이고, 북면 것은 ‘土’자형으로 보인다. ‘國立王土’ 또는 ‘王立國土’로 읽을 수 있으나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¹⁹⁾ 그 외 탑신 북쪽

19)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70~75쪽.

면 1층부터 5층까지에도 꽃무늬벽돌로 치장되어 있다.

영광탑의 원래 이름은 오래전에 없어져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908년 長白府第一任知府 長風塔가 長白에 재임 중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파괴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탑을 “西漢時代 때魯나라에 있었던 靈光殿(山東省 曲阜市 소재)처럼 전란을 겪으면서도 의연히 서 있다”하여 ‘영광탑’이라 하였다.²⁰⁾ 여기서 ‘靈光塔’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영광탑은 오랜 세월을 경유하는 동안 많은 손상을 입었다. 『長白山江志略』에 따르면 “탑 상륜 부분이 명나라 때 모진 바람에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명나라 때 탑 상륜 부분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말기까지 그대로 방치되다가 1936년에 이르러 지방 유지들에 의해 수선되었다. 수선할 때 다섯 개의 가마솥을 한데 덮고 중간에 쇠봉을 박아 탑찰을 만들었다. 1955년 탑에 많은 손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주변에 보호벽을 쌓았다.²¹⁾ 1982년 중국의 탑 전문가 張馭寰에 의해 발해시기의 탑으로 고증되면서 吉林省第二批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고, 1984년 또 한 차례 수리를 거쳤으며, 1987년 國家第三批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다.²²⁾ 2008년 9월 현재 영광탑은 발해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일환인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2) 정효공주무덤탑터

貞孝公主무덤탑터는 吉林省 和龍縣 龍頭山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탑터는 발해 중경 현덕부 자리인 西古城에서 동남쪽으로 4.5km 거리에 있다. 제3대 文王 大欽茂 넷째 딸인 정효공주는 생전에 서고성에서 살다가 죽은 후(792) 이곳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무덤은 지세가 높고, 남쪽을 향하고 있

20)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70~75쪽.

21)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70~75쪽.

22) 姚君春·丁貴林·任寶堂, 1994-2, 「長白古塔-靈光塔」, 『古建園林技術』, 41쪽.

23) 방학봉, 1998c, 「발해의 세계 무덤유지와 비교」, 『발해불교연구』, 연변대학출판



〈사진 6〉 정효공주무덤 원경

어 멀리서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효공주무덤 주위에서 많은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일대는 발해의 왕실 무덤군으로 비정되고 있다.

정효공주무덤은 벽돌과 판돌로 쌓았는데 무덤 전체는 원래 무덤통로, 무덤길, 무덤문[玄門], 무덤칸과 지상탑의 5개 부분으로 이루어졌었다. 현재 탑은 무너지고 탑 기초만 남아 있다. 발해 채색벽화가 나온 귀중한 무덤이니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 7〉과 같이 보호각을 지어 놓았다.

무덤통로는 무덤 남쪽으로 나 있는데 길이가 7.10m이다. 남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점차 좁아지며,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무덤칸과 무덤길 위에는 검은색 계통 벽돌로 쌓은 탑 기초가 있다. 탑 기초 남북길이는 5.65m, 동서너비는 5.50m이다. 탑 기초 중앙은 위에서 다룬 영광탑과 같이 비어 있었다. 내부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의 남북길이는 2.70m이고, 동서너비는 2.60m의 정방형이다.²⁴⁾

사, 124~125쪽.

24)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민간출판사, 104쪽.



〈사진 7〉 정효공주무덤

탑이 있었던 자리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벽돌이 산재해 있으나 탑이 어떻게 생겼으며, 규모와 층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영광탑과 마적달탑터 기초면적과 비교해 보면 규모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정효공주무덤 기초 남북길이는 5.65m이고 동서너비는 5.50m 정도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22.3m²가 된다. 이에 비해 마적달탑터는 이보다 2.8m²가 적으며, 영광탑은 이보다 9.3m²가 적다.²⁵⁾ 영광탑이 5층이고, 마적달탑은 7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효공주무덤탑은 7층 이상의 벽돌로 쌓은 전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족 무덤인 정효공주무덤탑의 규모는 무덤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은 영광탑과 마적달탑보다 규모나 형식적인 면에서 훨씬 더 컸을 것이다.

3) 마적달탑터

馬適達탑터는 吉林省 琿春市에서 동북쪽으로 40km 떨어진 馬適達鄉 馬適達村

25) 방학봉, 1995, 「발해시기의 묘상건축에 대하여」, 『발해건축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58쪽.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가파른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琿春에서 春化에 이르는 도로가 산기슭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적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파른 길을 10여 분 올라가면 몇 군데 평지가 있는데 평지 가운데 위쪽으로 동서길이 40m, 남북너비 28m 정도 되는 약 1,000m²에 이르는 말밭급 형태의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곳이 탑이 있었던 자리이다.

『琿春縣志』 기록에 따르면²⁶⁾ “옛탑은 春花鄉 塔子溝 북쪽 산비탈에 있는데 높이는 7층이며, 서쪽은 산에 의지해 있고, 동쪽은 강에 접해 있다. 발해 때 건축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벽돌에 새긴 글자는 희미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벽돌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방형으로 된 것으로 두께는 5cm이며, 길이는 32cm이다. 다른 하나는 길이가 32cm, 너비가 12cm이며 숫돌처럼 단단하여 그곳 사람들이 칼을 가는 데 사용했다. 민국 10년(1921) 탑 기초 벽돌이 70%나 없어졌기 때문에 탑이 무너졌다. 탑 꼭대기의 것이 강 속에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건져내지 못하였다.”²⁷⁾ 이상의 글로 보았을 때 19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탑 형태가 7층 정도로 유지되었고, 상륜부까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6월 吉林省博物館, 延邊博物館, 春花縣文化館 조사에 따르면 탑은 전부 벽돌 또는 돌로 쌓았고 무덤통로, 무덤길, 무덤간, 지상탑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탑 기초 벽 평면은 정방형으로 남북길이 4.95m, 동서너비 4.8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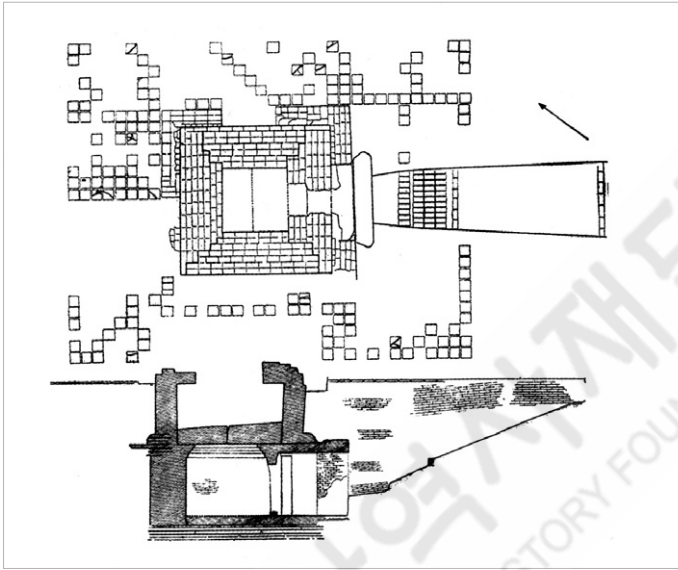
〈사진 8〉 마적달탑터 다각형 벽돌



〈사진 9〉 마적달탑터 방형 벽돌

26) 吉林省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4, 『琿春縣 文物志』, 69~70쪽.

27)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123쪽.



〈그림 1〉 마적달탑터 무덤 평면도와 단면도

자료 : 『琿春縣 文物志』, 71쪽.

이며, 벽 기초는 무덤간 윗부분 판돌 위에 진한 회색 계통 장방형 벽돌로 쌓았다. 땅 밑에 들어간 기초 벽 두께는 0.7m, 땅 위에 나온 기초 벽 두께는 0.6m 이었다. 기초 벽 네 면에는 호위 벽도 있었다. 유적에서는 장방형 벽돌, 붉은 벽돌, 꽃무늬 벽돌 등 다양한 형태의 벽돌이 출토되었다.²⁸⁾ 현지에서 수습된 벽돌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방형으로 된 두께 5cm, 길이 30cm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장방형으로 두께가 5cm, 길이가 12cm 정도였다.

2_ 발해 전탑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

발해 전탑 연구는 주로 중국, 북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전탑 가운데서도 영

28) 방학봉, 1995, 앞의 글, 261쪽 ; 吉林省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4, 앞의 책, 69~72쪽.

광탑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현존하는 전탑이 영광탑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영광탑에 대한 고찰도 극히 드문 형편이다. 아직까지 발해 전탑 연구는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영광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서다. 대표적인 학자가 邵春華로 1980년과 1982년 두 차례 영광탑 조사를 진행한 후 탑 구조와 문헌자료를 근거로 영광탑은 발해 탑이라고 인정하였다. 근거로 첫째, 영광탑은 중원지구 당나라 때 전탑과 유사하다. 둘째, 장백현은 발해 관할 범위에 있었으므로 발해건축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명확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영광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시대감정을 맡게 된 張馭寰에 의해서다. 그는 1982년 吉林省 文物局 요청으로 영광탑 답사와 함께 시대감정을 의뢰받았다. 당시 그도 영광탑과 관련된 방증자료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그는 답사를 통해 건축연대, 보호등급, 보호범위를 확정지었다. 그는 “영광탑은 중원문화 특징을 잘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唐代 전탑 양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중원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동북 변방지역인 압록강 변에 당대 탑이 출현했는가에 대한 답을 “雲南 지역에도 南紹國이 세워졌듯이 흑룡강 지역에는 발해국이 세워졌는데, 발해국은 정치, 경제, 문화 및 건축 등에서 모두 중원문화를 모방하였다. 그 예로 상경성 도시계획, 건축배치는 모두 당대 장안성을 따랐으므로 당연히 불교사원과 불탑도 당대 풍격을 따랐을 것이다. 영광탑은 당대 풍격을 지니고 있으며, 당대 양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³⁰⁾ 중원지역의 어떠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중국 길림성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 縣별로 『文物志』를 출판하게 되는데, 長白朝鮮族自治縣도 1984년 문물지를 발행하였다. 張馭寰

29) 방학봉, 1998c, 앞의 글, 160쪽.

30) 그는 여러 글에서 영광탑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張馭寰, 1988, 「新發見渤海國建築—長白山靈光塔」, 『古建築勘察與建築』, 江蘇古蹟

의 연대 확증에 힘입어 당시까지 가장 자세한 유적 상태를 소개하였다.³¹⁾

발해건축과 관련된 많은 논문을 쓴 바 있는 魏存成은 「渤海的建築」에서 다음과 같이 영광탑을 소개하였다. 영광탑은 여러 평면과 구조형식으로 볼 때 확실히 唐朝 때 탑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唐 總章 2년(669)에 건립하고 太和 2년(828)에 重修한 西安市 남쪽 興教寺 玄奘塔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마적달탑터와 정효공주무덤탑터를 예로 들며 무덤과 함께 세워졌던 당대 무덤탑이라고 하였다.³²⁾ 또한 1994년에는 세 학자가 간략하게 영광탑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광탑은 발해시기에 건립되었으며, 당대 풍격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해는 당 왕조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였다.³³⁾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方學鳳은 단행본을 통해 3개의 탑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³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3개의 전탑은 발해 중심지와 상관없이 드러났다. 둘째, 중심지에서 일정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다. 셋째, 탑은 모두 남향이다. 넷째, 세 무덤탑은 높은 구릉지에 경치가 좋은 곳이 선택되었다”고 하였다.³⁵⁾ 이는 불탑을 응용한 무덤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탑의 구조, 평면형태, 재료, 벽화 유무 등을 들며 세 탑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단 1편의 글이 있을 뿐이다. 한인호는 발해 영광탑은 한국건축의 특징인 지붕 처마선이 곡선을 이루고 있어 백제 정림사지 5층탑, 고

出版社(揚州), 203~205쪽; 張馭寰 著, 韓東洙 譯, 1996-12, 「長白山 靈光塔의 特徵과 年代鑑定에 관하여」, 『建築歷史研究』, 172~179쪽; 張馭寰, 2000,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13~14쪽; 張馭寰, 2006, 앞의 책, 72~76쪽.

31) 長白朝鮮族自治縣 文物志 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70~75쪽.

32) 魏存成, 1984-4, 「渤海的建築」, 『黑龍江文物叢刊』.

33) 姚君春·丁貴民·任寶堂, 1994-2, 앞의 글, 5, 41쪽.

34) 방학봉, 1992, 「발해의 세계 무덤탑유지와 그 비교」, 『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77~320쪽; 방학봉, 1995, 앞의 글, 239~277쪽; 방학봉, 1998b, 앞의 글, 94~117쪽; 방학봉, 1998c, 앞의 글, 연변대학출판사, 118~171쪽; 방학봉, 1998d, 「발해탑과 고구려탑에 대한 비교」, 『발해불교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72~220쪽.

35) 방학봉, 1992, 앞의 글, 연변대학출판사, 286~288쪽.

려 불일사 5층탑뿐 아니라 통일신라 다보탑과 석가탑의 지붕 처마선과 곡선형태가 같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중원지역 홍교사 현장탑은 지붕이 모두 직선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 처마선이 추녀들림 없이 평평하다고 하였다. 또한 탑 체감법도 아래에서 위층으로 가며 중국 것은 일정한 반면, 영광탑은 위로 가며 체감률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처마가 짧게 뻗어 나온 것도 영광탑과 달라 중국식과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³⁶⁾

한국의 신영훈은 1993년 영광탑을 답사한 후, 당시까지의 탑에 대한 소개와 함께 건축적 특징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다. 이 탑은 상경성 북쪽 외성 밖 三靈屯에 있는 발해왕족 무덤의 墓上建築에 대한 형상을 추정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며, 고구려의 미진한 부분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였다.³⁷⁾ 또한 韓東洙는 영광탑 시대감정을 맡았던 중국 張馭寰 글을 번역하여 영광탑에 대한 자세한 건축적 특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³⁸⁾

이상에서와 같이 발해 전탑 연구는 아직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이다. 또한 발해 전탑에 대한 고찰로 끝날 뿐 주변 지역이나 국가와의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발해 전탑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전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6) 한인호, 1988-3, 「발해의 영광탑」, 『조선고고연구』, 48쪽.

37) 申榮勳, 1993-6, 「渤海國의 塔塔-특히 靈光塔」, 『建築歷史研究』, 161~162쪽.

38) 張馭寰 著, 韓東洙 譯, 1996-12, 앞의 글, 172~179쪽.

Ⅲ. 중국의 전탑

1_ 중국 전탑의 전래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佛塔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土塔, 木塔, 磚塔, 模磚石塔, 石塔, 青銅塔, 金銅塔, 青石塔, 蠟石製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토탑이나 금속제 탑은 주로 사리 장엄을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공예적인 면을 강조한 작은 탑이므로 보통 탑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빼면 탑은 크게 목탑, 석탑, 전탑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³⁹⁾ 이 가운데 전탑은 흙을 구워서 일정 크기로 만든 벽돌(塼)을 쌓아 만든 탑을 말하며, 전탑(塼塔, 磚塔, 甃塔) 또는 벽탑(甃塔)으로 표기되고 있다. 전탑은 바리때를 얹어놓은 듯한 圓形覆鉢塔 형식으로 인도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⁴⁰⁾ 일관된 견해는 아니지만 대략 중국인들이 최초로 불교 문화권과 접촉한 것은 前漢 시기(기원전 206~기원후 8)에 간다라 지방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後漢 시기(기원후 25~220)에는 초기부터 불교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도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神仙思想에 고취되어 있었고, 이것과 결부된 樓閣 건축을 세우는 기술도 발전하여 있었다.⁴¹⁾

중국 불탑은 흙을 쌓아 올린 무덤형태(墳墓形, 覆鉢形)인 인도 탑과는 달랐다. 기존 목구조를 기본으로 한 건축기술 발달로 불탑은 고유한 양식을 가지지 못하고 기존 건축구법으로 탑을 조영하게 된다. 이는 서양의 경우 성당건축 始原을 로마 법정인 바실리카(Basilica)에서 찾을 수 있고, 한국의 경우도 사찰건

39) 천득염, 2002, 『전탑』, 대원사, 7쪽.

40) 전래시기, 경로에 대한 견해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鎌田茂雄 著, 鄭舜日 譯, 1989, 『中國佛敎史』, 경서원, 26~43쪽.

41) 金禧庚, 1986, 『韓國의 美術 2 塔』, 열화당, 18쪽.

축이 궁전건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인도 탑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미 발전하여 있던 목조건축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새로운 형식의 탑이 도입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불탑이 중국에 소개될 당시, 벽돌 생산은 초보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목조건물에 보조적인 재료로만 사용되었다. 그 후 조적 기술이 발달되자 탑의 건축 재료에 변화가 일어나 벽돌이 목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벽돌을 들어올리는 기술과 이를 지탱하는 비계, 그리고 조적 기술이 발전하자 전탑 높이와 크기는 더욱 증대되어, 뒤에는 15층 전탑까지 생기게 되었다. 『洛陽伽藍記』 卷2에 따르면 낙양 동쪽 외곽인 승의리에 西晉 太康 6년(287)에 만든 塼造三層浮圖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東晉 말 義熙 12년(416)에 세운 벽돌로 만든 부도가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전탑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2_ 중국 전탑의 건축형식

중국 전탑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北魏 시기 正光 4년(523)에 세워진 河南省 登封縣 太寶山 정상에 있는 嵩嶽寺 15층전탑이다. 이 탑은 灰黃色 벽돌로 쌓은 12角 전탑으로 높이는 40m에 이른다. 중국 유일의 12각 탑이기도 하다. 탑은 한 단의 기단 위에 세워졌는데, 전체적인 구조형식은 목구조 형식을 채용하여 기둥을 돌출시켰으며, 주춧돌과 주두도 형상화하였다. 각 층마다 방형 창문을 두었으며, 지붕은 1층 탑신만 높고 그 위부터는 密檐式으로 구성하였다. 내부는 8각형에 약 5m 가량의 공간을 두었으며, 각 층마다 나무 계단을 설치하였다.⁴⁴⁾ 즉 외부는 密檐式으로 꾸민 반면 내부는 출입이 가능한 공

42) 천득연, 2002, 앞의 책, 29쪽.

43) 천득연, 2002, 앞의 책, 30쪽.

44) 張馭寰, 2006, 앞의 책, 21~23쪽.

간을 구성한 것이 한국 전탑과 다른 점이다.

이 탑은 角柱와 佛龕 등 장식적인 부분에서 인도 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 많이 남아 있어 인도 탑과 연계를 추정하게 된다. 또한 각층 탑신에 남아 있는 석회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 탑 외부 색깔이 원래 백색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전탑 특징 가운데 하나로 송나라 때까지 계속되었다.⁴⁵⁾

이러한 전탑 발전은 唐 시기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唐代 전탑은 慈恩寺 大雁塔, 荐福寺 小雁塔, 興教寺 玄奘塔 등 총 22개에 이른다.⁴⁶⁾ 대표적인 전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雁塔(大慈恩寺塔)은 西安市 雁塔區 大慈恩寺 경내 중앙에 위치한다. 初創은 唐 永徽 3년(652) 玄奘法師가 서역의 佛塔제도를 모방하여 방형의 5층으로 건설하였으나, 50년 후에 허물어진 것을 唐 則天武后 長安年間(701~704)에 방형의 7층으로 개축하였다. 그 후 五代, 宋代, 明代에도 여러 번 수리하였다.⁴⁷⁾ 탑은 嵩嶽寺塔과 달리 樓閣式 전탑으로 정사각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층 한 변 길이가 25.5m이며, 기단부는 45.5~48.5m에 이른다. 현존 높이는 64.839m이고, 塔刹 높이는 4.87m에 이른다. 탑신 벽면은 목조건축을 본떠 1층부터 7층까지 9칸, 7칸, 7칸, 5칸, 5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둥은 방형의 장식용 벽기둥을 세웠는데 기둥 위에는 창방과 주두까지 장식하였다. 옥개 부분의 처마는 내쌓기를 하여 짧은 처마를 두었으며, 1층을 제외한 각층 4면 중앙에는 아치로 문을 두었다. 1층 서쪽 출입구 상부에 있는 楣石 표면에 음각된 佛殿圖는 그 당시 건축 구조형식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⁴⁸⁾ 탑 내부는 나선형 나무계단으로 정상인 7층까지 사람이 출입하게 하여 탑 정상에 오르면 서안 시내가 모두 조망된다.

小雁塔(荐福寺塔)은 西安市 碑林區 荐福寺 경내 중앙에 위치한다. 初創은 唐 景龍年間(707~710)으로 천복사가 지금 위치로 이전되면서 같이 건설되었

45) 천득염, 2002, 앞의 책, 30쪽.

46) 張馭寰, 2000, 앞의 책, 12쪽.

47) 趙克禮, 2007, 『陝西古塔研究』, 科學出版社, 119쪽.

48) 尹張燮, 1999, 『中國의 建築』, 서울大學校出版部, 127쪽.

다. 원래는 방형의 15층 密檐·樓閣式에 내부공간이 구성된 탑이었다. 그러나 1555년 지진으로 상부 두 개 층이 붕괴되어 지금은 13층만 남아 있다. 중국에 있는 密檐式 전탑 가운데 대표적인 탑이다. 이 탑은 북송과 명대까지 계속적인 보수가 있었다.⁴⁹⁾ 탑 평면은 정방형으로 전체 높이는 43.395m이며, 기단부 길이는 23.38m에 높이 3.2m이며, 1층 한 변 길이는 11.38m이고 높은 기단 위에서 있다. 특히 1층 탑신이 높으며 각 층 탑신 폭이 상층으로 가면서 작은 體感率을 갖고 있어 전체 윤곽선이 부드러운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탑 각층에는 반원 아치형 문이 있으며 1층 남북 출입구 미석에는 天山의 舍利供養圖 石刻이 남아 있다.⁵⁰⁾ 이 탑은 대안탑과 달리 목조를 본뜬 것이 아니라 순수한 벽돌을 이용해 최상층까지 쌓아올렸다. 각 층별 남쪽 중앙에는 아치 창문을 하나씩 두었으며, 이 탑도 내부공간이 있어 출입이 가능하였다.

玄奘塔은 西安市 長安區 杜曲鎮 興教寺 경내에 있다. 初創은 唐代 總長 2년(669)이고 882년에 塔身 부분을 수리했으며, 인도를 순방하여 불경을 들여온 玄奘法師 묘탑이다. 이 탑은 방형 樓閣式 5층탑으로 총 높이는 21m에 이른다. 평면은 정방형으로 1층 한 변 길이는 5.2m이다. 탑은 기단 없이 직접 지면에서 있다. 1층 탑신은 아무 장식 없이 벽돌로만 쌓았으며 남과 북쪽 중앙에 입구를 두었는데 남쪽 반원형 아치문 내부에는 玄奘像을 안치해 놓은 작은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1층을 제외한 상부 4개 층 탑신은 표면에 8각형 添柱를 4개씩 만들어 大雁塔과 같이 1면 3칸의 목구조 형상을 하였다.⁵¹⁾ 기둥 위에는 昌枋과 平枋 그리고 1豆3升式의 간략한 공포도 묘사해 놓았다. 전형적인 목구조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현장탑 왼쪽 탑은 신라 승려인 圓測法師 墓塔이다. 원측법사(613~696)는 신라 왕실에서 태어나 15세 약관 나이에 당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탑 형식은 3층으로 탑신은 붉은색 계열 벽돌로 쌓았으며, 옥개석은 내쌓

49) 趙克禮, 2007, 앞의 책, 125~126쪽.

50) 尹張燮, 1999, 앞의 책, 127~128쪽.

51) 尹張燮, 1999, 앞의 책, 128쪽.

기를 하여 지붕을 구성하였으며, 처마 단부인 추녀 부분에는 날렵한 처마선을 내기 위해 벽돌을 따로 제작하여 끼워 넣었다. 오른쪽 탑은 窺基大師 墓塔인데 형상은 원층법사 탑과 거의 같다. 원층법사와 규기대사 묘탑이 양쪽에서 중앙에 있는 현장탑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河南省 登封縣 縣城 서북쪽 20리에 있는 會善寺 淨藏禪師 墓塔은 746년에 건축된 것으로 8각 2층의 전탑이며 높은 기단 위에서 있다. 탑 높이는 기단 상면에서 9m이다. 특히 1층 탑신에는 목조건축 형식 세부가 나타나 있다. 탑 모서리에 5각형 添柱가 있으며, 주두 위에 卍斗 형식의 간략한 공포가 구성되어 있고, 柱間에는 창방 위에 人字형 대공이 있다. 공포 형식이 현장탑보다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²⁾

이상에서와 같이 唐代까지의 전탑은 1층을 제외한 2층부터는 屋身石이 낮아 屋蓋石이 마치 겹쳐 보이는 듯한 密檐式과 목조건물의 고층 누각을 그대로 본뜬 樓閣式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없거나 낮은 기단 위에 탑을 세우는데 1층에는 탑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내부공간을 구성한다. 각 층은 오르내릴 수 있는 나무계단을 두어 정상부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각 층에는 4면 혹은 남북으로 창문을 두었다.

평면은 대부분 정방형이고, 탑신부는 密檐式이거나 樓閣式을 하였고, 지하에는 무덤칸을 설치하여 사리를 봉안하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경우 사리장치를 지하에 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상 屋身部에 두는 것과 차이가 난다. 宋代 이후 중국 불탑은 8각의 다층탑으로 바뀌고 층수가 많아지며 장식적인 요소가 많아 외관이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⁵³⁾ 河北省 定縣에 있는 송나라 때 축조된 開元寺塔은 높이가 84m, 陝西省 涇陽縣에 위치한 명나라 때 축조한 崇文塔은 높이가 88m, 山西省 汾陽에 위치한 文峰塔은 높이가 84.8m에 이른다.⁵⁴⁾

52) 尹張燮, 1999, 앞의 책, 128쪽.

53) 임세권, 2004, 앞의 글, 8~9쪽.

54) 張馭寰, 2000, 앞의 책, 135쪽.

IV. 한국의 전탑

1_ 한국 전탑의 전래

한국에 전탑이 세워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그 시작을 불교 전래와 함께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삼국 가운데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였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평양 천도 이전인 소獸林王 2년(372)이며, 375년에 尙門寺와 伊弗蘭寺를 세웠고,⁵⁵⁾ 광개토왕 2년(393) 평양에 9개 절을 세웠다⁵⁶⁾는 내용은 있으나 탑에 관한 기록은 없다.

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절터는 아니지만 초기 고구려 왕성으로 추정되는 丸都山城 내에 팔각 목조 건물터가 있다. 이 시기는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으로 이때부터 목탑을 조영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평양 천도 이후인 文咨明王 7년(498)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剛寺址에는 8각의 목탑터가 있고, 이보다 후대 것으로 추정되는 定陵寺址에도 8각의 목탑터가 남아 있다. 이외에도 上五里寺址, 淸岩里寺址, 土城里寺址 등의 발굴 자료를 보면 탑 대부분은 8각형의 다층 樓閣式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구려에서는 4~5세기에는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탑 건립연대로 볼 때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온 372년 직후부터 목탑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고구려 지역에서는 목탑 이외에 전탑에 관한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遼寧省 瀋陽市 북쪽 新城子 石佛一村 산 정상에

55) 『三國史記』 卷第二「高句麗本紀」第六 '小獸林王'.

56) 『三國史記』 卷第六「高句麗本紀」第六 '廣開土王'.

57) 환도산성 내 건물터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이 참고된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丸都山城』, 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76~85쪽.

고구려 때 전탑이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탑은 대부분 파손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없지만, 基壇과 塔身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⁵⁸⁾ 전탑 위치는 遼河 동쪽 심양 부근으로 고구려가 요하 주변에 진출한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처음 요동에 진출하였고, 이 지역이 완전히 고구려 강역에 속한 시기는 광개토왕 때이며, 이후 이 지역은 계속 고구려 영역에 속하였다.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고, 광개토왕 때 이 지역을 관할하였다면 충분히 불탑으로서 전탑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⁵⁹⁾ 지금까지 한국의 전탑 분포가 경주와 안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남북국시대 이후에 조영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중국 중원지역과 직접적인 유입 관계로만 여기는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전탑을 조영하는 기술이 고구려 멸망 후 자연스럽게 발해에 전해졌고, 遼寧省 朝陽市 朝陽北塔과 吉林省 農安縣 農安遼塔같이 요나라에도 전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탑 건립은 백제와 신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백제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 등에 목탑터가 남아 있고, 신라에서는 경주 황룡사지 9층탑터와 같은 거대 목탑 건립 수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목탑 건립은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불탑의 주류를 이루던 목탑은 7세기 들어와 전탑 또는 석탑으로 축조 방법과 재료에 변화가 있게 된다. 백제의 대표적 석탑으로 남아 있는 미륵사지 석탑과 정립사지 석탑은 모두 목탑을 모방한 것들이다. 그 가운데 미륵사지 석탑은 석재를 목재처럼 다루면서 탑 전체가 고층 樓閣式 목탑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唐 시기 목탑에서 전탑으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전탑에 목탑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신라의 경우 목탑 이후에 등장한 것은 전탑과 모전석탑이고 통일 이후에는 감은사지 3층석탑을 대표로 하는 전형적인 3층석탑이 등장했다. 신라에서 목

58) 신영훈, 2004, 앞의 책, 191~195쪽.

59) 朴晟亨, 1999, 「韓國建築의 巖龕[벽돌]使用과 그에 따른 建築 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97쪽.



〈사진 10〉 瀋陽市 북쪽 新城子 石佛一村 고구려탑

탑이 사라지고 전탑이나 모전석탑이 등장한 것은 선덕여왕(632~647) 때이다.⁶⁰⁾ 이 시기는 당과 외교가 활발히 전개되던 때로 사회문화적으로 당나라 선진문화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승려가 당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의 불교문화가 신라로 전래되면서 신라에도 전탑 건립에 활기를 띤 것으로 추정된다.

당 왕조는 640년경부터 신라를 비롯한 주변국 왕족들을 국학에 받아들여 당 문물이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 역시 많은 왕족과 승려가 당에서 불교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선덕여왕 12년(643) 당에서 귀국한 자장에 의해 645년 황룡사 9층탑이 세워진 것도 이 시기이다. 이렇게 볼 때 7세기 전반은 신라 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크게 일어난 시기이며, 당시 당에서 새로 건립되기 시작한 전탑이 신라에서도 자연스럽게 세워지기 시작하였을 것이다.⁶¹⁾

60) 善德女王 때 승려 良志가 작은 전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탑에 대한 첫 기록이다. 『三國遺事』 卷第四 良志使錫.

61) 임세권, 2004, 앞의 글, 10~11쪽.

7세기 후반 중국에는 大雁塔, 小雁塔, 善導塔, 玄奘塔, 圓測塔 등 많은 전탑이 세워진다. 玄奘法師가 인도에서 귀국함으로써 중국 불교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개혁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때는 신라 유학승 圓測이 서역에서 돌아온 현장과 함께 역경사업을 활발히 하던 시기이며, 의상이 661년 당나라에 건너가 671년 귀국하여 불교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중원지역에서 유행되었던 전탑이 신라에도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⁶²⁾

그러나 신라에 처음 세워졌던 전탑은 순수 벽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 경주 일대에 건립된 전탑은 소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러한 소형 전탑과 관련하여 경주에서 주목되는 것은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신라 석탑 연구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최초의 신라 석탑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최초 석탑이 왜 전탑 형태를 취하였는가? 이것은 당시 중국 중원 지역에서 들어온 불교문화에서 탑은 전탑으로 조영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 조적조로 탑을 쌓는 기술이 낮설고, 벽돌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벽돌과 비슷한 안산암을 이용해 전탑처럼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전탑이 분황사 탑과 같은 모전석탑이다.⁶³⁾

한국에서는 전탑보다 모전석탑이 더 유행하였는데 축조방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석재를 벽돌과 같이 잘라서 전탑모양으로 축조하는 유형(전탑계 모전석탑)으로 앞에서 언급된 분황사 모전석탑을 시작으로 제천 장락리 7층석탑, 영양 현이동 5층석탑, 영양 삼지동 석탑, 상주 상병리 석심 회피석탑 등이 있고, 둘째는 낙수면이 층단을 이룬 점에서 전탑 형태를 보이거나 탑신 옥개석을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과 같이 석재로 축조하는 유형(석

62) 임세권, 2004, 앞의 글, 10~11쪽.

63) 문화재관리국·삼성건축사사무소, 1992, 『분황사석탑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3~17쪽.

탑계 모전석탑)으로 의성 탑리 5층석탑을 始原으로 의성 빙계동 5층석탑, 선산 죽장사지 5층석탑, 경주 葦長溪 3층석탑, 경주 품也里 3층석탑, 청원 영하리 석탑, 경주 남산동 3층석탑, 경주 서악동 3층석탑 등이 있다.⁶⁴⁾

한편 경주지역 대부분의 전탑 계열이 모전석탑인 반면 안동지역에 남아 있는 전탑은 벽돌로 쌓은 순수전탑이다. 순수전탑이 안동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아마 이 지역 토질이 벽돌 생산에 적합했거나, 교통이나 문화 전달 경로 때문에 벽돌문화와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⁶⁵⁾

현재 신라 소산이라고 알려진 4기의 전탑은 안동에 3기, 대구 근교 칠곡 송림사에 1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전탑 4기는 현재까지 남북국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토가 건축 주재료를 이룬 중국은 한국보다 벽돌을 사용하는 기술이 현저히 발달하였던 관계로 목탑보다는 전탑이 많이 축조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양질의 화강암을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이유로 전탑보다는 석탑이 많이 건립되었다. 즉, 건축을 비롯한 탑 양식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재료가 산출되며 기후와 풍토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_ 한국 전탑의 건축형식

본 글의 연구대상인 발해 전탑은 벽돌로만 쌓은 순수전탑이므로 한국 전탑의 경우도 경주와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模博石塔과 같은 유형의 전탑은 참고는 하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전탑만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 있는 전탑으로는 안동 신세동 7층전탑, 안동 동부동 5층전탑, 안동 조탑동 5층전탑, 칠곡 송림사 5층전탑,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의 5기이고, 파괴되거나 벽돌 정도만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안동 금계동 다층전탑, 청도 불명사 전탑, 안동 장기동 전탑, 안동 개목사 전탑 등이 있다. 또한 유적은 전혀 확

64) 문화재관리국·삼성건축사사무소, 1992, 앞의 책, 13~15쪽.

65) 임세권, 2004, 앞의 글, 12~15쪽.

인할 수 없으나 기록으로나마 전해지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사 7층전탑도 있다.⁶⁶⁾ 현존하는 전탑 가운데 신륵사 다층전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북국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발해 전탑과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5기 전탑의 건축형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전탑의 건축형식은 재료, 평면과 입면, 구조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료는 전탑의 주재료가 되는 벽돌이며, 평면과 입면은 탑의 형태, 층수, 높이이고, 구조형식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구조방법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에 현존하는 전탑이 건립 당시 그대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없어 명확한 건축형식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1) 재료 : 벽돌

한국 전탑에 사용된 벽돌은 정방형 벽돌, 장방형 벽돌, 반토막 벽돌 등 다양하다. 바닥에 까는 전돌형 벽돌과 같은 정방형 벽돌은 옥신이나 옥개석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여 양쪽으로 하중 전달이 균등하게 하였고, 장방형 벽돌은 탑신 벽면 모서리를 제외한 부분에 사용하였다. 반토막 벽돌이나 벽돌 파편은 사이를 메우거나 탑 내부 뒤채움용으로 사용되었다. 벽돌 색깔은 흑회색이 대부분이다. 벽돌이 오래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에서는 당초문을 양각한 것들이 있고, 뒤에 보수한 것들은 무늬가 없는 벽돌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⁶⁷⁾ 사용된 벽돌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28×14×6, 28×28×6, 28×14×5.5, 28×28×5.5cm로 신륵사 다층전탑을 제외한 4개 전탑이 거의 비슷하다.

벽돌을 축조하는 방법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신륵사 다층전탑은 2cm의 석회 줄눈을 채워가며 조적해 나간 반면 나머지 전탑들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 막

66) 안양사 7층전탑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이 참고된다. 朴慶植, 1999, 「安養 安養寺의 七層塔과 龜趺」, 『文化史學』 11·12·13號, 671~685쪽; 安志錫, 2007, 「安養寺 七層塔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7號, 675~695쪽.

67) 千得琰·김은양, 1995-12, 「韓國塔에 관한 比較論的 研究」, 『建築歷史研究』, 41~42쪽.

〈표 1〉 한국 전탑의 구조 분석표

전탑명	건립 연대	위치	높이 (m)	재료	기단	탑신	옥개석 (바침수)	낙수면 (층단수)	상륜부	벽돌크기(cm) (길이×폭×두께)	조적방법
안동 신세동 7층전탑	8세기	평지 강변	16.40	회색색 화강석 無紋磚	화강석 2층 기단	벽돌조 1층 남면 감실 중앙에 착주공	벽돌 내쌓기 (9,8,7,6,5,3)	벽돌 들어쌓기 (10,9,8,7,6,4,3)	노반만 노출 金銅殿相輪	28×14×6	마구리쌓기
안동 동부동 5층전탑	남북국	평지 강변	08.35	회색색 화강석 無紋磚 3단의 화강석	화강석 3단의 탑신받침	벽돌조 1층 남면 2층 네면 3층 남면에 감실	벽돌 내쌓기 (10,8,6,4,3)	암기와 수키와	覆鉢形 노반		마구리쌓기 길이쌓기
안동 조탑동 5층전탑	남북국	평지	08.65	당초문 有紋磚 5단의 화강석	토축기단 5단의 화강석 3단 피임돌	1층 화강석 2층부터 벽돌조 심주 있음 1층 남면에 감실	벽돌 내쌓기 (10,8,7,6,3)	벽돌 들어쌓기 (7,5,5,4,4)		28×28×6 28×14×6	마돌허튼층 길이쌓기
칠곡 송림사 5층전탑	9세기	평지	16.13	無紋磚 有紋磚	단층 기단	탑신 피임대 1층 남면에 감실	벽돌 내쌓기 (9,7,7,6,4)	벽돌 들어쌓기 (11,9,8,7,5)	4면에 풍경 木心 刹柱 金銅殿相輪	28×28×5.5 28×14×5.5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고려	언덕 강변	09.40	당초문 有紋磚 3단의 화강석	장대석 다층 기단	감실 없음	벽돌 내쌓기 1-3층 : 2단 4-6층 : 1단	벽돌 들어쌓기 1층 : 4단 2층부터 : 2단	라마 형식 석재 모륜	직사각형 벽돌	2cm의 줄눈

힌줄눈으로 중첩해 올라가는 방법을 썼다. 自重에 의한 垂直力과 막힌줄눈에 의한 橫力 보완이 탑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반복하여 목조를 결구하듯 했다. 조적방법은 벽면 양쪽 모서리 부분에는 마구리쌓기와 길이쌓기 방법을 썼으며, 나머지 부분은 마구리쌓기를 주로 하여 단부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 증원지역은 진흙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가공하는 방법도 간단하며, 가격도 싸고, 시공하기 쉬우며, 각종 무늬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돌이 널리 이용되었다.⁶⁸⁾ 그러나 한국의 전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전후에 일시적인 유행을 보이다가 귀족적인 건축 재료로 변모되어 더 이상은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⁶⁹⁾ 중국에 비해 벽돌 재료가 되는 진흙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없었고, 벽돌보다 강도 면에서 훨씬 더 강한 석재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벽돌은 더 이상 유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평면과 입면

한국에 조영되기 시작한 탑은 木造의 8각형이었다. 환도산성 왕궁터 8각건물터를 비롯하여 금강사지, 청암리사지, 정릉사지 등 여러 고구려 절터에서 확인되었다. 그 후 이러한 8각형 탑은 정사각형으로 변모되었고 재료도 돌로 바뀌었다. 양질의 화강암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목탑보다는 탑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라의 경우 석탑이 본격적으로 조영되기 전에 전환기적 석탑으로 모전전탑이 등장하게 된다.⁷⁰⁾ 대표적인 예가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신라 석탑 연구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최초의 석탑으로 보고 있다. 아마 당시 불탑은 기본적으로 정방형 전탑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⁷¹⁾ 분황사

68) 張馭寰, 2000, 앞의 책, 134쪽.

69) 高裕燮, 1993a, 앞의 글, 121쪽.

70) 高裕燮, 1993b, 「朝鮮의 塔婆 概說」,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高裕燮 全集 3, 通文館, 117~118쪽.

71) 임세권, 2004, 앞의 글, 13쪽.

모전석탑, 경북지역의 여러 모전석탑은 물론이고 5개의 순수전탑도 평면 형태는 모두 정방형이다. 중국 전탑의 경우 4각형, 8각형, 12각형, 16각형 등으로 다양하다가 五代 이후 8각형이 주를 이루게 된 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중국도 한국의 남북국시대에 해당되는 唐代까지는 대부분의 전탑 평면이 정방형이었다.

5개의 전탑 층수를 보면 7층 2개, 5층 3개이다. 신륵사 다층전탑을 6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탑은 서수로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7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륜부를 제외한 높이는 신세동 7층전탑이 16.4m, 동부동 5층전탑이 8.35m, 조탑동 5층전탑이 8.65m, 송림사 5층전탑이 11.60m, 신륵사 다층전탑이 9.4m에 이른다. 한국 전탑은 평면, 층수, 높이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에 비해 규모는 작다고 볼 수 있다.

3) 구조형식

(1) 기단부

기단부는 일반적으로 단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남북국시대 전탑이 원래는 단층기단이었으며,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모전석탑도 단층기단이다. 한국은 전탑이 목탑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목탑의 구조형식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륵사지 목탑터와 황룡사지 목탑터가 단층기단이며, 목탑을 충실히 닦았던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도 모두 단층기단이다.

안동지역 전탑들의 기단부는 원형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조탑동 5층전탑은 축대를 쌓듯이 낮은 기단을 형성하고 그 상부를 흙으로 다진 다음 1층 탑신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 노인들 말에 따르면 지금의 기단은 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50~60년 전에는 기단부가 없었다고 한다.⁷²⁾ 따라서 이 탑이 본래부터 기단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동

72) 임세권, 2004, 앞의 글, 18쪽.

부동 5층전탑은 특별한 기단 형식 없이 평평한 지대석을 깔고 1층 탑신의 벽돌을 쌓아 올라갔다. 송림사 5층전탑은 기단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다. 주택 기단처럼 외벌대 돌을 폭넓게 돌리고 그 위에 흙을 다진 다음 1층 탑신을 세웠다.

신세동 7층전탑은 기단 형태가 매우 다르다. 1층 탑신 아래에 있는 기단에는 八部神衆 또는 四天王像으로 보이는 면석을 동쪽, 남쪽, 북쪽에 각 6장씩 돌려 세웠으며, 면석 위로는 1층 탑신 밑면까지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 있어 기단부로는 매우 어색한 모습이다. 이 탑은 후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처음에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⁷³⁾ 신륵사 다층전탑 또한 특이하게도 계단식 기단이다.

목탑은 상부 하중이 도리와 보를 통해 기둥과 주춧돌에 전달되는 경우 偏心荷重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기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탑은 구조체 자체가 지면에 전달되는 구조형식이기 때문에 목탑에 비해 기단의 중요도가 덜하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와 같이 한국의 전탑에서 기단은 단층이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는 지대석이 지면 위에 곧바로 벽돌을 쌓아 올라가지만 한국은 기단을 형성하든지 아니면 지대석 정도는 두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2) 탑신부

① 옥신부

전탑에서 탑신은 당시의 탑 축조방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전탑이 상륜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탑신부를 통해 각 국가와 지역별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탑신부는 건물로 치면 벽체에 해당되는 옥신부와 지붕에 해당되는 옥개부로 나뉜다.

한국에 남아 있는 전탑은 중국과 달리 탑신부 재료가 모두 벽돌인 경우가 별로 없다. 조탑동 5층전탑의 경우 1층 옥신은 돌을 이용해 석축 형태로 쌓았

73) 천득염, 2002, 앞의 책, 45쪽.

고, 그 위부터 벽돌로 탑신을 구성했다. 다른 나머지 탑의 경우도 완벽한 벽돌로 쌓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중국은 탑신부 축조방법이 密檐式 아니면 樓閣式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은 밀첨식은 없고 누각식으로만 조영되었다. 다만 1층 옥신부는 그 위층보다 훨씬 높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옥신 높이는 점차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1층에 四方佛이나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탑들은 1층에 감실을 만들고 남쪽 또는 동쪽에 문을 냈는데 대체로 남쪽이 많다. 송림사 5층전탑은 1층에 감실이 없으나 1959년 해체 수리 때 남쪽에서 감실 흔적이 확인되었다. 감실은 후대에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폐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⁷⁴⁾ 그러나 신륵사 다층전탑에는 감실이 없다.

감실 문틀은 벽돌이 아닌 화강석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문 좌우에는 조탑동 5층전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강역사를 세운 예가 있다. 그러나 동부동 5층전탑은 1층 탑신 남쪽 면에 화강암으로 감실 틀만 만들고, 그 위 2층 옥신부 남쪽 면에 금강역사를 새긴 화강암 판석을 끼워 넣었다. 또한 2층 옥신부 동, 서, 북쪽에 벽돌 1장 크기의 간략한 감실을 따로 두었다.

옥신부 외부는 벽돌로 쌓았으나 내부는 벽돌이나 잡석을 사용하여 뒤채운 한 것과 방추형의 내부 공간을 아주 좁게 만든 예를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 전탑 내부가 1층부터 최상층까지 통으로 뚫려 있으며, 옥개석 밖으로 돌출시켜 내쌓기 한 부분은 내부도 안으로 돌출시켜 역학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⁵⁾ 즉 내외출목을 충실히 빼놓았다. 그러나 한국의 전탑들은 중국에 비해 규모에서 소형이며, 높이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내부를 비우면서 쌓기에는 너무 좁아 불가능했을 것이다.

74) 金載元, 1966, 「松林寺塔塔」, 『震檀學報』 29·30합병호, 17, 26쪽; 孫信榮, 2006, 「松林寺 5층전탑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27호, 122쪽.

75) 임세권, 2004, 앞의 글, 21~22쪽.

② 옥개부

전탑에서 옥개부는 지붕에 해당된다. 한국 전탑의 옥개부는 옥개 추녀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옥개 상하가 층단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목탑이나 석탑 옥개처럼 경쾌하게 내밀지 못하고 짧고 뭉툭해 처마선 끝이 처지거나 끝이 둔해 보인다. 벽돌이라는 재료적 한계로 긴 처마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5개 전탑을 보면 옥개를 이루는 층단 수는 10단에서 3단까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 또는 둘씩 규칙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안동 조탑동 5층전탑을 제외한 나머지 전탑은 옥개 하부 층급받침 수가 옥개 상부 낙수면 수보다 적다. 전탑은 작고 일정한 크기의 벽돌을 사용하여 조적식으로 축조하기 때문에 탑신에서 돌출된 옥개를 만들기 위해서 내밀어 쌓아야 한다. 그러나 작은 개개의 벽돌을 많이 내밀게 되면 쉽게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짧은 옥개를 축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층에서는 탑신의 평면 크기가 줄어들어 체감되므로 옥개 상부 낙수면 수가 하부의 층급받침 수보다 많아야 하는 특징도 있다.

한국 전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옥개 부분에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신세동 7층전탑과 동부동 5층전탑 옥개 상부에 기와를 얹은 흔적이 있다.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목조 건축을 본떠 외양을 추구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동부동 5층전탑의 경우 기와를 얹는 수법은 목조 건축과 일치하여 수키와와 암키와를 사용하였으며 막새기와 없이 아귀토를 끝에 채워 넣었다. 내림마루 부분에는 수키와를 썼으며 망와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⁷⁶⁾ 이는 벽돌 사이사이에 비로 인한 침습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다. 집안현 장군총에도 주변에서 많은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이와 연관시켜 볼 만하다.

(3) 상륜부

현재 한국의 전탑 가운데 上輪部를 남기고 있는 것은 송림사 5층전탑밖에

76) 천득엽, 2002, 앞의 책, 40쪽.

없다. 상륜부에는 금동으로 제작된 상륜이 남아 있는데 5층 옥개 위에 노반의 신부를 쌓고 그 위 네 귀에는 풍탁이 달린 동판을 얹어 갑석을 대신했다. 찰주는 목재이고 그 위에 동판을 씌운 다음 복발, 양화, 보륜, 용차, 보주 순으로 되어 있으나 보륜 일부와 수연은 없어진 듯 빈 공간이 있다. 상륜부 높이는 45.1cm이다.⁷⁷⁾ 그러나 송림사 전탑 상륜이 당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邑誌인 『永嘉誌』 卷6 古塔條에는 안동 신세동 7층 전탑과 동부동 5층전탑 위에 금동 장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금동제 상륜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⁷⁸⁾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의 전탑에는 청동 혹은 금동의 상륜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주변 국가 전탑과의 비교를 통한 발해 전탑의 건축적 특징

1_ 발해 전탑의 성격

발해 관할구역에 있는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탑이나 전탑터는 영광탑, 정효공주무덤탑터, 마적달탑터 3곳이다. 영광탑은 장백현 탑산 정상 평평한 구릉지 끝자락에 위치한다. 정효공주무덤탑터는 서고성이 발해 도읍으로 이용되었던 시기의 왕실 또는 귀족무덤이 모여 있는 龍頭山 정상에 위치한다. 마적달탑터는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야 다다를 수 있는 산속에 위치한다. 세 전탑은 모두 산 정상에 자리하여 사면이 트인 개활지에 있다. 영광탑은 鴨綠江, 정효공주무덤탑터는 海蘭江의 지류인 福洞河, 마적달탑터는 琿春河를 내려다보고

77) 孫信榮, 2006, 앞의 글, 123쪽.

78) 천득연, 2002, 앞의 책, 39쪽.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 탑은 지하에 큰 규모의 무덤칸을 두어 그곳에 솜이나 粉骨이 아닌 屍身을 모셨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마적달탑터에서는 중년 남성 유골이 발견되었고, 정효공주무덤탑터에서도 공주와 그의 남편 유골이 관에 넣어져 합장되어 있었고,⁷⁹⁾ 영광탑도 무덤칸 규모로 보아 사람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⁰⁾

중국의 경우 大雁塔, 小雁塔, 玄奘塔 등 唐 시기 전탑은 모두 사찰 내에 위치하는 사리탑이다. 한국의 경우도 당시에 건립된 신세동 7층전탑, 조탑동 5층전탑, 송림사 5층전탑 등 모두 사찰 내에 위치하는 사리탑이다. 중국은 발해 전탑과 같이 지하에 무덤칸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신이 아닌 사리를 안치하였다. 한국은 무덤칸 없이 기단 위에 탑을 세우고 탑신에 사리를 모셨다. 발해 전탑과 같이 무덤칸에 시신을 모신 것은 한반도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예에 속한다.⁸¹⁾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산 정상부에 위치했고, 무덤칸에서 사리가 아닌 사람 유골이 수습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발해 전탑은 사리탑보다는 무덤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는 발해 왕실에서 불교를 높이 숭상했으며,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탑 문화를 왕실 장례 문화까지 승화 발전시킨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_ 발해 전탑의 건축적 특징

발해 전탑의 건축적 특징도 한국과 같이 재료, 평면과 입면, 구조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료는 전탑의 주재료가 되는 벽돌이고, 평면과 입면은 탑의 형태이다. 그러나 구조형식은 약간 차이가 난다. 발해 전탑은 탑 아래 지하에

79) 방학봉, 1998b, 앞의 글, 149쪽.

80) 방학봉, 1998b, 앞의 글, 138쪽.

81) 申榮勳, 1993-6, 앞의 글, 157쪽.

무덤간이 있기 때문에 기단부가 없다. 따라서 구조형식은 무덤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재료 : 벽돌

발해 전탑에 쓰인 벽돌을 조사해 보았다. 영광탑은 회색과 붉은색 계통 벽돌을 혼합해서 사용했으며, 정효공주무덤탑터와 마적달탑터도 대부분 영광탑과 비슷한 색을 사용하였다. 물론 한국과 중국 중원지역 전탑도 각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벽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벽돌 크기와 모양은 지역별로 약간씩 달랐다. 또한 발해 전탑의 벽돌은 강도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마적달탑터에서 나온 벽돌을 숫돌 대용으로 썼다는 것이⁸²⁾ 이를 증명하는 예이다.

영광탑은 크기와 형태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벽돌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길이×폭×높이가 18×18×6cm, 16×19.5×6cm, 34×35×6cm 등으로 두께만 6cm로 일정하고 나머지는 각기 달랐다. 마적달탑터 경우도 두께만 5cm로 일정할 뿐 길이와 폭이 모두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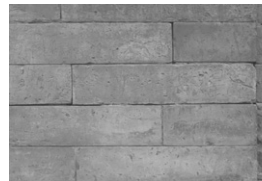
이에 비해 한국에서 조사된 전탑의 벽돌 크기는 송림사 5층전탑은 28×28(14)×5.5cm이고, 안동시 신세동 7층전탑은 28×14×6cm, 안동시 조탑동 5층전탑은 28×28(14)×5cm로 일정한 크기의 벽돌만을 사용하였다. 중국 서



〈사진 11〉 영광탑 벽돌



〈사진 12〉 송림사전탑 벽돌



〈사진 13〉 대안탑 벽돌

82)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123쪽.

안지역의 경우도 대안탑은 $33.5 \times 18 \times 7.5\text{cm}$ 이었고, 홍교사 현장탑은 $32 \times 16 \times 7\text{cm}$ 로 역시 벽돌 크기는 대체적으로 일정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해 전탑은 지하에 무덤을 만들고 그 위를 탑으로 구성하다보니 크기가 다양한 벽돌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발해의 전탑은 한국과 중국 중원지역의 전탑과 용도 면에서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2) 평면과 입면

발해의 12개 불탑 유적 가운데 평면형태가 확인된 유적은 전탑터 3개, 목탑터 3개로 총 6곳이다. 전탑터 평면형태는 3개 모두 정방형이었으며, 목탑터도 3개 모두 정방형이다. 아직까지 6각이나 8각형의 탑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⁸³⁾

평면 크기를 보면 영광탑은 1층 탑신 한 변 길이가 3.3m, 정효공주무덤탑터는 탑기초 한 변 길이가 5.50m와 5.65m, 마적달탑터는 탑기초 한 변 길이가 4.8m와 4.95m였다. 영광탑을 제외한 2개의 탑터는 모습은 알 수 없지만 평면 크기를 탑기초 길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영광탑은 5층이고, 마적달탑터는 7층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정효공주무덤탑터는 적어도 7층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광탑 무덤칸 규모는 길이 1.9m, 너비 1.42m, 높이 1.49m이고, 마적달탑터 무덤칸은 길이 2.7m, 너비 1.86m, 높이 2.3m인데 비해 정효공주무덤탑터 무덤칸은 길이 3.1m, 너비 2.1m, 높이 1.8m로 규모가 훨씬 크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3개 탑 높이를 추정해 보면 영광탑이 상륜을 제외한 높이가 12.86m임을 감안하면, 마적달탑터와 정효공주무덤탑터는 최소한 18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⁸⁴⁾

한국에 조영되기 시작한 불탑은 木造의 8각형이었다. 그 후 이러한 8각형 탑은 정방형으로 변모되었고 재료도 돌과 벽돌로 바뀌었다. 아마 당시 불탑은

83) 방학봉, 1998b, 앞의 글, 109쪽.

84) 방학봉, 1998c, 앞의 글, 147~148쪽.

정방형의 전탑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었던 것 같다.⁸⁵⁾ 한국의 5개 전탑도 평면 형태는 모두 정방형이었다. 중국 전탑의 경우 4각형, 8각형, 12각형, 16각형 등으로 다양하다가 五代 이후 8각형이 주를 이루게 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중국도 한국의 남북국시대에 해당되는 唐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전탑 평면이 정방형이었다.⁸⁶⁾

한국의 전탑 층수는 모두 5층 또는 7층에 높이는 신세동 7층전탑이 16.4m로 가장 높았고 동부동 5층전탑이 8.35m로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5층에서 15층으로 규모가 다양했으며, 높이는 21m에서 65m로 발해 전탑에 비해 매우 컸다. 전탑 규모는 발해와 한국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물 造營原理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평지에 있으므로 그 건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큰 규모로 높게 지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서는 건물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크게 짓는 방법도 있지만, 높은 곳에 지어 낮아도 어느 곳에서나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건축 조영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3) 구조형식

(1) 무덤칸

발해의 전탑은 지상에 탑을 세우기 전에 지하에 무덤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즉, 탑은 墓塔 성격이 강했다. 지하 무덤은 출입구에 해당되는 무덤통로와 무덤에 이르는 무덤길,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칸 규모는 길이×너비×높이가 정효공주무덤탑터는 3.1×2.1×1.8m, 마적달탑터는 2.7×1.86×2.30m, 영광탑은 1.9×1.42×1.49m이다. 이 정도라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다.

무덤을 쌓는 구조방법은 무덤통로는 지상에서 무덤길을 향해 좌우 쪽으로

85) 임세권, 2004, 앞의 글, 13쪽.

86) 張馭寰, 2006, 앞의 책, 73쪽.

점차적으로 줄어들며 계단으로 구성하였다. 계단 바닥과 벽은 여러 형태(방형, 장방형, 마름모형)의 벽돌로 쌓았다. 무덤길 또한 좌우에는 벽돌을 쌓았고, 바닥도 벽돌을 깔았다. 무덤칸은 벽은 벽돌로 여러 층이 되게 쌓았다. 바닥에는 벽돌을 깔고 무덤칸 위는 판돌을 덮었다. 한국은 탑 지하에 무덤칸을 둔 예가 전혀 없고, 중국도 무덤칸은 있되 사리 정도를 안장하는 크기이다. 이에 비해 지하에 무덤칸을 둔 예는 동북아시아 전탑에서 발해만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다.

(2) 기단부

발해의 전탑은 지하에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전탑과 같이 기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다. 지하의 무덤이 충분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해 전탑 3개 모두 기단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영광탑에는 나지막한 기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탑을 보호하기 위해 탑신 주위에 잡석을 쌓고 백회를 이용하여 기단을 만들었다고 한다.⁸⁷⁾

이에 비해 한국의 전탑은 대부분 낮은 기단을 설치하였다. 기단부는 일반적으로 단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남북국시대 전탑이 원래는 단층 기단이었으며,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모전석탑도 단층 기단이다. 한국의 경우 전탑이 목탑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목탑의 구조형식을 일부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기단 없이 지면 위에 곧바로 탑신을 쌓아 기단을 두지 않는 것은 발해와 비슷했다.

(3) 탑신부

① 옥신부

발해, 한국, 중국 중원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전탑의 옥신부 축조법은 모두 벽돌을 쌓아가는 조적식 구조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발해와 한국 지역에서 조

87) 張馭寰, 2006, 앞의 책, 72~73쪽.

사된 전탑은 순수한 조적식인 반면 중국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大雁塔과 玄奘塔의 경우는 기본구조를 조적식으로 하되 외관상으로는 가구식 구조를 하고 있다. 즉, 목탑의 가구법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은 지금까지 영광탑을 해석하는 데 興教寺 玄奘塔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다.⁸⁸⁾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법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홍교사 현장탑은 완벽하게 목구조를 형상화하고 있다. 우선 기단부에 2개의 伏蓮이 있고, 매 층마다 4개의 기둥을 구성했으며, 기둥 위에는 창방, 평방, 주두, 공포(1豆3升式)까지 형상화하였다. 또한 목탑 기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기울임까지 구비하고 있다. 완벽한 목조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탑으로서 매우 정교한 표현의 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광탑은 옥신부 위에 처마를 벽돌로 내쌓았을 뿐 목탑 형상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장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경우 초창기 석탑에서도 시원적으로 목탑 형상을 한 예가 있다. 익산 미륵사지탑과 부여 정림사지탑은 석탑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식 구조를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현존하는 전탑은 모두 순수한 조적식 전탑이다. 한국에서는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모되어가는 전환기적 석탑이 존재했다면, 중국은 목탑에서 전탑으로 가는 전환기적 전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는 한반도 지역 전탑과 동일한 조적방법으로 탑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옥개부

전탑에서 옥개부는 지붕에 해당된다. 전탑에서 의장적인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옥개부의 처마 부분일 것이다. 세 지역 전탑을 조사한 결과 발해 영광탑은 한국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현수곡선에 의한 귀솟음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영광탑은 처마를 길이면과 모서리면으로 교차해가며 내쌓았다. 처마를 양 끝으로 가며 약간씩 들어올리다가 추녀 부분에서는 따로 제작한 벽돌을 이용해 처마곡선을 극대화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5개 전탑

88) 魏存成, 1984-4, 앞의 글.



〈사진 14〉 영광탑



〈사진 15〉 송림사 5층전탑



〈사진 16〉 흥교사 현장탑

에서는 이러한 처마 들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 唐시기 전탑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전탑을 쌓는 재료가 벽돌이라는 한계로 긴 처마를 낼 수 없으며, 단위 부재로 처마를 곡선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처마곡선은 발해 영광탑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의 대표적인 전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상륜부

발해 전탑 가운데 上輪部를 남기고 있는 것은 영광탑밖에 없다. 그러나 영광탑 상륜도 明代에 파괴되어 1936년에 다시 제작되었고, 지금 것은 1982년에 만들어 올려놓은 것이다. 탑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례감을 볼 때 상륜부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상륜부 높이는 1.96m에 이른다. 또한 마적달탑터에서도 1900년대 초에 상륜부가 강물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전탑에도 상륜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상륜부를 남기고 있는 것은 송림사 5층전탑밖에 없다. 상륜부에는 금동으로 제작된 상륜이 남아 있는데 5층 옥개 위에 노반의 신부를 쌓고 그 위 네 귀에는 풍탁이 달린 동판을 얹어 갑석을 대신했다. 찰주는 목재이고 그 위에 동판을 씌운 다음 복발, 양화, 보륜, 용차, 보주 순으로 되어 있다. 영광탑 상륜은 지금은 호룡불 형태로 간략하게

재현되어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한국의 전탑 못지않게 웅장한 상륜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발해시기에 건립된 전탑과 한반도 지역에 있는 전탑 그리고 중국 중원지역에 있는 전탑과의 비교를 통해 발해 전탑의 성격과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여 전탑이 중국 중원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건축사에서 발해 전탑이 갖는 건축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를 진행하여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고학적 조사 결과 발해의 탑터는 1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발해 전탑이나 전탑터는 3개로 영광탑, 정효공주무덤탑터, 마적달탑터이다. 영광탑은 지금도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 2개는 터만 남기고 있다. 3개 유적은 모두 시신을 안치한 무덤 위에 세워졌던 묘탑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 한국의 전탑은 사찰 내에 위치하는 사리탑으로 발해의 전탑과는 성격이 달랐다. 중국은 발해의 전탑과 같이 지하에 무덤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신이 아닌 사리를 안치하였다. 한국은 무덤간 없이 기단 위에 탑을 세우고 탑신에 사리를 모신 것이 보편적이다. 발해의 전탑과 같이 무덤간에 시신을 모신 것은 한반도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예에 속한다. 전망이 좋은 산 정상부에 위치했고, 사리가 아닌 사람 유골이 수습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발해 전탑은 사리탑 보다는 무덤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는 발해 왕실에서 불교를 높이 숭상했으며,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탑 문화를 왕실 장례 문화까지 승화 발전시킨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② 발해 전탑에 쓰인 벽돌은 대부분 회색과 붉은색 계통의 벽돌을 혼합해서 사용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강도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과 중국 중원지역의 전탑을 쌓은 벽돌은 크기가 일정한 반면 발해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벽돌이 사용되었다. 이는 탑신의 안솔림, 아름다운 처마곡선 연출 등 탑의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벽돌이 소요되었으며, 지하에 무덤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형태의 벽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발해의 전탑 평면형태는 모두 정방형이었다. 한국의 5개 전탑도 모두 정방형이었다. 중국 전탑의 경우 4각형, 8각형, 12각형, 16각형 등으로 다양하다가 五代 이후 8각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唐시기까지는 대부분 정방형이었다. 탑의 층수는 발해와 한국 전탑이 5층 또는 7층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중국은 5층부터 15층으로 다양하였다. 또한 발해와 한국 전탑 높이는 8~18m 정도인 반면 중국은 21m에서 65m로 발해 전탑에 비해 매우 컸다. 중국은 탑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이 평지에 놓이므로 건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큰 규모로 높게 지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에서는 건물을 크게 짓는 방법도 있지만 높은 곳에 지어 낮아도 어느 곳에서나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중원 지역과 한반도는 건축 造營原理가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④ 발해의 전탑은 지하에 무덤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지하 무덤은 출입구에 해당되는 무덤통로와 무덤에 이르는 무덤길,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탑 지하에 무덤칸을 둔 예가 전혀 없고, 중국은 무덤칸은 있되 사리 정도를 안장하는 크기이다. 발해의 전탑은 지하에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의 전탑과 같이 기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다. 지하의 무덤칸이 충분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탑은 대부분 낮은 기단을 설치하였다. 현존하는 남북국시대 전탑이 원래는 단층 기단이었으며,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전석탑도 단층 기단이다. 한국은 전탑이 목탑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목탑의 구조형식을 일부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단 없이 지면 위에 곧바로 탑신을 쌓아 기단을 두지 않는 것은 발해와 비슷했다.

⑤ 발해, 한국, 중국 중원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전탑 탑신부 축조법은 모두 벽돌을 쌓아가는 조적식 구조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발해와 한국 지역에서 조사된 전탑은 순수한 조적식인 반면 중국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전탑은 기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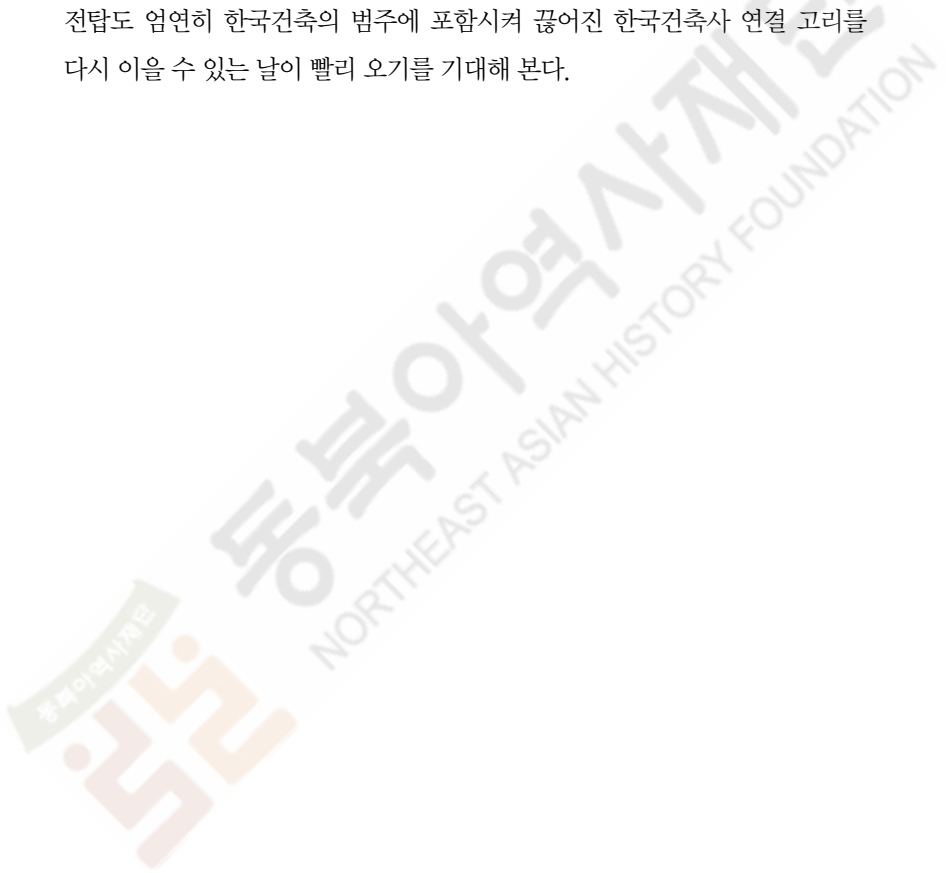
조를 조적식으로 하되 외관상으로는 가구식 구조를 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영광탑을 해석하는 데 중원지역의 당시기 전탑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興敎寺 玄奘塔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볼 때 영광탑과는 현저히 다르다. 현장탑은 완벽하게 목탑 구조를 형상화하였다. 한국의 경우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모되어가는 전환기적 석탑이 존재했다면, 중국은 목탑에서 전탑으로 가는 전환기적 전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의 경우는 한반도 지역 전탑과 동일한 조적방법으로 탑이 구축되었다.

⑥ 세 지역의 전탑을 조사한 결과 발해 영광탑은 한국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현수곡선에 의한 귀솟음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영광탑은 처마선을 양 끝으로 가며 약간씩 들어올리다가 추녀 부분에서는 따로 제작한 벽돌을 이용해 처마곡선을 극대화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탑 처마선은 이러한 들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수평선이다. 중국의 당시기 전탑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다. 이는 전탑을 쌓는 재료가 벽돌이라는 한계로 긴 처마를 낼 수 없으며, 단위부재로 처마를 곡선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처마곡선은 발해 영광탑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의 대표적인 전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⑦ 발해 전탑 가운데 상륜부를 남기고 있는 것은 영광탑밖에 없다. 그러나 영광탑 상륜도 명 시기에 파괴되어 근년에 새로 만들어 올려놓은 것이다. 탑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례감으로 볼 때 지금은 호룡불 형태로 간략하게 재현되어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한국 전탑 못지않게 웅장한 상륜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발해의 전탑은 당시 전탑 가운데 지하에 무덤칸을 둔 매우 독특한 성격의 전탑이었다. 탑신에서 나타나는 안솔림과 옥개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처마곡선은 당시 어떤 주변 국가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전탑 축조기술을 발해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 영광탑이 중국 중원지역 전탑을 모방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중국 측 주장은 명확한 논증 없는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한국건축 범주로 고구려의 것은 인

정하되 발해는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다행히 최근 들어 발해건축을 한국건축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탑 연구에서도 범위가 신록사 다층전탑이 있는 중부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장군총을 비롯한 고구려건축은 한국건축으로 인정하지만 발해의 전탑은 한국과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심양에 있는 고구려 전탑은 물론 영광탑을 비롯한 발해 전탑도 엄연히 한국건축의 범주에 포함시켜 끊어진 한국건축사 연결 고리를 다시 이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Balhae Brick Pagoda in Northeast Asia

Lee, Byeongg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architectural meaning of Balhae brick pagoda(磚塔) in relation to relics. This study treats Balhae period and corresponds to the northeast area in China, the north area in Korea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in Russia. The main subjects are the brick pagoda of Balha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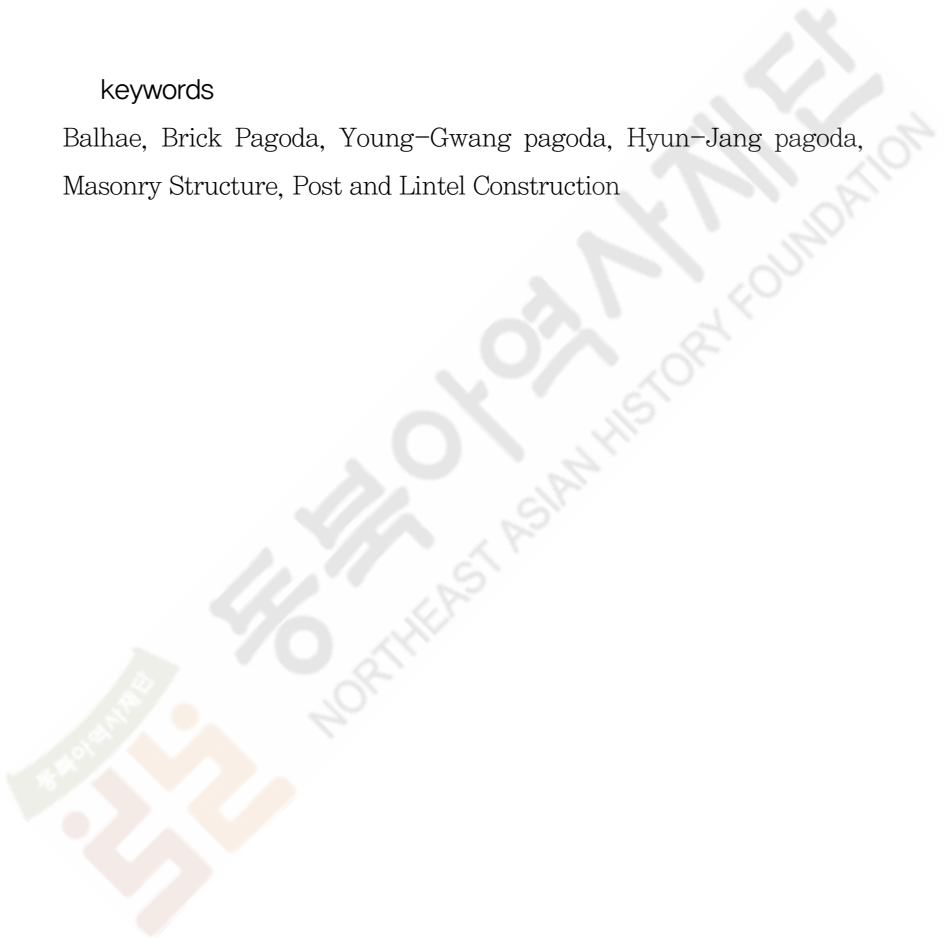
There are many relics about pagoda. At this time, we checked 3 brick pagoda in the Balhae's territory. But the majority of pagoda were destructed. There are only one brick pagoda remained. It's name is Young-Gwang pagoda(靈光塔) in Chang-Bai city(長白縣). Most of Chinese scholar suggest that Young-Gwang pagoda is very similar to Hyun-Jang pagoda(玄奘塔) located in Si-An city(西安市). But in my opinion, Young-Gwang pagoda has many unique characteristics of Balhae culture.

The Chinese research fruits about Balhae brick pagoda relics has focused on the Tang dynasty(唐朝) culture in exceed. After proceeding study, Balhae has general cultural characteristics in northeast area as well as special cultural ones as seen in many it's cultural relics. The right way of studying Balhae culture is understanding 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relics objectively from Balhae point of view. The

East Asian states each interpret history from a self-centered perspective. In the final analysis, we have to consider history as shared heritage rather than a property of individual states.

keywords

Balhae, Brick Pagoda, Young-Gwang pagoda, Hyun-Jang pagoda, Masonry Structure, Post and Lintel Construction



‘以古爲今’ : 중국의 민족문제와 중화민족 국가관

윤휘탁 |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머리말

역사학은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현실을 점검하고 현실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며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도록 해주면서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와 같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결코 인류의 삶 혹은 정치사회현실과 무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단순히 정치사회현실을 위해 복무하는 수단적이고 기생적인 학문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그 의미가 부여되는 ‘實事求是’의 학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구성·복원하고 관련 사료를 ‘해석’하는 일 역시 현재의 정치사회적 관점과 특정세력(집단)의 현실적 이해득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학이 태동한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에서의 ‘해석’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 왔다. 역사해석에서 특정한 부분이나 현상만을 과다하게 부각시키면서 다른 부분을 간과하거나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역사해석에서의 ‘濫用’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료에 비중을 두기보다 현실적 필요성에 비중을 두고 현재적 관점을 과거의 역사에 투영시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다면, 그것 역시 역사해석에서의 誤用에 해당한다. ‘以古爲今’식의 역사해석으로 인해 주변국과 역사분쟁을 야기하는 것 역시 역사해석에서의 오·남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

‘以古爲今’의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한중 간에 역사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민족·국가인식, 특히 ‘중화민족 국가관’과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글은 주목을 끈다. “중국인의 마음 속에는 ‘민족’과 ‘조국’이 원칙상 통일적이어서 민족관념이 곧 조국관념이다. ‘중국’은 중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各族 인민의 至高無上한 관념이자 영예이다.”¹⁾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발전과정은 곧 중국 各族 이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연합되어가는 과정이다.”²⁾ “역사는 우리들에게 양대 유산을 남겨주었다. 하나는 통일적 다민족의 중국이고, 다른 하나는 多元一體의 중화민족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 오늘날 중국의 邊疆과 변강지구에 살고 있는 각 민족은 통일적 다민족의 중국 및 다원일체의 중화민족과 불가분의 일부분으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³⁾ “애국주의는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다.”⁴⁾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다원일체의 중화민족’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라든지, 애국주의가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라는 말 속에서는, ‘민족=조국’을 혼연일체로 인식하여 조국인 중국을 사랑해야 한다느니, 혹은 다원일체가 된 중화민족은 일치단결하여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느니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 차원의 강렬한

1) 冉光榮, 1994, 「中國古代“大一統”國家觀與民族關係」, 『中華文化論壇』 제1기, 25쪽.

2) 孫進己, 2001, 「我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和發展」, 『史學集刊』 제3기, 16쪽.

3) 馬大正, 2004, 7, 「關於當代中國邊疆研究中的幾個問題」, 『當代中國史研究』 제11권 제4기, 87쪽.

4) 傅守祥, 2003, 「愛國主義—中華民族精神的核心」, 『當代思潮』 제1기, 32~37쪽.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거기에서는 ‘민족’·‘조국’·‘변강(즉 영토)’이 일체로 파악되고 있고, 민족관념⁵⁾과 국가관념(혹은 애국심)·영토관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비록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중국의 민족관·영토관·국가관·역사관이 복합적으로 응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수천 년의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다원일체의 민족의식과 조국관념을 지닌 채 혼연일체가 되어 ‘통일’이라는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역사관은 중국의 현실인식이 투영된 결과물은 아닐까? 다시 말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역사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물인가, 아니면 중국이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黨·政·學 방면에서 가공한 국가 이데올로기인가? 그러한 역사해석은 역사에서의 誤·濫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중국의 민족·국가인식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중화주의(Sinocentrism)’ 담론, 즉 오늘날 중국에 ‘중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혹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⁶⁾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을 규명하는 각도 차원에서의 논의,⁷⁾ 중국의 민족정책과 민족 정체성 확립 노력⁸⁾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화주의 담론은 역사학계가 아니라 중국

5) 중국에서 ‘민족’이란 단어가 처음 출현한 것은 1895년 『強學報』 제2호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내용은 韓錦春·李毅夫, 1984, 「漢文“民族”一詞的出現及其初期使用情況」, 『民族研究』 제2기, 36~37쪽; 조경란, 2006,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 『시대와 철학』 제17권 제3호, 69~74쪽 참조.

6) 유봉학, 2005, 「한국사학에서 바라본 중화주의」, 『中國文學』 제44집; 劉京哲, 2005, 「“中華主義”, 韓國의 中國 想像」, 『中國文學』 제44집; 이진영, 2004, 「개혁 개방과 중화주의 재 대두」, 『現代中國研究』 제6권 제2호; 조명화 등, 2005, 「인문학자가 바라본 중화주의」, 『中國文學』 제44집; 이강재, 2006, 「문화다원주의와 중화주의 언어담론의 해체」, 『中國文學』 제48집.

7) 朴章培, 2004,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0집; 朴章培, 2005, 「현대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 배경」, 『역사와 현실』 제55호.

8) 조경란, 2006, 앞의 글; 박병석, 2004, 「중국의 국가, 국민 및 민족 명칭 고찰」, 『사회이론』 제26집; 千聖林, 2005,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대구사학』 제81집; 朴明熙, 2004, 「中國의 外交政策에서 民族主義의 要素의 含意」, 『新亞細亞』 제11권 제1호.

어문학회에 의해 기획특집의 형식으로 다루어졌다. 그래서인지 중화주의 담론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사례들, 혹은 중국의 지도자·민족이론가들의 연설이나 글, 언론의 논조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토대로 논의되기보다는 현재 중국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단편적인 현상들(‘동북공정’, 북·중 관계에서의 중국의 과도한 간섭 등)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해석에 그쳐 있다.⁹⁾

중국의 민족·국가인식이나 중화의식에 관해서는 필자와 조경란이 초보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¹⁰⁾ 이 글들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그 자체를 분석하거나 중국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중화의식, 당대 중국의 국민화 이데올로기 차원의 중화민족 형성론을 다루고 있다. 이 글들은 ‘역사해석에서의 오·남용’의 사례로서 중국의 민족·국가인식에서 나타나는 ‘以古爲今’의 문제점들을 사학사 차원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민족관과 국가관이 응집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사례로, 현실의 당면문제 해결의지가 역사해석에 과도하게 투영됨으로써 야기된 ‘역사해석에서의 오·남용’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고위금’의 배경으로서, 중국의 민족문제 실상과 그 해결의 긴박성 때문에 중국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현실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이고위금’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중화민족 민족관과 국가관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중화민족 민족관과 국가관에서 드러나는 역사해석에서의 오·남용 문제를 밝혀 보려고 한다.

9) 이진영은 개혁개방 후의 중국의 중화주의를 ‘국가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그것을 “국가민족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로 국가나 국가 엘리트에 의해 형상화된 민족주의”로 정의한다(이진영, 2004, 앞의 글, 168쪽). 반면에 유경철은 중화주의를 ‘한국의 中國想像’으로 규정한다(유경철, 2005, 「“中華主義”, 韓國의 中國想像」, 『중국문학』 제44집, 255, 267쪽).

10) 윤회탁, 2006,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大家庭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111~172쪽; 2004. 12, 「중국학계의 영토·민족·국가 인식」,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제40집, 323~383쪽; 2006. 12, 「중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中華意識」, 『중국사연구』 제45집, 257~291쪽; 조경란, 2006, 앞의 글, 78~82쪽.

II. 以古爲今의 배경 : 민족문제 해결의 긴박성

1_ 중국의 민족문제

2008년 3월부터 티베트자치구와 인접지역 그리고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각각 격렬한 시위와 테러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중국의 민족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자 미완성의 과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이자 민족·국가인식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이론적 취약성과 역사적 허구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서 소수민족 문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사태로 인해 서방세계에 反중국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중국에선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反서구 애국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고 한다.¹¹⁾ 게다가 티베트 사태와 올림픽 성화봉송 저지운동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중국 민족주의의 불길이 전 세계 화교들에게까지 번져 티베트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국제 티베트 단체 그리고 서방 언론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화교들의 규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¹²⁾ 이는 어느 면에서 ‘중화민족 大家庭論’을 내포하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국민통합 이데올로기와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표출된 중국의 민족주의이자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 중화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新중화주의’의 서곡인지도 모른다. 하여튼 티베트 및 신강 사태를 둘러싼 중국 안팎의 다양한 반응에서 중국의 민족문제가 매우 복잡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는 무엇일까? 중국의 민족문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

11)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8. 4. 18(금); 「중국 네티즌 ‘中華 민족주의’에 빠지다 : 티베트 시위, 성화 봉송 사태 싸고 잇따르는 反서방 캠페인」, 『중앙일보 조인스뉴스』, 2008. 4. 27.

12) 『연합뉴스』, 2008. 4. 18.

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민족문제의 핵심이자 근원은 각 민족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문제, 특히 동부의 발달된 한족 거주지구와 서부의 낙후된 소수민족지구 사이의 경제사회 발전격차 문제이다. 서부대개발에 따른 소수민족지구의 개발과 생태이용이 소수민족의 이익과 발전에 직결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민족 간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고 소수민족의 반발과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개발에 따른 빈번한 인구유동으로 인해 민족 간의 오해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점, 개발에 따른 자원고갈과 생태환경의 악화(수자원 고갈과 토양유실로 인한 황무지화와 사막화) 등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소수민족지구에서는 경제적·문화적인 낙후성, 인재의 결핍 등으로 이미 그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리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수민족지구에서 종교·신앙·관념·의식 등이 경제적·문화적 축적과 발전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발전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종교·신앙·풍속·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민족 간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하고 있는 점, 소수민족 간부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소수민족의 종교·신앙·관념 등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민족문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민족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점 등이다. 끝으로는 국제세력이 중국의 민족관계를 이용하여 민족의 단결과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점이다.¹³⁾

중국의 민족문제는 그 구성이나 역사적 연원을 볼 때 매우 복잡적이고 다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9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민족문제는 경제문제이자 중대한 정치문제이다. 민족문제를 고찰하고 해결할 때는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중요시해야 한다”는 장쩌민(江澤民)의 연설내용이나, 2005년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실제생활에서 민족문제의 특징은

13) 何立慧, 2007, 3, 「關於中國現階段“民族問題”的幾點新看法」, 『社科縱橫』 제22권 제3기, 132~133쪽; 金炳鎬, 2007, 「現階段我國民族問題的特點分析」, 『西南民族大學學報』 제5기, 9쪽; 範生姣, 2007, 「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必須正確處理民族問題」, 『貴州民族研究』 제4기, 2~3쪽; 黃鑄, 2008, 「中國成功解決民族問題的道路」,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제4기, 30~31쪽.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의 交織, 현실문제와 역사문제의 교직, 민족문제와 종교 문제의 교직,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가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¹⁴⁾는 후진타오 [胡錦濤]의 연설내용, 그리고 “민족문제는 민족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민족 간, 민족과 계급·국가 사이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¹⁵⁾는 중공 중앙 및 중국國務院의 문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중국의 민족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이며 그 해법 또한 쉽지가 않아서 중국사회 저변에 항상 폭발성을 지닌 채 잠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민족단결을 통한 사회안정과 국가통일의 유지·강화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민족관·역사관·국가관 등은 모두 그러한 국가목표의 실현에 유용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문제 해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중공 중앙 및 중국의 민족문제 전문가들의 언급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공포된 중공 중앙의 민족문제의 綱領性 문건(「關於進一步加強民族工作加快民族地區經濟社會發展的決定」)에 따르면, 민족문제의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향은 “각 민족이 함께 단결·분투하고 함께 번영·발전하는 것”이다.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자 민족공작의 주요 임무는 “소수민족(지구)의 경제사회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¹⁶⁾ 이를 위한 세부 실천방향은 국내적으로는 “民族區域自治法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족구역 자치의 우월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족단결에 관한 선전·교육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서 각 민족 간부 군중의 머릿속에 한족은 소수민족과 분리될 수 없고 소

14) 胡錦濤, 2005, 『在中央民族工作會議講話』, 北京:人民出版社; 哈正利, 2008, 「論現階段我國民族問題的特點」, 『西北第二民族學院學報』 제1기, 13~16쪽; 金炳鎬, 2007, 앞의 글, 9~13쪽.

15) 「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民族工作加快民族地區經濟社會發展的決定」(中發[2005]10號文件); 範前鋒, 2007, 「“民族問題”的新內涵探微—學習“中央民族工作12條”」, 『廣西省社會主義學院學報』 7월호, 45쪽.

16) 「中共雲南省委,雲南省人民政府關於進一步加強民族工作加快少數民族和民族地區經濟社會發展的決定」(2005.9.13), [http://www.zttv.cn/sports/ShowArticle.asp?ArticleID=411].

수민족 역시 한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 간에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해서 중국 내 각 족 인민의 대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안정과 조국통일을 굳건히 유지하고 사회주의의 조화로운¹⁷⁾ 사회건설을 촉진¹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에 열린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는 “평등·단결·互助·和諧[협조]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서 각 민족이 함께 단결·분투하고 공동의 번영·발전을 추구해야 한다”¹⁹⁾는 점을 부각시켰다.

미시적인 차원의 민족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黨性으로 무장된 소수민족 간부의 육성²⁰⁾과 인재육성, 소수민족지구의 교육발전과 과학기술산업의 육성, 소수민족의 문화수준(특히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관념의 촉진,²¹⁾ 소수민족지구의 우세한 산업과 특색 있는 경제의 발전, 재정·稅收·금융지원의 강화, 생태복원과 자원개발 보상체계 마련, ‘興邊富民工程’(변강을 부흥시키고 소수민족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의 추진, 소수민족 문화산업의 번영, 소수민족지구의 위생·체육사업의 발전²²⁾ 등을 제기하고

17) 이 개념은 공산당 16屆4中全會에서 통과된 「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執政能力建設的決定」에서 명확히 제기되었는데, ‘和諧사회’란 “민족평등, 민족단결, 民族互助를 기조로 다 같이 협조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사회”를 의미한다(包美榮, 2005, 『統一多民族國家與和諧社會』, 『前沿』 제12기, 182~184쪽).

18) 「政治局會議研究和部署進一步加強民族工作(2005.5.31)」, [http://www.china-embassy.org/chn/zt/zgrq/t197967.htm]. 이와 관련 1998년 7월 江澤民은 신장 위구르자치구를 시찰하면서 “각 민족 간부 군중의 머릿속에 우리나라 56개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 大家庭’ 속의 평등한 일원이고, 한족은 소수민족과 분리될 수 없고 소수민족 역시 한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 간에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江澤民, 2006, 『江澤民文選』 第二卷, 北京:人民出版社, 160쪽).

19) 「中央民族工作會議在京舉行 胡錦濤發表重要講話」, [http://news.xinhuanet.com/misc/2005-05/27/content_3012553.htm].

20)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第一卷, 北京:人民出版社, 307쪽; 「政治局會議研究和部署進一步加強民族工作(2005. 5. 31)」, [http://www.china-embassy.org/chn/zt/zgrq/t197967.htm].

21) 何立慧, 2007. 3, 앞의 글, 133쪽.

22) 中共雲南省委, 雲南省人民政府關於進一步加強民族工作加快少數民族和民族地區經濟社會發展的決定(2005.9.13), [http://www.zttv.cn/sports/ShowArticle.asp?]

있다.

민족문제의 대외적인 해결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족문제 처리의 주권을 견지하고 외세가 민족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에 침투·파괴·분열·전복하려는 활동을 반대·저지하고, 변강 소수민족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민족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변방을 공고하게 하는 동시에,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각 민족의 애국열정을 분출시켜서 국가의 주권과 통일을 굳건하게 유지해야”²³⁾ 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방향은 민족의 단결을 통한 사회안정과 국가통일의 유지·강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_ ‘統一的 多民族 國家論’의 주창과 강화

최근 중국에서는 민족단결을 통한 사회안정과 국가통일의 유지·강화 그리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중화민족의 大家庭을 만들자!”는 슬로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²⁴⁾의 역사이론으로 적극 선전·교육되고 있는 것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다. 중국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파악하는 인식은 건국 직후인 1954년 헌법에 반영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민족관계 처리의 기본 틀로 작용해 왔다.²⁵⁾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대체적인 윤곽은 1960년대 초반 변강민족, 특히 복수의 국경에 걸쳐 존재하는 跨界民族의 분리주의적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마련되기 시작했다.²⁶⁾ 당시까지만 해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런데 1985년까지 3차에 걸쳐 중국민족 관계사 관련 학술대회가

ArticleID=411].

23) 金炳鎬, 2007, 앞의 글, 13쪽.

24) 윤휘탁, 2006, 앞의 책 참조.

25) 1954년 헌법 ‘제3조’. 이 내용은 1982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서언’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http://www.ndcnc.gov.cn/datalib/2003/PolicyLaw/DL/DL-10943> 및 DL-10946 참조).

26) 이강원, 2000,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지리학논총』, 별호 37, 299~302쪽.

열리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중국이 “秦·漢 이래 통일적 다민족 국가였다”는 논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학문풍토와 맞물리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전제로 민족관계사를 파악하는 방식이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했다.²⁷⁾ 그 결과 중국의 邊疆學 연구도 그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역사의 전개과정을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²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중국의 민족·국가이론의 바탕이 되고 중국의 당면과제인 민족문제 해결의 이론적 틀로 굳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페이샤오통(費孝通)의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論’이 중국정부와 학술계·사상계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폭넓은 영향을 미치면서 중화민족과 국가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가 추진된 데 있다.²⁹⁾ 그 결과 그의 ‘중화민족 다원일체적국론’은 중국 민족(중화민족) 혹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를 인식하는 데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중국의 관영언론에서도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시각에서 중국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별나게 강조하곤 했다. 가령 중국 공산당 기관지 『光明日報』에서는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중국 내 각 민족들이 긴밀한 경제·문화·정치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화전통을 받아들여 축적하고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적하면서 생겨난 민족 응집력의 결과라는 점을 들어, 중국 내 각 민족의 역사과정에서의 ‘융합성’과 ‘단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신문에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그것의 진보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역사상의 상호 학습·흡수·의존·공동창조와 발전과정의 연구, 소수민족이 조국(중국)의 변강을 개발하고

27) 翁獨健, 1989, 「序言」, 朱紹侯 編, 『中國古代民族關係史研究』,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쪽.

28) 馬大正 외 지음, 조세현 번역, 2004,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191, 405쪽.

29) 雷虹薺, 2002, 「中國民族史學與中華民族形成史研究的新思考: 20世紀的學術回顧與理論反思」, 『黑龍江民族叢刊』(季刊) 제4기, 73쪽; 馬戎, 2007, 「當前中國民族問題研究的選題與思路」, 『中央民族大學學報』 제3기, 32쪽.

중국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바친 공헌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을 역사학자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적이 있다.³⁰⁾ 이와 같은 중국 관영언론의 의도는 오늘날 소수민족으로 일컬어지는 이민족(非한족)과 한족 사이의 역사상의 투쟁·반목·분열의 측면보다는 상호융합·단결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소수민족이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에 공헌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내 ‘민족 간의 단결’을 유도하려는 데 있다.

중국의 체제 특성상 정부나 당의 민족관이나 민족문제 지침은 대부분 학술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이론가인 마궈[馬戎]은 페이사오통의 ‘중화민족 다원일체격국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역사과정을 설명한다. 즉 청조 중엽에 완성된 ‘중화민족 다원일체격국’은 서양 제국주의의 중국 분열책동을 비롯하여 신해혁명 후의 청조 붕괴와 軍閥割據로 해체위기에 직면했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전과는 새로운 다원일체의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한족지구와 소수민족지구 사이에 발전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중화민족 다원일체격국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론’을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지침으로 삼아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민족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³¹⁾

개혁·개방 이후 민족적·지역적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화민족 다원일체격국론’을 토대로 짜여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중국 관영언론과 학계에서 적극 수용·강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그 이론들이 민족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역사이론으로서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민족의 ‘융화’와 중국역사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30) 『光明日報(京)』에서는 관련 글을 통해 “민족단결의 강화, 국가통일의 공고화”라는 필요성에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진보작용, 역사상 소수민족의 상호 학습·흡수·의존, 중국의 변강개발과 중국문화 발전과정에서의 소수민족의 공헌” 등을 강조하였다(陳理, 「重視統一多民族國家歷史的研究」).

31) 馬戎, 1989, 「重建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的新的歷史條件」, 『北京大學學報』(철학사회과학판) 제4기, 20~22, 25쪽.

최근 일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으로 야기된 국정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영토통합’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시키려는 중국정부의 고민과도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³²⁾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에서 보편적인 민족인식으로 굳어진 ‘중화민족론’이 단순히 학술영역을 넘어 중국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양·강화하고 국가의 통일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선전·교육방면의 ‘국가 이데올로기’ 차원으로까지 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언급들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중화민족에 관한 인식은 중화민족 역사관의 內涵이자 중국 국가의 통일과 안정에 관계되어 있고 중국민족의 단결과 변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해서 각 민족에게 중화민족 역사관 교육을 강화하되, 소수민족의 범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 국민에게 확대시켜야 한다. 그 교육은 학술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치와 정책방면으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 중화민족 역사관 교육의 전략은 중화민족의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³³⁾

우리들이 강조해야 할 것은 중화민족의 응집력, 중화민족 정신을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 각 민족의 심리·정감·전통·풍속·습관 등을 교류·융합시켜 하나로 만들거나 공감케 하여 결속 또는 규범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해야 한다. ‘大一統’의 국가관은 그러한 점들을 커버할 수 있다.³⁴⁾

즉 중국의 민족문제 전문가들은 학술차원을 넘어 정치·정책방면으로까지 승화시켜 전략적으로 중화민족의 역사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大一統’

32) 尹輝鐸, 2003, 「現代中國의 邊疆民族認識과 東北工程」, 『역사비평』 겨울호 참조.

33) 徐杰舜·徐桂蘭, 2004, 「加强中華民族歷史觀教育的現狀考察與對策」, 『西北民族研究』 제3기, 89, 93쪽.

34) 冉光榮, 1994, 「中國古代“大一統”國家觀與民族關係」, 『中華文化論壇』 제1기, 32쪽.

의 국가관을 정치수단으로 삼아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각 민족의 교류·융합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중화민족관과 ‘대일통’의 국가관이 중화민족의 민족의식을 강화시켜서 민족단결과 국가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선전·교육·강화되고 있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민족관과 국가관이 응결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학술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된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역사인식에 투영되면서 가공된 정치적 성격의 역사이론으로 볼 수 있다.³⁵⁾

Ⅲ. 중국의 민족관

오늘날 중국에서는 “중국古今의 각 민족의 총칭”³⁶⁾을 ‘중화민족’³⁷⁾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로 부각되고 있는 ‘중화민족 大家庭’의 범주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도 포함된다.³⁸⁾ 중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화민족은 별개로 존재하는 다수민족의 산술적인 총합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한족과 이민족이 交互작용하면서 융합된 ‘복합민족’ 혹은 ‘역사적 융합의 산물’³⁹⁾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화민족관은 1988년 페이샤오통이 주

35) 윤휘탁, 2006, 앞의 책, 115쪽.

36) 費孝通 主編, 1989a,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13쪽.

37) 蕭君和는 ‘중화민족’을 최초로 논한 글이 1903년 『湖北學生界』에 실린 「中華民族論」이고, 그 후 양치차오가 이를 논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蕭君和, 2000, 『中華學』, 北京: 民族出版社, 109쪽.

38) 殷麗萍, 2003, 「論中華民族概念的理論界定」, 『社會科學研究』 제2기, 156쪽.

39) 孫內民, 2000, 「中華民族的歷史融合及其特點」, 『社會科學戰線』(長春) 제6기, 144쪽.

장한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論’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페이샤오통이 제기한 ‘중화민족 다원일체격국론’에 따르면, 농업지구, 서·남·북의 농경이 가능한 평원지역, 소수민족지구의 교통 要道와 상업거점 등지에 거주하던 한족이 屯墾·移民·通商을 통해 대규모로 소수민족의 집거지구를 흘러들어가면서 점과 선으로 결합된 東密西疏(동남쪽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서북쪽에는 거의 살지 않는 분포현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화민족이라는 내재적 민족 실체를 형성하여 大一統의 국면, 즉 ‘중화민족 다원일체격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때 지리적으로는 농경지역에 거주하던 한족이 주로 고원·산간·초원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던 소수민족지구에 들어가 특유의 응집력을 발휘하여 각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일체를 형성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근대 이후 중화민족은 “조국의 통일과 영토의 완결성을 보증하고 중화민족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국내의 민족 압박체제 하에서 민족의 평등을 추구”하려는 열망 속에서 자각적인 민족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⁴⁰⁾ 중화민족론의 권위자 페이샤오통은 중화민족을 “自在의인 민족 실체로서 몇천 년 동안의 역사과정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자, “근대 이후 서구열강과의 대항과정 속에서 출현한” 도전과 응전의 자각적인 산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각 민족의 교류·융합을 모티브로 한 페이샤오통의 중화민족론은 중국학계와 중국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 역대 왕조의 민족 간 교류와 융합, 多元一體, 大一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중화민족은 夏왕조 때 형성되었고,⁴¹⁾ 한족의 전신인 華夏族은 夏·商·周 三代의 정벌전쟁과 문화교류, 민족 간 겸병·융합·동화·잡거·통혼과정에서 형성되었다.⁴²⁾ 특히 전국시대 각국의 쟁패와 겸병은 華夏一體를 촉진시켰고 그 속

40) 費孝通, 1989a, 앞의 책, 1~2쪽, 228쪽; 費孝通, 1989b,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形成的特點」, 『群言(京)』 제3기 참조. 중화민족의 형성론에 관해서는 윤휘탁, 2004, 12, 앞의 글, 323~383쪽 참조.

41) 田曉岫, 2002, 1, 「中華民族形成時代新考」, 『廣西民族學院學報』 제24권 제1기, 67~68쪽.

42) 俸春華, 1997, 「中華民族是多民族融合發展的結果」, 『創造』 제1기, 52쪽; 陳克進, 2003, 「歷史上中國和中華民族的形成與發展問題討論述略」, 『雲南社會科學』 제4기,

에서 天下一統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중국 통일의 계기가 마련되었다.⁴³⁾ 秦의 문자통일, 사상통제, 官學 장려, 私學 엄금 등은 조국 강역의 초보적인 기초 마련과 국가통일의 공고화 및 발전 그리고 華夏族을 주체로 하는 중화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⁴⁾ 夏商周 시기 짝튼 대일통 사상은 秦漢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가 세워지면서 ‘華夷一統’으로 나타났고, 兩漢 400년의 통일시기를 거쳐 대일통 사상의 뿌리가 굳게 박히면서 한족과 비한족, 內地와 邊疆민족 지구가 불가분의 통일체로 발전하여 ‘華夷一體’의 관념이 형성되었다.⁴⁵⁾

東漢시기 한족과 이민족의 상호 이주는 양자강 유역의 吳人·巴人·蜀人을 화하족과 융합시켜 한족을 탄생시켰다. 東漢 이래 중원 왕조는 서북방 변경 지구 소수민족의 역량을 분화·와해시키고 병력자원과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소수민족을 內地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북방 유목민족의 생활방식과 풍습 등은 한족과 점차 같아지게 되었다. 특히 胡漢 간의 융합과정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北魏 孝文帝的 漢化 조치였다.⁴⁶⁾

東漢 이후 북방의 五胡민족이 內遷하면서 胡漢 간의 장기간 雜居와 상호 왕래는 이들의 경제·문화·언어·풍속·습관에 상호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점차 일치하게 만들었다. 唐朝는 이민족의 內地이주를 허락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민족융합을 촉진시켰다.⁴⁷⁾ 특히 당태종의 ‘貴華賤夷’의 전통관념 포기 와 이민족에 대한 평등한 태도는 이민족과 한족의 단결을 촉진하여 중화민족

68쪽.

43) 姜建設, 1998, 「夷夏之辨發生問題的歷史考察」, 『史學月刊』 제5기, 16쪽.

44) 『전일제보통고급중학교교과서(선택과목) 중국고대사』 전1권, 연변교육출판사, 2003년 8월 1판/2005년 7월 3쇄[이하에서는 『중국고대사』(연변교육) 전1권이라 약칭], 41~42쪽 ;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上册, 北京 : 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6월 1판/2006년 6월 1쇄[이하에서는 『中國歷史』(人民教育) 七-上이라 약칭], 52쪽.

45) 劉正寅, 2000, 「試論中華民族整體觀念的形成與發展」, 『民族研究』 제6기, 68쪽.

46)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七年級 上册,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년 6월 3판/2006년 5월 5쇄[이하에서는 『歷史』(北京師範) 七-上이라 약칭], 113~115쪽.

47) 盧高彬, 2003, 「應在各民族中樹立正確的中華民族歷史觀」, 『內蒙古統戰理論研究』 제6기, 23쪽 ; 俸春華, 1997, 앞의 글, 52쪽.

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⁴⁸⁾ 遼·西夏·金の 漢化와 동질감은 중화민족 문화의 내재적 통일을 강화시켜 ‘화이일체’, ‘共爲中華’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송·요·금·원 시기는 ‘다원문화의 충돌과 교류·융합의 시기이다.’⁴⁹⁾ 元朝의 통일과 胡漢 간의 상호 집단적인 이주, 명대 鄭成功의 대만 정략과 청대 강희제의 대만 공략 그리고 원조와 청조의 西藏 정략 등은 중화민족의 강역과 민족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원·명·청을 거치면서 대일통 사상과 중화민족의 정체 관념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었다.⁵⁰⁾ 중화민족의 형성과정을 보면, 다양한 민족 집단이 장기간의 상호교류·왕래·정복전쟁·융합을 거쳐 秦漢 이래 병립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남북의 두 통일체를 형성하였다가, 청조 중엽에 이르러 漢·滿·蒙·回·藏의 대민족 집단이 청조 통치 하에 진정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실체가 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대일통 사상과 중화민족 整體觀念이 反帝半封建의 민족해방투쟁 속에서 승화되어 각 족 인민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정신적 동력이 되었다.⁵¹⁾

상술한 중국학자들의 언급이나 중국 역사교과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중화민족’이란 多元一體의 틀 속에서 다민족 상호 간의 이주·융합을 거쳐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화전통을 받아들여 축적하고 邊疆을 개발하고 중국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적하면서 생겨난 민족 응집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중화민족은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과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강역 내에 살아왔던 고대의 모든 민족까지를 포괄하는 민족 개념이다.⁵²⁾ 그들의 논리적 공통점은 중화민족이 다민족의 상호

48) 『九年義務教育課本 中國歷史』七年級 第一學期(試用本),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6년 8월 2판/2006년 8월 1쇄[이하에서는 『中國歷史』(華東師範) 七一期라 약칭], 90~91쪽.

49) 劉正寅, 2000, 앞의 글, 68쪽; 『中國歷史』(華東師範) 七一期, 101쪽.

50) 『歷史』(北京師範) 七-上, 137, 155~158쪽.

51) 馬戎, 1989, 앞의 글, 20쪽; 劉正寅, 2000, 앞의 글, 68쪽.

52) 『中華民族凝聚力的形成與發展』編寫組, 2000, 『中華民族凝聚力的形成與發展』, 北京: 民族出版社; 田曉岫, 2001, 『中華民族發展史』, 北京: 華夏出版社; 趙政男, 1988, 『中國的民族問題』, 서울: 教養社; 俸春華, 1997, 앞의 글, 52쪽; 費孝通, 1989b, 앞의 글, 11쪽 참조.

이주와 융합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고,⁵³⁾ 중국의 각 민족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 속에서 중화민족으로 되었다는 것이다.⁵⁴⁾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중화민족 의식은, 중국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대시기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의식은 근대 이후 열강의 중국 침략에 대한 중국인의 저항의식이 지역적·계층적으로 확산·심화되면서, 특히 일본의 전면적인 중국 침략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⁵⁵⁾ 이는 다음의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즉 1895년 쑨원[孫文]이 ‘興中會章程’에서 제기한 “驅除韃虜，恢復中華，創立合衆政府”라는 구호 속의 ‘中華’나, 1905년 중국동맹회 관련 글에서 언급한 “驅除韃虜，恢復中華，創立民國，平均地權”이란 혁명강령 속의 ‘중화’ 개념, 1902년 량치차오[梁啓超]가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라는 글에서 처음 언급한 ‘중화민족’ 개념(上古時代，我中華民族之有海思想者厥惟齊), 1905년 언급한 개념(今之中華民族，即普通俗稱所謂漢族者) 모두 ‘한족’을 의미했다.⁵⁶⁾ 이는 적어도 20세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중화민족’ 개념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화민족’ 개념이 한족을 비롯하여 만주족·몽골족·回族·藏族까지를 포괄한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신해혁명 이후 쑨원이 ‘五族共和論’을 제기한 뒤의 일이다.⁵⁷⁾ 이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오늘날과 같은 중화민족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추측케 해준다. 1935년 라이시루[賴希如]가 자신의 저술에서 “협의의 중화민족은 중국 국경 내 민족의 주체인 한족을 가리키고, 광의의 중화민

53) 천위닝 등은 중화민족의 응집력 형성에 작용한 역사적 요소로 多元多流, 源流交錯, 공동개발, 공동창조, 遷徙流動, 滙聚融合, 상호연계, 상호의존 등을 거론하고 있다. 陳育寧·湯曉蘇, 1993, 『中華民族凝聚力形成的歷史要素』, 中國民族史學會 編, 『中國民族史學會第四次學術討論會論文集(C)』,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54) 陳連開, 1994, 『中華民族研究初探』, 北京: 知識出版社, 12~23쪽.

55) 陳艷飛 역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陳艷飛, 2005, 4, 「關於“中華民族”的語境含意研究」, 『東疆學刊』 제22권 제2기, 32~34쪽.

56) 陳艷飛, 2005, 4, 위의 글, 33쪽; 조경란, 2006, 앞의 글, 74~76쪽; 梁啓超, 1989, 『飲冰室合集·專集』, 北京: 中華書局.

57) 孫中山, 1981, 『孫中山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족은 중국 국경 내 모든 종족을 가리킨다”⁵⁸⁾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중화민족 개념은 1930년대를 전후해서 형성되었는지도 모른다.

중화민족은, 오늘날 중국학계에서 주장하듯이, 太古부터 역사적으로 실존했다기보다는 근대 이후 현실적 필요에 의해 가공되고 조작된 ‘상상의 공동체’⁵⁹⁾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중화민족 인식은 당면하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해결과 민족단결의 실현, 변강의 안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절박성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以古爲今’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중화민족관이 객관적인 역사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파생된 현재적 관점이 중국역사 전반에 투영되어 도출된 민족인식이라면, 분명 ‘역사해석에서의濫用과 誤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중국의 국가관

1_ 민족융합 지상주의 국가관

최근 중국학계의 민족·邊疆·국가인식을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국 역사교과서와 『중국변강통사총서』의 각권 서문이다. 후자는 중국의 대표적인 변강이론가이자 ‘동북공정’의 핵심인물인 마다정[馬大正]의 총책임 하에 편찬되었다. 이들 교과서와 총서 서문에서는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그것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정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논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춘추·전국시기에는 중원의 華夏族과

58) 賴希如, 1935, 「中華民族論」, 『中山文化教育館』(季刊) 冬季號 제2권 제4기, 1175쪽.

59) 윤휘탁, 2006, 앞의 책, 81, 114쪽.

주변의 민족들이 경제문화적 교류와 빈번한 전쟁을 통해 점차 융합되었고, 이 융합과 겸병과정이 이후 秦朝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⁶⁰⁾ 秦의 6국 통일은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발전사를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시킨 일이다. 漢제국은 한족의 형성시기이자 중국강역의 틀이 잡히는 시기이다. 특히 漢武帝의 변강개혁은 민족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간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촉진시켜 국가의 강역을 튼튼히 하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삼국과 위진남북조는 국가의 분열시기이자 민족 대융합의 시기이다. 北周는 隋의 남북통일 기초를 마련하였다. 隋·唐은 각 민족 간의 교류·융합을 촉진하고 ‘華戎同軌’를 실현시켜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시기이다. 송·요·금 시기 한족과 변강의 소수민족은 새로운 역사조건 속에서 중화의식을 더욱 강화시켰고, 內地와 변강의 교류와 발전을 촉진시켰다. 元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전형으로서 中原과 강남 사이의 반복되어온 지역할거 현상을 종식시키고 전국적인 행정조직을 완성하고 중국의 구성원들을 중화민족으로 융합시킴으로써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성숙시켰다.⁶¹⁾ 중국疆域을 완성한 청조 역시 改土歸流를 통해 서남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고 각 민족 간의 경제문화교류를 추진하여 각 민족의 다원일체를 촉진하는 동시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공고히 하였다.⁶²⁾

60) 『중국고대사』(연변교육) 전1권, 21쪽.

61) 『“中國邊疆通史叢書”總序』, 馬大正 主編, 2000, 『中國邊疆經略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8~15쪽;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上冊, 中華書局出版社, 2003년 11월 1판/2003년 11월 1쇄(이하에서는 『中國歷史』(中華書局) 七-上이라 약칭), 57, 64, 88~89쪽;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一冊, 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3월 1판/2002년 5월 3쇄, 106쪽; 『중국고대사』(연변교육) 전1권, 81, 88~92, 95, 177~178쪽; 『中國歷史』(人民教育) 七-上, 106~108쪽;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上冊, 中國地圖出版社, 2004년 6월 1판/2005년 6월 광동 2쇄, 85~88쪽;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重慶: 四川教育出版社, 2003년 7월 1판/2004년 12월 成都 3쇄, 55쪽;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中國地圖出版社, 2004년 12월 1판/2004년 12월 광동1쇄(이하에서는 『中國歷史』(地圖) 七-下라 약칭), 66쪽.

62)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中華書局, 2004년 12월 陝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오랜 역사과정 속에서 각 민족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多元一體格局의 통일적 다민족의 중국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논리에서는, 과거의 통일적인 왕조 내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교류과정에서 융합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의식구조 역시 통일 지향적이었을 것이며, 당시의 시대적 조류 역시 통일을 역사의 필연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 논리에서는 왕조의 통일과정에서 파생된 각 민족(혹은 왕조) 상호 간의 갈등·대립·충돌의 사례나 상호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중국 역사상에 존재했던 민족(혹은 왕조) 상호 간의 전쟁·살육, 왕조 내부의 차별정책과 그에 따른 구성원 상호 간의 충돌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2_ 통일 지상주의 국가관

한편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춘추·전국시기부터 중국의 각 족 인민은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의 통일을 염원했으며 조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⁶³⁾고 파악한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도 춘추·전국시기의 장기간 전란이 인민의 생활에 막대한 재난을 입혔기 때문에 인민이 통일을 갈망하였다⁶⁴⁾고까지 해석하여, 秦의 통일을 역사발전의 요구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동북공정의 핵심인물이자 대표적인 변강민족 이론가인 마다정(馬大正)도 ‘대일통’ 사상이 무

● 西1판/2005년 12월 陝西 2쇄, 97쪽; 『中國歷史』(地圖) 七-下, 80~84쪽; 『중국고대사』(연변교육) 전1권, 219쪽; 來儀, 2004, 『略論清政府民族觀及民族政策對促進各民族“多元一體”化的影響』, 『青海社會科學』 제4기, 90~95쪽.

63) 葛劍雄은 “중국 통일의 개념이 이미 3천여 년간 존재해 왔다. 심지어 중원의 통일 국가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조차 정치가와 학자들은 분분히 각자의 통일 청사진을 추출해냈다.”고 주장한다. 葛劍雄, 淑史研究會 譯, 1996, 『中國統一 中國分裂』, 신서원, 20쪽.

64) 『중국고대사』(연변교육) 전1권, 37~39쪽; 『中國歷史』(人民教育) 七-上, 53쪽. 이러한 관점에는 王宗維, 1998, 『論秦漢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鞏固和發展』, 『西北大學學報』 제1기; 劉宏煊, 1995, 『中國疆域史』, 武漢: 武漢出版社, 195~198쪽이 있다.

형적이고 강대한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몇천 년 동안 중국인민의 사상·감정에 침투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마다정은 국가의 통일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山河의 분열을 우려로 여겨온 것이 중화민족의 영원한 정치적 가치취향이 었다⁶⁵⁾고까지 강변한다.

‘대일통’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중국역사 속에서 戰亂과 분열이 계속 발생했지만, 매번의 분열과 전란은 모두 다음 시기 더 큰 범위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조건을 준비했으며, 국부적으로 볼 때 매번의 지역성 정권의 小統一은 모두 전국적인 대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파악한다.⁶⁶⁾ 다시 말해 중국은 分合의 우여곡절을 거쳐 발전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은 단기간 分裂 割據했거나 다수정권을 竝立시키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불가분의 정치·경제·문화적 연계를 형성하여 상호의존하고 흡수하면서 통일을 主流로, 분열을 支流로 하는 역사적 대세를 형성했다고 본다.⁶⁷⁾ 이때 통일은 중국역사의 基調이고, 일시적인 분열과 할거는 새로운 통일의 前奏이자 새로운 통일을 창조하기 위한 조건이다. 새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몇몇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의 大家庭으로 집어넣어 다민족의 통일국가를 더욱 발전시켰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⁶⁸⁾

중국에서는 인민이 애초부터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통일요구가 왕조의 통일과 발전, 강역의 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셈이다. 이는 ‘大一統’ 사상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은 애초부터 통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식의 주장에는 “통일은 主流이고 분열은 支流이다. 통일은 역사발전의 법칙에 부합되고 진보적이지만, 분열은 역사발전 법칙에 위배되고 반동적이다”⁶⁹⁾라

65) 馬大正, 2001, 「中國古代的邊疆與邊疆政策」, 『光明日報』 2001. 2. 13.

66) 「前言」, 馬大正 主編, 2000, 앞의 책, 1쪽.

67) 陳克進, 2003, 앞의 글, 65쪽.

68) 盧勛 등 저, 2000, 『中華民族凝聚力的形成與發展』, 北京: 民族出版社, 2~3쪽.

69) 葛劍雄, 淑史研究會 譯, 1996, 앞의 책, 47쪽. 실제로 오늘날 중국에서는 新疆의 동 투르키스탄 분리주의 운동이나 티베트 달라이라마 집단의 분리주의 운동은 모두 민족분열주의로서 중화민족 역사관의 반동사례들로 단죄되고 있다(徐杰舜·徐桂

는, 중국의 현재주의적 역사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중국 교과서에서는 이민족 왕조를 독자적인 실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조국(즉 중국)’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非한족이 통일외식뿐만 아니라 ‘조국’의식까지 지녔다고 서술하고 있다.⁷⁰⁾ 이민족이 중국에 대해 통일외식과 조국의식을 지녔다는 주장에는, 소수민족이 ‘조국(즉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조국의 일원으로 귀속되기를 바랐다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 논리는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과 통일외식을 고취하려는 중국의 국민통합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한중 간의 역사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역사논리 역시 새로운 학술연구 결과에서 파생되었다기보다 동북변강의 안정과 동북변강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중국의 동북변강인식에서 비롯된 ‘以古爲今’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 ‘以古爲今’과 역사해석에서의 ‘誤·濫用’

그렇다면 중화민족 국가관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이민족 왕조나 중원 왕조의 관할영역의 가변성, 민족의 이동에 따른 정체성이나 귀속성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안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이나 역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킨다. 그 결과 이 논리에서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혹은 민족)행위나 의식의

蘭, 2004, 앞의 글, 89~90쪽.

70) “1771년 漠西몽골의 투르후터[土爾扈特] 종족은 차르 러시아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하여 ……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눈물겨운 빛나는 장을 연 것이었다.”[『중국고대사』(연변교육) 전1권, 216쪽]

다양성과 유동성, 왕조 관할영역의 가변성, 왕조 역사의 변천성을 무시하고 현재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역사사실을 裁斷하고 있다.⁷¹⁾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국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즉 쑤쥘민(孫祚民)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 논리가 역사상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관념을 혼동하여 오늘의 틀을 과거 역사상의 강역과 민족에 모두 소급·적용하여 중국 역사상 강역범위의 변천과 각 민족 간의 분열·통일·동화·융합의 변화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 이론은 수천 년 전 역사상의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外族 혹은 외국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오늘의 관점에 따라 평등하고 우애적인 民族大家庭의 성원이자 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역사상의 非한족을 외족 혹은 외국으로 규정할지의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쑤쥘민은, 한족과 한족이 세운 왕조만을 중국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객관적인 역사의 필연적 결과로 단정했다. 결국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역범위를 가지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의 한족 왕조와 기타 소수민족 국가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극단적인 오류이고 역사인식에 매우 유해하다고 논박했다.⁷²⁾ 텐지저우(田繼周) 역시 “중국은 옛날부터 다민족의 지구였지, 옛날부터 하나의 다민족 국가였다고 말할 수 없다.”⁷³⁾고 하여, 선형적으로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형성했다는 현재주의적 국가관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 내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민족이어야 하고 중국민족은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현재적 당위성에 매몰되어 역사상의 민족·왕조·국가·영토의 변화무쌍함을 간과하고 역사를 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71) 윤휘탁, 2004, 12, 앞의 글, 375~376쪽.

72) 孫祚民, 1961, 「中國古代史有關祖國疆域和少數民族的問題」, 『文滙報』 1961. 11. 4; 孫祚民, 1962, 「再論中國古代史中有關祖國疆域和少數民族的問題」, 『文滙報』 1962. 8. 24; 孫祚民, 1980, 「處理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 『歷史研究』 제5기; 孫祚民, 1982, 「正確處理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問題」, 『北方論叢』 제4기; 陳克進, 2003, 「歷史上中國和中華民族的形成與發展問題討論述略」, 『雲南社會科學』 제4기, 65쪽.

73) 田繼周 등 저, 1981, 『中國歷代民族政策研究』, 西寧: 青海人民出版社.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적 핵심인 중화민족의 형성론에서는 현재의 중국영토 내에 존재했던 각 민족은 각 왕조에게 통일을 요구했고, ‘다원일체의 관념’ 혹은 ‘中華整體의 관념’을 지녔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華夷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전통시대까지만 해도 중원 왕조와 기타 지역에 세워진 왕조 사이에, 혹은 한족 왕조와 이민족 왕조 사이에는 확연한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적어도 서구열강의 침략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 사이에 역사적·문화적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의 종족관념 등은 매우 희박했다. 신해혁명 시기까지만 해도 ‘滅滿興漢’·‘驅除韃虜’·‘黃帝子孫’이라는 구호는 혁명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화민족관에서는 현재의 중국영토 내에 존재했던 민족은 기본적으로 통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상호 융합되어 형성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당시 각 종족이나 민족 사이의 상호 의식이나 자아 정체성에 관한 세밀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현재적 관점에서 중국영토 내에 존재했던 이민족은 모두 통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지녔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셈이다.⁷⁴⁾

게다가 중화민족 국가관에서는 중국역사 속에서의 소수민족의 공헌과 胡漢 상호 간의 민족융합만을 강조할 뿐, 이민족 정권과 한족 정권 사이, 분열된 한족 정권들 사이, 이민족 왕조 상호 간에 일어났던 침략과 투쟁의 역사사실은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중화민족 국가관은 중국 내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융합시켜 민족단결과 국가안정을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당면문제 인식이 투영되어 파생된 민족·국가인식의 총합물인 동시에, ‘以古爲今’의 전형적인 사례인 셈이다.⁷⁵⁾ 중화민족 국가관에서는 중화질서에 입각한 전통적 중화주의가 개혁·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주변국의 역사문화영역을 침해하는 ‘팽창적 문화주의’의 성격을 띠면서 ‘신중화주의’의 특성마저 드러내고 있다.

역사학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상호소통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74) 윤희탁, 2004, 12, 앞의 글, 377~378쪽.

75) 윤희탁, 2006, 앞의 책, 24쪽.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처럼 현재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현재적 관점을 과거의 모든 역사에 소급·적용시켜 과거의 역사를 裁斷하는 역사관은, 과거와의 소통이 단절된 현재주의적 역사인식일 뿐 객관적인 역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역사에서 '과거'와 '현재'는 상호 유기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과거가 현재를 이해하고 해명하며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인식토대로 작용하는 데 비해, 현재는 과거를 복원하고 파악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과거가 현재를 위해 일방적으로 존재하거나 과거의 역사가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以古爲今'식의 중화민족 국가관은 역사를 정치의 侍女로 전락시키고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⁷⁶⁾ 이러한 의미에서 중화민족 국가관은 역사해석에서의 誤·濫用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여튼 “일정한 역사적 시점에서의 권력관계와 지배담론 및 실천에 따라 민족 정체성이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된다”⁷⁷⁾는 앤더슨(B. Anderson)의 말처럼, 중화민족 국가관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민족의 단결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시키려는 '중화민족 大家庭 만들기'의 일환임에 틀림없다. 최근 티베트 사태에 대한 국외의 동정적 여론이나 비판에 대한 중국인의 반대시위·불매운동의 양상을 보면,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가 소수민족의 정치적 자율성을 질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大漢族主義의 부활을 알리는 조짐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76) 윤희탁, 2004, 12, 앞의 글, 379쪽.

77) Benedict Richard & O'Goman Anderson, 1983, *Imagined Cou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 Verso Books ; S. Hall, 1996,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S. Hall et al, ed.,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 Polity 참조.

[ABSTRACT]

China's Ethnic Issue and Han Chinese National Ide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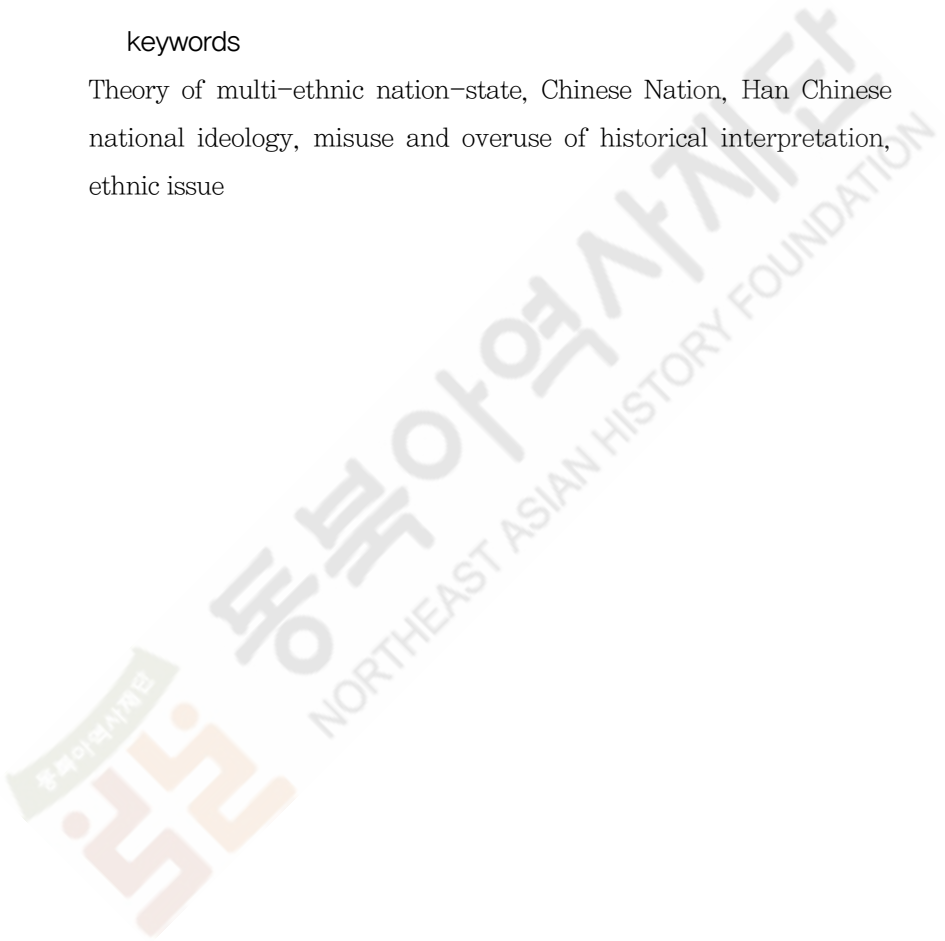
Yoon, Hwytak

China is currently facing issues related to multi-ethnicity. As a result, the Chinese government seeks to solidify national unity and security by uniting all domestic ethnic groups into Han Chinese. This idea naturally is reflected on China's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The national ideology, which is also defined as China's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takes upon the theory of multi-ethnic nation-state as its foundation. The theory of multi-ethnic nation-state solidifies the traditional idea that the Chinese people must be unified by strictly applying today's perspectives into past history and by overlooking territorial, ethnic, imperial, and national transformation. The Han Chinese ideology, the main element of this theory, did not include the comprehensive analyses of self-awareness and identity of each ethnic group. Therefore, the ethnicity that currently exists within China is seen to be formed fundamentally with the concurrent idea of unification and nationalism. The Han Chinese ideology only emphasizes the ethnic unity through Chinese history and purposely abridges and distorts battles or conflicts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China's current desire to unite all Chinese ethnic groups is reflected on this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the Han Chinese ideology, the past exists solely for the sake of the present or past history is utilized as tool to resolve currently facing issues. Con-

sidering these points, the Han Chinese national ideology cannot be exempt from misuse or overuse of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keywords

Theory of multi-ethnic nation-state, Chinese Nation, Han Chinese national ideology, misuse and overuse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ethnic issue



韓末 · 日帝강점기 菊池謙讓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한국관

하지연 |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한국의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관료와 전문 학자, 언론인 등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제반 사정을 조사하게 했고, 한국 내 일본 언론의 창설과 운영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들에 의해 한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전문 서적과 각종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在韓 일본인, 그리고 장차 한국으로의 이민 내지 사업을 계획한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한 자료였다.

이른바 ‘조선통’으로 불리는 한국 내 일본 지식인들의 조사활동과 이들이 한국에서 발간한 각종 신문과 잡지들은 明治期 일본정부 및 일반 일본인들의 對韓認識의 기저를 형성하였고, 대부분 일본정부의 침략의지를 반영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한국 인식을 창출해 냈다. 이러한 재한 일본 지식인의 대표적 인물로는 아오야기 고타로[靑柳岡太郎],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 사쿠오 순조[釋尾旭邦],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대륙팽창을 강도 높게 부르짖던 이른바 ‘극우 낭인’들이었고, 당시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었다. 그들은 일본정부의 촉탁과 극우 보수적 성향으로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건너와 언론, 문화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침략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고, 또한 침탈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당성 부여, 식민지 통치의 합리화와 항구적 정착을 위한 그야말로 ‘문화적 식민활동’이었다. 이 글에서 ‘문화적 식민활동’이라고 함은 일본의 한국 침략과정과 식민통치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적 협조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일본인과 일본의 일반민들의 이른바 ‘대중적 제국주의’를 조성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

이들은 실제 일본정부의 관료로서 가시적이고 공적으로 일제의 한국 침탈을 수행한 계열은 아니었다. 즉 사실상 일본정부의 밀명과 촉탁을 받아, 한말부터 일제의 침략정책의 충실한 선봉이자 보조자로서 기능했음에도 그 표면적인 존재형태가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등의 민간인이었던 관계로, 이들의 일본 정부와의 음성적인 관계와 식민활동에서의 비중 및 역할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낭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진척과 함께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 1) 러일전쟁 당시 일본에서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정책과는 별도로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제국주의적 정서가 폭발하였다. 1905년 9월 포츠머스조약에 대한 대중적 반발로 확대된 대중적인 정서는 ‘무적 일본군’에 대한 환상과 ‘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일본’이라는 국수주의적 팽창주의를 강력히 뒷받침하였다(피터 듀우스, 김용덕 역, 1983, 『일본근대사』, 지식산업사, 146~148쪽).
- 2) 한국 내 일본 지식인·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高崎宗司, 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최혜주, 1998, 「幣原坦의 顧問活動과 한국사연구」, 『국사관논총』 79, 국사편찬위원회; 최혜주, 1998, 「幣原坦의 식민지 조선 경영론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160, 역사학회; 최혜주, 2003, 「메이지 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혜주, 2005, 「일제 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혜주, 2005,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혜주, 2006, 「일제 강점기 青柳岡太郎의 조선연구와 內鮮一家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혜주, 2007, 「일본 東洋協會의 식민활동과 조선인식-『東洋時報』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李圭洙, 2006, 「일본의 국수주의자, 志賀重昂의 한국인식」, 『민족문화연구』 45; 李圭洙, 2004, 「失内原忠雄의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 지식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1870~1953)를 들 수 있다. 기쿠치는 1893년부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귀국선을 타기까지 50년 이상을 한국에서 활동한 在韓 일본 지식인의 원로이고 이른바 ‘조선통’이었다. 그는 언론업무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한국에 대한 각종의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의 밀명을 수행하는 정보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또한 을미사변의 직접 가담자로 사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한국 근대사 저술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한국사 왜곡에 전념하였던 재야 역사학자였다. 따라서 한말부터 식민지 전 기간을 통하여 그가 집필한 한국사 저술은 일제 관학자들에 의한 한국사 왜곡보다도 시기적으로 매우 선구적이었으며, 특히 쉽고 통속적 저술 경향으로 대중적 전파력이 강하여 그의 한국 근대사 왜곡의 폐해는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에서 기쿠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이태진이 명성왕후에 대한 왜곡된 역사상의 원류를 찾는 과정에서 기쿠치에 주목한 바가 있으나 본격적으로 기쿠치의 한국에서의 문화적 침략활동을 다룬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³⁾ 기쿠치의 50여 년에 달하는 한국에서의 문화적 식민활동과 식민통치 보조활동은 일제의 정치·군사적 침략의 폐해 못지않게 장기간 한국인의 자국과 자국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킴으로써 35년간의 식민통치기간으로만 끝나지 않는 현재까지의 문화적 식민지 잔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 왜곡의 실태를 규명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근대사의 현장에서 직접 일제 침략의 보조활동을

식민지 정책론과 조선인식,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낭인’에 관한 연구성과는 강창일, 2002,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조항래, 2006, 『한말 일제의 한국침략사연구』, 아세아문화사; 한상일, 1998, 『일본의 국가주의』, 까치; 한상일, 1982,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과정』, 한길사;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오름; 한상일, 2000, 『일본지식인과 한국』, 오름 등 참조.

3) 이태진, 2007, 『역사 소설 속의 명성왕후 이미지』, 『한국사시민강좌』 41, 일조각.

했고, 또한 당대의 현대사를 사실과 경험에 입각하여 교묘하게 왜곡시킨 기쿠치의 한국사 저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친 재한 일본 지식인들의 문화적 식민활동의 전형을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기쿠치의 한국 근대사 왜곡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한국 망국론’, ‘한국 강점의 정당성’이라는 침략적 인식의 치밀한 조형과정을 밝혀내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菊池謙讓의 渡韓과 일제의 침략정책 보조활동

1_ 菊池謙讓의 熊本 인맥과 渡韓

기쿠치는 1870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八代에서 태어났다. 그는 교토[京都]本願寺 관계 학교를 거쳐 1893년 7월에 東京專門學校(현재의 早稻田대학) 영어정치과를 졸업한 후 이듬해 동향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1863~1957]가 경영하는 民友社에 입사하였다. 기쿠치는 또한 민우사에 소속되어 있던 『國民新聞』의 기자이기도 했다.⁴⁾

기쿠치는 1893년 11월 인천에 첫발을 디디었다.⁵⁾ 그는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한국의 식민지화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의 수행, 한국사 왜곡에 전념하였던 극우 보수 언론인이었다. 그의 구체적 정치·문화적 식민활동과

4) 『국민신문』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발발 당시 일본군의 한국 출병을 강력히 주장했고, 청일전쟁에서 ‘이 전쟁은 야만(청과 한국)에 대한 문명(일본)의 응징’이라고 호전적 어조로 일본 국민을 선동하면서 악으로서의 야만 퇴치에 모든 무력을 동원할 것을 주장하던 메이지 시기 일본 내 대표적 극우 보수언론기관이었다(이태진, 2007, 위의 글, 106~107쪽; 永島廣紀, 2005, 『日本の 근현대 일한관계사연구』,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71쪽).

5) 菊池謙讓, 1931a, 『朝鮮雜記』 제2권, 鷄鳴社, 185쪽.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일본 내에서도 극우 보수 성향의 언론으로 평가되고 있던 국민신문사에 입사하게 된 배경, 출신지역 구마모토 지역의 특성, 구마모토현의 國權黨과 그 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출신지 熊本縣의 지역적 특성과 인맥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종래의 지배계급인 무사계급을 국민으로 통합해 갔다. 이 과정에서 메이지유신의 주역이 아니었던 非雄藩 지역 출신들은 정부 관료 군에서 도태되었고, 이렇게 낙오, 소외된 사족 출신들은 낭인으로서 한국과 만주 등 대륙에서 정치적 활동을 했다.⁶⁾

대륙 낭인의 배출지는 초기에는 규슈[九州]지방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마모토현의 國權黨과 후쿠오카[福岡]현의 玄洋社가 주요한 배출 창구이다.⁷⁾ 이 지역은 바다를 끼고 대륙과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지리적·역사적으로 대륙과 한반도에 대한 열기가 다른 지방에 비해 강했다고 할 수 있다.⁸⁾ 특히 1879년 설립된 국권당의 '同心學塾'(뒤에 동심학교)에서는 1881년

6) 明治期 浪人と 熊本 國權黨에 관해서는 강창일, 2002, 앞의 책 참조.

7) 佐佐博雄, 1994, 「日清戰爭における大陸「志士」集團の活動について—熊本國權黨系集團の動向を中心として」, 『人文學紀要』 제27호, 國史館大學文學部, 48쪽.

8) 강창일은 일본 낭인이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사건으로 첫 번째,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天佑俠 활동, 두 번째,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 세 번째, 1901년 흑룡회 결성과 일진회 후원활동을 통한 '한일합방' 운동 전개를 들었다. 또한 이 낭인들의 행동양식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먼저 행동형으로 만주 마적들과 중국 신해혁명에 직접 투신하여 싸웠던 자들이다. 두 번째, 첩보원형으로 특히 군당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각처를 떠돌면서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이념가형으로 기자, 혹은 문필가로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기고하여 각지의 사정을 소개하고, 대륙평창 여론을 형성해 가는 자들이었다(강창일, 2002, 앞의 책, 24쪽).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쿠치는 후술할 바와 같이 을미사변의 가담자이고, 또한 러일전쟁 직전 한일국방동맹 교섭과 한국 보호국화, 병합을 위해 실제 침략 정책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또 『국민신문』, 『漢城新報』, 『大東新報』, 잡지 『朝鮮及滿洲』 발행과 大陸通信社라는 출판사 설립 등 언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정책을 보조하고, 대륙 평창의 여론을 형성해 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쿠치는 메이지 일본의 대표적 낭인 배출 지역인 구마모토 출신의 가장 전형적인 '조선 낭

부터 정규교과과정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추가, 다수의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자를 배출하였고, 졸업생들 중에서 일본의 대륙침략에 첨병역할을 수행한 자가 많았다.⁹⁾

이렇게 기쿠치가 일제의 한반도와 대륙 침략에 적극적이었던 극우 보수적 성향이 농후한 구마모토 출신이라는 점과 더불어 그가 형성하게 되는 구마모토 인맥은 기쿠치가 한국에서 ‘조선 낭인’으로서 일제의 침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충분한 정치·사회적 배경이라고 본다.

구마모토 출신인 기쿠치의 인맥은 대략 다음과 같다. 메이지 시기 일본의 극우 보수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던 도쿠토미 소호(본명은 德富猪一郎), 漢城新報社 사장이며 을미사변의 실질적 행동대원의 총책이었던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을미사변 가담자 시바 시로[柴西朗], 국권당 수령인 사사 도모후사[佐佐友房] 등은 기쿠치의 한국 진출과 한국 내 활동을 지원했던 주요 인물들이다.¹⁰⁾

먼저 도쿠토미와의 관계이다. 도쿠토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쿠치가 대학 졸업 후 제일 먼저 입사한 민우사의 경영자이다. 그는 을미사변으로 히로시마[廣島] 감옥에 투옥된 기쿠치에게 일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또한 기쿠치의 『朝鮮王國』을 자신이 경영하는 민우사에서 출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책의 서문을 쓸 정도로 매우 각별한 관계였다.¹¹⁾

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9) 佐佐博雄, 1977, 「熊本國權黨と朝鮮における新聞事業」, 『國史館大學文學部人文學會紀要』 제9호, 22~23쪽.
- 10) 강창일, 2002, 앞의 책, 322쪽. 이 가운데 시바 시로만이 福島縣 출신이나 그 역시 동방협회 소속의 우익 낭인이며, 대륙진출을 열렬히 주장했던 대외 강경노선의 정객이었다.
- 11) 菊池謙讓, 1931, 『朝鮮雜記』 제1권, 鷄鳴社, 101~103쪽; 菊池謙讓, 1896, 『朝鮮王國』, 民友社, 서문. 도쿠토미는 일본 언론계의 거물이자 역사학자였다. 그는 1887년에는 민우사를 창립하여 신문과 잡지, 출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많은 글을 써서 언론사 경영인 겸 논객으로 일본에서는 명성이 높은 거물 언론인이었다. 도쿠토미는 이토를 비롯하여 정계와 언론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한국 침략을 미화하고, 침략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인물이었다(姜東鎭, 1987, 『日本言論界와 朝鮮』, 지식산업사, 139~141쪽; 정진석, 2002,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

아다치 겐조는 국권당 기관지인 『九州日日新聞』의 종군특파원으로 청일전쟁을 취재했고, 1894년 11월 국권당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일본신문인 『朝鮮時報』를 창간하였다.¹²⁾ 또 1895년 2월 국권당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漢城新報』의 사장을 맡았다.¹³⁾ 아다치와 기쿠치 두 사람은 모두 구마모토 출신의 언론인이었고, 청일전쟁에 종군한 것도 같다. 또 후술할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샷사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써 기쿠치는 아다치가 주도하는 을미사변에까지 참여하고, 뒤에 한성신보사의 주필, 사장까지 하게 된다.¹⁴⁾

시바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1886년 농상무성대신 다니 간조[谷干城]의 비서관이 됐고, 1885년에서 1897년에 걸쳐 정치소설 『佳人之奇遇』를 써 작가로도 유명해졌다. 시바는 을미사변에서 한국인 주모자 李周會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왕후 시해사건의 행동책임자역을 맡았다.¹⁵⁾

샷사는 구마모토 사족집안 출신으로 濟濟齋이라는 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던 관계로 아다치 겐조의는 사제지간이었다. 아다치가 『朝鮮時報』를 발행한 것은 국권당의 수령이었던 샷사의 명을 받은 것이었다.¹⁶⁾

2) 한국 파견 경위

1893년 11월 15일 기쿠치는 나가사키[長崎]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일주일 만에

日報 연구, 『관훈저널』 83호, 관훈클럽, 236쪽.

12) 佐佐博雄, 1977, 앞의 글, 28~29쪽; 安達謙藏, 1960, 『安達謙藏自敘傳』, 동경: 新樹社, 45~47쪽.

13) 安達謙藏, 1960, 앞의 책, 45~52쪽.

14) 『한성신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최준, 1961, 「『한성신보』의 사명과 그 역할」, 『신문연구』 제2권 제1호(봄), 76~81쪽; 채백, 1990, 「『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제7집, 109~129쪽; 박용규, 1998, 「구한말 일본의 침략적 언론활동 - 『한성신보』(1895~1906)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1, 한국언론학회, 151~177쪽.

15) 『조선잡기』 제1권, 82쪽; 강창일, 2002, 앞의 책, 139~140쪽.

16) 강창일, 2002, 앞의 책, 140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삿사 도모후사의 소개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호즈미 인구로[穂積寅九郎]가 경영하고 아오야마 고헤이[青山好惠]가 주필로 있는 인천의 朝鮮新報社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1894년 1월에 경성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후 기쿠치는 호즈미의 집에서 일정 기간 기거하면서 경성에 주재하던 일본 언론인, 정치가, 경제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이때 그가 만나 교분을 쌓은 일본인들은 군부 겸 궁내부 고문관으로 와 있던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시바 시로, 공사관 일등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그리고 경제인 竹内綱, 大三輪長兵衛 등이었다. 그는 다시 거처를 新納少佐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사쓰마 번벌[薩藩閥] 군인들과도 친밀해졌다. 그리고 기쿠치는 金益昇이라는 한국인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¹⁷⁾

이 무렵 기쿠치는 아직 한국에서 본격적인 기자 활동이나 외무성 특별 촉탁의 특수 임무를 수행한 것 같지는 않다. 주목되는 것은 삿사의 주선으로 스즈키 준켄[鈴木順見, 후일 을미사변 가담자]과 함께 대원군을 알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물론 스스로 밝히기를 “백면서생으로 아직 사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이 老翁의 英姿를 접견하기를 바랐고, 당일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는 두어 가지 담화를 나누고 돌아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24세의 일본인 신입 기사를 대원군 측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만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국권당당수 삿사의 경우는 향후 대원군 측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하여 기쿠치와의 면담을 주선했던 것이다.

그리고 1894년 3월 일본으로 돌아가 『국민신문』 교토 통신원으로 활동하다가 그 해 6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재차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때 그는 外務省 特別囑託을 겸직했다.¹⁹⁾

17) 『조선잡기』 제2권, 185~197쪽.

18) 『조선잡기』 제2권, 185~186쪽.

19) 菊池謙讓, 1936, 『近代朝鮮裏面史——一名 近代朝鮮の横顔』(이하 『근대조선이면서』로 약칭), 朝鮮研究會, 田内蘇山の 서문; 菊池謙讓, 1896, 앞의 책, 德富蘇峰의 서문 2쪽.

2_ 일제의 침략정책 보조활동

기쿠치는 본업이 기자였으나 오히려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병합 이후의 식민통치의 보좌역할이라는 정치적 행각과 또 식민지 침략행위를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기 위한 저술활동이 한국 생활 50여 년 동안 두드러진다.

1) 『國民新聞』 특파원 활동기 - 을미사변 가담

기쿠치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청일전쟁 당시 종군기자로서 한국에 파견되고,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에 가담하면서부터였다.²⁰⁾ 기쿠치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생했을 때 오카모토와 함께 자주 대원군을 방문하여 한국의 현안을 의논했고, 대원군을 앞세우려 했다.²¹⁾

또한 그는 청일전쟁 때 직접 일본군대를 따라 전쟁 상황의 생생한 취재와 함께 일본군에 적극 협력까지 했다. 즉, 그는 6월 14일 일본군과 함께 군산에 상륙한 다음 8월에는 평양까지 함께 진격하였다.²²⁾ 이 때 기쿠치는 “永田[나가타] 소좌가 이끄는 포병대에 소속되었으며, 나가타 소좌의 포고문과 서면 문안을 기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²³⁾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895년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에 반환해야 했던 일본은 한국정부 내 친러 성향과 그 핵심에 있던 명성왕후의 제거를 계획하였다.²⁴⁾

20) 도쿠토미는 기쿠치의 『조선왕국』 서문에서 7월 23일의 경복궁 침입 때 기쿠치가 기자로서 직접 취재했던 것을 두고, “저 메이지 27년 7월 23일의 경성사변 같은 것은 굳이 실제로 경험한 활극”이라고 표현하였다.

21) 菊池謙讓, 1910, 『朝鮮最近 外交史 大院君傳 附 王妃の一生(이하 『대원군전』으로 약칭)』, 대원군전 편찬의 유래, 京城: 日韓書房 發行(明治 43年 11月).

22) 『조선제국기』, 116쪽.

23) 『조선잡기』 제1권, 121쪽.

24) 을미사변의 전개 과정과 그 사후 결과 및 사변 가담자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

〈표 1〉 기쿠치 겐조의 재한 활동 연혁(1893~1945)

연월일	내 용	비 고
1893	早稻田대학 영어정치과 졸업	
1893.11.15	한국 인천에 도착	삿사의 주선
1894.3.28	대원군과 면회 일시 귀국. 『국민신문』 입사, 동 신문 교토 특 파원	삿사의 주선 오카모토 류노스케의 주 선 가능성
1894.6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종군기 자단 일원으로 다시 파견됨	국민신문사 한국 특파원 과 외무성 특별촉탁. 아 다치 겐조도 종군기자단 으로 파견됨
1894.7.23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를 직접 목격하고 취 재함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함께 대원군을 내세움	
1895.10.8	을미사변 가담	
1895.10.17	을미사변 가담자 48명 퇴환조치	
1895.11	히로시마 감옥 未決감방으로 유치	
1896.1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석방. 옥중에서 『조 선왕국』 저술	
1898	『한성신보』 주필로 다시 한국에 오 일본에 망명 중인 李垞鎔과 윤현궁 사이의 연 락을 증개함	
1900	『한성신보』 사장에 취임	
1901	韓日國防同盟交涉事務를 맡아 여러 차례 동경 을 왕래	
1902	한국 황태자 위문 및 신변보호를 비밀 부탁받 고 수행	
1903	『한성신보』 사장직 사퇴	
1904	『大東新報』 창간	
1905	嚴妃의 명을 받아 淑明女學校 창립에 간여함	
1906	통감부 촉탁받아 한반도 통치에 필요한 정보 와 자료 수집 『大東新報』를 통감부에 3,000원에 매각	
1908	잡지 『朝鮮』의 主幹. 伊藤博文으로부터 한국 근대사 저술 명령받음. 朝鮮古書刊行會, 朝鮮 研究會 활동	

1909	朝鮮通信社 설립. 釋尾旭邦과 함께 『朝鮮及滿洲』 창간 『朝鮮新報』 발행에 관여	
1910	『朝鮮最近外交史-大院君傳 附 王妃の一生』 저술	
1911	慶尙北道 大邱 民團長	
1912.8	韓國併合記念章 수상	
1912.9	明治 천황 장례식 때 慶北民總 대표로 참석	
1914	경북민단장 해임 지방공공사업에 관한 공로로 조선총독으로부터 銀杯 1組 받음	
1920	조선총독으로부터 조선 실정의 조사를 위촉받고 각종 조사에 착수 조선총독부 경무국 정보위원으로 儒道振興會 결성	
1922	조선 실정 조사 업무 종료와 함께 해임	
1922.11	다시 언론계 종사. 大陸通信社 설립, 사장 취임	
1925	『朝鮮諸國記』 저술, 『朝鮮讀本』 甲編 감수	
1928	內閣賞勳局으로부터 大禮記念章 수상	
1930.4	李王職으로부터 實錄編纂資料募集委員으로 위촉받아 자료 수집	
1931	『조선잡기』 제1·2권 저술 노령을 이유로 대륙통신사 사장 퇴임. 『경성일보』와 그 외 주요 신문잡지의 집필에 종사	
1935.3	이왕직 실록편찬자료모집위원 사무 종료, 해임	
1936	『近代朝鮮裏面史—一名 近代朝鮮の横顔』 저술, 朝鮮研究會 主宰	
1937	『近代朝鮮史』 上 저술 『書物同好會會報』 창간 때부터 1943년까지 집필담당	
1939	『近代朝鮮史』 下 저술. 『김옥균전』, 『이용구전』 등 편찬	
1945	일본으로 귀국	

※ 출처 :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明鑑』(1935), 『조선왕국』, 『근대조선이면서』, 『조선잡기』 제 1·2권 등에서 작성.

이 무렵 기쿠치는 청일전쟁 취재 당시 국권당의 기관지인 『九州日日新聞』의 청일전쟁 종군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된 아다치 겐조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 두 사람은 모두 구마모토 출신인데다가 아다치는 국권당 영수인 삿사의 제자였고, 기쿠치는 삿사가 주선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1895년 2월 17일에 창간된 『한성신보』는 외무성의 기밀비와 매월 지급되는 공사관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공사관의 기관지적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국권당 수령인 삿사 도모후사와 이노우에가 의논하여 만들었는데, 사장에는 아다치, 주필에는 구니토모 시게아키[國友重章], 편집장에는 고바야카와 히데오[小早川秀雄], 편집원에는 사사키 다다시[佐佐木正], 회계에는 우시지마 히데오[牛島英雄]가 담당하는 등 주로 구마모토 국권당 계열 낭인들이 운영했다.²⁶⁾ 기쿠치가 을미사변에 가담하게 된 것은 한성신보사에 구마모토 출신 일본인들이 자주 모였고, 또한 그들이 같은 언론직종에 종사하였으며, 또 아다치 뿐만 아니라 주요 가담자인 스키무라 후가시, 오카모토 류노스케, 스즈키 준켄 등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정황, 기쿠치 본인이 구마모토 출신의 낭인이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기쿠치는 “한성신보사에는 구마모토현 출신으로서 ‘一騎當千의 기개’를 가지고 一死報國하겠다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고 술회했다.²⁷⁾ 또한 기쿠치 스스로 당시의 한성신보사를 가리켜 “신문기자의 단체라기보다는 有世家 浪人들의 구락부였다”²⁸⁾고 했던 것에서 구마모토 출신 기쿠치가 사변에 가담하

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사변 가담자 기쿠치와의 관련 부분만을 언급하는 선에서 소략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관련 연구성과로는 최문형 외, 1992, 『명성황후 시해사건』, 민음사; 최문형, 2006,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 지식문화사; 한영우, 2001,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효형출판; 이민원, 2002,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 등 참조.

25) 정진석, 2002, 앞의 글, 226~227쪽.

26) 강창일, 2002, 앞의 책, 137쪽.

27) 『근대조선사』 하권, 408쪽.

28) 菊池謙讓, 1926, 『私ど朝鮮の言論』, 『朝鮮之事情』.

게 된 경위가 잘 드러난다.

을미사변 후 가담자들의 퇴한조치 과정이나 사변에 대한 그들의 심리상태와 그들을 구국의 영웅으로 대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쿠치의 『조선잡기』 제1권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을미사변 직후인 10월 13일 저녁 기쿠치는 곧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함께 있었던 을미사변 가담자들은 이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면서 제국을 위하여 국가 대표자의 권고를 받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싸운 자신들을 지금 퇴한 조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국제적 희극이고, 일본정부가 이 희극의 배우로 자신들을 이용하였다고 성토했다. 기쿠치는 결국 10월 14일 영사관에 출두하여 “안녕을 방해한 죄로 2개년간 한국으로부터 퇴거를 명한다”고 씌어진 명령서를 건네받았다. 기쿠치는 퇴한명령서에 서명하고, 영사관을 나올 때 한국의 왕후를 시해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일개 국민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하면서 무한한 자긍심과 심지어 쾌감까지 느꼈다고 하였다.²⁹⁾

게다가 그는 이 사변을 대원군이 주도한 운동으로서 다만 일본 국민은 한국과의 국제적 신의를 실행하고, 이웃나라의 예로서 이를 적극 후원했을 뿐이라고 사건의 배후와 책임소재에 대하여 대원군을 지목했고, 전혀 뉘우침이나 반성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10월 17일 역시 사변 가담자 시바로부터 200원의 돈을 받았다. 기쿠치에 따르면 시바는 을미사변의 참모장격이었는데, “이 작은 돈으로도 다 변제할 수는 없다”라는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³⁰⁾

그날 기쿠치는 같이 퇴한조치를 당한 나머지 47명과 함께 한국 내 일본거류민들이 마련한 井門樓의 송별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송별연이 진

29) 『조선잡기』 제1권, 78~81쪽. “澤村漢城子가 격양한 명령서는 이것이었다. 내가 묵묵히 서명, 날인하고 나올 때, 무량한 矜誇와 쾌감이 나를 엄습하였다. 나도 금일부터 국가의 眼中에 수많은 정치동원의 하나가 되었다. 국가로부터 알려진 국민의 일원이 되었다.”

30) 『조선잡기』 제1권, 82~83쪽.

행되면서 점차 퇴한조치당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고, 특히 퇴한명령서를 교부하고, 서명하게 한 주한 일본영사 内田을 성토하였다. 또한 사변 후 악화된 일본에 대한 국제적 여론 공세와 러시아, 미국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거류민들이 일본정부에 전보로 이들의 퇴한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内田 영사의 사직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군중들로부터 동정을 받으며, 히로시마 검사국에 출두하게 된 것은 광영이며, 명예, 환희라고 생각했다. 기쿠치는 “나는 만족한다. 나는 결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그 소감을 적고 있다. 그리고 기쿠치는 환영장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옥문으로 들어섰고, 독방에 들어가서는 이제 학구의 은거장에서 조용히 서책을 읽고, 心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감옥에서 기쿠치의 죄수 번호는 270호였다.³¹⁾

한편 민우사의 도쿠토미는 당시 일류 변호사를 섭외하여 기쿠치의 무죄방면에 힘썼고, 예심정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예심 판사가 취조 후 오히려 기쿠치를 위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1896년 1월 기쿠치는 물론 사변 가담자 전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석방되었다.³²⁾

2) 일제 어용언론 활동기 - 한일국방동맹교섭 사무

히로시마 감옥에서 석방된 기쿠치는 1898년 『한성신보』 주필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³³⁾ 그리고 을미사변으로 기쿠치와 함께 퇴한조치되었던 아다치도 돌아와 『한성신보』의 개량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한성신보』는 1896년 4월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경영 곤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31) 『조선잡기』 제1권, 100~103, 107쪽.

32) 『조선잡기』 제1권, 110~111쪽.

33) 『漢城新報明治三十一年報』,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 3, 171~172쪽.

터 연간 3,6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1898년 이후 『제국신문』·『황성신문』 등의 민족지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일본 외무성 기관지의 성격을 지닌 『한성신문』의 경영난은 가중되었던 것이다.³⁴⁾ 이 시점에 기쿠치가 주필을 맡게 되면서 『한성신문』은 이전과 다르게 민족지들과 치열한 논전을 전개하였다. 즉, 1898년까지 『독립신문』과는 크게 논전을 벌이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여러 민족지들이 등장한 1898년 이후의 논전은 비교적 격렬하게 전개되었다.³⁵⁾ 이는 주필 기쿠치의 구마모토 출신 극우 보수 언론인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기쿠치는 1900년 마침내 『한성신문』 사장에 올라 1903년까지 경영에 중사하였다. 그런데 1903년 들어서서 외무성은 『한성신문』이 논조면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여 그 해 6월 기쿠치를 해임하였다.³⁶⁾ 기쿠치는 해임 후 곧바로 1904년 4월 18일 『大東新報』라는 민간신문을 창간하고, 이 신문을 통해 일제 당국의 施政에 더욱 협조하였다.³⁷⁾ 그런데 통감부는 1906년 『한성신문』을 1만 원에, 『대동신문』을 3천 원에 각각 매수하고,³⁸⁾ 기타 군소 신문 5개를 통폐합하여 1906년 9월 1일 통감부 기관지 『京城日報』를 창간하였다.³⁹⁾ 기쿠치가 주필을 맡거나 사장으로 경영하였던 두 신문이 통감부 기관지 『경성일보』의 모태가 된 것이다.

34) 박용규, 1998, 앞의 글, 169~172쪽. 기쿠치는 매일 두 차례씩 일본공사와 만나 『한성신문』의 보도와 관련된 협의를 했다고 한다. 菊池謙讓, 1926, 「私朝鮮の言論」, 『朝鮮之事情』, 12쪽; 이해창, 1983, 「구한국시대의 일인경영신문」, 『한국신문사연구』 개정증보판, 성문각, 373쪽.

35) 이 시기 『제국신문』·『황성신문』과 『한성신문』의 논전에 관해서는 정진석, 1983, 「민족지와 일인경영신문의 대립」,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참조;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 『제국신문』, 1898년 8월 30일자; 「한성신문에 대한 변론」, 『제국신문』, 1898년 9월 14일자 등 참조. 본 고찰에서는 기쿠치의 한국민족지들과의 논쟁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36) 기밀 제77호, 「한성신보사의 개량 및 유지의 건(1903.5.2)」,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 3, 282~286쪽; 이해창, 1983, 앞의 글, 373~374쪽.

37)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 1167쪽.

38) 정진석, 1983, 앞의 글, 51쪽.

39) 인천부, 1933, 『인천부사』, 1388쪽.

기쿠치는 1900년부터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로 참여하게 논의되던 한일국방동맹과 국외영세중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본 측 실무자로 활약하였다.

대한제국 수립 후 고종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경계를 꾸준히 추진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일본 역시 러시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 견제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⁴⁰⁾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을미망명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일본 체류 망명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고, 이들의 송환문제가 당시 한일 간의 외교상 중요 이슈였던 상황이었다.⁴¹⁾ 1900년 1월 자진 귀국한 안경수가 고문으로 사망했고,⁴²⁾ 이에 한일 양국 간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안경수 사건 이후 정부는 조병식과 신기선을 정식으로 일본에 보내 조희연, 유길준, 권동진, 이준용 등의 소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 와중에 중국에서 의화단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의화단사건 당시 그 진압을 위해 출병한 러시아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긴장하였고, 고종은 궁내부 시중 현영운을 일본에 파견하여 국면 타개책을 강구하였다. 이때 현영운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한일국방동맹안을 제안하였고⁴³⁾ 때마침 기쿠치는 동아동문회 회장까지 역임하고 있던 보수 우익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의 명령을 받아 한국정부의朴齊純·金永準 등과 접촉, 한일국방동맹의 교섭 사무

40) 김성혜, 1999, 「러일전쟁을 전후한 대일외교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64쪽 참조.

41) 이에 관해서는 윤병희, 1995, 「일본 망명시절 유길준의 쿠데타 음모사건」, 『한국근현대사연구』 3, 56~57쪽 참조. 이 시기 일본 체류 망명자를 보면 박영효가 1895년 7월 6일 왕비폐위음모기도사건으로 다음 날 일본으로 망명했다. 1896년 2월에는 아관파천으로 친러정권이 수립되자 체포령이 내려진 유길준·조희연 등이 일본으로 갔고, 1898년 7월 황태자 옹립 사건으로 10월 안경수·윤효정·윤치호·의화군이 함께 도일하였다.

4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문서』 제4권, 『日案』 제4권, 676쪽.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1900. 8. 7), 247쪽.

를 담당하고 있었다.⁴⁴⁾

당시 기쿠치는 한국정부가 궁내부 고문관 미국인 샌즈에 의하여 제기된 '永世局外中立化案'을 매우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정부의 영세국의중립국 기도에 대하여 고종의 허영심과 일종의 功名心까지 더해진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치부하였다. 기쿠치는 또한 러시아가 한국정부에 간도조차를 요구하고 나섰을 때 『한성신보』를 통하여 간도는 본래 한국의 영토로, 고구려 시대에는 지금의 요하 이동은 모두 한국의 영토였음을 설명하고, 영토 회복론을 논하며 한국정부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 러시아 군인들의 북중국과 만주에서의 무법 행태를 일일이 게재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포열을 조장하였다.⁴⁵⁾ 그러나 기쿠치의 한일국방동맹안 성립활동은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한국정부의 한국중립화정책으로 인하여 무산되고 말았다.⁴⁶⁾

1901년 11월 고종은 외무대신 박제순을 일본에 파견하여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이때 일본은 한일 비밀 공수동맹안을 맺어 한국 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⁷⁾ 그러나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수동맹안을 고종이 거절함에 따라 1901년의 한일 간 교섭도 실패로 돌아갔다. 기쿠치는 한일공수동맹안의 결렬에 대하여 이용익이 개입되어 프랑스 차관을 도입한 雲南 신디케이트, 평양무연탄채굴 문제 등에 그 핵심이 있었음을 비난하면서 대한제국은 전기와 철도는 미국에, 경부철도와 망명자 처분안 문제는 일본에, 삼림채벌권과 영세중립국안은 러시아에 매달리는 외교로 결국 일본과의 교섭문제는 실패했다고 비난했다.⁴⁸⁾

44) 長風生, 1908. 9, 「十五年間の韓客搓記(中)」, 『朝鮮』 제2권 1호, 58~60쪽; 菊池謙讓, 1916, 「朝鮮王の中立外交と國防同盟」, 青柳綱太郎 編, 『新朝鮮』, 朝鮮研究會, 40~58쪽.

45) 菊池謙讓, 1916, 위의 글, 40~45쪽.

46) 菊池謙讓, 1916, 앞의 글, 51~58쪽; W. F. Sands, 신복룡 역, 1999, 『조선의 마지막 날』, 집문당, 310~315쪽.

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1901. 12. 6), 256~260쪽.

48) 菊池長風, 1908. 10, 「十五年間の韓客搓記(下)」, 『朝鮮』 제2권 2호, 54~56쪽.

3) 통감부와 총독부 식민통치의 보좌활동

1906년에는 통감부 촉탁으로 한국 통치에 필요한 전국 각지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統監施政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통감부로부터는 반도 통치를 위한 裏面활동에서의 활약이 대단하였음을 치하받았다.⁴⁹⁾

1908년 3월 日韓書房 사주 모리야마 요시우(森山美夫)는 한국 내 일본인 잡지 발간의 필요성에 따라 잡지 『朝鮮』을 창간하였다. 그러나 모리야마는 자본을 출자한 것에 불과하고, 잡지의 편집 등 실제 운영은 主幹 기쿠치와 편집장 사쿠오가 하였다.⁵⁰⁾

창간 1년 후인 1909년 3월부터 모리야마는 日韓書房의 사업 확대를 이유로 잡지사 경영을 전적으로 사쿠오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잡지의 발행처는 제3권 제2호부터 日韓書房에서 조선잡지사로 변경되었다. 초기 주간이었던 기쿠치는 잡지를 창간한 그해 말부터 이미 글쓰기를 그만두고 있었으므로, 잡지의 실질적 편집과 운영은 새 주간 사쿠오가 하였다. 기쿠치가 이때 主幹자리를 그만둔 것은 1908년 통감 이토로부터 한국 근대사에 관한 저술을 주문받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쿠치는 1909년 朝鮮通信社를 창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고,⁵¹⁾ 사쿠오와 함께 『朝鮮及滿洲』를 창간했다고 하는데, 사실 잡지 『朝鮮』이 1912년 1월(통권 47호)부터 『朝鮮及滿洲』로 改題하여 1941년 1월(통권 398호)까지 발간된 것이다.⁵²⁾

한편 기쿠치는 1908년 무렵 아오야기 고타로 등이 설립한 朝鮮研究會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고서연구 및 번역 작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49) 『朝鮮總督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1935), 1167쪽.

50) 최혜주, 2005, 「한말 일제하 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참조.

51) 기쿠치는 京城日韓電氣通信社와 朝鮮日日新聞社를 경영하였고, 細井肇가 여기에 고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호소이는 기쿠치와 함께 조선연구회를 만들었고, 그의 저서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日韓書房, 1910)는 기쿠치가 감수한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高崎宗司, 2002, 앞의 책, 116~117쪽).

52) 『조선』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2004, 『개화기 재한조선인 잡지 자료집 : 조선 1』, 해제, 동양학연구소 참고.

하였다.⁵³⁾

기쿠치는 1911년에는 경상북도 大邱民團長에 임명되었고, 지방 공공사업을 맡아 병합 직후 한국인들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한국민과의 접촉융화사업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는 그는 1912년 8월 韓國併合記念章을 수상했다. 그해 9월 메이지 천황 장례식 때는 慶北民總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기쿠치의 경북 대구지역 민단장 활동은 1914년까지 계속되었는데, 해임 당시 그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지방 공공사업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銀杯 1組를 받았다.

그는 1920년 7월 다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 실정의 조사를 위촉받아 1922년 조사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의 참고가 될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쿠치는 이미 통감부 촉탁으로 이와 동일한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한국 실정의 조사 업무는 그가 적격이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1920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정보위원 자격으로 서울과 지방 유생 88명을 모아 儒道振興會라는 친일 유생단체를 조직하였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영남 출신 유림들이 다수 참가하였던 관계로 유도진흥회도 주로 경상·충청지방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하였으며, 이들을 임시정부의 유림출신들과 내통시켜 임시정부를 붕괴시킬 의도에서 조직된 어용단체였다.⁵⁴⁾

1922년 11월에는 다시 언론계에 돌아와 大陸通信社를 설립하고, 각종의 집필업무에 주력하였다. 대륙통신사는 일본 외무성 당국과 조선총독의 협조로 설립된 언론사였다.⁵⁵⁾ 또한 총독부 촉탁으로 조선 실정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이후 『朝鮮諸國記』 등을 저술하였다.⁵⁶⁾ 그리고 이렇게 식민통치의 이면에서의 보조활동으로 다시 1928년 일본 內閣賞勳局으로부터 大禮記念章도 수상했다.

1930년 4월에는 李王職으로부터 實錄編纂資料募集委員으로 위촉받아

53) 『근대조선이면사』, 田內蘇山 自序.

54) 姜東鎮,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참조.

55) 『근대조선이면사』, 田內蘇山 序文.

56) 菊池謙讓, 1925, 『朝鮮諸國記』, 大陸通信社.

1935년 3월 업무 종료 때까지 활동했는데, 이때 그는 방대하고도 생생한 자료를 직접 열람·조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근대 조선사』 상·하권을 출간하였다.⁵⁷⁾

기쿠치의 한국에서의 활동은 1939년 『근대 조선사』 하권 저술을 끝으로 1945년 귀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6년간의 시기는 주로 『김옥균전』·『이용구전』,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 친일파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들에 대한 저술을 가끔씩 잡지에 신는 정도의 활동을 한다.⁵⁸⁾ 1870년생인 기쿠치의 나이가 1939년 무렵 거의 70세였으므로, 사실상 대외 정치활동이나 집필활동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후술할 바와 같이 제2선으로 물러나서도 호소이와 같은 식민지 어용 문필가들을 양성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한국의 城東區 新堂町 432번지에 거주했다.⁵⁹⁾

한편 1945년 일본으로 돌아간 후 그는 한국에서의 50여 년에 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관계 글을 몇 편 썼다. 대개 분단된 남북한 문제와 그 전망, 이승만 정권의 排日觀, 만주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 문제와 한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단편적인 글이다. 패전국 일본이 냉전체제였던 당시 한반도의 정세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그것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쿠치라는 핵심적 知韓 지식인으로서 시세 분석과 전망을 기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⁶⁰⁾

57) 菊池謙讓, 1937·1939, 『近代朝鮮史』上·下, 鷄鳴社.

58) 「韓國併合に登場した内田良平」, 『國民總力』6권 15호, 1944. 8.

59) 和田八千穂, 藤原喜藏 編, 1945. 3, 『朝鮮の回顧』, 執筆者略歴, 경성: 近澤書店.

60) 기쿠치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기고한 글들은 다음과 같다. 菊池謙讓, 1953, 「南北朝鮮體戰案」, 『日本及日本人』Vol. 4, No. 5, 日本及日本人社, 48~49쪽; 菊池謙讓, 1953, 「李承晩の排日觀」, 『日本及日本人』Vol. 4, No. 2, 85쪽; 菊池謙讓, 1952, 「南北朝鮮の將來(上)」, Vol. 3, No. 7, 56~63쪽; 菊池謙讓, 「南北朝鮮の將來(中)」, Vol. 3, No. 8, 125~129쪽; 菊池謙讓, 1952, 「南北朝鮮の將來(下)」, Vol. 3, No. 10, 52~61쪽; 菊池謙讓, 1951, 「滿韓國境と中立地帯」, 『日本及日本人』, Vol. 2, No. 1, 65~67쪽.

Ⅲ. 한국사 저술활동 배경과 식민주의 사관의 원형

1_ 한국사 저술활동의 배경

일본인들이 한국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한다. 이전까지는 일본 조야의 강렬한 征韓論에도 불구하고, 운요호사건(1875), 강화도조약(1876), 임오군란(1882) 등의 중요 사건발생 때 간단한 전단지 성격의 소책자를 발행하던 수준이었다. 이후 청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林泰輔의 『朝鮮史』(1892), 吉田東伍의 『日韓古史斷』(1893), 西村豊의 『朝鮮史綱』(1895) 등이 출간되었는데, 주로 고대사에 치중되었다. 특히 근대사 부분에 대한 관심은 1896년 기쿠치의 『조선왕국』을 기점으로 하여 1901년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朋)의 『朝鮮開化史』(1901, 東亞同文會)와 시노부 즈메이의 『韓半島』(1901, 東京堂書店)가 가장 선구적이고 이를 가리켜 보통 칩락 3서라고 한다.⁶¹⁾

〈표 2〉 기쿠치의 한국사 저술 목록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사	비고
1896	『朝鮮王國』	民友社	저술
1910	『朝鮮最近外交史 大院君傳 附 王妃の一生』	日韓書房	저술
1931	『朝鮮雜記』 제 1·2권	鷄鳴社	저술, 지리·보부상 등 포함
1936	『近代朝鮮裏面史—一名 近代朝鮮の横顔』	朝鮮研究會, 東亞拓植公論社	저술, 田內蘇山 공저
1937	『近代朝鮮史』 上	鷄鳴社	저술
1939	『近代朝鮮史』 下	鷄鳴社	저술

* 기쿠치의 저술(단행본)만 기재. 잡지 기고문 등은 생략

61) 이에 관해서는 趙東杰, 1990, 「식민사학의 성립과정과 근대사 서술」, 『역사교육논집』 13·14 합호 참조.

그렇다면 기쿠치가 한국사, 특히 <표 2>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근대사(당시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개항 이후부터의 시기를 ‘최근세사’라고 칭했다)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첫 역사서는 『조선왕국』이다. 『조선왕국』은 을미사변의 합리화와 정당성 주장을 위해 히로시마 감옥에서 집필한 변명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저서인 『대원군전』은 통감 이토의 명령에 따라 쓰여진 것으로 병합을 목전에 두고, 한국 망국론의 입장에서 한국 근대사의 주역인 대원군, 고종, 명성왕후의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상에 초점을 두어 의도적으로 저술된 것이었다.

따라서 기쿠치의 역사서 저술의 배경은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그 침략행위와 의도를 왜곡, 합리화시키고, 나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국가적 요구와 그 침략의 보조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기쿠치 개인의 침탈행위에 대한 변명이라는 개인적 필요성에 따라 서였다.

2_ 한국사 저술에 나타난 식민주의 사관의 원형

1) 『朝鮮王國』

『조선왕국』은 지리부, 사회부, 역사부의 3부 체제인데, 특히 역사부는 근세사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상술하였다. 책의 서문은 도쿠토미와 시바 두 사람이 썼다. 특히 시바는 “예전에 미국인 데니(O.N. Denny)가 『淸韓論』을 저술하여 원세개와 청의 정책을 비난한 것처럼 지금 한러 관계에서 이 책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일본이 대러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 책을 필요로 한다고 평가하였다. 즉, 시바는 서문에서 러시아를 주적으로 설정하여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세력 팽창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⁶²⁾

기쿠치는 이 책의 역사부에서 고조선 역사를 서술하면서 기원전 1070년

62) 『조선왕국』, 서문 참조.

周 武王에 의한 箕子의 조선왕 책봉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후일 식민사학의 기본 개념인 반도성론, 타율성론의 원론적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⁶³⁾ 또한 昔脫解를 일본인이라고 하였고, 백제가 任那의 일본부와 동맹하여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는 임나일본부의 영역이 낙동강 이남, 상주로부터 전라도에 이르는 일대를 모두 영유하였다고 하여 아예 임나일본부를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기쿠치는 고구려와 신라와의 공조시기를 6세기 진흥왕 때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4세기 후반 내물 마립간 당시 고구려 광개토태왕과의 관계를 잘못 기술한 것이다. 또한 백제가 멸망에 이르기까지도 일본과 관계가 깊어 조선왕조 말까지도 錦江 하류에는 수천의 日本村이 존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고려시대 부분의 서술은 매우 간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종 이후 성종, 목종, 현종 조에 이르는 천추태후와 승려 金致陽의 왕실 스캔들을 부각시켜 서술하였고, 또한 인종 이후 문벌 귀족사회의 궁중의 문란한 성생활, 퇴폐한 승려들의 궁정출입 등 주로 검증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야사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⁶⁵⁾

한편 대원군 집정기와 을미사변 당일 날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청일전쟁을 두고 일본으로 인해 한국이 청지배하에서 독립하게 되었다고 했고, 을미사변 부분은 대원군의 뜻에 따라 일본 유지자들이 동원되어 사변을 일으킨 것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까지 일본의 세력 밑에 묶여둔 한국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에게 빼앗긴 책임을 일본정부의 외교정책이 정립되지 못한 데 있다고 책망하고 있다.⁶⁶⁾

사회부의 서술 역시 조선이 필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왕실, 귀족, 상민, 노예, 都城, 촌락, 巫女 및 淫祠敎, 불교, 유

63) 『조선왕국』, 279~280쪽.

64) 『조선왕국』, 295~297쪽.

65) 『조선왕국』, 311~316쪽.

66) 『조선왕국』, 430~519, 547~548쪽.

교, 社會情態, 정치제도 등으로 나누어 일관되게 부패와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고, “조선의 쇠망은 고려 조정부터 한성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敗德이 쌓인 일천여년”이라고⁶⁷⁾ 혹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선왕국』은 후일 식민사학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의 기본 골격을 제공한 식민사학의 원류가 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朝鮮最近外交史 大院君傳 附 王妃の一生』

『조선최근외교사 대원군전 부 왕비의 일생』은 1910년 日韓書房에서 출간되었다. 그가 이 책의 저술에 착수한 것은 1898년 을미사변의 혐의에서 풀려 『한성신보』 주필로 다시 한국에 온 직후였다. 기쿠치는 1898년 한국에 돌아온 이후 대원군과의 기존부터의 인연을 이어서 일본에 망명 중이던 이준용과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운현궁에 자주 출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근 외교사에 대한 규명은 일본이 한국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원군의 생애를 다룬 전기를 편찬하게 된 것이다.⁶⁸⁾ 또한 히로시마 감옥에서 쓴 을미사변의 변명서 『조선왕국』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본인 및 일본정부의 ‘을미사변’ 만행을 정당화 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쿠치는 저술 도중에 사료부족으로 집필을 보류하고 있던 차에 1908년 도쿄에 갔다가 이토로부터 한국 근대사 편찬의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그는 통감부에서 정식으로 봉급을 받으며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09년 이토가 통감직을 사임하면서 그해 11월 기쿠치 역시 통감부 관리 하에서의 편찬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 그는 1910년 3월 병합을 목전에 두고, 다시 대원군 전기 저술 작업에 착수하여 완성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식민지화를 추진한 일본 수뇌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⁶⁹⁾

67) 『조선왕국』, 160쪽.

68) 『대원군전』, 대원군전 편찬의 유래.

69) 이태진, 2007, 앞의 글, 110~111쪽.

기쿠치는 이 책에서 한국 근대의 역사를 '대원군과 명성왕후' 양자의 대결 구도로만 파악하였고, 고종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왕좌왕하는 나약한 군주라는 틀 속에서 망국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근대사 상은 이후 한국 근대사의 표준상이 되어버렸다. 기쿠치의 『대원군전』에서 만들어진 고종, 명성왕후, 대원군의 뒤틀어지고 왜곡된 인물상과 망국적 한말의 정치상은 오늘날까지도 그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망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왕실에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능한 왕, 권력욕에 불타는 왕비가 망국의 원인 제공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⁷⁰⁾

기쿠치의 근대사 서술의 내용과 인식은 이후 나온 『근대조선이면서』나 『근대조선사』 上·下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대원군전』을 바탕으로 하였다. 물론 『근대조선이면서』와 『근대조선사』 상·하는 인물사 위주의 서술양식은 아니고, 근대 개설서이므로, 주요 사건일지별로 설명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대원군전』의 내용과 인식의 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대원군전』은 기쿠치의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인식과 그의 역사 왜곡상을 가장 여실히 볼 수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3) 『朝鮮雜記』 제1·2권

『조선잡기』 제1·2권은 기쿠치가 한국 생활을 통해 습득한 한국의 史實, 史話, 史論, 史料, 제도, 문물, 고사, 典例의 연구 및 조사의 결과, 감정과 흥미에 의한 생생한 山河, 名勝風土, 舊蹟, 인물, 평론, 창작, 小品 등 그야말로 특정 분야가 아닌 잡다한 내용들을 모두 묶어 편찬한 것이다.

기쿠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스스로 전문 학자가 아니며 考證探索에 의하여 기술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실증과 전문 연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70) 이태진, 2007, 앞의 글, 103~126쪽. 『대원군전』의 본론은 '왕위계승과 제1차 섭정, 왕비 및 왕비당의 발흥, 대원군 제2차 섭정, 제3차 섭정, 대원군의 말로, 後 10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말에 '왕비의 일생'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그 기록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과 과장, 왜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쿠치는 이 책에서 平壤觀戰記와 을미사변에 직접 가담한 그날의 생생한 상황과 전개과정, 사변 이후의 처리문제를 상술한 逐客記, 伊藤公의 합방론과 桂公의 併合論, 대원군, 趙義淵, 金嘉鎮, 安嗣壽, 俞吉濬과 韓圭高 등 한국말기의 인물 및 궁정의교비사 등의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는 한말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극적 흥미를 더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이 글이 픽션의 여지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청일전쟁의 「平壤戰役 觀戰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패전에 답하다”라는 글까지 쓰면서 일본군이 300년 전의 패배(필자 -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에 의하여 평양전투에서 고니시가 패전한 사건)를 갚았다고 감개무량해하고 있다.⁷¹⁾

4) 『近代朝鮮裏面史 - 一名 近代朝鮮の横顔』

『근대조선이면사』는 기쿠치가 1930년 4월부터 1935년 3월까지 李王職 축탁으로 『고종·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근대사 자료를 열람하는 동안 흥미롭고 중요한 장면과 등장인물을 묘사하여 1933년 5월부터 100여 회에 『京城日報』에 연재하였던 것을 모으고, 여기에 ‘메이지 말년 조선에서의 다우치[田內蘇山]의 노트’라는 한 항목이 첨가되어 간행된 것이다. 때문에 기쿠치와 다우치의 공저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기쿠치의 저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명칭이 ‘일명 근대조선의 횡안’인 것은 서술된 내용이 한국 근대사의 전모를 밝힌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横顔’ 즉, 이면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아오야기 고타로가 사망한 후 朝鮮研究會 主宰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책은 조선연구회에서 편찬하게 되었다.⁷²⁾

71) 『조선잡기』 제1권, 113~134쪽.

72) 『근대조선이면사』, 長風山人 自序.

『근대조선이면사』는 『대원군전』이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양대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에 비하여 비교적 당대의 중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특히 동학농민운동 부분에서 매우 상세하게 전개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원군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망국론, 부패, 사치, 향락, 미신, 무능, 정쟁 등을 한국 근대사의 기본 요소로 설정하여 자멸론의 논리를 주장하고, 특히 을미사변 부분에서 대원군의 근본책임론을 강조한 것은 동일하다.

5) 『近代朝鮮史』上·下

기쿠치의 한국사 저술은 『근대조선사』 상·하에서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는 1926년경부터 근대 조선사 편술에 뜻을 두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데라우치[齋藤實] 총독과 이마니시[今西龍]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마침 李王職으로부터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을 촉탁받아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사료수집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1935년 3월 사업종료 후 당초 자신이 계획하였던 근대사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博文寺에서 기거하며 원고를 정리하여 1937년 10월 총 669쪽에 달하는 상권을 탈고하였고, 1939년 584쪽의 하권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기쿠치가 방대한 사료의 열람을 거친 후이므로, 이전 『대원군전』에서의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대부분 바로잡혔다.

그는 이 책의 자서에서 밝히기를 이미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이 책은 기존의 저술인 『근대조선이면사』를 재검토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⁷³⁾ 그러나 책의 내용과 분량면에서 기존의 어떠한 한국 근대사 저술보다도 방대하다. 이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된 다보하시[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の研究』(조선총독부 중추원, 1940)보다도 앞선 저술이었다.

73) 『근대조선사』 상, 自序.

IV. 한국 근대사 왜곡의 실태와 침략의 정당화

1_ 역사적 사실의 오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쿠치의 『근대조선사』 상·하권에 이르기까지의 저술은 거의 『대원군전』과 『근대조선이면서』를 골간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기쿠치의 역사서 저술에서 나타나는 한국사 왜곡의 실태와 의도적이거나 혹은 자료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서 초래된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대원군전』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⁷⁴⁾

먼저 단순 사실의 오기 부분이다. 기쿠치는 신미양요 당시 전사한 어재연을 병인양요 때 사망한 것으로 잘못 표기하였고,⁷⁵⁾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1875년으로, 1876년 김기수가 1차 수신사로 파견된 것을 1878년으로, 1880년 花房공사가 서울에 公館을 설치한 것을 1879년으로 잘못 표기하였다.⁷⁶⁾ 1874년 11월 28일의 민승호 일가의 폭사사건도 대원군이 일본과의 수교에 올분한 끝에 일으켰다고 잘못 서술하였다.⁷⁷⁾ 조러수호조약(13조)과 통상장정(3조)은 1884년 윤 5월 체결되었고, 육로통상장정(9조)이 체결된 것은 1888년 7월 13일인데, 한러조약을 1885년에 체결된 것으로 오기하였고, 기쿠치가 서술한 두만강 무역조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다.⁷⁸⁾

다음으로 최익현의 상소와 대원군의 하야 부분에 대한 오류이다. 기쿠치는 최익현이 왕비당으로 왕후의 사주를 받아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비난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주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최익현의 뒤를 이어 흥재학이 그 아류가 되어 다시 대원군의 섭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서소문

74) 기쿠치의 『대원군전』의 오류와 왜곡을 분석한 것은 이태진, 2007, 앞의 글이 참조됨.

75) 『대원군전』, 51쪽.

76) 『대원군전』, 96쪽.

77) 『대원군전』, 308~309쪽.

78) 『대원군전』, 141, 327쪽.

밖에서 참형에 처해졌다고 하였다.⁷⁹⁾ 그러나 최익현은 왕비당이 아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비난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주장한 개국론자는 더욱 아니었다. 오히려 개국을 앞두고, '왜양일체론'을 주장한 '持斧伏闕上疏'를 올렸다가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이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⁸⁰⁾ 최익현이 1868년 10월 10일에 올린 상소문은 대원군의 토목공사 중지와 當百錢의 혁파를 건의한 것이었고,⁸¹⁾ 1873년 10월 25일에 올린 상소와 11월 3일의 상소는 대원군의 내정을 비판한 것이지 외교문제를 언급한 바는 없었다.⁸²⁾ 더군다나 기쿠치는 1874년 6월 29일 당시 영의정 李裕元의 상소문을 최익현이 올린 것으로 둔갑시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홍재학이 참형을 당한 것은 1881년 윤 7월 20일로 이른바 '嶺南萬人疏' 사건 때문이었다.⁸³⁾

한편 기쿠치는 궁인이씨 소생 완화군을 대원군이 매우 총애하여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명성왕후가 이전까지 전혀 정치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었다고 거의 소설에 가까운 상황 설명을 했다. 또 왕비는 왕자를 낳자마자 자기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기 위하여 중국에 이유원을 파견하여 외교전을 펼쳤다고 했다. 그리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수교하여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⁸⁴⁾

기쿠치는 한국 근대사를 대원군과 명성왕후 양자의 갈등구조로 이해하였고, 그들의 파행적이고 치열한 정쟁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식의 역사구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원군과 왕후 사이의 갈등이 완화군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드라마틱하고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다. 기쿠치는 당시 모든 것을 왕후의 원자 출산과 연관지으려 했기 때문에, 이미 원자 출생 이전부터 진행되던 고종의 친정체제 수립을 위한 서양문물 도입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계획

79) 『대원군전』, 73~75, 85~87쪽.

80) 『承政院日記』, 고종 13년(1876) 1월 23일 ; 『日省錄』, 동일자.

81) 『日省錄』, 고종 5년(1868) 10월 10일.

82) 『承政院日記』, 고종 10년(1873) 10월 25일, 26일 ; 『日省錄』, 동일자.

83) 『承政院日記』, 고종 18년(1881) 윤 7월 8일, 9일, 10일 ; 『日省錄』, 동일자.

84) 『대원군전』, 83, 87~88, 97~98쪽.

등, 당시 한국정부의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개국의 움직임에 간과하였다. 단지 개국은 오로지 왕비당의 세자책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쿠치는 이유원이 청과 접촉한 시기를 1874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원군은 이미 최익현의 1873년 상소로 하야한 뒤였다. 기쿠치는 완화군과 그의 생모의 죽음을 두고, “세상에서 모두 (명성왕후가 죽었다고-필자) 그 죽음을 의심했다”, “가련한 궁녀와 왕자는 마침내 두 영웅의 희생이 되어 유명을 달리하였다”⁸⁵⁾고 전혀 근거 없는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를 꾸며내기까지 했다.

다음은 임오군란 부분 오류이다. 기쿠치는 임오군란 당시 국망산에 피신한 중전이 밀사를 보내 고종으로 하여금 어윤중을 북경에 보내 보호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고, 그 때문에 청군 4,000명이 파병되어 대원군을 잡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⁸⁶⁾ 그러나 당시 어윤중은 1882년 4월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 후 사후논의를 위하여 이미 텐진에 파견되어 있었고, 6월 임오군란이 터졌을 때, 청은 종주국으로서의 정변 주도자 징벌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종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병한 것이었다. 또한 기쿠치는 중전이 심상훈에게 업혀 피난갔다고 하였으나,⁸⁷⁾ 사실은 시어머니인 부대부인 민씨의 사인교를 타고 궁궐을 빠져나갔으며, 민태호는 임오군란 당시 살해된 것이 아니고, 1884년 갑신정변 당일 살해되었다.⁸⁸⁾

기쿠치는 임오군란 때 청의 保定府에 연금되었던 대원군의 환국도 왕비와의 대립관계의 일환에서 설명하였다. 즉 왕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보정부에 연금되었던 대원군을 환국시켰다는 것이다.⁸⁹⁾ 그러나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불리한 외교적 형세를 만회하려는 고종이 進奏使 민중묵을 청에 보내 대원군의 환국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기쿠치는 대원군과 명성왕

85) 『대원군전』, 83~84쪽.

86) 『대원군전』, 112~113쪽.

87) 『대원군전』, 315~321쪽.

88) 『대원군전』, 104쪽; 『日省錄』, 고종 21년(1884) 10월 17일; 『備邊司謄錄』, 동일자.

89) 『대원군전』, 143~145쪽.

후의 갈등구조에만 초점을 맞춰 군주 고종의 존재를 완전히 실종시켰다.⁹⁰⁾

이상은 『대원군전』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의 오류 부분이다. 그 유형을 보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오류인 경우도 있고, 나머지의 사례는 한국 근대사를 대원군과 명성왕후 양자의 대결구도로 규정짓고⁹¹⁾ 서술을 하다보니,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나, 상소문, 사건의 시간 착오 등의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2_ 대원군과 명성왕후에 대한 왜곡과 폄하 작업

기쿠치는 을미사변의 직접 가담자이다. 당연히 그의 명성왕후에 대한 서술은 시해의 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과 그 근거로서 명성왕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일관되어 있다.

그에 의하여 형상화된 명성왕후의 상은 시아버지와의 권력 쟁탈전에서 유혈의 정쟁을 일삼고, 끊임없는 권력욕으로 한말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내정에서는 사치와 낭비, 민씨 척족의 부패와 타락, 무능함으로 일관했고, 외교에서는 청·러시아·미국 등의 외세에 부합하여 사대외교를 추진한 결과 결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몰락했다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명성왕후가 정치를 장악한 것은 ‘일반적인 조선 부녀자들의 典型’이고, “고종이 궁인 이씨에게 빠져 있는 동안 외로운 왕비는 左傳을 애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일 대원군과의 정쟁에서 기발하고 민첩한 중흥책을 쓸 수 있었고, 고통을 참고 세력을 집결, 인심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피를 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잔인한 性情을 타고났다”고 하였다. 게다가 “왕후가 천성적으로 권력을 좋아한 것은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친척집에서 자란 성장과정으로 인하여 내면에 인심과 이해관계를 통찰하는 명민함을 지니게 되었다”⁹²⁾고 마치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듯이 근거 없는 서술을 하고 있

90) 이태진, 2007, 앞의 글, 120~122쪽.

91) 『대원군전』, 78쪽.

92) 『대원군전』, 79~81, 147, 238~239, 297쪽.

다. 또 명성왕후를 러시아의 캐서린 대제와 비교하며 “참담한 사변의 연속이고, 냉혹한 성격과 권력에 대한 열정으로 왕비의 왕궁에서 유혈, 참극이 빈발했으며, 그녀는 여성 특유의 신경과 약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병란의 신과 같은 일생을 보냈다”, “왕비가 청신하게 보이는 것은 혈관의 피가 적은 탓이며, 침묵을 고수하는 것은 항상 모략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심혈은 실로 야심, 허영, 권세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⁹³⁾라는 식의 저속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책의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기쿠치의 명성왕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는 李範晋과 眞靈君(혹은 神靈君)이라는 무당의 서술 부분에서 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는 왕비가 점쟁이, 무녀, 승니 등을 궁중에 출입시키고, 왕자의 건강을 위해 전국 사찰과 산천에 기도를 올림으로써 빚어진 국고 낭비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⁹⁴⁾ 즉, 척족만이 아니라 왕비 자신의 낭비벽이 심해 백성을 도탄에 빠트리는 虐政의 주체가 된 것으로 묘사하여, 외교에서의 총명함에 비해 내정의 지적은 모두 악덕부패로 짖었다는 표현까지 썼다. 왕비의 이런 악정 때문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의 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진령군은 임오군란 당시 왕후가 충주로 피신했을 때 왕후의 무사 귀환을 점친 무녀이다. 왕후는 군란이 끝나고 환궁 때 그녀를 동행했고, 이후 이 무녀가 왕실의 각종 행사에 관여하고 전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쿠치는 진령군 휘하의 세력으로 이범진과 李裕寅, 洪啓勳, 高永根, 尹泰駿 등을 지목했고, 진령군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10년간 경복궁을 지배해 온 나라에 가렴주구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진령군과 명성왕후를 ‘정신병에 걸린 이상한 조선부인의 대표자’라고까지 했다.⁹⁵⁾

또 기쿠치는 이범진과 왕후를 치정관계로 설정해서 왕후를 不貞한 여인으로

93) 『대원군전』, 295~296, 302, 308쪽.

94) 菊池謙讓, 1945, 「韓末に登場した女性」, 和田八千穂·藤原喜藏 共編, 『朝鮮の回顧』, 近澤書店, 304~319쪽; 『대원군전』, 103쪽.

95) 『대원군전』, 314, 331~335쪽.

로 인식시킨다.⁹⁶⁾ 이범진은 훈련대장 이경하의 아들로 1879년 문과에 급제하여 왕 중심의 개화정책의 적극적 지지자로서 1897년 미국, 1900년 러시아(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공사 겸임)에서 주재공사를 차례로 역임한 요인이다. 기쿠치는 이런 인물을 불량한 잡인으로 소개하였다.

기쿠치는 을미사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원군전』에서 대원군의 국내 개혁정책에 관하여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원군의 업적을 며느리 명성왕후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자 마침내 대원군이 며느리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쿠치는 명성왕후가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이어 한국정부가 급격하게 친러화되면서 일본 공사 미우라를 자극하여 사변이 터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기쿠치는 “예전 임오군란 때 난민들이 어찌피 중전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녀를 살해한 것이 뭐가 그리 죄가 되느냐”는 식의 논리까지 폄고, “한국역사에서 정쟁 중 국왕 또는 그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았으니, 이번 사건이 대원군과의 정권투쟁에서 터진 것으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음”을 강변하였다.⁹⁷⁾

이렇게 기쿠치가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대원군과 명성왕후의 정쟁에만 초점을 맞춘 끝에 결국 군주 고종은 ‘암약한 인물’로 전략하게 되었다. 대원군의 실각과 고종 친정도 모두 국왕의 친정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비의 능수능란한 수단으로 가능했고, 이후 국정도 왕비가 농단하면서 결국 무능한 군주는 국정을 그르친 왕비와 함께 망국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 그는 명성왕후 생전의 고종을 “왕궁의木偶 모양 침묵한 채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⁹⁸⁾

기쿠치는 명성왕후 사후 고종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특히 광무개혁 부분을 두고 고종은 외교에 능한 듯 보이나 실상 열강의 이권요구에 대한 본질을 간파

96) 『근대조선이면서』, 317쪽 ; 『대원군전』, 153쪽.

97) 『대원군전』, 193~200, 202, 205~207, 211~212쪽 ; 『근대조선이면서』, 332쪽.

98) 『대원군전』, 314쪽.

하지 못하여 결국 대한제국의 국민은 점차 시체와 같이 되었다고까지 비판했다. 더군다나 고종을 전제군주제 개혁을 하여 전권을 휘두르고 진보적 개혁세력을 탄압하다가 축출된 19세기 터키 황제 아미드(Abd al-Hamid) 2세와 비교⁹⁹⁾까지 하며 폄하했다.¹⁰⁰⁾

3_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및 갑오개혁에 대한 왜곡실태

기쿠치의 『대원군전』에 수록된 「일청전쟁과 대원군」은 일본인이 저술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글로는 효시에 속한다.¹⁰¹⁾

기쿠치는 “동학의 변란은 정적의 선동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군의 개입은 불법”이라¹⁰²⁾고 하여 일본 개입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또 9월의 2차 봉기를 기술치 않고, 1차 봉기만을 기술하면서 동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란으로 규정, 대원군과 명성왕후의 암투에서 빚어졌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그의 관점은 농민운동의 반봉건·반침략의 요소가 철저하게

99) 『대원군전』, 287~294쪽.

100) 이태진은 기쿠치가 『근대조선사』(상·하)에서 당대의 일본인 저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고종, 고종시대사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권 마지막 절을 「한말의 문화」라고 하여 광무년간의 황제정이 근대화의 씨앗을 뿌린 것도 인정하였다(『고종시대사 재조명』, 123~132쪽). 그러나 기쿠치는 다만 광무개혁의 내용을 소개하였을 뿐 그것의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쿠치는 광무개혁에서 추진된 각종의 근대적 시설과 개혁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멸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근대조선사』 하권, 131쪽). 더군다나 기쿠치는 『대원군전』에서 이미 고종을 터키의 전제 군주에 비교하며, 실패한 국왕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기쿠치가 명성왕후에 대한 폄하와 왜곡만큼 고종을 혹독하게 깎아내린 것은 아니나, 결코 고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101) 일본인들이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역사서술을 시도한 것은 林泰補의 「근세사 朝鮮記下-歐美及清日關係」(『조선사』, 1892)에서부터이다. 그리고 기쿠치의 「역사부-東方二帝國」(『조선왕국』, 1896)과 시노부의 「제2장 경성-동학당」(『한반도』, 1901) 등으로 이어졌으며, 본격적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1930년대였다. 하야시의 경우 1892년 저작이므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을 서술한 것이 아니다.

102) 『대원군전』, 166쪽.

배제되어 있다.

기쿠치의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청일전쟁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다음의 주장을 골자로 하였다.

첫째, 동학농민운동은 대원군과 원세개의 사주를 받아 선동되었으며, 대원군과 명성왕후의 권력쟁탈전, 원세개의 한국 지배 전략에 농민군이 이용당했다는 것이다.¹⁰³⁾

둘째,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고, 나아가 일본의 한국 병합의 단서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⁰⁴⁾ 또한 청이 동학농민운동을 기회로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웃을 위하여 義戰을 감행한 것이었다는 것이다.¹⁰⁵⁾

셋째, 동학농민운동은 단지 청일전쟁의 단서였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주화약 부분은 매우 소략하게 다루었다. 기쿠치는 ‘전주화약’을 맺었던 이유를 조경전·경기전의 파괴와 청일전쟁의 촉진에 대한 동학군의 염려 때문이었다고 하여 농민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을 희석시켰고,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부분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¹⁰⁶⁾

한편 기쿠치는 농민군이 “일본을 쫓아내고 대원군을 추대하여 민씨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했음을 기술하여 동학당이 ‘2차 농민운동’을 일으킨 목적이 반일본·반민비 정권에 있었음을 분명히 서술하였다.¹⁰⁷⁾ 그러면서 이 반일본적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죽음을 앞둔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상한 뜻을 알고, 일본의 충성과 용감무쌍함에 감탄하고, 그간의 자신의 행적을 후회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무근의 서술을 통해 동학의 반외세적 성격마저 희석시켜버렸다.¹⁰⁸⁾

103) 『대원군전』, 158~163쪽.

104) 『근대 조선이면서』, 216쪽.

105) 『대원군전』, 175~176쪽.

106) 『근대 조선이면서』, 216~230쪽 ; 『근대조선사』 하, 195~248쪽 참조.

107) 『근대 조선이면서』, 218~221쪽.

108) 『근대조선사』 하, 248쪽.

기쿠치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나 1893년부터 한국 근대사의 현장에서 직접 주요 사건을 경험하고, 대원군을 비롯한 한국 정계의 대신 및 주요 인물들과 직접 교류한 언론인으로서 역사서의 내용이나 분량면에서 관학계열의 역사학자 못지않은 한국 근대사 저술을 남겼다.

그는 통감부의 권유와 지원에 따라 한국사 저술 작업에 착수했고, 저술서의 기본 체제와 의도하는 방향은 일제의 식민지화를 정당화 내지 합리화시키기 위한 한국사의 왜곡에 있었다. 어쩌면 관측 역사학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 '사료의 실증과 역사서술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를 감당하기보다는 일단 재야 사학자들에 의하여 각주도 없고, 따라서 서술에 대한 사료 검증작업이 의도적으로 생략되고, 또한 왜곡된 서술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면서 자의적 역사해석과 뒤틀린 인물 왜곡을 자행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 기쿠치 같은 대중매체를 다루는 언론인들은 보다 쉽게, 통속적이며 극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알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인 왕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한국민에게 그 대중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삼류 소설 같은 한국 근대사는 이후 관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사 왜곡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의 물밑작업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드라마틱한 기쿠치의 역사왜곡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필연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고, 침략을 자멸론으로 자연스럽게 포장시키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일반 한국인에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무능한 통치자 대원군, 고종, 명성왕후의 이미지가 강하게 잔존하여 그 역사적 평가가 아직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것에서도 그 폐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V. 기타 저술에 나타난 부정적 한국 인식

1_ 기타 저술에 나타난 식민사관과 부정적 한국관

1) 『朝鮮讀本』 甲編의 식민사관

『조선독본』 갑편은 1925년 조선독본간행회에서 나온 저술로 기쿠치의 단독 저서는 아니다. 기쿠치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감수하여 편찬한 것으로 논조를 보면 기쿠치의 기타 저술에서 나타나는 식민사관의 원류, 즉 기자조선론,¹⁰⁹⁾ 임나일본부설,¹¹⁰⁾ 同文同種의 一家¹¹¹⁾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 구성 상 역사서라기보다는 지리서의 성격을 갖는 간단한 한국 소개 서적이다.¹¹²⁾

기쿠치는 이 책의 처음 '1. 조선의 명칭' 부분에서 '조선'의 의미는 기자의 조선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중화라고 칭하는 것에 대하여 조선은 小華라고 비하하였고, 또한 조선의 의미는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3000년 전 은나라 공자 기자가 조선의 왕으로 봉해졌다고 설명하였다.¹¹³⁾ 한마디로 한국이 이미 3000년 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타율사관이다.

더 나아가 그는 삼국의 시조가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황당한 역사왜곡까지

109) 菊池謙讓, 1925, 『조선독본』 갑편, 조선독본간행회, 1~2쪽.

110) 菊池謙讓, 1925, 위의 책, 13~16쪽.

111) 菊池謙讓, 1925, 앞의 책, 11~13쪽.

112) 『조선독본』 갑편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명칭, 2. 滿蒙으로의 교두보인 조선, 3. 同文同種의 一家, 4. 5개의 조선, 5. 남쪽의 조선과 동쪽의 조선, 6. 중앙의 조선, 7. 북쪽의 조선과 서쪽의 조선, 8. 국경과 대삼림, 9. 조선의 산과 강, 10. 옛날의 도읍과 지금의 町, 11. 조선은 아세아의 수산국, 12. 조선의 소, 13. 조선의 쌀, 14. 三寒四溫과 溫突, 15. 조선인의 가정생활, 16. 綱引과 弓의 競技, 17. 일청, 일러전쟁과 조선으로 되어 있다

113) 『조선독본』 갑편, 1~2쪽.

도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¹¹⁴⁾ 이 주장에 따르면 단군, 김수로, 박혁거세, 석탈해까지 모두가 일본인이 된다. 그는 이러한 주장 끝에 섬나라 일본과 반도국 주민이 서로 상호 귀화하고, 그 자손이 변영한 자도 적지 않으니, 금일 동문동종의 민족임이 상고사에서 명료하다고 했다.¹¹⁵⁾

『조선독본』 갑편은 그 서술이 매우 쉽고 간명하며, 대중적이어서 어려운 전문 서적에 비하여 그 파급 여파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쿠치의 한국에 대한 비하적 인식과 역사 폄하, 전문지식을 결여한 흥미위주의 한국사와 지리, 풍습, 문물의 왜곡은 그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다.

2) 『朝鮮諸國記』

기쿠치는 1924년 9월 하순부터 약 4개월간 한반도 전역을 순회하며, 각 도의 풍광, 인물, 명승고적, 당시 일본인 자본가와 회사, 산업시설, 농장 등을 상세히 답사하였다. 그 기행문이 『조선제국기』이다.

그는 북쪽 지방에서 간도와 압록강변의 경우 삼림자원과 만주문제에 대하여 일제의 대륙 전략을 논하였고, 특히 황해도에서는 시부사와[澁澤] 재벌계열 朝鮮興業株式會社 黃州 농장과 미쓰비시[三菱] 재벌의 兼二浦 제철소,¹¹⁶⁾ 朝鮮窒素肥料工場 등을 다루었다. 남쪽지방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일찌감치 한국에 건너와 불법적으로 대농장을 확보, 식민지 소작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東山農事株式會社, 호소가와[細川]의 大場村, 不二興業株式會社 등 대표적 일본인 지주들과 그들의 농장, 腰橋湖와 大雅利湖 수리조합 등을 소개하고 있다.¹¹⁷⁾ 특히 기쿠치는 그가 경영하는 大陸通信社 이리 출장소에서 10여 일을 머물면서 전라도 일대의 일본인 농장을 직접 답사하고, 해당 농장 지배인들과의 면담을 통한 자료를 기록한 것이므로, 1920년대 당시 이 일대 일본인 농장의 상황

114) 『조선독본』, 15쪽.

115) 『조선독본』, 11~13쪽.

116) 『조선제국기』, 77~86쪽.

117) 『조선제국기』, 136~141, 143~149, 251~272, 344~350쪽.

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기쿠치는 이 책에서 낙후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한국을 일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 선도하여 그야말로 풍요로운 농촌과 근대적 공업도시를 만들어낸 것에 감탄하고, 나아가 일본인 지주들의 선진 농업기술 보급과 자애로운 소작제 경영으로 한국인들은 기존의 봉건왕조 체제하의 구습과 착취, 가렴주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라도의 농업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당시 일본의 식량조절 안전 구역은 약 300만~500만 석으로 군산항이 1923년 현재 130만 석을 수출하였으니, 그 4분의 1을 군산이 충당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군산에서 앞으로 조만간 200만 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일본의 식량 정책상 매우 중요한 식량 조절지임을 강조하였다. 기쿠치는 더 나아가 식민지 농업정책의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군산에 미곡 취급 거래소를 설치하고, 수출을 위한 항만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가능하다면 국가가 특설시장을 설치하고, 거래소를 국영으로 하여 미가를 안정적으로 조절한다면 더욱 쌀의 효과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업의 윤곽을 제안하였다.¹¹⁸⁾

그는 또한 자신이 만약 산업 정치에 뜻을 갖는다면 이리에 농산가공의 대공장과 국가 직영의 대비료공장, 농기구공장까지 설치하고, 군산에 일본의 대도시를 키워내 정백미를 이리에서 정미하여 대창고에 보관하며, 쌀의 항구 군산과 서로 호응하여 일본 식량의 조달지로 대농촌마을을 건설하고 싶다고 까지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이리의 개발을 역설하였다.¹¹⁹⁾

3) 「各種의 朝鮮評論(時論)」에 나타난 한국 비하

기쿠치는 호소이가 편찬한 『鮮滿叢書』 제1권(自由討究社, 1922~1923)에서

118) 『조선제국기』, 119쪽.

119) 『조선제국기』, 130~131쪽

「各種의 朝鮮評論(時論)」이란 글을 통해 자기 고향 구마모토의 히고(肥後) 지역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즉 스스로 구마모토의 남쪽 한학자 童山의 가문에서 태어난 肥後人임을 말하면서 히고 지역은 예부터 조선의 주자학을 받아들여온 전통이 강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히고 지역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문화적 선정의 혜택을 받은 지역이고, 가토가 조선 성리학자를 데려와 융성을 본 지역으로 구마모토 국권당은 조선학의 노론파에 해당된다고까지 설명하였다.

이렇게 조선과 히고 지역의 문화적 연계성을 설명하는 듯하더니 기쿠치는 히고 지역의 당쟁이 천하의 難物로 그 개조가 매우 어렵고, 학벌 항쟁의 골이 대단히 깊어서 사실 히고 지역과 유사한 식민지 한국을 개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양명학의 감화를 받은 자유학파도 산출하였는데, 조선은 무사도의 순결한 교화도 없었고, 양명학의 감화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이 陰氣化하고, 개변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총독정치의 난국도 바로 이렇게 오랜 세월 개조의 여지없이 지내온 한국의 특성에 있다고 풀이하였다.¹²⁰⁾ 또한 비록 일본이 예전 조선 성리학의 감화를 받았으나, 나름대로 國學을 창출하였고, 반면 조선은 400년간 성리학을 고수하여 음기화한 나머지, 결국 붕당의 고질적 폐해를 고치지 못했음을 논하고 있다.

한편 기쿠치는 1920년대 문화통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굳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문화통치의 관건은 ‘돈’이며, 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힘든 통치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¹²¹⁾

「각종의 조선평론」은 한반도 각 지방의 지역민, 지리, 역사, 산업 등을 소개한 지리서의 성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쿠치는 폭정과 악정의 역사가 실로 경상도인에 의하여 400년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전라도인은 지

120) 菊池謙讓, 1922~1923, 「各種の朝鮮評論(時論)」, 細井肇 編, 『鮮滿叢書』第1卷, 自由討究社, 3~6쪽.

121) 菊池謙讓, 1922~1923, 위의 글, 1쪽.

역이 背走하는 지세로 반역의 기가 강하다는 식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중 제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반의 무리들이 사는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면서 전라도가 지금은 13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입장으로, 작위도 권세도 얻지 못했으나, 산업이 융성하여 충분한 행복과 혜택을 받았다¹²²⁾고 하여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식민지 경제 수탈의 구조를 호도하고 있다.

2_ 잡지 기고문에 나타난 한국 비하

기쿠치는 1908년 『朝鮮』의 실제 운영, 편집을 담당하는 主幹이었을 때 이 잡지에 비교적 많은 글을 기고했다. 그의 잡지 기고문은 대부분 병합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거의 『朝鮮』에 수록된 것이다. 이 잡지의 전편에 흐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민이 일본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이고, 불결하며, 파렴치하고, 신경이 둔하며, 취미가 천박하고, 누적된 관습이 깊이 침투되어 있으며, 계급관념이 확고부동하고, 태만·방자하며, 지독하게 냉혹하여 동정심이 없고,

〈표 3〉 기쿠치의 잡지 기고문 목록

연도	제 목	게재지	비고
1908	한국의 남북에 있어서 拓植의 상태	『朝鮮』 제1권 2호	12~14쪽
1908	제국의 보호정책은 금일 이상으로 變改하는 것이 필요한가?	『朝鮮』 제1권 4호	26~27쪽
1908	폭도에 대한 母國의 관찰(시사평론)	『朝鮮』 제1권 5호	4쪽
1908	一進會의 首領 宋秉峻	『朝鮮』 제1권 5호	64~66쪽
1908	15년간의 韓客搃記(中)	『朝鮮』 제2권 1호	57~60쪽
1908	15년간의 韓客搃記(下)	『朝鮮』 제2권 2호	54~56쪽
1910	산업에 관한 조선인의 사상과 그 변화	『滿韓之實業』 56	19~22쪽
1916	朝鮮王의 中立外交와 國防同盟	『新朝鮮』	40~58쪽
1916	過去의 朝鮮과 現在의 支那	『新朝鮮』	252~258쪽
1941	甲申政變과 金玉均	『朝光』 제7권 제11호	1941

122) 菊池謙讓, 1922~1923, 앞의 글, 6~15쪽.

의심하는 마음이 깊어 음험하다”고 하여 한국인에 대하여 인간의 모든 부정적 습성을 적용하여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은 ‘선진국민, 종주국민’으로서 ‘한국의 개발과 한인계도의 임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통감정치에 대하여서도 이 잡지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인본위주의’의 통감 통치가 폭도(의병-필자) 한국인에게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¹²³⁾ 기쿠치가 『朝鮮』에 투고한 글 역시 이러한 논조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1) 통감부 통치정책과 척식사업에 대한 평론

기쿠치는 「제국의 보호정책은 금일 이상으로 변개하는 것이 필요한가?」에서 1908년 당시 이토 통감의 통치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어서도 한국민의 불평이 확대되고, 한국의 황실과 귀족들이 제국의 보호통치를 좋아하지 않으며, 폭도(의병-필자)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성토했다. 또 그는 한국인이 본래 전래적으로 적개심이 강하고, 반항적인 세력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통치를 당하면서도 모질고 사나운 기질상 통치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는 듯하나 그 이면에서는 반항정신이 투철하여 밀사사건을 일으키고, 유생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궁정 외교를 통하여 외국의 동정을 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일 이상으로 보호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다.¹²⁴⁾

기쿠치는 또한 의병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08년 당시의 상황에서 이를 강경 진압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폭도에 대한 모국의 관찰」에서 한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폭도(의병-필자)는 전부 초적의 무리이고, 생활을 위한 강도·약탈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들은 벌써 제국의 보호를 기뻐하고, 보호정책에 따르며, 다만 일부만이 강도·약탈을 계획하여 무리지어 각

123) 『朝鮮』,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해제.

124) 菊池謙讓, 1908. 6, 「제국의 보호정책은 금일 이상으로 變改하는 것이 필요한가?」, 『朝鮮』 제1권 4호, 26~27쪽.

지에 산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의 토벌을 위하여 일본이 많은 병력을 사용함은 제국의 당연한 보호 권리라고 하였고, 필요 병력은 다수의 헌병과 경찰대를 포함한 2개 사단이라고까지 제시하고 있다. 기쿠치는 이렇게 무력에 의한 강경진압과 함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이 보호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관찰할 것을 당부하였다.¹²⁵⁾

한편 기쿠치는 1906년부터 통감부 촉탁으로 한국 각지를 다니면서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반도 종단 철도로 왕래하며 특히 철도연선 주변에서 일본 국민의 이주 상황을 직접 목격한 후 그 적식의 상태가 경성을 기준으로 한국 남부와 북부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한국으로의 이민에 관하여 조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대략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 「한국의 남북에 있어서 拓植의 상태」이다.

기쿠치는 경성을 출발하여 開城, 新幕, 平壤, 安州, 定州를 경유하여 신의주에 갔고, 수일 간 압록강 하류 연안의 신일본 부락을 왕래하고, 압록강 연안에 일본인 移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러일전쟁 전에는 安東縣에 일본인은 1명의 藥商과 십수 명의 벌목관계자 및 시찰자가 義州城 내에 상거하는 것 외에 거의 거류하지 않았는데, 전쟁 후 1년여 만에 약 1만 5천의 일본국민이 압록강 연안에 번식하는 대변화에 놀라워했다.

또한 개성과 평양, 진남포 등지에 무역이 증가하고, 일본인 거류자가 5천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이는 러일전쟁 당시 속성으로 완성한 종단철도에 그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쿠치는 북부지역은 식민 발전이 일본의 세력 확장에 따라 급조된 것으로, 일본인 이주자들은 다만 일시적 거주를 목표로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기쿠치는 경부선을 타고 수원, 조치원, 대전, 金泉, 大邱, 密陽, 三浪津을 경과하여 남부지역의 식민부락 형성 상태도 조사하였는데, 일본인 이주자들은 한국에서의 영구 거주를 위하여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개척하고, 집단화하였

125) 長風生, 1908. 7, 「暴徒に對する母國の觀察(時事評論)」, 『朝鮮』 제1권 5호, 4쪽.

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 취락의 형성을 경의선 지역의 特産植民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기쿠치가 제시한 이상적 이민의 형태는 단기적 이윤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권력의 진출 후 뒤따르는 식의 기생적 이민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향후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를 장기적이고 영구히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이민이었다.¹²⁶⁾

2) 한국민의 민족성 폄하

기쿠치는 한국인이 천성적으로 경제관념이 전혀 없고, 낭비가 심하며,富有 권력을 동일시하여 권력 획득으로 富를 얻는 것을 당연시한다고 한국민의 경제관념에 대하여 폄하했다. 그는 한국인은 의복에 매우 신경을 써서 쓸데없는 곳에 큰돈을 써버리고, 겉모습에만 신경쓰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양반이 정권을 획득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적 특권이라고 당연시 여기고, 그로 인하여 가렴주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또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상업은 개인의 영화를 독점하고,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것으로 죄악시하는 사고관념 때문에 금일에 한국인들이 생활난에 시달리고 가난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의 경제관념을 변혁시키고 개혁하여 농상공업의 개발에 종사토록 하고, 생산 산업을 존중하도록 개조시키지 않으면 한국인들의 경제를 개발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개조가 안 된다면 결국 일본제국이 부담을 떠안게 되니, 반드시 구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⁷⁾

126) 菊池謙讓, 1908. 8. 1, 「한국 남북의 拓植의 상태」, 『朝鮮』 제1권 2호, 12~14쪽.

127) 菊池謙讓, 1910. 8, 「산업에 관한 조선인의 사상과 그 변화」, 『滿韓之實業』 56, 19~22쪽.

VI. 맺음말

이 연구는 기쿠치 겐조의 한국에서의 활동, 특히 한국사 왜곡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한국 내 일본 지식인들의 문화적 식민활동의 폐해가 일제의 정치·군사적 폐해의 여파 못지않게 식민지 한국인들의 의식을 장기간 세뇌시켰고, 또한 왜곡된 한국사로 인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지 못한 채, 그것을 바로잡고 회복하기까지 지난한 노력과 기간이 걸렸음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기쿠치는 단순히 언론업무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한국에 대한 각종의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의 밀명을 수행하는 정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國民新聞社의 통신원으로 1894년부터 한국에 주재하였던 그는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가담하였다가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거기서 『조선왕국』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한국의 지리와 사회, 최근세사를 실제 답사를 통하여 저술한 그야말로 당시의 현대사였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한 전문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존 일본 학자들이 주로 한국의 고대사와 전근대사에 치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당대의 한국 역사와 정치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필요성에서 나왔다.

그는 이후 1898년 『漢城新報』의 주필, 1900년에는 사장에 취임하여 1903년까지 경영을 책임졌다. 또한 1904년에는 『大東新報』를 창간하였으며, 1909년에는 朝鮮通信社를 창립하여 釋尾春荊과 함께 월간잡지 『朝鮮及滿洲』를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의 범위를 한국에서 만주와 대륙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만들어진 대표적 어용잡지이다. 기쿠치는 1922년 大陸通信社라는 출판 및 언론사의 사장에 취임하여 한국 내 일본인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한편 그는 언론활동 이외에 한국 내 일본정부 인사와 중요 재계 인사들의

침략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1901년에는 韓日國防同盟交涉事務를 맡아 수행하였고, 한국 병합 이후로는 조선총독부의 각종 사업에 적극 협력한 공로로 銀杯 1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1920년부터는 그간의 한국에 대한 전문적 조사활동의 업적과 역량을 인정받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조사 위촉을 받기도 하였다. 1928년에는 일본내각으로부터 大禮記念章까지 수여받았고, 1930년에는 李王職으로부터 실록편찬자로 수집위원으로 위촉받아 사업이 종료되는 1935년까지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1905년에는 嚴妃의 부탁으로 淑明여학교 창립에까지 관계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한국통'답게 『조선왕국』, 『조선제국기』, 『조선잡기』 1·2권, 『근대조선사』 상·하권, 『근대조선이면서』, 『조선독본』, 『대원군전』, 『金剛山記』, 『通俗朝鮮文庫』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이 저술들은 한말부터 식민지기를 통하여 부정적인 한국관과 한국역사 왜곡, 그에 따른 식민통치의 합리화라는 문화적 식민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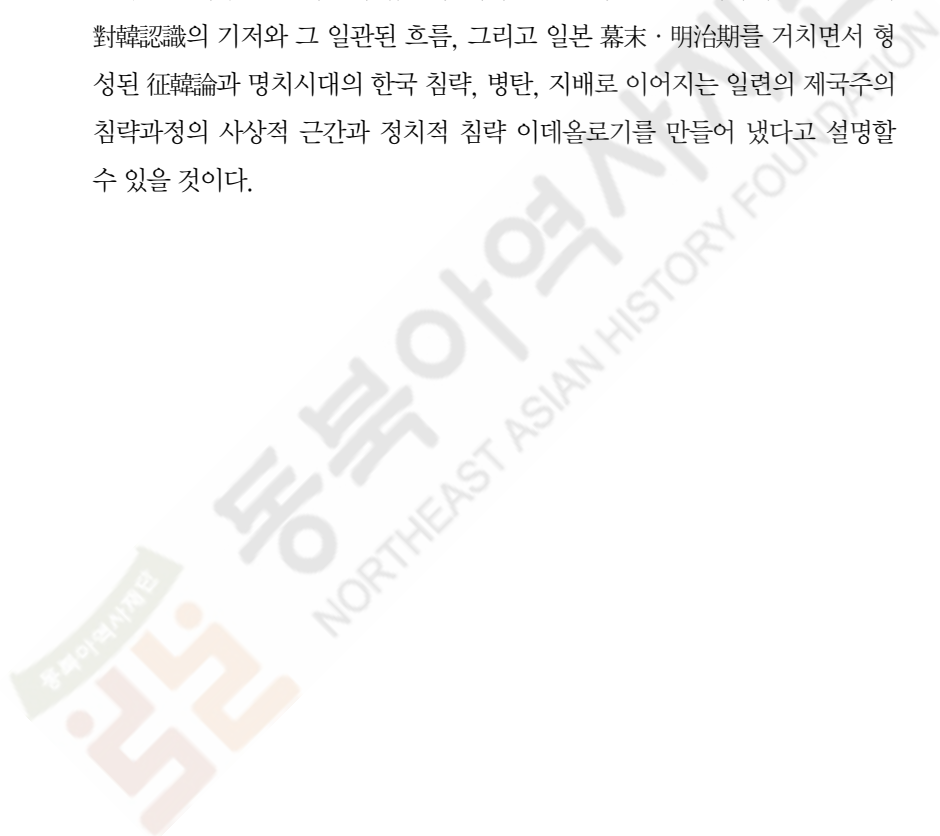
특히 기쿠치는 당대 한국 정치의 핵심인물인 대원군과 명성왕후, 고종을 집중적으로 다룬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를 저술했는데, 그 저술의도와 목적은 을미사변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병합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화의 합리화에 있었다. 따라서 그가 형상화한 한국의 근대는 대원군과 명성왕후 양자의 피비린내나는 정쟁과 암투로 얼룩지고, 결국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되어 그 폐해의 심각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기쿠치의 한국사 연구는 그가 직접 역사의 현장을 체험한 산 증인이었고, 또한 당대인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동시기 어떤 관학계열의 역사학자보다도 생생하고 풍부한 사실 자체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그 교묘한 역사해석과 미묘한 왜곡의 여파는 회복이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쿠치의 한국 근대사의 위험성은 그 역사서술의 개연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개연성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비틀어진 한말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느냐에 한국 근대사에 대한 올바른 위상정립의 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쿠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사업과 식민지 경영

을 위한 기초적 자료의 수집활동과 보고, 한국에서의 일본 언론사의 운영과 한국 지배층과의 밀접한 교류, 총독부 사업의 후원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쿠치의 저서와 잡지에 기고된 글을 통하여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작업은 한말 ·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활동했던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관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전근대사회 일본인들의 對韓認識의 기저와 그 일관된 흐름, 그리고 일본 幕末 · 明治期를 거치면서 형성된 征韓論과 명치시대의 한국 침략, 병탄, 지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국주의 침략과정의 사상적 근간과 정치적 침략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ikuchi Kenzo's Colonial Activities in Korea and His Recognition on Korea during the Empire of Korea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Ha, Jiyeon

This study is on Kikuchi Kenzo's Colonial Activities – especially culture, history part – in Korea and His Recognition on Korea during the Empire of Korea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Kikuchi Kenzo was one of the government service journalist and an intelligence agent. He came to Korea in 1893, and went back to Japan in 1945. Since he had acted over as long period as 52 years, the influence of such news paper, history, etc.

Especially the book of modern history of late Chosun Dynasty and the King Kojong(高宗), the Queen Myung-sung(명성왕후), the father of King Kojong-Hueng-sun(흥선대원군), he distorted historical accounts about Korea. He attempted to distort the truth with a logic that can be hardly understood.

Kikuchi Kenzo participate in ul-mi accident that was murder the Queen Myung-sung in 1895. So he get expelled to Japan, and was trial for murder. But all person who involved in ul-mi accident were released from prison for lack of evidence. Kikuchi came back to Korea with capacity the chief editor Hansung-shinbo.

On the other hand Kikuchi Kenzo started writing on Korean history for justified ul-mi accident, in addition to he was asked to

contribute writing new history for Japan's aggression to Korea, therefor the modern Korea history of Kikuchi Kenzo, that gave supported Japan's aggressive policy.

His representative writing production were 『朝鮮王國 - Kingdom of Chosun』, 『韓國最近外交史-Modern Diplomatic History of Korea』, 『近代朝鮮史 - The Modern History of Korea』 etc. And he wrote for Magazine, 『朝鮮』about recognitions on economy of Korea's, culture of Korea. All his writings were influenced over perception, and his distortion on Korean history were fatal strike for our historical recognition.

keywords

Kikuchi Kenzo, Queen Myung-sung, Modern Diplomatic History of Korea Colonial Actiity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최영호 |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I.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패전 직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 실태를 밝히고 귀환 당시에 지난날의 식민지 지배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전쟁 시기에 식민지 혹은 점령지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의 일본인과는 달리 현지 지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환할 때까지 '침략전쟁의 대가'를 몸소 치러야 했다.¹⁾ 그러나 그들은 현지와 본국의 사이에서 식민지 지배자 혹은 정복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가운데, 귀환과정에서 그들은 국제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본 논문은 패전 직후 이러한 급격한 체제 변환기에 일본인들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정부

1) 阿部安成·加藤聖文, 2004, 5, 「引揚げという歴史の問い方(上)」, 『彦根論叢』第348號, 138~139쪽.

와 총독부에 근무했던 정책 담당자들이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 역사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록 등의 공식 문서나 회고록 등에서 발견되는 정책 담당자의 발언을 통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다만 일본 패전 직후 개별적인 정책 담당자의 의견이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 연구 조건을 감안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책당국의 인식으로서 유추해 내는 일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근래에 들어 일본인 귀환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 가운데서도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의 연구는 귀환 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유형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저서에서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식민지 인식을, 식민지 지배 옹호, 식민지 지배 반성, 어느 쪽도 아니고 단지 식민지 시기를 그리워하는 인식 등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²⁾

또한 나라타 류이치[成田龍一]의 연구는 일본인 귀환자들의 회고록을 시기별로 나누어 인식의 특징을 논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전반적으로 귀환자들의 회고록에서 '식민지주의 의식의 결여'를 지적하는 가운데, 먼저 1950년 전후에 쓰인 회고록을 '체험'의 기록으로 보고, 이때의 수기에 식민지 조선인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³⁾ 그리고 1970년을 전후하여 출간된 '식민지 2세'에 의한 수기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가해자의식'이 많이 표출되었음을 지적했다.⁴⁾ 1980년대 이후에는 종래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귀환자' 문제가 전후보상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 오고 있음을 지적했다.⁵⁾

한편 필자는 식민지 시기 釜關 항로에 해당하는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 혹은 센자키[仙崎] 사이의 항로를 이동하는 일본인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일본

2) 高崎宗司, 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201~207쪽.

3) 成田龍一, 2006, 「引揚げと抑留」, 『帝國の戦争経験』,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 岩波書店, 183~185쪽.

4) 成田龍一, 2006, 위의 책, 197~201쪽.

5) 成田龍一, 2006, 앞의 책, 203~207쪽.

의 패전 직후 이 항로를 이용하여 귀환한 일본인들이 남긴 회고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당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비록 훗날에 기록된 것이어서 패전 직후의 인식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회상 기록에서 대부분의 일본인 귀환자들은 분명한 기억을 되살리며 주로 안전하게 귀환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안도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소수 귀환자 가운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으로 “식민지 상실이 분했다”라고 회상하는 사람도 있었고, “식민지 지배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회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본국에 귀환한 이후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한 수기와 인터뷰 기록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전후 현대사에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연구대상 자료에 나타나는 귀환자들의 인식은 본국에 돌아가서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학습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과거 식민지 인식을 정립하거나 수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한계를 갖는다. 즉 당사자들이 비록 식민지 지배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훗날의 수정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가능한 패전 직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귀환해 가는 일본인들이 ‘귀환 당시’에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인식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방 정국에서 미군정이 일본인 귀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이것은 본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귀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1945년 9월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대체로 모든 남한 거주 일본인의 귀환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수송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무질서하고 개별적인 귀환을 허용하지 않

6) 최영호, 2006. 12,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1호, 262~270쪽.

는 가운데 일본인들을 등록하게 하고 계획적인 수송을 하고자 했다. SCAP(연합군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귀환자들이 소지할 수 있는 금액도 1,000엔으로 한정했다. 미군정 초기에 '잔류'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귀환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지 않는 않았지만, 대체로 한반도 정세가 이들을 귀환시켜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을 미군정 당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보호하면서도 귀환을 예상하는' 태도에 따라 패전 직후 '잔류'를 희망하던 일본인들도 점차 귀환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찍이 아베[阿部信行] 조선 총독은 9월 28일부로 본국 정부에 올린 상소문[上奏書]에서, 일본인의 활동 계속에 대해서 일본인을 위해 이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미군과의 회담에서 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희망에 부응할 수 없고 국민 모두 한반도 거주활동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⁷⁾ 미군정은 실질적으로 9월 하순부터 일본군과 민간인에 대한 계획 수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0월부터 계획 수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본인 등록을 지시하기도 하고 귀환자 수송을 위한 열차를 지정하기도 했다.⁸⁾ 11월 1일 SCAP의 '초기 기본적 지령'에 따라 한반도가 SCAP의 일본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 정국의 조선인들이 일본인 배척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자, 미군정은 1946년 1월 22일 남한 거주 일본인은 앞으로 2주 안에 군정청 사무 담당자와 가족 4천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환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⁹⁾

또한 일본 패전 직후 남한에서 어느 정도의 일본인들이 귀환해 갔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패전 직후 일본 외무성에 마련된 '중전연락중앙사무국' 교통부 해운과는 1946년 7월 말 현재 북한 지역에서 귀환하지 못한 일본인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잔류'하고 있는 일본인 통계로 총 155,678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패전 당시 한반도에 재주하던 일본인을 총 977,972명으

7)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299~300쪽.

8)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351~368쪽.

9)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380~392쪽.

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자'를 제외한 일본인이 모두 귀환한 것으로 볼 경우, 1945년 8월부터 1년간에 걸쳐 한반도에서 822,294명이 귀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한편 공식적인 귀환 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본 후생성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있던 일본인들이 패전 이후 본국으로 귀환을 시작하여 귀환 움직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 1961년까지 총 6,288,665명이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한반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596,454명, 이북 지역에서 322,585명이 귀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귀환은 대부분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1946년 말까지 1년 5개월 동안 남한 지역에서 571,765명, 북한 지역에서 304,469명, 따라서 합계 876,234명이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두 자료 모두 한반도에 거주해 온 일반인뿐 아니라 체류 중이던 군인들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거주 일본인 통계보다 다소 많게 잡힌 것이다. 패전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통계로는 1944년 5월 조선총독부 인구조사 결과가 가장 신빙성이 높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에 총 712,583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²⁾ 1944년보다 1945년에 일본인의 한반도 유입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¹³⁾ 패전 때에는 이보다 많은 일반 일본

10) 終戰連絡中央事務局交通部海運課, 「在外邦人歸還狀況一覽表」(1946年7月末現在) [일본외교문서 제16회 공개분, Reel no. K'0003,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雜件：國內受入體制の整備關係, 輸送關係」]

11) 厚生省 編, 2000, 『續々・引揚援護の記録』, クレス出版, 417쪽.

12) 1944년 5월의 한반도 거주 일본인 인구 통계 : 경기도 197,929명, 경상북도 97,345명, 함경북도 74,190명, 함경남도 69,110명, 평안남도 50,715명, 경상북도 42,055명, 전라남도 41,954명, 전라북도 33,068명, 평안북도 27,265명, 충청남도 25,829명, 황해도 25,095명, 강원도 19,386명, 충청북도 8,642명.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7쪽.

13) 1944년과 1945년에 걸친 한반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인구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다만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러 패전 때까지 민간 선박을 타고 일본에서 한반도로 疏開했던 일본인과 한국인이 도합 30만 명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2차 자료를 통해 한반도 유입 인원이 유출 인원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와그너(W. Edward Wagner), 1989, 『日本における朝鮮小數民族：1904

인이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무튼 70만 명 이상의 민간 일본인을 포함하여 총 8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한반도에 체류하다가 패전 직후 일본으로 귀환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일본 패전 직후 귀환원호단체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귀환한 일본인 민간인과 군인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가량의 일본인들이 패전 직후 1년 정도의 기간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II. 패전 직후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인식

1_ 패전 직후 일본정부의 식민지 인식

패전 직후 점령군이 일본에 진주하기 이전 시기, 일본정부의 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의 특징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를 '성과'로 보고 있었다는 점과, 해방된 식민지인과 일본인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아래서 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에 관하여 적어도 패전 직후에는 그다지 급한 일로 여기지 않았고 부차적인 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식민지 지배의 동화 정책이 성공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투 지역에서의 일본인 군인과 민간인 귀환을 서둘렀던 것에 비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귀환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것은 그만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안이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

年-1950年(復刻版)], 龍溪書舍, 58쪽; 樋口雄一, 1986, 『協和會: 戰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196쪽.

14) 최영호, 2006. 12, 앞의 글, 256~257쪽.

주고 있다.¹⁵⁾

일본정부(각료회의)가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나서 8월 14일부로 東 郷茂徳 외무대신 명의로 해외공관에 보낸 電文을 보면, 해외 거주민에 대한 조치로서 “거류민은 가능한 현지에 정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득이 귀환하게 될 거주민의 잔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관현에 의뢰하여 보호하도록 조치한다고 했다.¹⁶⁾ 이때 일본정부가 대책을 강구한 것은 주로 전쟁 지역에 나가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보류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본인의 ‘현지 정착’을 기대했던 것은 패전 정국에서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의 대가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8월 19일자로 大東亞省이 작성한 관할 지역(만주국, 중화민국, 태국, 버마 등)에 대한 대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¹⁷⁾

이러한 식민지 인식은 식민지 거주 일본인을 위한 대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지 9일이 지난 8월 24일, 내무성 관리국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 그리고 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세웠다.¹⁸⁾

15) 패전 직후 일본정부가 식민지 조선인을 동화된 것으로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정책으로, 일본에서 한반도로 귀환하는 조선인 귀환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대책을 들 수 있다. 9월 20일에도 지방관공서에 ‘인양민사무소’를 개설하게 하여 중앙정부가 적극 관여하지 않다가 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11월에 가서야 정부기구로서 ‘인양원호국’을 개설하게 된다. 차관회의에서 ‘인양민사무소’개설을 결정할 때에도 조선인의 ‘해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한반도로 귀환할 사람을 239,320명으로 예상하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引揚民事務所設置ニ關スル件』(1945. 9. 20, 次官會議). 加藤聖文, 2002, 『海外引揚關係史料集成: 國外編』 第17卷, ゆまに書房, 73~77쪽.

16) 「三ヶ國宣言條項受諾に關する在外現地機關に對する訓令」(暗合第715號, 緊急, 發電1945. 8. 14). 加藤聖文, 2002, 앞의 책, 7~11쪽.

17) 「ポツダム宣言ノ條項受諾ニ伴ヒ大東亞地域ニ關シ大東亞省及我方出先各機關ノ執リタル措置並ニ現地ノ狀況」(1945. 8. 19). 加藤聖文, 2002, 앞의 책, 15~57쪽.

18) 內務省管理局, 「戰爭終結ニ伴フ朝鮮台灣及樺太在住内地人ニ關スル善後措置要領(案)」(1945. 8. 24) [일본외교문서 제16회 공개분, Reel no. K'0003,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雜件: 國內受人體制の整備關係, 輸送關係」].

1. 방침 : 전쟁 종결을 맞아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내지인은 大詔를 받들어 침착 냉정 대국민의 襟度를 가지고 사태에 대처하고 **과거 통치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장래를 생각하여 가능한 한 현지에서 공존 친화의 결실을 맺고자 忍苦 노력할 것**을 제1 목표로 하고 어쩔 수 없이 귀환하는 자에 대해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히 그리고 원활하게 귀환시킬 방도를 강구하기로 한다.

2. 요령 : ①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내지인은 현지 산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안목으로 하고 이와 함께 귀환에 따른 선박, 직업, 식량, 주택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지에 머물러 공존공영의 생활 계속에 매진할 것**. 잔류 내지인에 대해서는 거주, 영업 등에 자유롭게 임하는 데 충분한 보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내지인 자본에 기초한 농업, 상업, 공업 등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상 유지를 할 수 없을 경우 합병 등의 형식을 취하여 존속시키고, 존속 불가능할 경우에도 기술진 등에서 내지인을 활용하도록 할 것.

- ②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내지인 가운데 **치안, 직업 등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귀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속히 연합국 측과 절충하여 선박, 철도, 수송, 휴대금품 등에 대해 충분한 편의를 얻게 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귀환시킬 것. 귀환의 순서는 노인, 어린이, 부녀자를 우선으로 할 것. 귀환동포의 접수에 대해서는 수송, 거주, 衣食, 취학, 취직, 취업 등 제반에 걸쳐 관민협력을 통해 만전의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듯 패전으로 인한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보인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인식은 ‘일억총참회’ 주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8월 28일 東久邇稔彦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전체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전 국민이 총 참회하는 일이 일본 재건의 첫걸음이며 일본 단결의 첫걸음”이라고 하여 ‘일억총참회’를 강조했다. 이때 강조된 ‘일억총참회’는 식민지인을 포함한 일본제국 신민들이 모두 참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40년의 일본제국 인구 상황을 보면 일본인이 대략 7,300만 명, 식민지 조선인이 약 2,400만 명, 그리고 대만인이 약

600만 명으로 모두 합하여 대략 일억 명이었다. 일본이 전쟁에 몰입할 때에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서 자주 사용되던 '일억일심', '일억총무장', '일억육쇄' 등의 구호 속에 자주 등장하던 '일억'이라는 숫자가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용된 것이다.¹⁹⁾

내무성 관리국은 8월 24일에 결정한 방침에 따라 26일에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당면한 인심 안정 대책'안을 작성하고 30일에는 이것을 확정했다. 여기서도 "공연히 조속하게 또는 무질서하게 귀환을 결정하지 말고 당분간 냉정한 태도를 가지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²⁰⁾ 9월 1일부로 내무차관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낸 전보 서신에서도 8월 24일에 결정된 방침을 거듭 인용하면서 해외 일본인의 냉정 침착한 태도와 잔류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까지 미군 측과 절충한 바에 의하면 남조선 지대는 소련군 진주 구역과는 다르며 현지 실정에 입각하여 우리의 요망을 상당히 참작하여 제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들떠서 안정을 잃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정부 방침에 따르도록 재류민들을 지도"하도록 지시했다.²¹⁾

그러나 9월에 들어 해외 일본인 귀환 쇄도의 실태가 본국정부에 알려지게 되고 일본인의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 남한 사회와 미군정 당국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초기 인식은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의 해외 일본인에 대한 정책 기조도 현지 '잔류'를 강조하던 것에서 귀환유입 원호에 적극 나서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19) 최영호, 1996. 6, 「현대 일본의 민족주의 논의 전개양상에 대한 하나의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9집 1호, 292~293쪽.

20) 「外地在住内地人ニ對スル當面ノ人心安定方策」(1945. 8. 30). 加藤聖文, 2002, 앞의 책, 61~64쪽.

21) 內務次官, 朝鮮政務總監宛電報「案ノ一」(1945. 9. 1) [일본외교문서 제16회 공개분, Reel no. K'0003,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雜件：國內受人體制の整備關係, 輸送關係」].

2_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인식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패전에 따라 문서 자료들을 대량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패전 직후의 상황을 자료를 통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는 일부 자료를 통해서,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에 조선총독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총독부의 분위기에서 보면, 패전에 임박하여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대체로 일본 본국정부의 관리보다는 더욱 민감하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어, 한반도 ‘해방’의 의미, 즉 식민지 지배 종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패전에 임하는 총독부의 식민지 인식 상황은 8월 15일부로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이름으로 발표한 다음 담화문[論告]에 잘 나타나 있다.²²⁾

…… 우리 반도에서도 이때까지 군관민 협동일치, 내선일체, 철통 같은 단결 하에 전력을 증강하고 전선에서 수많은 특공 용사들을 배출했으며, 또한 다수의 지원 응소에 의하여 皇軍의 유력한 일익을 형성했다. 후방에서는 매년의 기상 불순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증산과 공출에 國策을 병행하였으며, 공장, 광산, 운수, 통신 등 각 부문에서 그 사명으로 하는 직능을 발휘하고 전력증강에 기여했다.

…… 황국 관민의 필사적인 감투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적국이 미증유의 파괴력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문화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하는 새로운 폭탄을 사용하게 되어, 이에 신민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는 聖上 폐하의 크신 마음에 따라 詔書를 발표하시기에 이르렀다. 일억 신민 넘치는 뜨거운 눈물로 목메어 통곡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개전 이래 국민들은 오로지 전쟁 완승을 향하여 생활의 노력을 집결해 왔으

22) 「終戰に際して發せられた朝鮮總督論告」(1945. 8. 15). 財團法人友邦協會, 1956, 『舊朝鮮總督府官房總務課長山名酒喜男手記,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錄(一)』, 友邦協會, 別3~別4쪽.

나, 이제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민생을 위하여 질서를 이완시키고 국민의 기개를 손상시키는 일이 우려된다.

…… 우리 신하들은 국가의 규율에 입각하여 神州 불멸의 확신 아래 자손손 만고 천황을 떠받들고 장래의 문화 건설과 道義 확정으로 세계에 모범이 될 정신적 이상국가 완성의 길에 당당히 매진하고자 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일찍이 중앙정부로부터 포츠담선언 수락 결정을 통고받은 직후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는 8월 14일에 여운형에게 회담을 제의하고 이튿날 이른 아침 회합했다. 이때 총독부는 소련군이 남한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들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따라서 민중들의 신임을 얻고 있던 여운형을 불러들여 치안유지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²³⁾ 이날 총독부 직원들은 일제히 정오에 천황의 포츠담선언 수락 방송을 청취하고 이어 앞에서 부분 인용한 총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이튿날에는 형무소에 수감 중인 사상범·정치범을 석방시키는 한편, 여운형·안재홍 등과 회합을 갖고 총독부의 치안유지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안재홍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방송국의 마이크를 통하여 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조선 인민들에게 “냉정한 지성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것은 조선인에 의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²⁴⁾ 반면에 이날 조선군관구 사령관은 ‘관내 일반 민중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를 발하고 인심교란과 치안문란에 대해서는 군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⁵⁾

그런데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예상과는 달리 해방과 함께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급격히 전개되었다. 식민지 동화정책의 상징이던 神社들이 일본인 스스로에 의해 혹은 조선인들에 의해 하나하나 파괴되어갔다. 조선인의 손에 의

23) 李景珉, 1985. 8, 「朝鮮總督府終焉期の政策」, 『思想』 第734號, 100~101쪽.

24) 李景珉, 1985. 8, 위의 글, 104~105쪽.

25) 김천영, 1984, 『연표 한국현대사』, 한울림, 3~5쪽.

해 파괴된 신사는 8월 15일 밤 평양을 필두로 하여 9월 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체 지역에 이르렀다.²⁶⁾ 이와 함께 일본인들을 둘러싼 치안 상황의 악화와 함께 소련군이 곧 서울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투어 은행예금을 인출하고 가능한 대로 귀환을 서둘렀다. 가재도구를 헐값에 내다 파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사재기하기 위하여 많은 한국인이 일본인 집에 몰려들었다. 발 빠른 일본인들은 일찍이 8월 16일부터 부산항을 비롯한 항구나 부두로 달려가 화물수송선, 범선, 어선 등 각종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 도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선박을 빌려 도항한 사람도 있었으며 상업용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청 등 관공서나 일본인 단체가 알선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²⁷⁾

일본 본국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는 달리 남한에서도 패전과 함께 귀환 쇄도가 일어나자, 총독부는 수송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8월 17일 부산지방교통국은 귀환선박 조달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식민지 시기부터 일본 본토와 한반도 사이의 연락선을 관할하고 있던 히로시마[廣島] 철도국에 선박배치를 요청했다.²⁸⁾ 이때 화물선에 의한 긴급수송 방침이 결정되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반도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27척이 귀환자들을 싣고 하카타[博多]항을 향해 부산항을 출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 한편 조선총독부 교통국 총무과장은 8월 21일에 비행기로 도쿄로 날아가 내무성·운수성과 귀환 선박 조달을 위한 교섭을 마치고 이틀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³⁰⁾ 그러나 그 교섭 결과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

이와 함께 6월에 미군 공습으로 두절되어 있던 부산과 일본 사이의 정기 연락선을 귀환자 수송 선박으로 이용하게 된다. 귀환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인용

26)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11~113쪽.

27) 若槻泰雄, 1991, 『戰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 233~235쪽.

28)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쪽.

2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123쪽.

30)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쪽.

되고 있는 일본의 후생성 자료를 비롯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자들이 하나같이 SCAP의 허가 아래 고안마루[興安丸]호가 센자키에서 부산을 향해 출항한 1945년 8월 31일, 혹은 그 배가 부산을 출발하여 센자키에 입항한 9월 2일을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귀환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월 2일을 일본인 귀환의 시점으로 잡고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9월 2일을 귀환선 운항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에는 점령당국의 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조선총독부 귀환 정책을 추진했던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필자는 식민지 시기 부관 항로의 연락선이 패전 직후 귀환용 선박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최초의 공식 귀환 선박으로 고안마루가 일찍이 1945년 8월 20일에 부산항에 입항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조선총독부 부산지방 교통국장을 역임한 다나베 다몽[田邊多聞]은 패전 당시 부산항 교통 상황에 관하여 日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는 8월 20일에 고안마루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일본인 귀환자들을 가득 싣고 출항했다고 하며, 8월 22일에는 도쿠주마루[德壽丸]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24일에 출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비록 한 차례 운행하고 중단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고안마루호와 도쿠주마루호가 SCAP의 승인 이전에 일본 당국에 의한 수송 대책에 따라서 귀환자들을 실어 날랐다. 당시 연락선을 관할해 오고 있던 히로시마[廣島] 철도국이 부산교통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SCAP의 통제 이전에 임의로 귀환 선박을 운항시킨 것이다. 다만 이때 이 선박이 어느 항구를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했는지, 부산항 입항 때에 조선인 귀환자들을 싣고 들어왔는지, 또는 일본인 귀환자들을 태우고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 선박들이 패전 때까지 대피해 있던 스사[須佐]항을 출항하여 그곳으로 귀항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31) 田邊多聞, 1976, 『終戦前後の釜山地方交通局管内事情』, 鮮交會 編, 『朝鮮交通回顧録: 終戦記録編』, 鮮交會, 252~253쪽.

또한 이처럼 패전 직후에 귀환 선박을 통해 돌아간 일본인 가운데에는 침략전쟁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패전 직후 일본군과 총독부가 비인도적 침략전쟁의 흔적을 없애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일본에 새로운 점령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관련자들을 하루빨리 일본으로 귀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위 731부대로 알려진 관동군 방역급수부의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부대장이 남긴 '1945년 8월 16일 메모'에 따르면, 부대원들을 부산에 집결시켜 가능한 한 일본에 빨리 그리고 많이 수송할 방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도쿠주마루호가 8월 22일 저녁에 부산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출항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 약명 높은 731부대원들이 이 선박을 이용하여 재빨리 귀환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³²⁾

8월 21일에 일본 大本營 해군은 SCAP의 지시에 따라 8월 24일 18시 이후로 일반 선박의 운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부산항 부두에만 2,000명 정도의 일본인 귀환자가 남아 있었고, 또한 그 후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귀환 선박 운항이 재개되는 8월 31일 시점에는 11,000명 정도가 대기함으로써 부산항이 대혼잡을 이루게 되었다.³³⁾ 일본 본국정부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귀환쇄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총독부는 본국정부에게 한반도 일본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고 적절한 수송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일찍이 총독부 교통국장은 8월 29일 현재 귀환쇄도 상황을 보고하는 서한을 내무성 관리국장에게 전보로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조선, 만주 재주 일본인 가운데 귀환하고자 하는 자의 조선 내 실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각 지점으로 귀환 쇄도한 자, 부산 약 1만 명, 대구 약 4천 명, 대전

32) 山陽新聞, 2006. 7. 21日付.

33) 田邊多聞, 1976, 앞의 글, 252~253쪽.

34) 朝鮮交通局長, 「管理局長殿電報譯文」(1945. 9. 6) [일본외교문서 제16회 공개분, Reel no. K'0003,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雜件: 國內受入體制の整備關係, 輸送關係」].

약 4천 명, 서울 약 1만 5천 명, 평양과 그 부근 약 4만 명, 신의주 약 3만 명, 계 10만 3천 명.

- ② 밤낮 귀환자는 만주, 북중국, 북조선의 전제자들이며 맨몸으로 도망쳐 가급적 속히 內地로 송환되기를 원하고 있다.
- ③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군 진주에 따라 치안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지방 재류자 등은 각각 도보로 남쪽으로 피난해 오고 있으므로 역시 속히 내지 송환을 요망함.

일본정부가 지속적으로 마닐라의 연합국군사령부에 대해 귀환선의 운항 재개를 요청한 결과, 8월 31일 고안마루호가 센자키에서 조선인 귀환자들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일본인 귀환자들을 싣고 9월 2일에 센자키로 출항했다. 이어서 도쿠즈마루호는 9월 2일 시모노세키에서 조선인 귀환자들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일본인 귀환자들을 싣고 9월 3일에 하카타로 출항했다. 이렇게 하여 일본 패전 이후 일반 귀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송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이때의 정확한 승선인원 정보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고안마루호를 주제로 하여 논픽션 소설을 기록은 모리시타 겐[森下研]은 대략 7,500명 정도의 일본인 귀환자를 태우고 부산항을 출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⁵⁾ 한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도쿠즈마루호는 9월 2일 일본인 군인·군속 2,552명, 일반인 16명을 싣고 부산항을 떠나 이튿날 아침에 하카타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⁶⁾

9월 8일 미군이 인천 월미도에 상륙하고 그 이튿날 아침 서울에 진주했다. 조선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진주한 ‘해방군’은 용산에 있던 일본군 육군부대를 접수하고 차례차례 일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남한의 치안유지에 관여해 오던 일본군이 철수해 감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³⁷⁾ 한반도를 떠나는 일본군의 애석하고 비통한 심정

35) 森下研, 1987, 『興安丸33年の航跡』, 新潮社, 119~120쪽.

36) 引揚援護廳長官官房總務課記錄係 編, 1950, 『引揚援護の記録』, 引揚援護廳, 附錄年表, 2쪽;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3쪽.

37) 9월 9일 오후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일본군 육해공군 지휘관과 조선 총독의 항복

을 표현한 것으로 일본군 참모장이 일본인 世話會 회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남기를 염원하지만 우선 떠나야 하는 운명이 지극히 탄식할 일이며, 귀하와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차가운 한강물을 바라보며 남산을 뒤돌아보면서 떠나는 비통함, 50년 만에 단 한 차례 겪는 한탄스런 일입니다.”³⁸⁾

한반도의 치안 악화에 따라 일본인들의 귀환이 붓물 터지듯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예금 인출도 급증하게 되었다. 8월 16일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예금을 인출하려는 일본인들이 긴 행렬을 이루었다. 조선은행권 화폐가 바닥이 날 것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일찍 문을 닫아버렸다. 여기에다가 각 지방관청에서 현금을 요구하고 관공서와 기업들이 귀환에 앞서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불하게 되면서 조선은행권과 은행송금 수표의 남발을 부추겼다.³⁹⁾

해방 직후 군정청이 들어서기까지 총독부가 행정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조선은행권 화폐를 남발함으로써 남한에 물가 앙등을 초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 표는 모스코비츠(Karl Moskowitz)의 연구 『식민지 조선은행의 종업원들(The employees of Japanese banks in colonial Korea)』에서 인용한 것으로, 1945년의 조선은행권 유통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⁴⁰⁾ 조선은행이 군정청에 접수되는 9월 30일 당시,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86억 8천만 원이었으며 이는 1년 사이에 64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었다. 특히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반 사이에 38억 4천만 원이나 초과 발행되었다. 이러한 화폐 남발은 일본군 소집해제와 관공서·회사 등의 해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문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38)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275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殘らんと念願せしもの, まず去るべからざる運命, 詠嘆の至りにして, かつまた, 貴下御一統に相すまぬ次第, 何とぞ御了承下されたく, 漢水ひややかなるを眺めつつ南山をふり返りつつ去る悲痛, 五十年ただ一回の恨事に御座候.”

3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14~116쪽.

40) カール・モスコビッチ, 1986,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の銀行の従業員達』, 殖銀行友會, 196~197쪽.

경비 지출이 많았던 것과 일본인 귀환자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했던 것에 기인한다.⁴¹⁾ 총독부는 예금 인출과 일본 송금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⁴²⁾ 스스로 방만한 終戰 사무처리를 행함으로써 해방된 남한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으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이다.

일본 본국정부가 8월 24일 SCAP의 요청에 따라 점령당국과 일본정부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중전연락중앙사무국'을 설치했던 것과 같이, 조선총독부는 8월 27일 '중전사무처리본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하부부서로서 총무

〈1945년 조선은행권 유통 상황〉

월별	유통량 (1,000円)	지수 (1945년 1월 기준)
1	3,245,558	100.0
2	3,410,368	105.1
3	3,574,418	110.1
4	3,879,945	119.5
5	4,049,834	124.8
6	4,376,970	134.9
7	4,698,220	144.8
8	7,987,790	246.1
9	8,680,198	267.4
10	8,797,893	271.1
11	8,625,868	265.8
12	8,763,340	270.0

41) 多田井喜生, 2002, 『朝鮮銀行：ある円通貨圏の興亡』, PHP研究所, 230~232쪽. 이 기간 중에 예금 총액이 대체로 25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7억 원 정도가 일본 본토로 송금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국고보조금 지출 초과액이 12억 원, 융자명령에 의한 대출과 일반대출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財團法人友邦協會, 1956, 앞의 책, 21쪽.

42) 朝鮮銀行史編纂委員會, 1979, 『終戰前後の朝鮮銀行』,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戰の記録：資料編』第一卷, 巖南堂書店, 209쪽.

부, 절충부, 정리부, 보호부를 두었다. 이 가운데 보호부는 ‘일본인의 일본귀환준비’, ‘잔류일본인의 단체조직’, ‘기타 개인과 법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총재 총독부 농상공장이던 시라이시 고지로[白石光治郎]를 부장으로 하여 조직되었다.⁴³⁾ 이에 따라 보호부가 일본인 귀환업무에 관한 주무부서가 되었으며 열차나 선박의 운행 통제와 피난민 수용소의 운영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다. 보호부는 당초 존속기간을 1년으로 예정하고 10개월 동안에 걸쳐 한반도 거주 일본인 65만 명과 만주와 중국북부 거주자 130만 명을 송환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28,805,600원의 예산을 책정하기까지 했다.⁴⁴⁾

한편 일본인 귀환자들의 수송을 위하여 총독부 교통국은 귀환 열차를 지정했다. 처음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오전 6시 50분발 경부선 하행선 열차를 귀환 열차로 배정했으며, 9월 10일에는 여기에 오전 10시발 열차를 추가하여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귀환 열차로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하루에 2대씩 배정했으며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1대씩 배정했다.⁴⁵⁾ 이와 함께 총독부는 보호부의 관할 아래 안내소를 설치하고 귀환자 수송과 원호업무를 담당하게 했다.⁴⁶⁾ 안내소에서는 귀환 열차와 귀환 선박을 타려는 일본인에게 특별수송 승차승선 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이 증명서에 탑승할 열차와 선박을 지정했다. 증명서를 교부하는데 있어서 전쟁피난민·일반부녀자·총독부 직원 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일반인에게는 구청 등의 관공서를 통해 신청 순으로 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점점 전쟁피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교부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가지고 갈 짐으로는 한 사람 당 2개의 탁

43) 原田大六, 1979, 「終戦に伴う引揚事務處理」,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第一卷, 巖南堂書店, 146~147쪽.

44) 原田大六, 1979, 위의 글, 148~152쪽.

45)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쪽.

46) 총독부에서는 안내소(소장)로 서울(山村正輔)·부산(一杉藤平)·대전(堤平太郎)·대구(水野薫)·전주(小泉弘)·광주(木下麟太郎)·여수(田所榮)·시모노세키(竹内俊平) 등 8개소를 설치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부산·시모노세키 안내소만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시모노세키 안내소는 나중에 센자키로 이전했다. 原田大六, 1979, 앞의 글, 147쪽.

송화물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부산에서 배에 신지 못했으며 9월 14일 이후에는 군정당국의 명령으로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았다.⁴⁷⁾

서울과 부산의 안내소는 당초에 일본인 학교만을 귀환자 수용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을 초과하여 밀려드는 귀환자들로 인하여 8월 말부터는 교육시설을 접수하여 수용했으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종교시설까지 수용시설로 활용했다.⁴⁸⁾ 부산안내소는 귀환자 수용시설로서 부산역 앞에 있던 마스라오관을 비롯하여, 제3국민학교·제7국민학교·공회당·삼도여고·부산중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했다. 9월 들어 귀환자 수송선이 모자라는 가운데 이러한 시설로도 모자라 예전에 세관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하여 수용시설로 사용하였으며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서울에 요청하여 밀가루와 쌀을 지원받기도 했다.⁴⁹⁾

9월 하순에 미군 군정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중전사무처리본부'의 보조부는 해체되었으며 안내소의 업무도 10월에 들어 일본인사회화에게 인계되었다.⁵⁰⁾ 미군정은 10월 16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계획수송을 개시하고 소형 機帆船을 통해 몰래 일본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⁵¹⁾

47)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쪽.

48) 原田大六, 1979, 앞의 글, 153쪽.

49) 原田大六, 1979, 앞의 글, 154쪽.

50) 최영호, 2003, 9,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호, 21~22쪽.

51) 森田芳夫, 1953, 「解放の嵐の中に：朝鮮引揚史 その二」, 『秘録大東亞戰史(朝鮮編)』, 富士書苑, 33쪽.

Ⅲ. 일본인세화회 결성과 귀환 원호

194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에서는 총독과 정무총감이 재경일본인 가운데 유력인사를 불러들여 패전 정국에 대한 설명을 행하고 일본인 사회의 자구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경성전기회사 사장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조선섬유산업회사 사장 유무라 신지로[湯村辰二郎], 조선농지개발영단 이사장 와타나베 시노부[渡邊忍]와 함께 지난날 조선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한 히토미 지로[人見二郎] 등이 참석했다. 총독부는 총독부 스스로의 조직력 약화와 함께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를 앞두고 조선군도 치안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결국 일본인의 보호와 치안 확보를 일본인 스스로가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전달했다.⁵²⁾ 이를 계기로 하여 재경 일본인들은 자생적인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이쥬인 가네오[伊集院兼雄]의 권유와 알선으로 8월 18일 경성전기회사 사장실에서 소수 재경일본인 유지들이 회합하여 일본인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으며 8월 20일에 소공동[長谷川町]에 있던 경기도상공경제회에서 ‘京城內地人世和會’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족했다. 사무실은 상공경제회 건물 내에 두었으며 초대 회장에는 호즈미가 결정되었다. 호즈미는 1914년에 조선총독부에 들어가 28년 동안 관료생활을 했으며 拓産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1943년에 경성전기회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조선상공경제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인사들과 널리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총독부와도 인맥을 널리 유지하고 있었다.⁵³⁾

세화회는 8월 25일 제정된 규약의 제2조에서 명시한 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사이의 상호 연락과 협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총독

52)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2~133쪽.

53)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3쪽.

부의 지도 아래 일본인에 관한 업무와 사무에 대하여 협력하고 상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발족 당시 발표한 취지문[趣意書]은 “우리는 급변하는 시기를 맞아 承詔必謹하며 충성된 신하로서의 성의를 바침과 동시에 大國民으로서 襟度を 보여야 한다. 특히 다가올 새로운 조선을 위해서는 좋은 협력자로서 영광된 발전에 전폭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각자 침착하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⁵⁴⁾ 이는 당시 서울에 있던 일본인 유지들이 식민지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 변화를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패전 직후 한반도 특히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부분이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서로 전쟁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패전’이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세력으로서 군림해 왔다는 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⁵⁵⁾

서울에서 세화회가 결성된 것이 알려지고 총독부가 지방기관을 통해 이를 권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세화회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처음에는 ‘내지인’ 세화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일본인’ 세화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내지인’, ‘조선인’의 구별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⁵⁶⁾ 즉 이러한 명칭 변경은 일본인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한반도의 해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의 세화회에서는 한반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그룹과 일본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 패전 당시에는 대체로 많은 일본인이 한반도에 잔류하기를 희망했으며

5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7쪽. 취지문의 초안은 경성일보 기자 安井俊雄이 작성했으며 초안 그대로 발기인 모임에서 통과되었다.

55)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1999,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別冊)』,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3쪽.

56)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1993,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Ⅰ)』,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215쪽.

잔류 일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류민단을 예상하고 세화회를 결성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오랜 거주 경험과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세화회의 대표자로 선정되었다.⁵⁷⁾

서울의 세화회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귀환에 관한 정보의 발신지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45년 9월 2일부터 1946년 2월 1일(123호)까지 「회보」를 발행했으며 2월 6일에는 마지막 귀환 열차 안에서 「회보」(이동회보)를 발행하여 열차 안에 있는 귀환자들에게 회람시켰다. 「회보」는 귀환과 관련한 군정청의 포고문을 비롯하여, 귀환자 주의 사항, 귀환집결지 안내, 일본의 귀환자 접수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실고 있어 일본인 귀환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자료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둘째는, 일본인 자제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 패전과 함께 다수의 일본인 교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자 이들에게 일거리를 부여하고자 하여 8월 하순부터 경성사범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어린이를 위한 교습소 설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⁵⁸⁾ 9월 14일에 서울 명동[明治町]에 있던 三浦병원 건물에 교습소(明治塾)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각지에 산발적으로 교습소를 개설하고 아동 교육을 지원했다. 세화회에서는 10월 19일 당시 10개의 교습소에 총 61명의 교사와 총 90명의 피교육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군정청에 의한 계획 수송이 시작되면서 교사와 아동이 점차 줄어들게 되자 교습소도 점차 폐쇄되었으며 집단 귀환이 끝나는 시점인 이듬해 2월 초

57)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46쪽. 今村勳은 지방 세화회의 幹事들은 거의 한반도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1993, 앞의 책, 215쪽.

58)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 이과교원양성소 교수였던 渡部學은 9월 하순부터 교습소 운영을 지도하게 된다. 그와 함께 교습소 운영에 참여했던 宮內俊一은 패전 직후 일본인 학생들이 학도단을 형성하고 교습소 교육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渡部學, 2002, 「終戰後に於ける京城日本人學徒の教育營爲」, 加藤聖文 編, 『海外引揚關係史料集成(國外篇)』 第18卷, 137~178쪽; 宮內俊一, 2002, 「京城に於ける塾教育」, 加藤聖文 編, 『海外引揚關係史料集成(國外篇)』 第18卷, 179~185쪽.

에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던 교습소(護國塾)도 폐쇄되기에 이르렀다.⁵⁹⁾

셋째는, 형편이 어려운 일본인 귀환자들을 위하여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8월 하순에 세화회 사업부에 의료과를 설치하고 사무실에 의약품을 비치했다. 이어 9월 21일에는 귀환자 원호를 위한 전용병원 설립을 결정하고 회현동[廻町]에 있던 小林병원을 접수하여 10월 1일에 '이재민구제병원'을 개원했다. 이 병원은 일본인 이재민에 대해서는 무료치료를 실시했으며 지불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약값을 실비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⁰⁾ 일본인 의사와 의대생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북한지방에서 피난해 오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귀환을 대기하는 일본인들에게 의료 활동을 실시하였는데,⁶¹⁾ 세화회는 이들에 대해 의약품을 지원하고 귀환자들을 수용소와 귀환역에 안내하고 원호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⁶²⁾

운영과 원호활동을 위한 예산 충당을 위하여 세화회는 설립 초기부터 모금을 실시했다. 8월과 9월에 걸쳐 초기에 총독부와 '중전사무처리본부', '조선금융단', '조선식량협회' 등으로부터 1,700만 엔 가량의 기금을 모았다.⁶³⁾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 행위는 군정청이 법령2호를 통해 규정한 공공단체의 현금 유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찰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1월에 기부금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151,500엔만을 반환을 요청한 단체

59)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316~320쪽.

60)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320~321쪽.

61) 광복 직후 서울에서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귀환자들을 위한 의료 활동이 발단이 되어 서울, 부산, 후쿠오카를 잇는 귀환자 의료원호 활동으로 확대해 갔다. 1980, 木村秀明, 『ある戦後史の序章』, 西日本圖書館コンサルタンツ協會, 16~81쪽.

62) 일본인세화회의 원호부에서 서무과장을 담당한 竹島和雄은 1946년 3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서 남하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호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竹島和雄, 2002, 「京城日本人世話會の援護活動の概況」, 加藤聖文 編, 『海外引揚關係史料集成(國外篇)』第18卷, 75~136쪽. 또한 세화회 원호부에서 숙박알선 업무를 담당했던 伊藤明은 자서전에서 일본인세화회 활동을 전하고 있다. 伊藤明, 1998, 『幾山河(自分史)』, 264~272쪽.

63)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315쪽.

에게 되돌려 주었다.⁶⁴⁾

여기에 11월부터 군정청이 예산을 관리함에 따라 세화회는 그때까지 풍부하게 사용해 오던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궁핍해진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책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SCAP와 군정청은 허가하지 않았으며 대신 군정청이 직접 원호금과 구호물품을 지급했다.⁶⁵⁾ 이것으로는 자금이 모자라자 세화회에서는 잔류 일본인들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고 나중에 일본에 귀환한 후에 갚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⁶⁶⁾

IV. 귀환자 수기 속의 식민지 인식

일본 패전 직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귀환자들이 본국에 귀환하고 나서 기억을 기록하고 정리한 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귀환 직후에 일찍 발표한 대표적인 체험 기록으로,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 수기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를 들 수 있다. 후지와라는 만주 거주 일본인으로 소련군 참전 이후부터 한반도를 거쳐 귀환해 가는 자신의 생생한 체험들을 일찍이 1949년에 책으로 출판했다. 이 책은 일본인 귀환자 수기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고 있으며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⁶⁷⁾ 다만 이 책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나 해방 후 조선인의 모습이 그다지 그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귀환 과정에서 체험한 性的인 긴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겪은

6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552~553쪽.

65)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553~556쪽.

66)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973~977쪽.

67) 藤原てい, 1949,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日比谷出版社; 후지와라 데이, 2003,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 청미래.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짧잡게’ 묘사하고 있다.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가 평가한 바와 같이, 이 수기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사히 가족을 데리고 귀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나중에 자신의 귀환 체험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또한 1953년에 후지서원[富士書苑]에서 발행한 회고록집 『秘錄大東亞戰史, 조선편』에는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종결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38도선을 넘기까지의 고난 체험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총 16편의 회고록 가운데 맨 앞부분 6편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가 채우고 있으며 이 기록들이 나중에 1964년에 출간되는 그의 저서 『조선전쟁의 기록』 일부편이 되었다. 모리타를 제외한 나머지 수기들은 대체로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패전 후 ‘천국에서 지옥으로’ 전락해 버린 일본인들의 신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북한 지역 일본인의 고난의 귀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 전반에 걸쳐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지옥’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은 앞에서 소개한 후지와라의 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후지서원의 회고록집 가운데 모리타의 수기에서 유일하게 과거 식민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⁶⁹⁾ 그는 1946년 3월 말 일본으로 귀환하기 전날 조선인 친구와 서울 거리를 거닐면서 나누는 대화를 인용하며 식민지 역사를 돌이켜 기록하고 있다. 그의 친구 韓씨는 “일본인은 패전으로 정말 불쌍하게 되었지만 조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일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조선을 침략해 올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조선인 가운데 일본인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을 정도로 식민지 지배의 가혹함을 나타낸 표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구의 말에 대해, 모리타는 “또 다시 일본인이 조선에 오겠지만, 그때에는 지금까지처럼 지

68) 成田龍一, 2006, 앞의 글, 184~186쪽.

69) 『秘錄大東亞戰史, 朝鮮篇』(1953), 富士書苑, 120~121쪽.

배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원하는 민족으로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과거 양국의 역사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引揚)한 것을 세 차례라고 하고, 첫째 신라의 민족통일 시기 한반도를 포기한 것, 둘째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의 출격과 조선인 반항으로 한반도를 떠난 것, 그리고 셋째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의 귀환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일본인 귀환의 역사는 “**조선지배의 슬픈 종언의 역사다. 우리 일본인 귀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환의 고투로 그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라고 기록했다. 그는 ‘과거 세 차례에 걸친 **덧없는 진출과 패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일본 민족의 의지가 어떻게 동아시아에 묘사되어야 하는지, 이런 과제를 귀환의 역사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라고 끝맺고 있다. 비교적 짧은 언급 가운데 나타난 그의 식민지 지배에 인식을 살펴보면, 식민지 지배의 ‘침략’이나 ‘억압’의 뉘앙스는 찾아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덧없는 지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퇴로 인한 귀환으로 식민지 지배가 슬프게 끝나고 있다는 인식이다. 모리타의 조선 인식이나 평화 인식에는 피식민지 사람이 겪은 억압과 슬픔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배자 일본인 중심의 인식만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귀환이 완료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간된 기록이다. 그 이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귀환자의 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의 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다만 귀환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작성된 기록에서는 일본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록자의 학습으로 귀환 당시와는 다른 식민지 지배 인식이 표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소개한 나라타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후 귀환자 수기의 흐름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겠지만, 가능한 한 귀환 당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의 견지에서는, 나중에 쓰인 수기나 회고록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성 있는 귀환 기록으로서, 여기서는 근래에 들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큰 화제를 끌고 있는 가와시마 요코[Yoko Kawashima Watkins]가 1986년에 쓴 재조일본인 귀환 관련 소설 『요코 이야기』⁷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수기 소설이 미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필독 도서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교포사회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1990년대 부터 여러 학교에서 영어 수업의 문장(literature) 과목 필독서로 사용해 오던 이 책을 보스턴의 한 중학교가 사용하게 되면서 이를 알게 된 일부 재미 한국 동포들이 책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한국의 언론이 뒤늦게 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에서 살던 만주국 고위 관료의 딸 요코가 전쟁 말기 북한을 빠져나와 서울과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과정을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에 관한 실화라고 전제하고 나이 어린 소녀가 전쟁으로 인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족(모친과 언니)과 함께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겪게 되는 역경과 가족애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쟁의 비참함과 인간승리 혹은 휴머니즘의 고귀함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저자는 이 책이 필독서로 채택되면서 각 학교를 다니면서 특강과 토론회를 통하여 '평화'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널리 알려진 대로 지나칠 정도로 전쟁 말기 혹은 해방 직후 조선인에 의한 일본인 강간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중학생의 필독서로 채택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학생들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폭력의 성격이 매우 강렬한 가운데, 치안이 확보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사태에 관한 구조적인 이해가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자칫 조선인은 성적 가해자, 일본인은 피해자라는 이분법 논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책은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적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嫌韓을 부추기는 일부 일본인들이 이 책의 내용을 들어 오늘날 한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반인권적 실상에 대한 보도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요코 이야기』가 실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서

70)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 2005, 『요코 이야기』, 문학동네.

는 아니다. 또한 작가의 기억이라는 것도 주관적 체험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 나아가 읽을거리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어 재구성하는 것으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서 몇 가지 제시한 자료들에 비해서도 20년 전의 체험을 기록한 『요코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로서의 속성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요코 이야기』의 저자가 귀환하는 시기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통치권이 사실상 종결되는 시점으로 사회적으로 질서가 극도로 흐트러진 상태에서 많은 일본인이 피해를 당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비하면 이남 지역의 일본인들은 보다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다. 1945년 7월부터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피난 이동이 빈번해졌으며, 8월 9일에 소련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이후로는 북한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점령체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자행된 소련군과 조선인 보안대의 성적 만행은 일본인 귀환자들의 체험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귀환자들의 수기에서 대체로 남한 지역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폭력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 요코가 목격했다고 하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성폭행 장면은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의 체험에 의한 트라우마(trauma)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요코가 기억하는 1945년 8월 말 9월 초의 서울과 부산에는 일본군의 치안통제력이 미약했고, 일본인사회회도 조직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지각한 조선인이 해방감에 사로잡혀 나약한 일본인 여성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요코 이야기』의 문제점으로 일부 내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요코의 부모가 일본의 진주만 공격 결정을 비판했다는 것이나, 아들의 학도병 지원에 분노하면서 “아들을 잃는 것보다 일본이 지는 걸 보는 편이 낫다”고 외쳤다⁷¹⁾는 내용은 전쟁 시기에 있

71)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 2005, 위의 책, 40쪽.

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가 한국어 번역자 윤현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자의 부친이 총독 초청의 만찬에서 창씨개명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가 6개월 동안 도쿄[東京] 감옥에서 징역을 살았다고 했다⁷²⁾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민지 고관 가족이 귀환 열차로 귀향하다가 자녀의 교육만을 위해 전혀 인연도 없는 교토[京都]에 도중 하차하여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설정은 수기 기록으로서의 신빙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V. 세화회 「회보」에 나타나는 식민지 인식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민지 인식을 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당시 자료로는 일본인세화회의 「회보」가 유일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귀환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인 자신들의 소식지로서 일차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일본의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이 1990년대에 들어 귀환 자료에 관한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귀환자와 역류자 기록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가운데, 「회보」 전체를 복각하여 별책 자료집으로서 출판했다. 히야마[檜山幸夫]는 자료집 서문에서 「회보」 전체의 내용과 의의에 관하여 해설하는 가운데, 「회보」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⁷³⁾

기사 내용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이겠으나, 귀환 관련 기사가 단연코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부나 기증 관계, 그리고 피난민 원호 구제 관련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귀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회보」가 전반적으로 거의 귀환자들을 위한 정보로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사 종류에서도 귀환자들을 위한 정보로 안내, 고시, 정보제공이 많았다. 히야마는 「회보」를

72)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 2005, 앞의 책, 293쪽.

73)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1999, 앞의 책, 4~6쪽.

〈표 1〉 세화회 「회보」의 내용과 분류

내 용			분 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일본인론	33	3.6	논설	97	10.5	
국가재건	12	1.3	해설	35	3.8	
귀환	280	30.4	안내	202	22.0	
본토 사정	24	2.6	고시	196	21.3	
상호 부조	10	1.1	정보제공	182	19.8	
재산	25	2.7	담화	7	0.8	
沈靜化	7	0.8	기부	33	3.6	
피난민 원호 구제	133	14.5	호소	53	5.8	
기부, 기증 기타	159	17.3	모집	9	1.0	
미군	94	10.2	구인	8	0.9	
조선 재건	14	1.5	사람 찾기	9	1.0	
세화회 활동	기구와 조직	52	5.7	게시	2	0.2
	학도대 위문단	23	2.5	등록	21	2.3
	어학 강습	54	5.9	오키나와	2	0.2
합계	920	100.0	조선어	4	0.4	
			영어	50	5.4	
			소련	1	0.1	
			기타	9	1.0	
			합계	920	100.0	

읽고 난 소감으로 “예전에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가운데는 거류민으로서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서, 식민지 조선과 전쟁한 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등 식민지 통치자였던 일본인이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도 했다”라고 하며 온건하게 귀환 일본인들의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⁷⁴⁾ 히야마는 전체를 조망하는 입장에서 정태적으로 「회보」를 분석하는 데 반하여, 필자는 시기를 따라 그 기사 내용의 논조가 어떻게 바뀌

74)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1999, 앞의 책, 3쪽.

어 가는지 다이내믹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세화회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들이 귀환 당시에 식민지 인식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가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회보」 속에 나타나는 인식의 문제에서 그 한계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시기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놓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들은 갑작스런 패전이 가져온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공포심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감에 들며 있는 한국사회에서 「회보」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조선인들의 행태와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지극히 조심스러운 논조로 기사들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_ '잔류' 희망에서 '귀환' 현실로

우선 「회보」의 기사 내용의 중심적인 방향이 '잔류'에서 '귀환'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성 당시 세화회의 조직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회보」는 애초 '잔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여 만들어진 기관지였다. 식민지 지배자이던 일본인들이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에 '잔류'하여 조선인과 우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훌륭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한 조선인의 콤플렉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보」 제1호 가운데 「발간사」에서 발행인은 일본인들이 냉정침착, 질서정연하게 한반도의 신질서에 협력 공헌할 수 있다면 발행의 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⁷⁵⁾ 처음부터 끝까지 「회보」 발행에 관여했던 이마무라[今村勳]는 그의 회고록을 통하

75) 「發刊の辭」, 『京城內地人世話會會報』第1號(1945. 9. 2).

여 세화회 임원들은 대부분 패전 직후 한반도에 남아 '민단'과 같은 일본인 권익 옹호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⁷⁶⁾

「회보」 기사 가운데 '잔류' 의식을 나타낸 부분을 살펴보자.

제2호 “세화회는 조선에 남아서 동포끼리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친구 조선의 발전에 협력하고자 하는 内地人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⁷⁷⁾

제3호 “세화회는 서울 기독교청년회와 공동 주최로 금후 조선에 남아서 신조선에 협력할 사람들을 위하여 조선어 강습회를 열기로 했다.”⁷⁸⁾ “남을 수 있게 되던 한 명이라도 많이 남자.”⁷⁹⁾

제4호 “内地에 돌아가면 외지에 있는 것과 달리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내지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일본인 가운데 많은 것 같은데, 내지도 미군에게 점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⁸⁰⁾

제5호 “이제부터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넘어가야 하지만, 조선에 재주하고 있는 사람은 특히 요즈음 변화해 가고 있는 일본인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생활을 위해 다시 발족해야 한다.”⁸¹⁾ 이 기사는 귀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반성하고 세화회에 결집하지는 호소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제8호 “7천만 동포와 같이 언제나 '신생 조선'에 협력하여 이 정든 조선을 위해 한 팔을 걷고 적극 동양평화의 일익을 담당하기에 노력하지 않겠는가.”⁸²⁾

76)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1999, 앞의 책, 215쪽; 今村勳, 1981, 『私の敗戦日記京城六カ月』, 日の丸印刷, 140~141쪽.

77) 「捨賣りはよそう, 世話會の仕事」,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 第2號(1945. 9. 3).

78) 「世話會からのお知らせ, 朝鮮語講習會」,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 第3號(1945. 9. 4).

79) 「引揚げはしかり落着いて順番を待たう」,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 第3號(1945. 9. 4).

80) 「私達は滿州へ歸ります, 三万の滿鐵社員家族」,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 第4號(1945. 9. 5).

81) 「新らしい日本人の立場, 自治精神の體得が肝要」,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 第5號(1945. 9. 7).

82) 「新生朝鮮のため頑張れ」,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 第8號(1945. 9. 10).

제11호 “관공서 과장님이라도 도로 공사관 인부가 되어야 하는 정도의 격심한 운명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두뇌는 진정으로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닌가.”⁸³⁾

제12호가 발행되는 1945년 9월 14일 기사에서부터 ‘잔류’를 촉구하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귀환’ 쪽으로 몰리는 일본인 동향의 현실을 「회보」 기자들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16호의 일부 기사에서 “아무래도 귀국해야만 한다면 일본인다운 출발을 하여…….”⁸⁴⁾라고 하고 있어, 아직도 귀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으며, 제19호에서 일본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손을 잡고 왔던 조선인 제군은 독립이라고 하는 빛나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것을 우선 경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건설적 의견과 기술을 제공하라”⁸⁵⁾라고 함으로써 ‘잔류’의 뉘앙스를 약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 이후에는 ‘잔류’에 관한 기사는 나오지 않으며 오로지 ‘귀환’을 위한 정보만을 발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화회 임원이나 「회보」 기자들이 모두 9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잔류’에 대한 희망을 단념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패전의 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직도 귀환해 가기를 주저하는 일부 일본인을 향해, 「회보」는 발행 초기에 내세웠던 논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잔류’를 비난하고 ‘귀환’을 촉구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어떻게 해서든 남아 있고 싶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모든 사정을 버리고 국제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여 귀환해 가야 한다. 조선의 건국을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의향을 깊이 이해한다면 조선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일본인은 당연히 귀환해야 한다. 무언가 이유를 붙여 잔류하려고 하는 것은 사내담지 못하다. 일본인담지 않다.”⁸⁶⁾ 그리고 1946년 1월 하순의 「회보」는 일본인임을 속이고 적당히 한반도

83) 「混亂にも動せぬ精神」, 『京城内地人世話會會報』第11號(1945. 9. 13).

84) 「清楚端麗の日本人たれ」,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16號(1945. 9. 18).

85) 「日本人の心得」,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19號(1945. 9. 25).

86) 「日本人よ、歸れ祖國に!」,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93號(1945. 12. 24).

에 '잔류'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을 비난하고 당당하게 일본입임을 밝히고 국제적 요청에 따라 귀환해 가자고 촉구했다.⁸⁷⁾

2_ 식민지 과거에 대한 인식

1945년 9월 하순 이후 질서 있는 '귀환'을 촉구하는 기사와 북한 지역에서 넘어오는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원호와 귀환 양보를 촉구하는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는 북한에서 남하하여 귀환하는 피난 일본인에 관한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미군 진주 이후 남한 사회에서 일본인에 대한 배척이 당연시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받아들여 미군정 당국이 모든 일본인의 귀환을 계획하는 가운데, 세화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은 물론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서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들을 생각해서 함부로 식민지 인식에 관한 솔직한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일본인의 식민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회보」 기사 내용 가운데 식민지 과거와 '해방'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문구들을 그 성격별로 구분하여 발췌한 것이다.

첫째는 과거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는 형태의 표현으로, 마치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함께 하며 생활해 왔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면 패전 한 달이 지난 시기에 발행된 제30호에서 “30여 년 같은 집에서 살며 생활해 오다보니 서로 적응이 되어 서로의 결점도 가득 눈에 들어오고 지나침과 모자람 그대로 행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30여 년간 한술밥을 같이 먹은 동포인 것이다. 그런 동포가 이제 分家를 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출발에 대해 서로 모든 구실을 빼고 우정을 가장 높은 신조로 하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발을 내딛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⁸⁾라고 언급된

87) 「國籍を明らかにして國際的要請に應へん」,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117號(1946. 1. 25).

88) 「理屈抜き之友情」,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13號(1945. 9. 15).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회보」 마지막 호(제123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인들의 해방과 국가건설 움직임에 대하여, 기자는 “지금까지 함께 걸 어온 자로서 어쩐지 축하하고자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으며 건국을 축하한다”⁸⁹⁾라고 표현하고 있다.

둘째는 식민지 시기의 시절과 山河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으로,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도외시하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빌려 덮어두고자 하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길게는 40년간 또는 50년간 적응하며 살아온 곳을 떠나가는 최후의 항구(부산)의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하고 싶다”⁹⁰⁾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그리고 “귀국을 서두르는 마음에 한번쯤 조선 가을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자. 日鮮의 국제적 사색은 이러한 점에서도 시작된다. 이윽고 덕수궁 국화들도 향기를 품으며 피어날 것이다”⁹¹⁾ 라고 하는 기사 내용도 있다.

셋째는 식민지 시기가 어떠했던 간에 이제는 서로 다른 외국인이 되었다는, 과거와 결별하고자 하는 인식이다. “여전히 종래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긴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이제 조선과 일본은 국제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⁹²⁾ 또한 본국으로 귀환하는 자에게 “과거 식민지 시기 좋았던 취직” 생각을 버리고 실업을 면하라고 권고하는 기사⁹³⁾에서도, 식민지 시기의 취직 조건이 월등하게 유리했던 것과 이제 결별해야 한다는 표현이 보인다.

넷째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일본인은 훌륭한 경영자였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적극적인 평가는 일본에 일단 귀환한 총독부 직원이나 지식인들이 작성한 자료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지만,⁹⁴⁾ 아직 귀환을 마치지 않

89) 「さらばここにペンを擱かん」,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 第123號(1946. 2. 1).

90) 「歸國轉旋は公正親切たれ」,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 第32號(1945. 10. 11).

91) 「誠實な情熱と努力は消えない」,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 第40號(1945. 10. 19). 제123호에서도 조선의 가을을 찬양하는 문구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92) 「考へを新たにすべきである」,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 第36號(1945. 10. 15).

93) 「世界一の勤勉な國民となろう」,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 第68號(1945. 11. 24).

94) 최영호, 1998, 「현대 일본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일관계사학회,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242~244쪽.

은 일본인으로서의 조선인의 반일감정을 의식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견해이다. 그런데 「회보」 기사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폭풍우가 과수원, 농장, 광산, 공장에 불었다고 해도, 경영자들이여, 그대들이 ‘훌륭한 경영자’였다고 하는 자신을 갖고 있다면 그대들이 뿌린 씨앗들이 필시 비바람이나 눈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싹을 피울 것이다”⁹⁵⁾라는 표현이 발견된다.

다섯째는 미약하게라도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가난해도 아름다운 인정의 교류가 행하여지는 것.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왜 과거 36년간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 1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라도 양 민족이 연중행사의 하나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더라면 양 민족은 헤어지더라도 얼마나 좋은 실적과 추억을 함께 가질 수 있었을까”⁹⁶⁾하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 이러한 미약한 반성의 표현조차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비록 조선 민족을 향한 반성은 아니지만, 일본인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하는 연령에 속한父子 계층이 승전에 대한 확신도 없는 가운데 일본인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던 것을 반성하는 기사가 보인다.⁹⁷⁾

전반적으로 「회보」는 신중한 표현들로 가득한 가운데 과거 식민지 지배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는 드물다. 한편 식민지 지배를 적극 반성하는 표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반적으로 가능한 한 조선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해방된 조선인들의 마음을 적극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 일부 인용하는 바와 같이, 1945년 12월 31일에 발행된 제98호에는 1945년 한 해에 관한 세화회 기자의 소감이 잘 나타나 있다. 물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은 없는 가운데, 패전의 원통함, 조선에 대한 애정이 묘사되어 있고, 과거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자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95) 「誠實な情熱と努力は消えない」,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40號(1945. 10. 19).

96) 「同居の歴史的一頁を生かせ」,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53號(1945. 11. 6).

97) 「若返って蒔いた種を刈らねばならぬ」,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86號(1945. 12. 15).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해를 보내면서 천천히 ‘대동아지도’를 펴본다. 그만큼 광대하게 전투를 전개했던 皇軍이 검과 총, 그리고 비행기와 무기들을 모두 내던져 버렸다. 한스럽고 볼품없는 昭和 20년이며, 이제 날라가 버려라. 이날 ‘조선지도’에도 대면한다. 지금 이 땅은 36년 전 과거로 돌아갔다. 애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잃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인색한 감정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산과 강, 평야, 거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성실한 지성에서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의 얼굴, 그중에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일하며, 웃고 슬퍼하며 함께 잠을 잤던 수많은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생각하면 조선, 대만, 사할린과 헤어지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이며, 일본인이며, 세계를 상대로 하여 학생도, 여성도, 어린이도 모두 앞서 열심히 싸웠던 일을 생각하면 쓸데없이 한탄해서는 안 된다. 대동아에 것처럼 전선을 깔았던 역사적 체험을 탄식 대신 민족의 추억으로 하자. ……

이러한 기사 내용을 통해 패전 직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가운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시체제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조선과 일본의 어느 쪽에도 발을 붙이지 않은 존재로서, 점령 직후 급격하게 민주화되어 가는 일본 본토의 시대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다만 한반도의 혼란 가운데 귀환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환상에 삶의 비전을 맡기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미귀환 일본인의 시대 변화에 대한 착각 현상은 본국에서 천황이 ‘인간선언’을 하고난 직후에 발행한 『회보』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본국에 귀환하여 여전히 천황을 떠받들며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던 것이다.⁹⁸⁾

98) 『新らしき日本のよき國民たらん』, 『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第100號(1946. 1. 4).

VI. 맺음말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거주 일본인이 패전 직후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패전 직후 한반도 특히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부분이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서로 전쟁을 경험한 일이 없다는 인식 아래 ‘해방’이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일본 본토의 민주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태의연한 황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들이 과거 이 땅에서 식민지 지배 민족으로서 군림해 왔다는 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史料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패전 직후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인식에서는 차별적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고 ‘해방’이라는 시대 변화를 안일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가능한 식민지에서 거주해 온 일본인을 그대로 현지에 잔류시키려고 했던 것을 관련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경우에는 귀환쇄도 상황에 직면하는 가운데 일본정부와는 달리 귀환대책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반도에서 패퇴해 가는 일본군의 인식에서는 ‘식민지 상실’의 비통함을 역력히 드러냈다.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식민지 인식으로서는 ‘세화회’의 결성 과정을 알려주는 1차적 자료를 통해 시대 변화에 대한 그들의 안일한 인식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일본인 귀환자들이 체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기록한 귀환 직후의 회고록들은 귀환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겪은 고통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기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이해를 거의 내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화회 「회보」 기사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잔류’ 지향에서 ‘귀환’ 지향으로 의식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이들이 과거 식민지시기에 관한 인식을 기사 속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가능한 한 1차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패전 직후 귀환

해 가는 일본인들의 식민지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실증해 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세화회 임원이나 「회보」 기자의 표현이라고 하는 한정된 ‘벤즈’를 통해서 확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패전직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식민지 인식을, ①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같이했다고 보는 인식, ② 아름다운 자연을 빌려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도외시하거나 덮어두고자 하는 인식, ③ 과거가 어땠던 간에 이제는 서로 외국인이 되었다는 인식, ④ 식민지시기에 일본인이 훌륭한 경영을 했다는 인식, ⑤ 보다 나은 통치를 왜 하지 못했나 하는 반성 인식 등, 다섯 가지 형태로 파악했다. 이러한 인식 유형은 패전 직후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서도 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바라보는 틀로서 어느 정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Colonial Thoughts of Japanese in Korea during their
Repatriation

Choi, Youngho

This thesis investigates how Japanese people in Korea perceived about yesterday's colonial regime during their repatriation soon after the defeat of Japan. Writer analyzed resources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newsletters of Sewakai (Japanese Relief Society) as official reports and personal memoirs of Japanese repatriates. We can confirm the perception of Japanese people in the records which almost of Japanese did not think of Korean liberation or political change as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y did not throw off their conservative thoughts about the results of Japanese Empire toward Korean people. We can also find the perceptions of Japanese people in Sewakai's newsletters which many Japanese wanted to remain in Korea even after defeated, and they were changing their minds to repatriate into Japan as time went on.

As a remarkable outcome of this study, the writer tried to categorize the Japanese people's perception about yesterday's colonialism in Korea as following 5 types : ① Perception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was same to both Japanese and Korean people under the colonial rule. ② Perception emphasizing the beauty of Korean nature not looking after squarely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③ Perception emphasizing changed status at

that time ignoring yesterday. ④ Perception that Japanese people was good manager under the colonial regime. ⑤ Perception that regrets not having governed Korea better under the yesterday's government. We can find the articles showing such the classified perceptions in the newsletter and memoirs written by Japanese people waiting their repatriation.

keywords

Defeat of Japan, Chosun Government General, Japanese in Korea, Sewakai, remain, repatriation, perception about Colonialism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김경남 | 일본 가쿠슈인[學習院]대학 외국인특별연구원

I. 머리말

1_ 연구의 목적

근대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군인·군속을 포함해 700여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만주·중국대륙 등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따라 이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 본국으로 강제 퇴출당하였다. 조선에서는 약 80만 명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서구 제국주의와 달리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에 직접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재조선 일본인들은 조선의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그들은 정책가·자본가·지주로서 길게는 2~3대에 걸쳐 정치·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패전에 따라 귀환자, 이른바 '히키아게사[引揚者, 이하 '인양자'로 표기]'가 되어, 그들의 운명은 다

양하게 전개되었다.¹⁾ 전범으로서 사형당한 자를 비롯하여 종신형을 받은 자, BC급 전범으로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평화활동을 전개하는 자, 파산자, 미망인 등으로 변화되었다. 그중에서도 단기간 조선 거주자보다는 장기간 조선에서 기반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더욱 힘든 일본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는 냉전체제하에 있었고, 일본 사회는 대공습, 원자폭탄의 투하, 전범 재판 등으로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패전 직후의 인양자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상태였다. 이것은 일본의 자주권회복, 1960·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이르러 전환의 계기를 이루며, 1980년대에 가서야 독립행정법인 『평화기념사업 특별기금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일단락되었다.

귀환자들은 현재 어떠한 존재로 남아 있는가. 또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들은 근대시기 일본제국과 조선 식민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였으며, 그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었던 역사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귀환자에 대한 정보는 수집 중에 있으며, 귀환 후의 체계적인 역사적 사실 복원, 그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²⁾

1)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귀환에 대한 용어를 사용할 때, '引揚(ひきあげ)'이라 하고, 군인과 군속의 귀환은 '復員'을 사용한다. 인양자는 크게 일반인양자와 복원인양자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외지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종전에 따라 이른바 보따리를 지고 부모와 아이까지 인양되어 온 사람으로서,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바로 주거, 의료, 음식물이 부자유스럽고, 항상 생활의 위협을 받는다. 후자는 일본 본토에 생활 근거지가 있고 군인으로서 해외에 출정한 것이 대부분, 대체로 일본에 돌아와 일단 집이나 부모형제 또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이 점은 일반인양자의 생활상황과 달랐다. 귀환자 岡崎茂樹(동화협회 야마구치현 지부장)는, 『同和』(1949. 10. 1)에서 귀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할 때는 '引揚' 또는 '復員'이라고 하였다.

2) 귀환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대 한·일 간 과거의 역사를 맺은 당사자라는 점이다. 둘째, 그들은 조선에서 근대화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기억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귀환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귀환자들의 문제는 부정적인 역사의 면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정리·연구되어야 할 현대사회의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재조선 일본인 귀환자들의 '인양'과 정착 실태를 일본의 연합군점령기, 자주권회복기, 고도성장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일본 사회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귀환자들에 대한 일본 사회 인식과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와 현대의 한·일 간의 역사를 단절적이지 아니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귀환 일본인들의 국가적 레벨을 넘은 동아시아 역사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2_ 방법과 구성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일본인의 귀환 문제는 역사학의 학문적 대상으로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나 최근 역사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자료조사·자료집 편찬·역사학의 대상으로서의 논문 등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역사학이 관심 가지기 이전에 관계자·관계단체가 각 지역별로 『인양사』를 편찬하였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기초 문헌으로 되고 있다.³⁾ 조선에 관해서는 식민지 시

3) 패전 직후 귀환업무를 소관했던 것은 후생성의 外局인 '인양원호원'이었다. 각지의 상황이나 인양원호업무를 개요, 인양자의 통계 데이터를 정리한 최초의 간행물은 1947년 발행한 『인양원호의 기록』이다(후생성인양원호원 편·발행, 크레스 출판, 2000년 재발행). 일본 각지의 인양 원호에 관한 편찬서는 다음과 같다.

厚生省仙崎引揚援護局 編·發行, 1946, 『仙崎引揚援護局史』; 下關引揚援護局 編, 1946, 『下關引揚援護局史』; 唐津引揚援護局 編·發行, 1946, 『唐津引揚援護局』; 田邊引揚援護局 編·發行, 1946, 『局史』; 宇品引揚援護局 編·發行, 1947, 『局誌』; 宇品引揚援護局 編·發行, 大竹出張所 編·發行, 연도불명, 『援護局史』; 浦賀引揚援護局 編·發行, 연도불명, 『浦賀引揚援護局史』; 名古屋引揚援護局 編·發行, 1947, 『名古屋引揚援護局史』; 鹿兒島引揚援護局 編·發行, 1947, 『局史』; 博多引揚援護局 編, 1947, 『博多引揚援護局史』, 厚生省引揚援護院; 博多引揚援護局戶畑出張所 編·發行, 1947, 『博多引揚援護局史』; 佐世保引揚援護局情報係 編, 1949·1951, 『佐世保引揚援護局史』上·下卷, 佐世保引揚援護局發行; 函館引揚援護局 編, 1950, 『函館引揚援護局史』, 函館引揚援護局; 舊舞鶴地方引揚援護局 編, 1961, 『舞鶴地方引揚援護局史』, 厚生省引揚援護局.

기 조선의 외무부에서 활동하던 森田芳夫의 방대한 실증적 차원의 연구 집성이 있다.⁴⁾

본격적인 연구는 대체로 귀환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총독부나 군정청의 정책에 관한 연구, 귀환단체의 활동과 한일교섭에 대한 연구, 귀환자들의 일본 사회 편입에 대한 연구 등이다.⁵⁾ 이러한 연구성과에 따라, 귀환자들에 대한 재조선 일본인세화회, 조선총독부나 군정청과의 관련이 밝혀졌으며, 일본정부의 귀환 정책이나 귀환 후의 원호대책 등에 대해서도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귀환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개인의 귀환체험이 귀환기억으로서 정착하는 의식변화의 과정을 밝힌 연구,⁶⁾ 일본 사회의 국민재통합이라는 본연의 자세에서 귀환의 공적 기억을 고찰한 연구⁷⁾ 식민지 한반도 경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3가지 유형으로 단순 분류한 연구⁸⁾가 있다.

4)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戦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刊; 森田芳夫 編, 1979-1980,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제1-3권; 引揚援護廳, 1950, 『引揚援護の記録』; 厚生省援護局, 1963, 『續々引揚援護の記録』; 厚生省援護局 引揚課, 1978, 『援護30年の歩み』 등이 있다. 만주에 대해서는 滿蒙同胞援護會 編, 1962, 『滿蒙終戦史』, 河出書房新社. 樺太에 대해서는 樺太終戦史刊行會 編, 1973, 『樺太終戦史』, 全國樺太連盟. 大連引揚에 대해서는 石堂清倫, 1997, 『大連の日本人引揚の記録』, 青木書店.

5) 선재원, 2002, 「인양기업단체의 활동—전전기해외진출기업의 국내경제복귀 과정」, 『부흥기의 일본경제』, 동경대학출판회; 최영호, 2003, 3, 「해방직후 재경일본인의 일본귀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典農史論』 9; 정병욱, 2004, 「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본귀환후 활동과 한일교섭-1950,60년대 동화협회·중앙일한협회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14호; 木村健二, 2005, 「帝國と植民地 第3章 引揚者援護事業ノ推移」, 赤澤史郎·栗屋憲太郎 等, 『年報 日本現代史』 第10号; 安部安成·加藤聖文, 2004, 「“引揚ガ”という歴史の問い方(上)(下)」, 『彦根論叢』 348·349, 滋賀大學經濟學會; 노기영, 2006, 6,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6) 成田龍一, 2003, 「引揚ガに關する序章」, 『思想』 제955호, 岩波書店.

7) 安部安成·加藤聖文, 2004, 앞의 글.

8) 高崎宗司, 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첫째, 자신의 경험(행동)을 훌륭한 것이었다고 인식하는 유형, 둘째, 자신의 경험을 순진하게 그리워하는 유형, 셋째,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비판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에 따라 혹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기별,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귀환 일본인들의 일본 정착과정과 각 시기별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⁹⁾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과거사를 맺은 자들의 공동기억과 그 인식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귀환 일본인들의 인식을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¹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특정 시기의 ‘공동체험’을 통해 ‘공동기억’이 형성되는 관점과 인식이 변화되는 추이를 살펴보는 통사적 관점을 연동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인식은 처해진 국제적·국내적 존재 형태에 따라 규정되며 시기별로 변화한다. 귀환자들은 식민지·점령지에서 혹은 본국 귀환 후 각각의 시기를 거치면서 ‘공동기억’을 공유하였다. 즉 식민지 본거지에서의 삶의 경험, ‘인양’ 당시 생사를 오고갔던 긴박한 기억들, 본국 귀환 후의 박탈감으로 인한 부적응 등 격동의 사회 조건 속에서 일본 사회 내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합군 점령기(1945~1952). GHQ와 일본정부의 귀환자 정책과 인양실태, 이른바 ‘聖戰’이 ‘전쟁범죄’로 변화한 과정을 통해 귀환자들의 피해의식 형성 실태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둘째, 자주권 회복기(1952~1965). 정부와 귀환자의 ‘전범’ 석방운동과 압력단체의 형성과 활동을 통해 귀환자들이 전쟁피해자로 변화하는 과정과 한국전쟁, 분단에 따른 귀환자들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고도성장기(1965~1990). 귀환 2세로의 세대교체와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동기억’을 공유하는 실태를 검토하고, 한일회담 이후 귀환자들의 활동, 상징물의 설립 등을 통해 ‘전쟁의 최대 피해자’로 변화되는 실태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살펴보

9) 대만 인양과 전후 일본인의 대만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加藤聖文, 2003. 3, 「台灣引揚と戦後日本人の台灣觀」, 『台灣の近代と日本』, 中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10) 최영호, 2003. 3, 앞의 글, 55쪽.

고자 한다.

자료는 먼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이나 국회도서관, 學習院대학 등의 귀환자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에서 발행한 귀환자 관련 명부, 체험담, 회보, 간행물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에 있는 귀환자를 방문하여 인터뷰 채록하였다.¹¹⁾ 공식적으로 귀환정책의 공문서는 국립공문서관·외교사료관 등의 공공기관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는 학습원대학에 있는 ‘友邦文庫’를 들 수 있다. ‘友邦文庫’는 귀환자 단체인 ‘동화협회’와 후신 ‘중앙일한협회’ 등이 기증한 자료이다.

II. 연합군 점령기(1945~1952) : 귀환자 정책과 정착

1_ 패전 직후 귀환자들의 단체 결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

1945년 7월 중순 연합국 수뇌들은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단 이 선언을 묵살했으나, 히로시마(8월 6일), 나가사키(8월 9일)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이 진행되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8월 15일 항복하였다.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 전국에는 광복의 기쁨이 넘쳐났으며, 여운형은 8월 15일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건국을 추진함과 함께 서울에 있는 감옥에서 항일지사들을 석방하였다.¹²⁾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의 수는 군인·군속

11)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신 귀환자 단체 진주회 관계자와 귀환자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2)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 역사교육연구회, 2007, 『한일교류의 역사』, 해안, 326~330쪽.

과 일반인을 포함하여 약 660만 명¹³⁾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의 '復員'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시작되었으며, 일반인의 귀환은 연합군의 지령에 따라 1945년 10월경부터 본격화되었다.¹⁴⁾ 대량귀환은 南洋群島 '復員' 업무가 거의 종료된 1948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소련·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약칭) 등 공산권 제국으로부터의 귀환은 커다란 문제로 되었으며, 한때 중국으로부터의 집단 '인양'은 1949년, 소련으로부터의 집단 '인양'은 1950년에 각각 중단되었다. 1953년에 양국에서 다시 귀환이 재개되었으나 이때 귀환자들은 국경, 38도선을 넘어 부산·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사선을 넘어 귀환하기도 하였다.¹⁵⁾

이 귀환 결정은 조선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삶의 기반을 일거에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귀환 작업은 총독부가 아닌 민간인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독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은 조선인들의 민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였으나,¹⁶⁾ 당시의 재조선 일본인들은 총독부가 기대를 저버렸다 하여 분개하였다.¹⁷⁾ 하지만 사태가 급박해짐에 따라 8월

13) 귀환자의 수는 1990년에 후생성 인양원호국이 작성한 곳에는 6,293,299명(군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3,185,988명)이라고 되어 있다. 이 수치에는 조선 남부에서 미리 귀환한 자, 소련 등지에 억류된 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보다 많다(若槻泰雄, 1991, 『戦後引揚ガの記録』, 時事通信社, 253쪽).

14) 内閣官房總務課, 1945. 10. 22, 「連合軍總司令部指令, 占領地域に於ける日本人の送還引揚に關する件」.

15) 東京都, 1995, 『援護と慰靈のあゆみ-前後50周年記念』, 93쪽.

16) 穂積眞六郎은 일본인세화회 창립 인사로, “총독부, 군 헌병대, 도 등에 말하고, 총독부의 지시로 내지인 세화회를 설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5쪽).

17) 총독부는 경성 재주 일본인의 민간 유력자인 경성전기회사 사장 穂積眞六郎, 朝鮮纖維産業會社社長 湯村辰二郎, 조선상공회의소 소장 人見, 조선농지개발영단 이사장 渡邊씨를 불러, 총독 임석하에서 遠藤 정무총감이사태를 설명하였다. “총독부가 정면에 서서 이 시국의 수습에 나서는 것은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을 피해서, 여운형씨에게 치안유지에 협력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조선 측은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오해하여 떠들석하다. 총독부로서는, 그러한 넓은 범위를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시국에 총독부가 강한 결의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렸다 하여 분개했다(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2쪽).

〈표 1〉 조선에서의 '일본인 세화회' 설립 현황

번호	도별	설립 연월일	도시명	회 장
1	수도	8.16	경성	穂積眞六郎 (총독부 식산국장, 경성전기회사 사장)
3	경기	8.25·26	인천	加藤平太郎 (조선정미사장)
4	황해	8월 말	개성	高田誠一(도립병원장), 뒤에 岡本豊喜(부회 의원)
5	충북	8.17	청주	鮎川榮司 (조선화물자동차지점장)
6	충남	8월 말	대전	靑柳八百造 (남선합동전기지점장)
7	전북	8월 말	전주	吉谷 (주조업), 뒤에 石川莊四郎 (전주 법원장)
8	전북	8.19	군산	樋口虎三 (남선합동전기부사장)
9	전남	불명	광주	石川光文
10	전남	8.25	목포	中島健三(부회부의장)
11	경북	8월 말	대구	杉原長太郎(부회부의장)
12	경북	불명	김천	高崎平吉(高崎합명회사사장)
13	경남	9.1	부산	香椎源太郎(부산상공회의소 회장), 10월개편 池田佐忠 회장
14	강원	8월	춘천	村上文八郎(상업)
15	황해	8.17	해주	萬代龍助
16	황해	8.23	검이포	田所怜(일본제철총무부장), 9.10일 개편 櫻井秀三(일본제철소장)
17	황해	9.10	사리원	松本利雄(전 읍장)
18	황해	9월 상순	신막	松尾卯六(학교조합관리자)
19	황해	8.16	재령	佐佐木隆平
20	황해	8.16	장연	大久保政雄(주조업)
21	평남	8.18	평양	今井頼次郎(西鮮합동전기사장)
22	평남	11.19	秋乙	秋乙일본인회
23	평남	불명	진남포	河村國助 (상공경제회 회두)
24	전남	8월 말	순천	五十嵐幸朔
25	평북	1946.1	강계	八嶋茂
26	평북	9.8	만포	鶴田武男(철공소)
27	평북	8.16	정주	兒玉恒記(지방법원지청검사). 9.2일 高橋六郎(미국 창고소장)

28	평북	9.1	선천	米村政治郎
29	평북	불명	의주	中村儋治郎
30	평북	1946.2	수풍	廣田種雄(수풍발전소장)
31	함남	8.24	함흥	井上清(함흥상공경제회회두) 土谷惟一(상공경제회사 무국장)
32	함남	8.20	흥남	坂口實男(前 부운)
33	함남	8.29	원산	松本五郎(금물상· 부회의원)
34	함북	12.8	성진	岡野正典(日本高周波회사 기사장, 원래는 野村공장장)
35	강원	8.17	철원	上坂宇八(警防團長)

※ 출전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刊, 132~146쪽, 설립 연월일이 확실하지 않은 전남, 경북, 평남, 평북은 미기재.

16일부터 즉시 경성일본인세화회가 만들어졌으며 부산·인천·평양 등 전국 주요 도시에 37개의 세화회가 만들어졌다. 세화회는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¹⁸⁾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조선에서는 8월 16일부터 경성일본인세화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부산·평양·대구·검이포 등 전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늦어도 9월 말까지 일본인세화회가 만들어졌다. 경성세화회는 전 정부총감 穂積眞六郎, 경성제국대학 총장 山家信次, 조선은행 부총재 星野喜代治, 경성일보사장, 波田重一 전국민총력 조선연맹사무국장, 전 조선상공회의소 회두 田川常次郎 등 모두 70명을 모으고 특별위원으로 14명을 위촉하였다.¹⁹⁾ 이처

18) 각지의 세화회 설립에 대해 총독부는 '内地人世話會設立に關する件'으로서 8월 24일 총독부 기획과장으로부터 각도의 지사(경기도를 제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시국의 급변함에 대처하고, 내지인(역자 : 일본인) 상호간의 연락·협조·상호부조를 도모하고, 선후 조치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성에서는 내지인세화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각도에서도 도청소재지·府 등 실정에 따라 이것을 설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바란다."(原田大六, 1945. 8. 24, 『終戰に伴う引揚事務處理の狀況』, 『同和』, 제147호)

19) 1945년 8월 19일, 穂積은 군사령부·조선헌병대사령부를 방문하여 '경성내지인세화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군은 대찬성하여 즉각 군용 전화로 각 도청 부읍에 세화회를 조직하도록 전하였고, 또한 관할 하의 부대장에게 세화회에 적극적인 원조

럼 세화회를 맡은 사람들은 각도와 각부의 정치·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금은 조선총독부와 終戰사무처리반, 軍에서 각각 보조를 받고 각종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경성일본인세화회는 조선총독부에서 100만 엔, 부산은 종전사무처리본부로부터 50만 엔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전남 목포의 경우는 道로부터 70만 엔을 받아 사용하였다. 경북 대구의 경우는 종전사무처리반에서 30만 엔, 군에서도 20만 엔을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태의 긴박함으로 인해 사무소는 임시로 설치되었고, 북한지역인 성진이나 강계와 같은 경우는 세화회 회장이 억류되기도 하였다.²⁰⁾

세화회는 귀환을 위한 임시 민간조직이었으며 조선총독부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귀환준비를 하였다. 최초의 귀환선은 8월 20일 부산항을 출발한 고안마루(興安丸)호였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기 전에 이미 귀환자들은 일본으로 가는 '인양선'을 탔다.²¹⁾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 일본인 기술자가 억류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대만의 일본인 귀환자들이 평온하게 인양되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며,²²⁾ 이에 따라 근거지 위치에 따라 귀환자 내부에도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GHQ·일본정부의 '인양' 정책과 인양 실태

종전 직후 일본 사회는 원폭 투하와 대공습으로 인한 피해자, 해외 인양자의 유입, 조선인 기타 외국인의 송출, 상이군인, 전몰자 유족, 미복원자 유수가족의 구제 등 수많은 문제가 광범위하게 널려 있었고 모두가 해결 곤란한 것들이

를 하도록 명령했다(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4쪽).

20) 일본인 세화회에 대한 자세한 것은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32~146쪽 참조.

21) 최영호, 2007. 7. 28, 「일본 패전 후 첫번째 공식 귀환선」, 『한일시평』 제143호(원 자료는 鮮交會, 1976, 『조선교통회고록』, 252쪽).

22) 대만의 일본인 귀환에 대해서는 加藤聖文, 2003, 앞의 글 참조.

었다. 종전과 함께 일본의 국토는 4개의 커다란 섬으로 37만m²로 좁혀지게 되었다.

경제안정본부 편 『경제백서』(1952)에 따르면, 종전 직후의 일본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44%에 이르는 영토의 상실, 종전 후 2년간에 660여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증가, 비군사적인 것만으로도 4조 2천억 엔에 달하는 전쟁피해, 주택지·공장·수송설비·하천·도로·산림 등의 황폐화, 무역 두절 등의 제 문제가 직접·간접으로 일본 경제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 같은 전후 경제의 고뇌는 인플레이션과 식량위기로 상징되었다.²³⁾

귀환자들은 귀환선을 타고 일본 본국으로 왔으나 배에서 장시간 귀국을 기다려야 했으며, 가루 소독약(DDT)을 전신에 뒤집어써야 했고, 임신부는 특별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일반인과 군속 1,000엔, 군인 500엔으로 제한되었다.

패전 직후, 일본정부는 GHQ(연합국군총사령관총사령부, 이하 GHQ로 약칭)²⁴⁾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되기 이전에 몇 가지 귀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1945년 8월 30일 내각 차관회의에서는 '外地(사할린 포함) 및 外國在留邦人引揚者 應急援護措置要綱'을 결정하였다. 이때는 아직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상륙지에서의 임시 공동숙사 개설, 음식료·의료·수송 기타에 따르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인양자에게는 인양 증명서를 교부하고, 식량물자 배급, 취직알선, 생활곤란자 원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임무는 급격한 외화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인양자가 가지고 있는 해외 통화·만주국 통화 등을 상륙지 금융기관과 연락하여 일본 통화로 지불 또는 일본 예금으로 바꿀 것을 알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동경출장소, 대만총독부 동경출장

23) 후생성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연합회, 1952, 「사회복지행정자료」(「大野綠一郎文書」, 2339-678,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24) GHQ(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는 1945년 10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 점령 행정을 담당하였다. 총사령관은 D. 맥아더.

소, 사할린청 동경출장소 및 관계 단체가 협력하도록 지시하였다.²⁵⁾

이 조치는 귀환자 사무소 설치와 연계되었다. 1945년 9월 20일 차관회의에서 해외로부터 귀환한 자를 응급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府縣에 '인양민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기구는 총무반·보도반·의료반·물자반·시설반·운수반·歸鮮班 등 7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²⁶⁾

東京都나 야마구치현 등 각 都道府縣²⁷⁾에서도 인양원호국을 만들어 대량 귀환에 대응하였다. 귀환자에 대한 긴급원호조치를 취하여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舊兵舍나 寺院 등을 빌려 귀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더욱이 1946년 9월부터는 생업자금을 대부하기 시작하였고, 취직을 알선하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재외동포원호회와 戰災援護會가 원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9월 2일, 仙崎항에서는 관부연락선 코안마루호가 입항하였고, 이른바 '야미후네'로 불리는 개인선도 입항하였다. 귀환항이 있었던 야마구치현 등에서도 '외지 인양동포 구원출장소'를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조선총독부도 下關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철도국원을 먼저 파견하여 관공서와 함께 인양을 도왔다. 또한 은행·회사의 연락원 등도 인양항에 모여 참가하였다.²⁹⁾

25) 内閣官房 總務課 閣議・事務次官等 會議資料, 1945. 8. 30, 「外地(樺太を畵む)及外國在留邦人引揚者應急援護措置要綱」.

26) 사무소 관할 사항은 귀환자의 접대, 유도, 식량 기타 생활필수물자 제공, 응급의료 및 助産에 관한 건, 숙소 알선 제공, 수송 연락조정, 화물 보관관리 등이었다. 관련 기관은 일본의 내무성·외무성·후생성·농림성·상공성·운수성·지방총감부·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사할린청·기타 관계 각 청, 은사재단·戰災후원회·재단법인 중앙홍생회 등이었다. 이들 기관·단체에서는 사무연락을 위해 직원을 사무소에 파견하고 사무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 결정되었다. 경비는 국고에서 특별 조치하기로 하였다(内閣官房總務課 閣議・事務次官等會議資料, 1945. 9. 20, 「引揚民事務所設置に關する件」).

27) 일본의 행정구역은 都·道·府·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전 직후 일본의 영토는 本島, 北海道, 沖繩를 포함하는 현재의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일본의 인양정책 일반에 대한 것은 주로 木村建二, 2005, 앞의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8) 東京都, 1995, 앞의 책, 93쪽.

29) 귀환자의 인양정책 일반에 대한 것은 木村, 2005, 앞의 글을 참조하여 작성.

GHQ가 정식 발족되면서 인양업무는 GHQ의 기본정책에 따라 실시되었다.³⁰⁾ 주요 정책은 현지 잔류가 아니라 전원 인양으로 결정되었고, 원호 조직 정비, 경비 확보, 인양증명서 교부, 식량·물자의 배급 등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통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선은행권은 물론 대만은행권, 만주은행권, 중국은행권 등 모든 식민지·점령지에서 발행한 은행권 유입을 제한하였다. 1945년 10월 18일, GHQ는 인양에 관한 중앙 책임성청으로 후생성을 지정하였다. 생활 곤궁자에 대한 시책이 중심이었고 특별 취급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귀환해온 귀환자들은 '조선인양자세화회'를 만들어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체를 만드는 것은 반대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이미 정부기관 중앙의 후생성 인양원호원과 지방원호국이 있고, 재외동포 원호회와 전재원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이었다.³¹⁾ 하지만 이것은 공직자 추방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³²⁾ 귀환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실력을 결집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세화회'는 두 원호 조직과 업무상의 중복을 피한다는 조건 하에 설립되었다.³³⁾

30) T. A. Bisson, 内山秀夫 역, 2005, 『敗戦と民主化』,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3~42쪽 참조.

31) 朝鮮引揚同胞世話會, 1946. 4, 『引揚同胞』 1.

32) 1946년에 「就職禁止, 退官, 退職等に關スル件」(公職追放令, 1946년 勅令 第109号)이 칙령 형식으로 공포 시행됨으로써 전쟁범죄인·전쟁협력자·大日本武徳會·大政翼賛會·護國同志會 관계자가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 칙령은 다음 해 「公職に關する就職禁止, 退官, 退職等に關する勅令」(1947년 제1호)으로 개정되어, 공직의 범위가 넓어져 유력 기업의 간부 등도 대상으로 되었다. 공직추방령은 후에 일본의 노동운동 격화, 한국전쟁 등의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GHQ의 점령정책이 전환되면서 공산주의자가 주요한 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 1951년 제1차 추방 해제가 이루어졌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동시에 시행된 「公職に關する就職禁止, 退職等に關する勅令等の廢止に關する法律」(昭和 27年 法律 第94号)에 따라 폐지되었다.

33) 1946년 공직추방령의 실시로 식민지 조선에서 유력자였던 일본인들은 일본 내에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세화회의 결성은 한편으로는 공적 활동이 금지된 이들의 결집 공간이기도 하였다. '조선인양자세화회'에 대해서는 노기영, 2006,

귀환자는 전쟁범죄인이나 전쟁협력자라는 인식에 따라 처벌과 경계를 받던 시기에 ‘조선인양자세화회’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세화회’는 귀환자의 원호와 미귀환자의 귀환촉진이라는 두 가지 사업 목표를 정하였다. 회장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며 경성일본인세화회 회장이었던 穂積眞六郎가 취임하였다. 세화회의 주된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잔류자의 귀환촉진, 재외재산의 보상, 동결예금, 농지개혁, 그 외 긴급문제에 대해 정부 측에 진정활동을 벌이는 것. 둘째, 귀환관련 집회 개최를 통해 조선대표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 그 일환으로서 1946년 5월 21일 조선귀환보고대회, 7월 21일 築地の本願寺에서 조선귀환동포 사망자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셋째, 회보를 통해 귀환상황이나 귀환 후 정착에 관한 정보를 귀환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연고지가 없는 귀환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취직을 원하거나 사업을 계획하는 귀환자에 대해서는 각종 수속을 지원했다.

세화회는 귀환 원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잔무정리사무소, 舊友클럽과 협력하면서 조선귀환자단체의 대표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귀환자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갔다. 당시 일본 전국에서는 소규모의 조선귀환자 단체가 잇달아 조직되어 재외재산 보상문제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귀환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표현하였다.³⁴⁾

이렇듯 공식적인 문서를 보면 귀환자대책을 위해 GHQ와 일본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당시 일본의 공황상태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몇백만 명의 귀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식민지에서 오래 살았거나 고아가 되어, 일본에 친척도 없는 무연고자들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심각하였다. 또한 귀환자들은 대개 친척집으로 돌아갔는데, 일본의 집은 대부분 좁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거한다는 것은 힘든 실정이었다.³⁵⁾

앞의 논문, 141쪽을 참조.

34) 노기영, 2006, 앞의 글, 141쪽.

35) 菊池는 평안남도 평양 강동의 사택에서 살았는데, 일시 학교의 수용소에 있다가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조선에서 태어나 특히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어, 일단 큰

원활한 조선으로부터의 귀환 촉진과 원호를 중심으로 진행한 세화회의 사업은 1947년 4월에 완료되었다. 귀환자들은 우선 친척집에 있다가 다시 도시로 나가거나,³⁶⁾ 아예 처음부터 도시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일본 사회에 편입되어 갔다.

그러면 귀환자들은 얼마나 어디로 정착하였는가. 후생성 인양원호국이 작성·수정한 1990년 시점의 인양자 총수가 6,293,299명, 그 가운데 군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3,185,988명(50.8%)이었다. 이 수치는 상륙지에서 인양수속을 한 사람만 계산한 것으로서 특히 패전 직후에 조선 남부에서 귀환한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³⁷⁾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죽은 자, 보고되지 않은 자 등이 누락

<표 2> 귀환자 행정지구별(都道府縣別) 비율 (천 명, 1950년)

都道府縣	인원수(%)	都道府縣	인원수(%)
北海道	279 (10.7)	山口縣	101 (3.9)
福岡縣	211 (8.1)	廣島縣	96 (3.7)
東京都	156 (6.0)	大阪府	84 (3.2)
熊本縣	131 (5.0)	兵庫縣	78 (3.0)
長崎縣	104 (4.0)	기타	1,274 (48.7)
鹿兒島縣	103 (3.9)		
合計	2,617 (100)		
市部	1,164 (44.5)	郡部	1,452 (55.5)

※ 출처: 總理府統計局 編, 1955, 『昭和25年國勢調査報告』 제8권, 최중보고서, 414쪽에서 작성. (木村健二, 2005, 『帝國と植民地 第3章 引揚者援護事業ノ推移』, 赤澤史郎·栗屋憲太郎 等, 『年報 日本現代史』 第10号, 125쪽 재인용)

형수의 친정인 阿蘇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마구간을 약간 개조한 생활이었다고 한다(菊池建朗(熊本市 거주, 당시 71세), 1975. 8, 『北朝鮮から引き揚げて』).

36) 당시 귀환자의 체험기록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引揚體驗集編集委員會 編, 『生きて祖國へ』, 國書刊行會 등).

37) 若槻泰雄, 1991, 앞의 책, 253쪽.

되어 있어서 인양자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표 2>를 통해 전체의 대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사할린으로부터의 귀환자수가 많았던 北海道가 가장 많았고, 대륙이나 타이완으로부터의 귀환자가 많았던 九州 山口 여러 현, 그리고 東京·大阪의 대도시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부·郡部の 인구비율은 일본 전체의 비율이 37.5% 대 62.5%에 비하여, 귀환자는 44.5% 대 55.5%이므로 귀환자의 경우 도시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는 '復員者'도 포함한 귀환자 전체의 직업별·산업별 인원수가 나타나 있다. 직업별로는 1위가 농부·어부 등, 2위가 특수기능공 등, 3위가 사무종사자, 4위 판매종사자의 순이다. 그러나 '복원자'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농업 경험이 적고 공무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에 있던 귀환자들은 어떠한가. 귀환자별 각종 단체의 회원명부를 보면, 주로 최종적으로는 도시부로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이렇게 귀환자들이 도시부로 정착한 것은 조선에서의 생활조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당시 조선에서 일본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던 府는 청진·함흥·홍남·원산·신의주·평양·경성·인천·대전·대구·부산·함주 등 12대 도시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의 경성부와 인천부, 경상남도의 부산부·마산부, 평안남도의 평양부 등 대도시에 일본인이 70~90% 이상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총독부가 조선에 대륙 병참기지를 만들면서

38) 동송회(경성공교, 경성공전 등의 귀환자 모임) 명부, 진주회(진주 소·중학교 등의 귀환자 모임) 명부 등을 보면 도시부로 정착한 현주소를 알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인용에 어려움이 있다.

39) 이러한 것은 패전 직전의 조선 재주 일본인 도시인구와 비율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944년 5월 현재 남한 466,208명, 북한 246,375명, 합계 712,583명이다. 남한은 경기도의 경성부·인천부·개성부가 182,391명으로 전체 197,929명의 92.1%를 차지한다. 경상남도의 부산부·마산부·진주부·진해읍이 80,046명으로 전체 97,345명의 82.1%를 차지한다. 또한 평양의 경우도 평양부·진남포부가 39,402명으로 전체 50,715명 중 77.7%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도시 집중률이 높다(森田芳夫, 1964, 앞의 책, 8~9쪽).

정책적으로 식민도시를 만들고 일본인들을 집중 이주시켰기 때문이다.⁴⁰⁾

이들은 일본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갔을까. 여기에 대해 若槻泰雄는 유럽제국과 달리 일본 귀환자들은 비교적 원활하게 적응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관청·회사 등 공무가 많았고, 식민지라 해도 반세기 정도였으며, 농민이 소수이며, 교육수준이 높았다는 점, 그리고 패전 후 일본의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⁴¹⁾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귀환자들은 본래 일본 사회가 원폭과 대공습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나 농촌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본국 일본인의 귀환자에 대한 차별인식과 주거·직업·식량·학교 등 기초생활에서도 갖가지 차별을 받고 있었다.

당시 귀환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귀환자들은 원래부터 일본 내에서 지위가 없거나 미천한 자들로서 출세나 축재를 위해서 해외로 진출했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국내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극심한 고생을 한 데 반해 귀환자들은 일본 국민보다 더 잘 먹으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 내에 생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입관과 차별 인식은 귀환자들의 입지를 좁게 하였고 많은 귀환자가 스스로 귀환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했다고 한다.⁴²⁾ 더구나 당시 극동군사전범재판으로 인해 이미 그들의 '聖戰'은 '전쟁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귀환자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면서도 본토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았다.⁴³⁾

40) 총독부는 1934년부터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만들어 전국의 도시를 확장·개발하여 식민도시 만들기에 주력하였다. 자세한 것은 김경남, 2003, 「제해 조선에서 도시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41) 若槻泰雄, 1991, 앞의 책, 278쪽.

42) 藤本秀夫 인터뷰, 2006.5.25 (노기영, 2006, 앞의 글, 152쪽 주 89) 재인용.

43) 이 점은 식민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처벌과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무이거나 돈 벌러 식민지나 점령지로 나간 일상 생활인으로서의 귀환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전쟁과 해외 '인양'을 통해 귀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깊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⁴⁴⁾

부산의 조선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던 부친과 함께 부산부의 공영주택에 살고 있던 中島光明은 귀환 당시 소학교 6년생이었다. 귀환 후, 長崎縣 加津佐町에 정착하였다. 부친은 어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伯父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 지역 '인양자 1호'로, 주변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도 '평화공존을 위해' 고무운동화를 신지 않고 草履(일본 짚신)를 신었으며, 일본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려 그 지역 억양을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식량난과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 살았으며, 반농반어의 집락촌이었는데, 16년이 지나서야 겨우 좁지만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熊本市에 거주하는 上野すみ는 조선에서 수세식 화장실, 상수도, 생활설비가 잘 갖추어진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던 16세 소녀였는데, '인양'되면서 먼 곳의 우물을 이용하고 생활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 왜 좋은 곳을 두고 이런 곳에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⁴⁶⁾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귀환자들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무리 없이 일본 사회에 잘 적응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귀환자들의 피해의식은 일본에서 공습과 원폭을 경험한 일본인들

예를 들면, 침략전쟁에 대해 전쟁범죄라고 인식하고 반성한 사람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단지 패배했기 때문에 당하는 설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44) 이러한 것은 귀환자들의 당시의 체험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최근 NHK 熊本방송국에서는 「戦後60年」 편지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쟁 체험, 귀환자들의 편지를 응모받았다. 이 기록들은 당시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타이완·중국·시베리아·남방 등 일본의 패전과 관련된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전쟁 체험을 후세들에게 들려주어 참 평화를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메시지이다. NHK 熊本방송국 홈페이지 <http://www.nhk.or.jp/kumamoto/pgm02/sengo60/index.html> 참조.

45) 中島光明, 1995, 「釜山引揚げと戦後五十年の思い出」, 竹島茂 編, 『満州・朝鮮で敗戦を迎えた私たちの戦後』, (株) STEP, 97~122쪽.

46) 上野すみ(熊本市 거주, 69세), 「引き揚げで2人の妹を失う」(NHK 구마모토방송국 공모).

의 피해의식과 증충적으로 만나게 된다. 본토에서 공습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총체적인 피해의식의 실상을 느끼게 한다. 熊本市에 사는 上村幸子は 미국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원폭 실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 전쟁에 대해 “전장에서 살인하는 것은 살인이 아닌가?”라고 반문, 약한 입장의 사람이 가장 희생당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귀환자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 깊이 상처를 받고 있으며, 약한 자로서의 피해의식 또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귀환자의 기억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수많은 편지와 수필집, 자서전 등에 남긴 글 중에는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쓰여 있지만, 식민지 민중이 당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 쓴 글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강한 피해의식 속에 가려져 가해에 대한 의식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3_ 패전의 ‘전범’으로의 변화와 피해의식의 형성

귀환 후, 귀환자들은 주거지를 마련하고 취직활동을 하면서 생활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귀환자들을 보는 일본 사회의 차가운 눈이었다. 귀환 후에 전개된 여러 상황으로부터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귀환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식민지에서의 경험과 귀환의 경험을 정당화시켜 나갔다. 귀환자들 중에는 자기들은 미국과 일본 지식인들이 말하듯이 ‘제국의 앞잡이’가 아니고, 식민지에서의 경제활동은 ‘평화적 성격’이라고 말하며,⁴⁸⁾ 그들의 정책은 식민지를 개발하기 위한 ‘선정’이었으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왜 귀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귀환자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져 갔는지에 대해

47) 上村幸子(熊本市 거주, 76세), 「戦争が当たり前だった時代」(NHK 구마모토방송국 공모)

48) 노기영, 2006, 앞의 글, 143쪽(원자료는 朝鮮事業者會, 1946. 7. 29, 「在外財産補償要請に関する資料」).

검토하고자 한다. 패전 직후의 기간에 귀환자들의 인식을 규정한 것은 크게 1945년 8월 15일의 항복선언, 천황의 인간선언, 극동국제군사재판(이른바 동경재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항복 이전까지 동아시아 해방의 '성전(聖戰)'이라고 믿고 있었던 전투는 잔학 비도한 '침략전쟁'으로 되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軍神', '英靈'은, 전후에 '개죽음[犬死]'으로 비하되었다. 가미가제[神風] 특별 공격대 대장의 묘조차도 쓸 수 없었다. 사람들 중에는 이름을 바꾸거나, 세간으로부터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전쟁 중에는 '야스쿠니의 집(靖國の家)'으로서 존경받았던 유족은, 전후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⁴⁹⁾ 일본인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었다.

둘째, 1946년 1월 1일 昭和天皇은 詔書로 '현인신'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인간'임을 선언하였다. 일명 '인간선언'⁵⁰⁾이다. 이 선언은 연합국군총사령부(GHQ/SCAP)와 민간 정보교육국(CIE)에 의해 가계·혈통이 우월한 천황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일본이 다른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國家神道の 교의를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천황을 현인신으로 공격인 경의를 표하는 것이 없어지고, 맥아더 원수가 그와 동등하게 또 하나의 지배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일본 사회의 변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⁵¹⁾ 1946년 맥아더가 허리에 양 손을 얹고 천황과 나란히 찍은 사진은 일본 사회를 놀라게 하였으며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전 시기에는 감히 있을 수 없었던 불경스런 모습이었다고 한다.⁵²⁾

식민지 침략과 전쟁을 주도한 일본의 지배계층과 그를 신봉하는 자들은 히노마루[日の丸], 대동아의식, 일본인 우월민족이라는 의식 자체가 패전과 더불어 철저히 부정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와 함께 미군정이 실시한 일본의 이른바 행정·군사·경제 등에 대한 민주화 정책은 구 군국주의 체제를 철폐하고,

49) <http://www.asahi-net.or.jp/~UN3K-MN/hazime.htm> (2007 현재).

50) 일본정부, 『관보』, 1946.1.1.

51) 榊原夏, 2000, 『マッカーサー元帥と昭和天皇』, 集英社新書, 9쪽.

52) 明仁 일왕의 맥아더 방문 기념사진, 『아사히 신문』, 1945.9.29일자.

천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⁵³⁾

셋째, 귀환자들에 대한 일본 사회 내에서의 인식을 더욱 크게 규정한 것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東京裁判)이다. 이 재판은 범죄 행위의 중량에 따라 A급과 BC급 재판 두 종류로 나누었다. 재판을 위해 연합국군최고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12월까지 100명이 넘는 지도자를 체포하도록 지령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국제검찰국이 설치되었다.⁵⁴⁾

먼저 A급 전범에 대해서 극동국제군사재판 검찰단에서는, 1928년 1월 1일부터 1945년 9월 11일까지 17년 8개월을 침략전쟁을 계획·준비·개시·실행한 범죄적 군벌에 지배되어 있던 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침략을 ‘공동모의’한 것으로 기소하였다.⁵⁵⁾ 죄명은 ‘통례의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세 가지가 적용되었다. 기소의 주안점은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시하고, 이것을 실행한 자의 책임 추급에 두어졌다.⁵⁶⁾ 1948년 11월 12일 東條英機⁵⁷⁾를 비롯하여 7명이 사형, 그 외 중신금고형 16명, 금고형 2명

53) GHQ에 의한 일본의 군사, 행정, 경제적인 민주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 A. 빅슨 저, 内山秀夫 역, 2005, 『敗戦と民主化—GHQ 經濟分析官の見た日本』, 慶應義塾大學出版社.

54) 검찰관은 11개국에서 구성되었고 많을 때는 487명을 헤아렸으며 압도적 다수가 미 국민이었다. 조셉 B. 키난 주석검찰관은 스태프를 A부터 H까지 8개의 작업 그룹으로 나누어, 기소 대상 인물을 확정하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자세한 것은 内海愛子, 2002, 『戦後報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참조.

55) ‘공동모의’ 불가론에 대해 内海愛子は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쟁 지도는 정치(국무)의 최고 보필자인 내각총리대신과 최고 통수(용병작전)자인 군령 부총장과 참모총장 3자가 지휘한다. 그러나 천황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와 ‘통수’가 통합·운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 더구나 육군과 해군은 대립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지도가 곤란하였으며, 이 때문에 전쟁 지도를 ‘공동모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피고측의 숨길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한다(원자료 種村佐孝, 1979, 『大本營機密日記』, 芙蓉書房; 内海愛子, 2002, 위의 책, 34~35쪽).

56) 内海愛子, 2002, 앞의 책, 32~33쪽.

57) 東條英機(1884~1948)는 1941년 10월에 수상에 취임, 원래 육군대장, 陸相이었다. 육군성의 동원과장, 관동헌병사령관, 관동참모장을 역임하였고, 황도파 장교와 혈투를 벌였다. 東條의 軍政은 이른바 ‘암흑헌병정치’라고 불렸다. 미군정에 체포되

등 25명이 확정 판결받았다.⁵⁸⁾ 교수형은 1948년 12월 23일 巢鴨刑務所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2차 東京재판의 용의자로서 구류되어 있던 岸信介⁵⁹⁾ 등 17명(19명 가운데 2명은 병사)이 불기소로 무죄 석방되었다.

조선 통치와 직접 관련이 있던 자는 小磯國昭 총독, 南次郎 총독⁶⁰⁾과 高地茂都 조선헌병대 사령관이었다. 小磯國昭와 南次郎 총독은 제2차 전범지명자로서 1945년 11월 19일에 체포명령을 받았으며, 高地茂都是 同 12월 2일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사형을 면하고 모두 불기소 석방되었다.

다음은 포로수용 관계자에 대한 BC급 재판이다. BC급 전범 재판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 모두 5,700명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사형이 984명(미국 143, 영국 223, 오스트레일리아 153, 네덜란드 236, 프랑스 63, 필리핀 17, 중화민국 149명)이며, 4,403명(무기 475명, 유기 2,944명)이 사형, 무기, 유기판결을 받아 사형을 당하거나 수형생활을 하였다.⁶¹⁾

기 직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1948년 사형집행당했다(太平洋戰爭研究會, 2007, 『秘錄 東京裁判の100人』, ビジネス社, 72쪽).

58) 사형은 東條英機, 廣田弘毅, 土肥原賢二, 坂垣征四郎, 木村兵太郎, 松井石根, 武藤章 등 7명, 종신금고형은 荒木貞夫, 橋本欣五郎, 烟俊六, 平沼騏一郎, 星野直樹, 賀屋興宣, 木戸幸一, 小磯國昭, 南次郎, 岡敬純, 大島浩, 佐藤賢了, 嶋田繁太郎, 白鳥敏夫, 鈴木貞一, 梅津美次郎 등 16명, 금고형은 重光葵, 東郷茂德 등 2명. 피고 25명은 東條英機를 중심으로 한 육군 군인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통수부의 참모 가운데 첫 참모총장 杉山가 도조 체포 다음날인 9월 12일에 자결하였고, 해군군령부장 永野修身가 재판 도중인 1947년 1월 5일에 병사하였으므로, 전쟁수행에 절대적인 권력을 발휘한 참모들이 피고석에 없었다 (위와 같음).

59) 岸信介(1886. 11. 13~1987. 8. 7)는 일본의 농상무 관료, 정치가로서 제56·57대 내각총리대신이며, 제61대~제63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佐藤榮作은 동생, 제90대 내각총리대신 安倍晋三는 외손이다. 戰前에는 만주경제의 통제와 군수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후 東條內閣에서 商工大臣, 전후에 A급 전범 용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지만 특사로 정계 복귀하였다(太平洋戰爭研究會, 2007, 『앞의 책』, 21쪽).

60) 大分縣 출신, 재판 당시 71세. 육사·육대 졸업. 1919년 소장으로 중국주둔군사령관, 그 후 기병학교장, 육군사관학교장, 사단장, 참모차관 등을 거쳐 조선군사령관, 제2차 若槻내각의 陸相, 관동군사령관, 조선총독, 추밀원고문관 등을 역임했다(太平洋戰爭研究會, 2007, 앞의 책, 60쪽).

61) 자세한게는 미국(1,453명), 영국(978명), 오스트레일리아(949명), 네덜란드(1038

조선에서는 태평양전쟁 중에 조선에 수용되어 있던 연합군 포로에 대한 취급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조선포로수용소 野口讓 대좌 이하 포로수용소 직원이나 관계자가 미군으로부터 취조를 받았고, 인천의 구 소년형무소에 수용되었다.⁶²⁾ 이들은 1946년 6월경 일본의 '스가모 프리즌(スガモプリズン)'으로 이관되어, 1947년 9월 15일 요코하마의 제8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장 프레스 중좌로부터 11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포로수용소 인천분소 근무군의 水口安俊 소위는 교수형, 野口讓 대좌는 22년, 포로수용소 인천분소장 岡崎弘十郎 중좌는 18년 3개월, 寺田武夫 대위는 3년 4개월, 内田五郎 軍醫 대위는 10년 4개월, 有泉茂次 대위 1년, 託間正太郎 軍曹 29년 4개월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 죄명은 전쟁법규 관습위반, 포로학대, 부하의 포로학대 허용 등이었다. 水口安俊 소위는 1959년 2월 12일에 스가모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⁶³⁾

이처럼 극동군사재판은 몇 명의 전범자를 본보기로 처형하고, 대부분의 정치범은 석방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1946년부터 시작되어 1952년까지 연합국 주도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자주권 회복 이후 1959년까지 일본정부가 진행하였다. 약 15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 군사재판으로 일본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일본의 전쟁은 '聖戰'이 아니라 '전쟁범죄'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국내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조선에는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변화는 귀환자들의 한국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세계의 냉전체제와 더불어 남북한에 다른 체제가 들어서고 더구나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은 남한으로 한정되어 간 것이다.

명), 프랑스(230명), 필리핀(169명) 중화민국(883명) 등이다(法務大臣 官房 司法法制調査部, 1973, 『戰爭犯罪裁判概要史』).

62)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831~834쪽.

63) 森田芳夫, 1964, 『水口安俊君追憶集-전범교수형자의 수기』, 앞의 책, 832쪽.

그것도 남한의 이승만정권은 반일사상을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조차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실례로 이승만라인을 통해 일본 어선이 억류되었고, 특히 장택상 총리가 귀환자 古市進(무역선 사무장)을 한국에 특별상륙해 준 것과 관련하여⁶⁴⁾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임할 정도로 사실상 대통령 레벨에서 배제되었다. 그들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채널은 대통령의 정책 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 점은 대만의 귀환자들이 전후 장개석 정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처럼 귀환자들은 사회적으로는 전범자,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인식으로 일본 본토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으며, 냉전체제에 따른 한국의 정세 변화 등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다.

Ⅲ. 자주권 회복기(1952~1965) : ‘전쟁피해자’ 인식전환 정책과 단체 설립

1_ 일본의 자주권 회복과 ‘전범’ 인식전환 정책

사회주의의 확산, 노동운동의 확대 등으로 미국의 대극동아시아 전략이 바뀌면서 일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일본이 연합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일본 점령이 장기화되면서 점령경비가 늘어나 미국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났으며, 이에 미국정부는 일본을 ‘공산주의 진출을 막는 방벽’으로서 위치시키고, 전후 처리와 방위 문제를 밀접하게 연관시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강

64) 同和協會, 1951. 10. 1, 『同和』 46.

화조약으로 전쟁상태는 종결되었고 일본은 국교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조인국은 49개국이었다.⁶⁵⁾ 이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재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더구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재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거기에 귀환자들의 석방운동 등에 힘입어 상처입은 피해의식을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가장 먼저 취해진 것은 연합국이 관리하던 '스가모프리즌'을 일본이 관리하는 '巢鴨刑務所'로 변경시키는 것이었다. 1952년 4월 28일, 일본정부의 관리하에 전범들의 관리가 이관된 것이다. 일본은 총사령부와 절충하면서, 형의 집행과 석방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형 집행의 기본법 「평화조약 제11조에 의한 형의 집행 및 사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였다. 일본에 이관된 전범자는 미국(425명), 영국(116명), 네덜란드(217명), 오스트레일리아(23명), 중국(91명), 프랑스(42명), 극동국제군사재판(13명) 총 927명이었다. 이 중 조선인 29명, 대만인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⁶⁾

일본 측으로서는 재판국에 전범들의 석방문제가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한편 어디까지나 사법적 조치에 따라 가출소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이, 국무성 내에 전범사면 및 가출소의 권고처리기구 '일본인 전범감형 보석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52년 9월 5

6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14조·제16조. 이때 미국이 주도가 되어 연합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이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금전지급이 아닌 勞務지급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배상금이 처리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의 전쟁배상금 지급은 경제협력이나 무역으로 바뀌었고, 아시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공장이나 호텔로 바뀌었다.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고, 일본인 기술자가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배치되어 현재까지 국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청구소송, '중군위안부' 공식사죄청구소송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內海愛子, 2002, 앞의 책, 25~28쪽 참조).

66) 평화조약의 발효와 석방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 內海愛子, 2004, 『스가모プリズン-戦犯たちの平和運動』, 吉川弘文館, 118~149쪽.

일이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국무성·국방성·사법성에서 각 1명의 정부고관이 임명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일본 측의 권고에 대해 심사하였다.

둘째, 일본에 전범 재판문제가 이관된 뒤 범국민적인 석방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석방운동은 일본인 자신이 전쟁범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한 운동 같았다. 1952년 6월 전범·수형자 助命단원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명자 총수 100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 정서는 전범자를 범죄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전쟁희생자로서 많은 동정을 하고 있으며, 차츰 전범제도에 의혹을 품고 있다”고 마스크이 호도하기 시작하였다.⁶⁷⁾

1952년 8월 28일, 국내법에 따른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도 회복되었다.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가 진행되었다. 자치청 선거부장은 9월 2일 법무성 교정국에 전범의 선거권은 조약발효와 동시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조선인·대만인 전범을 제외한 799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부재자투표도 행해졌다.⁶⁸⁾

‘스가모프리즌’이 ‘巢鴨刑務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일본인에게 관리가 넘겨진 시기부터 일본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 전범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도 변화되었다. 전범자는 가석방된 시점에 처음으로 ‘인양자’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인양원호청장관 명의로 ‘인양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재판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이 ‘복원’된 날로 되어 일본군으로부터 해직되고 있다.⁶⁹⁾ 전범은 미귀환으로 취급되었고, 스가모를 가출소한 시점에서 인양이 완료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양은 완료되어도 형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스가모신문』의 초대 편집장 眞鍋良一은 1947년에 석방되었지만, 공직추방이 되어 외무성에 복직할 수 없었다.

67) 戦犯事務室, 1952, 「戦犯問題の交渉概要と在所者現況」, 『本邦人戦争犯罪人関係雑件』, 제6권.

68) 戦犯事務室, 1952, 「連合國の軍事裁判により刑に處せられた者の國內法上の取扱について」, 『本邦人戦争犯罪人関係雑件』 제1권.

69) 1947. 7. 15, 「外地戦犯者等の復員(解職)處理について」, 第1復員局 제1258호.

전범 석방운동은 戰爭受刑者世話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운동은 반은 官制라고도 불렸다. 1952년 5월 10일, 600명을 넘는 발기인으로 발족한 이 단체는 이사장에 藤原殷次郎가 맡았으며, 世話人 속에는 宇垣一成, 石原光一郎 등 전쟁 중에 정계·재계·언론계를 리드해 온 사람들이 들어 있다. 4월 24일, 강화조약 발효 직전에 창립총회가 열렸다. 세화회는 전쟁범죄인을 패전에 의한 '희생자'로 정의하고 그들을 돕는 일대 국민운동을 목표로 하였다. 매년 정월에는 사형자 유족에게 1000엔(당시 쌀 10kg에 680엔)을 위로금으로 보내고 있었다.⁷⁰⁾

석방 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재판국과 일괄·전원석방을 교섭 하였지만 재판국은 난색을 보였으며, 결국 전범들이 일본에 이관된 뒤 약 5년에 걸쳐 사면, 감형, 가출소라는 형태로 전원 석방되었다.⁷¹⁾ A급 전범들도 복무한 기간까지 형기가 감형되었으며, 그 때문에 1958년 4월 7일까지 형기가 만료되어 전원 출소하였다. 상징적인 것으로는 昭和天皇이 1952년 5월 2일 처음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시작으로, 7월 31일 처음으로 明治神宮 참배, 10월 16일 야스쿠니신사에도 첫 참배하였다.⁷²⁾

하지만 관제의 석방운동과는 달리, 인식의 변화는 전범들의 내부로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쟁 재판은 오히려 살아남아서 스가모 형무소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진 자 가운데 침략전쟁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松浦와 같이 '히노마루[日の丸]가 진심으로 싫어졌다는 자, 아시아인의 증오의 눈으로부터 전쟁의 의미를 물었던 服部·飯田, 미군에 대한 저항으로 자각한 禾,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私は貝になりたい)」를 쓴 加藤哲太郎 등은 감옥에서 침략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加藤는 정부가 매스컴을 이용하여 '재군비'를 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헌법개악, 재군비를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지 말 것을

70) 内海愛子, 2004, 앞의 책, 148쪽.

71) 内海愛子, 2004, 앞의 책, 132쪽.

72) 猪狩章, 2007, 『自分史を書くための戦後史年表』, 朝日新聞社, 44쪽.

경고하였다.⁷³⁾

이외에도 일본의 정치와 한국과의 교류상황이 변화되면서 귀환자들의 내부 인식은 서서히 다변화되어 갔다. 귀환자 내부의 인식변화는 그들 스스로 식민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일본 사회의 격차문제 등에 눈을 뜨면 들수록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계속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귀환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전공하면서 한일 간의 현재의 상황을 알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귀환자도 나타났다.⁷⁴⁾

2_ 귀환자들의 단체 설립과 집단 동질의식의 형성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심화, 미국의 일본 지원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본이 자주권을 회복하고 귀환자의 의식이 다변화되고 있었지만, 재주 조선 귀환자들에게는 재외재산처리 문제, 생활기반 확보 문제 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귀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 그것은 관료 중심의 동화협회(후에 중앙일한협회)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직능별, 舊조선 도시별, 동창회 등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귀환자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집단 동질의식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전국적인 규모의 대표적인 단체는 사단법인 ‘동화협회’이다. 동화협회는 1947년 7월 1일 창립하였다. 먼저 조선인양동포사회회, 舊友클럽(중앙조선협회의 후신)의 조직, 사업, 재산 등 일체를 인계받았다. 외무성·후생성을 비롯

73) 加藤哲太郎, 1994, 『私は貝になりたい』, 春秋社, 94쪽. 加藤는 1917년 작가 加藤一夫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慶應大 경제학부 졸업, 중국대륙 일본의 野砲 연대에 배속. 후에 어학력이 좋아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고, 스가모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1976년 59세로 病死.

74) 大庭 인터뷰(76세, 현재 神奈川縣 거주, 조선에서는 진주 거주). 安田(78세, 현재 千葉縣 거주, 조선에서는 황해도 해주·진주 거주).

한 인양자단체전국연합회, 각 지구인양자단체, 조선관계단체 등과 교섭하기 시작하였다. 협회의 사업방침은 인양의 촉진, 인양자의 원호, 재외재산, 재외 기업 기타 현안해결, 갱생사업에 대한 제반 알선, 대조선 무역대책, 인양자 사업, 대조선 무역관계 자료의 작성 배포, 인양자 상호 연락을 위한 회보의 발행 등이었다. 회장은 田中武雄로 미야케 출신의 정치가이며,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정무총감을 역임하였다. 1946년에 공직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⁷⁵⁾ 연합회에 의해 추방당한 인양자들의 정치적 결집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동화협회는 전국에 지방 지부를 설치하였다. 1947년 11월 岩手縣·宮城縣·長野縣·愛知縣·京都府·岐阜縣·大阪府·愛媛縣·山口縣·福岡縣·大分縣·熊本縣 등에 설치되었으며,⁷⁶⁾ 1952년 12월 1일에千葉縣 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사교클럽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모이기도 하였다. 그 실례를 보면, 1948년 1월 1일, 松山京城引揚者會·愛媛縣 松山市 朝鮮引揚者會, 岩手縣 朝鮮引揚者 更生會가 모임을 가졌는데, 이회는 특수한 목적이 없이 조선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사교클럽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⁷⁷⁾ 石川縣 金澤시에서는 귀환자들이 당시 유일한 ‘인양자은행’ 北國信用金庫를 설립하고, 1952년 2월 동화협회 신년총회에서 “평화국가의 건설, 참다운 일본 문화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질 것”을 결의하며 선언서를 발표하였다.⁷⁸⁾

또한 조선에서 동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단체로서는 재단법인 ‘鮮交會’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951년 6월 1일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원래 조선에 연고를 가진 교통분야 관련자가 증추가 되어, 한국의 교통사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일본과 한국 간의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고, 이전 조선에서 교통운수에 관한 기록문헌을 수집 편찬하여 그 史實을 후세

75) 동화협회, 1947. 11. 30, 『同和』 창간호.

76) 동화협회, 1947. 11. 30, 위의 책.

77) 同和協會, 1948(昭和 23). 1. 1, 『同和』.

78) 同和協會, 1952(昭和 27). 2. 1, 『同和』.

에 전함과 함께, 조선의 교통 관계 처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사무소는 東京都千代田區에 두었다.⁷⁹⁾ 이사장은 田中保太郎이며, 각 지역에 모두 18개의 지부를 두었다. 北海道·東北·北關東·甲信越·東海·北陸·福井·近畿·山陰·岡山·廣島·山口·四國·福岡·佐賀·長崎·熊本·大分 지부 등이다.

이외에도 경성철도관련자, 조신히텔관련자, 운전자들, 공작관련자 등 조선에 있을 때 같은 직종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직능별 단체가 만들어졌다. 有終會, 鮮圖會, 京城鐵道病院會, 消費部友의會, 監理會, 京鐵會, 牡丹會, 朝鮮ホテル會, 運轉會, 가소리會, 邱機會, 木浦機關區會, 平機區會, 咸興機關區會, 城津機關區會, 檢車友의會, 金剛會, 鷄林會, 工作會, 咸局會, トラジ會, 元山松濤會, 朝鮮遞友會 등이 그것이다.⁸⁰⁾

그리고 조선에서 함께 살던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단체가 만들어졌다. 전국 단위로는 경성회, 부산회,⁸¹⁾ 인천회, 城津會가 대표적이며, 지역 단위로는 愛媛縣의 松山에서 경성회가 만들어졌다.⁸²⁾ 이외에도 羅津港人會(東京나진회 연락소), 雄基關係, 福岡朝鮮會, 福岡平壤會, 군산인, 富山 인양학도연맹, 佐世保 在住 경성·인천인양자 등의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학연을 바탕으로 동창회가 만들어졌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동일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동질성이 무엇보다 강한 집단이다. 귀환자 동창회는 식민지-인양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특수한 동창회로서, 언젠가 없어질 운명을 가진 동창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79) 재단법인 鮮交會, 1965, 『鮮交會の名簿』.

80) 鮮交會, 1965, 위의 책. 朝鮮遞友의 경우는 『同和』, 1955(昭和 30). 2. 1.

81) 부산회는 예전 부산에 거주하였고, 또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넓게 조직되었다. 1950년 大田區 宗福寺에서 발회식을 가졌으며 매년 1회 회합하였다. 인양문제, 재외자산문제 등 미해결된 것을 조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어업문제, 한일통상, 국교회복 등 중요 문제를 풀기 위해 공헌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 회장은 舊조선방적 사장 時岡昇平, 상임감사는 舊부산일보 사장 長茶川浩, 사무소는 神田神保町 日本 佛教新聞社內였다(『同和』, 1955(昭和 30). 7. 1).

82) 『同和』, 1948(昭和 23). 1. 1.

귀환이 아직 진행되고 있던 1947년 5월에 경성제대(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 출신자들은靑丘클럽을 만들었다. 舊경성대학 교원, 직원과 학생의 상호 연락, 친목도모, 학생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약 20여 명의 발기인이 모여 설

〈표 3〉 각급 학교 동창회 설립상황 (1954)

연번	동창회명	학교명	조선 내 지역	비고
1	靑丘클럽	경성제국대학교	경성	
2	東崇공업회	경성공립학교	경성	
3	경성중학동창회	경성중학교	경성	
4	경성성동중학교동창회	경성성동중학교	경성	5기생
5	東商會	경성상업학교	경성	
6	도키와(トキワ)회	경성제2고여학교	경성	
7	白楊會	경성제1고여학교	경성	
8	명경회	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	
9	有隣會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	
10	岳陽會	경성공업전문광산과, 경성고등공업광산과, 경성광산 전문 각과	경성	
11	建又會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	
12	경성치과의전동창회	경성치과의전	경성	교토시 소재
13	仁友會	인천상업학교	인천	
14	인천공립중학교동창회	인천공립중학교	인천	
15	釜山一商동창회	釜山一商	부산	
16	부산高女동창회	부산高女	부산	
17	평양제1공립 공업동창회	평양제1공립학교	평양	
18	평양중학동창회	평양중학교	평양	
19	진남포상공동창회	진남포상공	진남포	
20	진남포高女동창회	진남포高女	진남포	

※ 출전 : 중앙일한협회, 『同和』, 1954.11.1 및 12.1일, 1955.2.1일자 참고하여 작성. 이외에도 많은 동창회가 설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추후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다.

립하였다. 사무실은 동화협회 내에 두었다. 청구클럽은 외무성 아시아국의 잔무 정리를 돕기 위해 동창회 명부를 만들고, 졸업증명·학력증명 문의에도 대응하였다. 이외에도 기초자료 수집, 모교를 잃은 경성대학 졸업생과 관계자의 유일한 연락 모체로서 서로 연계하여 '조국 재건'에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⁸³⁾ 1954년 말경에 만들어진 동창회는 <표 3>과 같다.

이외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귀환자가 단체를 만들었다. 그것은 외무성의 학력정리나 재외재산처리에 대한 공동대응 등 실제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귀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동질감을 회복하고 정체감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3_ 재외재산과 한국의 분단·전쟁에 따른 귀환자의 인식 변화

이렇듯 동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귀환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재외재산의 처리문제였다.⁸⁴⁾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부동산은 물론 동산도 거의 압류당하여 자신들의 생계는 물론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역부족이었다. 이에 조선의 귀환자는 만주와 중국 귀환자와 달리 오랫동안 식민지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의 향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조사회는 1947년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계산한 결과 총 257억 엔(귀환자 전체는 1945년 8월 15일, 3794억 9900만 엔)을 추산하고 있다. 이 조사는 상당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종전 직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물가를 5배 내지 10배로 계상하여, 1942년도의 국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대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다.⁸⁵⁾

83) 『同和』, 1948(昭和 23). 8. 31. 1952년도에는 외무성아시아국 외지정리반에서 동창회 명부를 빌려달라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同和』, 1952(昭和 27). 7. 1).

84) 재외재산의 처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정병욱, 2004, 앞의 글, 85~92쪽; 선재원, 2002, 앞의 글 참조.

85) 朝鮮引揚同胞世話會, 1947. 3, 「在朝鮮日本人 個人財産額調, 7~8쪽. 이 자료는 간접자료에 의해 작성되어 확실하지 않으며, 평가시기를 종전 직후, 당시 물가를 5배 내지 10배 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상하였다.

귀환자들의 재외재산은 전쟁배상과 연동되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귀환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재외자산을 압류하여, 유치·청산할 권리를 승인하고 포로에 대한 배상에 충당하였다. 하지만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은 제외되었다. 이렇듯 전쟁배상과 귀환자의 재외재산은 연동되어 처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舊조선에 있는 그들의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는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도 바꾸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약 공산화가 될 경우에는 그들이 청구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해방 정국은 불안 그 자체였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남한은 이승만정권, 북한은 김일성정권으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어 갔다. 이것은 결국 1950~1953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연합군의 점령에서 벗어나 자주정권을 이루었으며, 전쟁특수로 일본 경제는 급속하게 회복되었다.⁸⁶⁾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귀환자들은 한국의 정치·경제 동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분단 상황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이 공산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재산청구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위문금을 모금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동화협회의 주도하에 각 지부에서 각각 위문금을 모집하였다. 그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문금 모집 자료 『韓國動亂 義捐金 收入簿』(학습원대학 소장 '우방문고')에는 1950년 11월 8일~1951년 1월 12일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총 355,760엔을 모아 일본 적십자사에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다.

이 활동은 동화협회에서 주도하였다. 협회에서는 이 활동을 위해 『韓國動亂 慰問救恤金募集 東京地方委員會』에서 경비를 지원받았다. 1950년 11월 6

86)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 2005, 『日本史講座-戰後日本論』 제10권, 東京大學出版會.

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모집위원은 穗積眞六郎를 중심으로 협회 위원 60여 명을 위촉하였다.⁸⁷⁾ 1951년 3월 14일에는 동화협회에서 韓國動亂 慰問 救恤金品募集 東京地方委員會'에 351,760엔을 넘겨주었다.⁸⁸⁾ 약 200여 명으로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있는 귀환자를 대상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렇듯 일본 사회에 정착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귀환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 관련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본 사회에 하나의 세력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면, 참의원·중의원·지방의원 등 정치계로 진출하는 방법이었다. 조선에서 인양된 귀환자 중 대표적인 인물은 호즈미 신로쿠로(참의원)-다나카 다케오(참의원)로 이어지는 라인이었다. 이외에도 1950년 6월 1일 참의원 선거에서 岩手縣의 千田正, 야마구치현 中川以良, 香川縣의 平井太가 전국구로 당선되었다. 당시 제외재산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국회에서의 활동이 절실하였다.

1951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11명이 당선되었는데, 동경도지사 安井誠一郎(원 경기도지사), 山形縣 知事村山潭雄(원 총독부 세무과장), 愛知縣會委員 石田千太郎(원 평안남도지사), 廣島縣會委員 瀬戸道一(원 경기도지사, 殖銀이사), 別府市長 脇鐵一, 徳山市長 池清 등이다. 1953년 2월 1일에는 참의원에 田中武雄(동화협회 회장)이 당선되었다. 1956년 6월 1일에는 岡田修一가 조선 관계에서 유일하게 참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조선 관련 귀환자 중에서는 岸信介 수상과 같은 비중 있는 정치적 인물을 배출하지는 못하였

87) 1951년 3월 13일, 사단법인 동화협회(회장 田中武雄, 모집위원 穗積眞六郎)가 한국 동란 위문구휼금품모집 동경지방위원회 앞으로 보내는 공문서 「募集費支給御依頼の件」. 주요 내용은 동화협회가 위문금 모금에 사용한 경비 28,800엔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88) 사단법인 동화협회가 한국동란 위문구휼금품모집 동경지방위원회에 보내는 공문서 「募集金引繼の件」, 1951년 3월 14일.

다. 이러한 정치권의 역할과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의 김을 수입하거나 일본의 물품을 수출하기도 하였으며 무역을 위해 경제 관련자들을 조직하였다.⁸⁹⁾

압력을 행사하는 중심은 동화협회에서 조직 개편된 '중앙일한협회'였다.⁹⁰⁾ 협회에서는 한일회담의 성사와 재외재산의 보상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재외재산 보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1953년 8월 1일 『동화』의 사설을 통해, 재외재산의 보상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재외재산 보상에 대한 국회 예산위원회의 토의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였다.

1953년 11월 1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吉田 수상의 한일회담에서도 재외재산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이승만라인' 등으로 인해 한일회담은 계속 진척이 없는 가운데, 1956년에는 조선 관련 귀환자 岡田修一가 자민당에 입당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귀환자들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그동안 전범 석방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1956년 11월 1일에는 終戰 殉難者 慰靈祭가 행해졌다. 서서히 전쟁의 범죄자가 전쟁의 피해자로 전환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7년 4월 1일 재외재산 보상에 관한 법률, 즉 「인양자 급부금 등 지급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對韓 재산 청구권의 포기과 재외재산의 보상이 맞물려 이루어졌다. 정부로서는 외교문제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것이었고, 귀환자들로서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서로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57년 6월 1일 「인양자급부금 등 지급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귀환자에게는 국채로서 보상금이 지불되었다.⁹¹⁾ 이렇게 하여 일본정부가 귀환자들에게 재외재산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하여, 귀환자들은 집단의 힘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일

89) 1954년에 金岡龍五이 작성한 「일한무역회사 설립의 취지」(大野綠一郎문고 2340-853, 례번호 R-245).

90) 중앙일한협회에 대해서는 정병욱, 2004, 앞의 글; 노기영, 2006, 앞의 글 참조.

91) 동화협회, 1957. 6. 1, 『同和』.

간의 가교역할을 하기 원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냉전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재외재산 청구권이 포기되는 현실과 반공사상의 강화 등으로 더욱 복잡화되었기 때문이다.

IV. 고도성장기(1965~1990) : 귀환 2세의 네트워크와 한국 인식의 변화

1_ 귀환 2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체성 찾기

일본은 연합국 점령군으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 가속도가 점점 높아갔다. 이 시기를 ‘고도성장기’라고 한다.⁹²⁾ 이 시기가 되면, 귀환 당시 30~50대의 활동 세대는 자연적으로 점차 중진으로 바뀌고, 귀환 당시 10~20대가 30대~40대로 되면서 활동의 주역이 되었다. 세대가 바뀐 것이다. 이 세대층은 조선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전선으로 자연스럽게 편입한 세대였다. 귀환자 자녀들(이후부터 귀환 2세라 칭함)은 이전 세대가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귀환 후 고생한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주로 의사, 변호사, 교수, 은행업, 부동산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진출하였다.⁹³⁾ 따라서 고도성장기에는 이 귀환 2세들의 활동과 인식의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귀환자의 단체는 종전 후 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착이 완료된 시점까지 조선총독부 관료와 기업가 중심의 일본인세화회 → 조선인양자세화회 → 동화

92)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대해서는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 2005, 앞의 책, 197~226쪽 참조.

93) 직업은 각종 명부를 참조. 현재 인터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 귀환 2세들이다.

〈표 4〉 귀환자 관련 주요 단체 사례

구분	단체명
일본 전국 단체	中央日韓協會, 友邦協會(友邦協會朝鮮史料研究會) 靑丘俱樂部, 朝鮮人救濟會
舊조선 국영 관련 단체	舊朝鮮放送協會日本人職員, 朝鮮遞友, 國土計畫協會, 全南警友
일본 국내 교류 관련	日韓親和會, 長野國際親善クラブ, 在巢鴨韓人會
舊조선 전국기업 단체	鮮交會, 鮮銀交友會, 殖銀行友會, 拓友援護會, 十日會, 土地改良建設協會, 朝山會(舊朝鮮鑛業關係者), 朝水會 東崇工業會, 南山會(경성실업인회)
舊조선지역 도시	京城會, 釜山會, 晉州會, 元仁川在住者, 全州日本人世話會 水原會, 佐賀市朝鮮會, 東京樂浪會(평양관계자의 회)
취미 등	朝鮮棋友, 恩水會, 淸交會

※ 출전 : 靑丘俱樂部(1950), 中央日韓協會(1952), 朝鮮遞友(1951), 全南警友(1965), 十日會(1964), 土地改良建設協會(1965), 朝山會(1962), 水原會(1958), 恩水會(1969), 晉州會(1998) 등 각 단체의 회원명부를 참고하여 발췌. 南山會(『同和』, 1957.5.1), 佐賀市朝鮮會(『同和』, 1957.5.1) 등 참고.

협회 → 중앙일한협회 라인이 있다. 이것은 귀환 1세대의 중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직능별 단체와 귀환 2세대를 중심으로 만든 동창회는 그들이 네트워크 형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서 활동하던 동질감을 중심으로 직능별 단체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였다. 많은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1983년 직능별 단체, 지역별 단체, 동창회는 100여 개가 확인된다. 그것을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 귀환자 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일한협회와 같이 舊조선총독부 관료나 기업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귀환자의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 또한 舊조선 관련 국영기업·민간기업 관련 단체, 舊조선지역 도시 관련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한일 간의 친선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취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체 등이 있다. 회원은 대체로 일본인 귀환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

〈표 5〉 귀환자의 동창회 사례 일람 (1983)

지역 (학교수)	동 창 회 명
경성 (37개교)	<p>경성서대문소학교동창회, 경성청업소학교, 경성남대문소학교동창회, 경성남산소학교, 경성동대문소학교, 경성사범부속소학교, 경성삼판소학교, 경성앵정소학교, 경성용산소학교(용회), 경성원정소학교, 경성日の出소학교, 경성종로소학교, 경성櫻ヶ丘소학교동창회 (소학교-13개교)</p> <p>성동중학교동창회(성중회), 용산공립중학교동창회(용중클럽), 旭ヶ丘중학교동창회, 경성공립중학교동창회(경중회) (중학교-4개교)</p> <p>경기도립상업학교(도상회), 경성무학교등여학교, 경성여자기예학교(방란회), 선린상업학교 동창회(청파클럽), 경성여자실업학교(ふたば회), 경성공립상업학교(경상회), 경성용곡고등여학교(등음회), 경성제삼고등여학교, <u>경성제일고등여학교(백양회)</u>, <u>경성제이고등여학교(とさわ회)</u>, 경성창덕가정여학교 (고등학교-11개교)</p> <p>경성공업전문학교(동송공업회), 경성광업전문학교(동송공업회), 경성공업학교(동송공업회) <u>경성법학전문학교</u>, <u>경성사범학교(향화회)</u>, <u>경성약학전문학교(약창회)</u> <u>경성여자사범학교(명경회)</u>, <u>경성의학전문학교(유린회)</u>, <u>경성제국대학·동예과 동창회(감벽회)</u> (대학교·전문학교-9개교)</p>
부산 (4개교)	<p>부산제육소학교, 부산중학교(구봉회) 부산고등여학교 (도회), 부산제일상업학교 (구덕회)</p>
인천 (3개교)	<p>인천고등여학교 (백양회), 인천공립중학교 인천남상업학교 (인상회)</p>
수원 (1개교)	<p>수원농림전문학교 동창회</p>
청주 (2개교)	<p>청주제이공립중학교 동창회 청주제일고등여학교 동창회(회풍회)</p>
대전 (1개교)	<p>대전중학교 동창회(계룡회)</p>
전주 (1개교)	<p>전주중학교 동창회</p>
이리 (1개교)	<p>이리농림학교 동창회</p>
목포 (1개교)	<p>목포고등여학교 동창회(わかば회) 목포상업학교 동창회</p>
대구 (1개교)	<p>대구의학전문학교 동창회(동운회)</p>
진주 (2개교)	<p>진주소학교(진주회), 진주중학교(진주회)</p>
진해 (1개교)	<p>진해고등여학교 동창회(앵음회)</p>

마산 (1개교)	마산고등여학교 동창회(ささなみ회)
북한 (12개교)	평양고등여학교 동창회(낙랑회), 평양의학 전문학교 동창회(행림회) 평양제일중학교 동창회 신의주고등여학교 동창회(あかし야회), 신의주중학교 동창회(의중회)
	나남고등여학교 동창회(엽월회), 나남중학교 동창회 함흥고등여학교 동창회, 원산중학교 동창회(장덕회)
	해주 중학교 동창회(수양회), 해주고등여학교 동창회(부용회)
	진남포 고등여학교 동창회

※ 출전 : 각 동창회 명부와 동송회 명부 1983 참조. 밑줄은 일본 자주권회복기에 기창립

지만, 한국인 혹은 일본인 관련자를 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입회시킨 단체도 있다.⁹⁴⁾ 그런데 귀환 2세대들은 동창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기억’을 공유하였다. 귀환자의 동창회는 함께 다녔던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인 중에서도 연락이 닿는 동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다음은 귀환자의 동창회 사례 일람표이다.

〈표 5〉를 보면 1983년 모두 68개의 동창회를 확인할 수 있다. 경성(현재의 서울)이 37개교로 가장 많으며, 경성·부산·평양 등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일본인 교육기관을 집중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성 37개교(소학교 13, 중학교 4, 고등학교 11, 전문대 이상 9개), 부산 4개교, 평양·인천 3개교, 나남·해주·신의주·목포 각각 2개교 그 외 지역은 모두 1개교씩만 들어섰다. 경성지역(밑줄 표시는 이전시기 창립) 이외의 경우는 이 시기에 모두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남한 지역에 있던 동창회가 북한 지역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 시기 동창회의 특징은 귀환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동창을 초대하

94) 귀환자 단체는 직능·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회원의 경우는 규정을 정하여 관련자를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례로서 청구클럽, 진주회의 경우가 있다. 日韓親和會는 한국과 일본의 친화를 목표로 한 단체이다(『衆議院會議錄』, 第23号 1955년 6월 18일, 法務委員會, 委員長 世耕弘一).

여 함께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다.⁹⁵⁾ 또한 이 조직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을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귀환자 동창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7년 현재로서 동창회의 회원들은 70~80세의 노년층이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귀환자들의 동창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왜 만들어졌는가. 신의주중학교, 진주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신의주중학교의 경우를 『義中回譜』에 실린 「戰後 義中會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자.

1945년부터 시작된 해외 각지로부터의 인양, 귀환에 의해, 모국의 仙崎, 博多, 舞鶴항 등에 상륙한 것이 우리 회원의 대다수일 것이다. 초토화·황폐화된 수많은 도시, 허탈과 무상의 세상으로부터 몇몇 인연을 의지하여 전국에 걸쳐 임시로 살 곳을 구하던 회원이, 많은 인고를 넘어온 30여 년, 잃어버린 모교라는 동창의 줄에 결집하여, 이렇게 금일 융성하게 된 것은 흔쾌 그 이상일 것이다. 게다가 韓國籍의 동창들과도 계속 교류가 되니 너무 기쁘다.

인고의 생활 속으로부터 일단 안정을 찾고보니, 은사님이나 동창 친구들의 소식을 알고 싶은 것이 人精이다. 신문지상에서 藤本照男(7회생) 씨가 在外父兄引揚學生同盟의 위원장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완전히 우연한 기회로, 혹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시일이 경과되면서 소식을 알게 되었다. 도쿄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1953년 12월 20일, 도쿄역 精養軒에서 關東 義中會를 개최하였다. 참가자 35명, 선후배 구별 없이 서로 격려하고 크게 탄력을 받았다. 회장은 1회생 伊藤嘉夫가 선출되었다. 이후 의중회는 도쿄, 오사카, 오카야마, 나고야 등에서 20회(1981년 현재) 가까이 개최되었다.⁹⁶⁾

95) 2007년 6월 최종 모임을 가진 '진주회'의 경우에도 한국인 동창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하였다.

96) 義中史편집위원회, 1982, 『回想譜』, 義中會, 190~191쪽.

진주공립소학교·중학교 동창회의 경우는 ‘진주회’라는 이름으로 1970년 5월 15일 회원의 우애와 상호부조를 토대로 주의·주장·민족을 초월한 친목 단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진주회’는 진주시와 진주 경상대학교 등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다.⁹⁷⁾

앞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 큰 이유는 귀환자들이 ‘격려하고 탄력을 받고’ 동질감과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중앙일한협회’는 舊조선총독부 관료들의 모임이어서 참가하기 어렵지만, 동창회는 이와 달리 함께 살던 사람들과의 기억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옛 추억을 되찾고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정체성을 찾아나갔다. 일본 본토에서 간 군인을 제외한 귀환자들은 조선에서 태어났고 자라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혹은 북한은 자신들의 가슴속에 고향, 혹은 ‘잃어버린 고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민지는 지배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단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인륜에 입각하여 결성된 단체도 있다. ‘일본인처 자유왕래 실현운동의 회’는 1974년에 발족되었으며, 그 목적을 일체의 정치·종교·사상 등에 관계 없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일본인처의 자유왕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⁹⁸⁾ 이 단체의 활동 중심은 일본 국회청원, 국제연맹, 적십자국제위원회, ‘북조선’부인회 등 다양한 인권 관련 기구에 청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⁹⁹⁾

97) 진주공립소학교 동창회·진주회, 1971, 『蠹石樓』, 22~23쪽. 당시 진주시장 李相熙 씨는 『축석루』 발간에 부쳐, 진주회의 활동이 민간외교의 새로운 기원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진주회」는 2007년 6월 9일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98) 이 문제는 남북한의 이산가족 왕래와 같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99) 이 단체는 1974~1977년까지 일본 국회, 발트하임 국련사무총장, 제네바 적십자국제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설명하였다. 1976년에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부인회에서 북한대표에게 청원하였으나, “일본인처는 朝鮮 公民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정간섭이다”라고 하여 거절당하였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북한

이렇듯 고도성장기에는 여전히 ‘동화협회’의 후신인 ‘중앙일한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도 추진되었지만, 이 단체는 한·일 간의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¹⁰⁰⁾ 그나마 귀환 2세들이 만든 동창회를 통해 민간교류가 행해졌다. 귀환 2세들은 조선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로서, 귀환 1세대들이 정치적 목적성을 가지고 단체를 만든 측면이 강하다면, 2세대들은 출신학교를 통한 친목교류의 목적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_ 한일회담 이후의 정세 변화와 한국 인식의 변화

한일회담 이후, 귀환자들 흐름도 변화되었다. 그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따라서 한일관계의 인맥 또한 변화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일 간 ‘반공’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셋째는 귀환 2세들이 활동의 전면으로 나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한일 간 정세 변화의 실마리라 할 수 있는 인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박정희가 일본의 기시(만주 귀환파)와 연결되면서 점차 한·일 교류의 인물이 변화되었다. 1962년 한일회담은 해결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일 인맥의 중심은 한국 측에서는 박정희-김종필을 정점으로 일본 현지에서는 유태하·최영택이 주역을 담당했고, 일본 측에서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를 정점으로 하는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고다마 요시오[児玉譽士夫] 등이 주역을 맡았다. ‘대동아공영권’으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의 아시아 지배욕은 미국의 위력을 이용하여 기득권과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공유하려 하거나 재무장한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었다.¹⁰¹⁾

쪽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義中史편집위원회, 『回想譜』, 1982, 義中會, 188~189쪽).

100) 정병욱, 2006, 앞의 글 ; 노기영, 2006, 앞의 글 참조.

101) 한일 간의 인맥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진희, 2002,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일 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9호, 역사문제연구소 참조.

한국의 정점에 있던 박정희는 청년기 일본 육사와 만주군에 복무했다는 사실과 항일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일교섭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아 한일 국교수립의 최대 난제였던 청구권 문제를 일거에 타결할 수 있었다. 대일청구권 문제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경제협력기금 1억 달러 선에서 타결을 보았다.

일본의 정점에 있던 岸信介(1896~1987)는 한일회담이 성사되기 직전까지 수상이었으며, 戰前에는 만주국의 실력자였다. 그는 전후 A급 전범자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스가모형무소에서 복역하였으나, 미국의 정책변화와 함께 정계에 복귀하였다. 1957년부터 수상으로 재직하였으며 1960년 일본의 안보파동으로 도중하차하였으나 이후에도 우익 정치지도자로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이렇듯 한·일의 주요 정책자 간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한일회담은 성사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미소의 냉전체제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구축되어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재편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귀환 1세대들은 한·일 간 '반공'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미 1950년대 분단과 전쟁을 통해 반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귀환자들이었다. 196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귀환자는 대부분 휴전선 부근의 군부대를 견학하고 한국이 반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돌아갔다. 더구나 水田直昌(舊조선총독부 재무국장)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선포한 직후 계엄령이 내려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유신헌법을 지지하였고, 귀국 후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에 반공 분담비를 지원하자고 진언하였다고 한다.¹⁰²⁾ 이 시기 중앙일한협회가 바랐던 '한국과 일본의 가교'의 의미는 이렇듯 반공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귀환 2세들이 사회 전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수많은 재조 일본인 단체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102) 水田直昌, 1989, 「日本の對韓民間經濟外交-國交正常化をめぐる關西財界の動き」, 『國際政治』 92, 177~195쪽.

중앙일한협회 이외에도 직능별, 동창회별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다. 鮮交會는 교통시스템에 대해 한국에 기술자를 제공하였으며, 동창회별로도 경제 그룹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였다.¹⁰³⁾

이처럼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작하였고 고도성장기의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로 나서고 있었다. 한국 또한 정권의 변화와 함께 식민지 시기의 노동력을 자금으로 받아 경제건설을 시작하였다. 당시까지 북한이 한반도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한의 빈곤을 퇴치해야만 아시아에서 공산권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귀환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과거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탈피하여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일조약과 그에 부속된 모든 협정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말도 ‘불행한 과거’라는 말조차 없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반성’도 ‘유감’조차도 없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신식민주의적 침략을 경계하고 식민지 지배의 사죄를 요구하여 한일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매스컴은 이러한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 한일조약에 대해서 『朝日新聞』은 사설에서 “선린 우호의 관계를 열 준비를 갖추었다”고 하면서 그 불충분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측은 갖가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논평했다. 당시 매스컴의 논조는 한국에 너무 양보했다는 것이 주류였으며, 어느 사설에서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자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공산당·사회당 등은 북한과 가까운 입장에서 한일조약에 반대했지만, 논점은 한반도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 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한일조약 반대운동은 있었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¹⁰⁴⁾

103) 鮮交會, 1965, 앞의 책 참조.

104) 和田春樹는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회로, 1945년 8월 15일, 1965년 한일회담,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들고 있다 (일본인의 한국 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 石坂浩一, 2007, 「일본인의 한국인

귀환자들의 활동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미즈타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을 집중 조사하는 역할과 경제협력의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¹⁰⁵⁾ 이후 롯데 그룹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귀환자들이 경영지배인 등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¹⁰⁶⁾

이후,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이 있을 때, 일본 여론은 일본정부가 박정희 정권 일변도의 외교·원조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야당세력에도 관심을 보임으로써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일본 국민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한일관계에서 일본정부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강한 의지를 지닌 한국 사람들의 존재를 일본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는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인이 구속된 것이 주목받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를 계기로 김지하의 작품을 위시한 한국인의 목소리가 전해지게 되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4월 18일 '일본의 대한정책을 바로잡고 한국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는 일본 연락회'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서 자국 정부의 자세를 묻는 시민운동이 한국과의 관련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일본 시민운동의 하나로 국내 공해기업의 한국 이전 반대운동도 일어났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고려하는 출발점으로서 한일조약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은 당연히 식민지 지배 역사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귀환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또한 서서히

식 : 그 진전과 현상-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중심으로.

105) 國際金融局, 1959, 『經濟協力・韓國30・朝鮮の財政について(水田直昌(全)氏・昭和財政史)』(大藏省 連合國財産・戰後賠償・在外財産等關係).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현재 비공개).

106) 관련 귀환자 현재 신원 비공개 요약.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눈에 띄게 바뀌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¹⁰⁷⁾

3_ 상징물의 설립과 귀환자 인식의 변화

고도성장기는 귀환 2세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데 열중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조부와 부모를 통해 국가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향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에는 갈 수 있지만 북한에는 자유롭게 갈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노령화에 따라 귀환자 단체는 친목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 연 1회 모이거나, 거의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념비와 기념관 건립을 통해 귀환자들을 ‘전쟁의 최대 희생자’ 나아가 ‘평화의 수호자’로 만들고 있다.

귀환과 관련하여 건립된 기념관과 기념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京, 京都, 大阪, 舞鶴, 吳市 등 전국에 걸쳐 건립되어 있으며, ‘인양’지역에는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舞鶴引揚記念館은 1959년 4월 1일 舞鶴市 議會의 제안으



〈그림 1〉 高石墓地(大阪府 高石市)



〈그림 2〉 久御山中央公園
(京都府 久世郡 久御山町)

107) 귀환 2세 大庭達朗(76세)의 인터뷰, 2007. 7.

로 시작하여 1970년 3월에 완성되었다.¹⁰⁸⁾

오사카부의 高石市에는 高石墓地가 있다. 여기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전몰한 병사자들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보존하고 있다. 1955년 1월 18일에 오사카부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였다. 高石市 泉大津市 墓地組合에서 관리하며, 조합의 사무소는 高石市役所 내에 두었으며, 조합장은 선출제로 하고 있다.¹⁰⁹⁾ 大阪市 住之江區 大阪護國神社에도 비석을 세웠으며, 교토부의 久世郡 久御山 中央公園, 三重縣 上野市 不動寺에도 비석을 세웠다.

仙台市에 있는 ‘昭和大戰 전몰자 위령비’는 원래 시가지의 공원에 건립되어 있었지만, 시 당국이 공원을 정비할 때 비를 철거하고 비면을 잘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을 때, 전몰자 유족 등 관계자가 시의 비석을 돌려받아 새롭게 비문을 새겨서 輪王寺에 재건하였다. 碑文에는 “昭和の戦いに國のために倒れ歸らぬ私達をふるさとの人は 忘れないで下さい(昭和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죽어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을 고향 사람들은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렇듯 일본 패전 직전에 전몰자들은 묘지에도 묻히지 못할 상태였으나, 자주권 회복 후 점차 전쟁의 ‘희생자’로 인식이 바뀌어져 갔으며 기념관과 기념비 설치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일본 전국에 세워져 있는 호국 신사에도 모든 전사자들을 추모하게 되었다.

현재의 귀환자에 대한 인식은 전범 수형자 석방운동을 통해, 또한 기념관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점차 최대의 ‘전쟁 피해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軍 관계로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일반적인 것으로는 ‘평화기념자료관’이 대표적이다. 야스쿠니신사는 東京都 千代田區에 있으며, ‘전쟁범죄’로 판결된 A급·BC급 전범자를 추모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이래 일본이 관계한 국내외의 사변·전쟁에서, 일본정부에서 전역·전몰한 군인·군속들을 추모

108) http://www.maizuru-bunkajigyoudan.or.jp/hikiage_homepage/next.html (2007).

109) 大阪府知事許可, 「高石市泉大津市墓地組合規約」, 1955. 1. 18.

할 목적으로 지은 신사이다. 전후에는 종교법인으로 되었으며, 후생성이 야스쿠니 遊就館의 전범 유서 수집을 의뢰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朝日新聞』, 2006. 7. 30), A급·BC급 전범들을 합사하고, 일본 수상의 참배문제 등으로 동아시아의 외교문제가 되기도 하였다.¹¹⁰⁾

‘평화기념자료관’은 재단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으며, 도쿄의 심장부인 신주쿠의 고층 빌딩 안에 있다. 전쟁피해자로서의 귀환자의 생생한 모습을 전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귀환자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고, 방대한 분량의 증언들을 수집하고 있다. 『平和の礎』(10권)를 자료집으로 펴내기도 하였다.

이 자료관은 1982년 6월 30일 총리부 총무장관 私的 자문기관으로 전후 처리문제 간담회로 설치되어, 1988년 5월 24일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이 설립되었다. 8월 1일부터 전후 강제역류자에 대한 위로품과 위로금을 청구받기 시작, 1989년 3월 15일 제1회 평화기념 강연회를 시작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후 恩給欠格者, 전후 강제역류 중 사망자, 귀환자에 대한 書狀 증정사업을 행하고 있다. 2001년(平成 13) 4월 1일 ‘평화기념전시자료관’을 개설하였으며, 2005년 독립행정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이 발족되었다. 이 자료관은 ‘전쟁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귀환자·은급결격자 등에 대한 원호, 자료수집과 정리·전시, 평화강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다.

결국 세계 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자주권의 회복과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객관적인 정세가 변화하였으며, 여기에 귀환자들의 전범석방운동과 일본정부의 보수성향 강화로 인해, 일본의 침략전쟁은 ‘聖戰’에서 ‘전쟁범죄’로 다시 ‘전쟁희생자’로 인식이 변화되어 나갔다.¹¹¹⁾

110) 『毎日新聞』, 2006. 8. 15.

111)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현재 일본의 자민당이 전개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의 귀환자들이 자신들을 ‘전쟁의 희생자’로 규정한다면, 그 ‘전쟁 희생자’에게 희생받은 수많은 한국·대만·중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 등의 희생자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환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의식 속에 갇혀 있다. 결국 많은 귀환자가 일본인 가운데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식민지 지배의 고초를 겪은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귀환 2세 중에는 노년기를 맞아 인생을 반추하면서 전쟁과 식민지 폭압에 대해 마음의 빗으로 여기며 사죄하는 귀환자들도 나오고 있다. 大庭達郎(76세)은 1935년 1세 때부터 1945년 10세까지 진주에서 살았으며, 일본 인양 후 2002년 9월 처음으로 진주를 방문하였다. 그는 진주를 방문하기 전에 진주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속에는 대다수의 일본인이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310만 명이 희생된 것만 교과서를 통해 알고 있을 뿐 2,0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피해는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식민지 지배는 국가에서 한 일이고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은 조선에 유익한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역사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국가와 조상들이 저지른 전쟁과 식민지 폭압의 가해자라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벗을 수 없는 오명이므로 마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¹¹²⁾ 오바는 이 방문을 ‘인생의 잔무정리의 여행’, ‘나의 전후 처리’라고 말하고 있다.¹¹³⁾

이렇듯 고도성장기에 귀환 2세들은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한일 간 경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동창회를 통해 동질감과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기념관이나 기념비 건립을 통해, 귀환자들을 ‘전쟁의 희생자’ 나아가 ‘평화의 수호자’로서 위치짓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귀환자들로부터 별다른 저항 없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선조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112) 「경남일보」, 2002. 9. 18.

113) 大庭達郎, 2002, 「자서전 초고」, 大庭達郎 인터뷰(東京都町田市, 2007. 7. 3).

V. 맺음말

본고는 일본의 패전에 따라 ‘인양’된 귀환자들에 대하여 일본 연합군 점령기, 자주권 회복기, 고도성장기로 나누어, 그들의 처해진 상황과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연합군 점령기(1945~1952)에는 귀환자들의 일본 정착이 최우선 과제였다. 재조 일본인 귀환자들은 농촌보다 도시에 주로 정착하였는데, 식민지에서 도시생활에 익숙하였고 직업이 공무, 상인, 자본가 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귀환자들의 이주생활은 원폭과 공습으로 인한 생활고에 더해, 공식 추방이나 언어·문화적 습관 차이 등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귀환자들은 자신들의 생활기반 조성이나 재외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 조선 귀환자의 중심 단체는 귀환 직전 ‘일본인세화회’ → 귀환 직후 ‘조선인양자세화회’ → 귀환 완료 후(1948) ‘동화협회’로 이어졌다. ‘동화협회’는 주로 舊조선총독부 관료와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공직자추방령」에 따라 민간단체로 만들게 되었다. 이 외에도 식민지 조선에서의 직업별, 도시별, 동창회별로 단체를 만들어 세력을 결집하였다. 그렇지만 식민지 권력의 핵심 인사들은 전후 일본 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귀환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특히 재외재산과 관련하여 그들의 ‘반공’사상은 한국의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정권기에는 반일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았다.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체제로 인해 거의 관련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 귀환자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은 천황의 ‘인간선언’과 ‘극동국제군사재판’이었다. 천황의 ‘인간선언’으로 인해 종래의 히노마루, 대동아의식, 일본인 우월의식은 부정되었고, 일본인이 믿고 있던 ‘聖戰’은 ‘전쟁범죄’로 규정되었다. 일반 귀환자들도 전쟁범죄 수행 내지 방조자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군사재판은 A·B·C급 전범으로 나누어 5000여 명을 판결하였으며, 주모자 東條 등 7명이 교수형으로 사형당하였고, 다른 중신범들은 풀려났으나, BC급 전범들은 모두 ‘스가모프리즌’에 수용되었다. 이것은 귀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둘째, 자주권 회복기(1952~1965)에는 세계 냉전체제의 심화와 미국의 극동정책의 변화로 인해 일본이 자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귀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쟁의 피해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의 ‘스가모프리즌’ 접수와 전범 석방, 官制의 성격을 띤 戰爭受刑者世話會를 중심으로 벌인 전범 석방운동, 일본정부의 언론을 동원한 ‘전쟁피해의식’을 호도, 그리고 日本 天皇의 전몰자 추도식 참여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스가모형무소 내부에서 BC급 전범들이 자신들을 ‘재군비’를 위한 제물로 쓰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진정한 평화활동을 하는 등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귀환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외재산 처리문제였고, 일본정부와 연합국은 재외재산으로 그들의 전쟁 배상금을 연동시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귀환자들은 ‘중앙일한협회’를 중심으로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외에도 직능별, 舊조선 도시별, 동창회별 단체를 만들어 대응하였다. 재외재산 문제는 연합국의 전쟁 배상과 맞물려 처리되었고, 일본정부는 1957년부터 국채로 보상지급함으로써 일단락지었다. 이렇게 귀환자들은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현실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공동체함을 통한 공동기역을 공유하면서 정체성을 찾아 나갔다. 이것은 집단 동질의식의 형성과정이었다.

귀환자들은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일 간의 가교역할을 하기 원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냉전과 남북의 분단으로 재외재산 청구권이 포기되는 현실과 반공사상의 강화 등으로 더욱 복잡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고도성장기(1965~1990)는 조선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귀환 2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였다. 또한 그들도 노령에 접어들어 단체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해체될 시기에 처했다. 이들은 직능별보다는 동창회

와 향우회를 중심으로 동질의식을 찾고 있었다. 귀환자들의 동창회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귀환하여 일본에 편입하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어질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83년 현재 100여 개의 동창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경제협력을 하였으며, 대학·공공기관과의 민간교류를 행한 시기이다. 또한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식민지적 우월의식이 변화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객관적인 역사인식에 기반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귀환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귀환자들을 ‘전쟁희생자’로, 심지어 ‘평화의 수호자’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기념비와 기념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스쿠니신사와 평화기념전시관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귀환자들은 귀환 후 일본의 국제적 위치와 국내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전쟁범죄자·제국주의 협력자로부터 전쟁의 최대 피해자로 변화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귀환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식민지 혹은 점령국의 민중을 가해했다는 의식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패전과 귀환으로 인한 피해의식 속에 묻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의식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여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더욱 강조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귀환자에 대한 평가와 역사적 정립은 한일 양국 간 및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립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식민지 시기 주요 정책을 수행하였던 귀환자들이 국가를 넘어 일본으로 강제 퇴출당한 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활동을 전 시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파악한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귀환자들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고를 시작으로 하여 각각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Japanese' Return and Changing Recognition from the
Colonial Joseon

Kim, Kyungnam

Through Japanese people that were returned to their home from colonial Joseon by Japanese defeat in 1945, this paper is examined about their circumstances and changing recognition on Korea, divided into during the occupation by coalition forces, recovery of autonomy and high growth period of Japan. By carrying this study, the recent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d Japan can be understood successionaly.

The Japanese returned to home made groups to look for rights and interests of themselves. One of the groups was *the alliance class reunion*(聯合同窓會)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ir politics inclination, the other was *Dowa association*(同和協會) consisted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who had worked for the colonial Japanese authorities. All both groups acted as the mediators to normalize Korea-Japan relationships but they were excluded by Korea-Japan government's policy line on issues dealt with their property rights which was left in Korea.

The turning points which were vastly changed returnees' recognition on Korea were as follows. The first was Japan' Surrender Declaration, 1945 and Repatriation of Overseas Japanese. The second was that Japan's War Criminals were passed a death sentence in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by being taken the war referred to as *A Holy War*(聖戰) for *A War Crime*(戰爭犯罪). The third was the formation of the anti-communism consciousness by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Cold War. The fourth was the fact that their recognition had been changed on South and North Korean by the growth of South Korea economy since 88Olympics.

In the recent,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recognize returnees as the greatest war victims. It is verified with such evidences as various memorials, monument, and the activation of the Shrine(神社). For instance, there are *Yasukuni Shrine* (靖國神社) and *Peace Memorial Museum*(平和記念館). Yet they have some of the psychological pressure and damage in Japan of colony contempt behind these conducts. On the other hand, now most old returnees wanted to go again where they were born, bred before dying. They also hope their hometown is always safe from any dangers.

After all returnees has been changed from war criminals or imperial collaborators to the greatest war victims or peace protectors by the rise in international position and domestic and foreign changing perception of Japan. Most of returnees, however, don't feel the sense of guilt on theirselves' conduct exploited the colony or occupied territory. It is that they have the feeling of being victimized in their life by the 'defeat' and 'repatriation'. Also, it is that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public relations toward the people for returnees. The correct evaluation of Japanese returnees is an important problem to uprightly understand and set history of Korea-Japan or East Asia.

keywords

returnees(歸還者), Dowa association(同和協會), War Crime(戰爭犯罪), war victim, recognition on Korea(韓國認識)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 한류와 협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사회 -

한정선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I. 머리말

潮境水域이란 성질이 다른 해류가 서로 접하여 이루는 수역을 말한다. 무거운 寒流와 가벼운 暖流가 만나면 난류가 한류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과정을 '湧昇' 작용이라고 한다. 용승된 물은 주변의 물에 비해 저온, 고염분, 영양염류를 공급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왕성한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따라 동물성 플랑크톤과 다양한 어류가 모여드는 좋은 수역이 되기도 한다.

바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조경수역은 韓流와 嫌韓流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대 일본의 사회 및 의식변화를 관찰하는 데도 유용한 메타포가 될 수 있다. 21세기 벽두에 한류와 협한류가 만나고 있는 일본 사회는 마치 조경수역 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요소로 인하여 '용승' 과정을 겪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한류와 협한류라는 문화현상은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의 양식들이라기보다는, '전후 일본'이 서서히 해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한류와 험한류 현상, 특히 한류현상에 대한 연구는 일본 사회 변동과 분리된 채 주로 한류 발신자 중심의 연구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류의 수신자인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¹⁾ 본 연구는 후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한류와 험한류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한류와 험한류는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체제를 이념적으로 지탱한 ‘주류의식’이 1990년대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에서 ‘타자’의 재생산을 통한 새로운 자화상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의 90%에 달하는 일본인이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신중간대중사회(new mass middle-class society)’가 되었다.²⁾ ‘신중간대중’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이 논의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일본인이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의식을 ‘주류의식(mainstream consciousness)’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의식’의 핵심 요소는 철저히 二分화된 性역할에 기반한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³⁾

1) 채지영, 2005, 『일본 한류 소비자 연구 : 한류 마니아와 일반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주영하 외, 2007, 『일본 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2) ‘신중간대중’은 1984년 村上泰亮의 연구 『新中間大衆の時代』(東京 : 中央公論, 1984)에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중간대중사회’ 논란에 대해서는 中央公論編輯部 編, 2001, 『論爭 中流崩壊』, 東京 : 中公新書 참조.

3) 1990년대 들어서 눈에 띄게 진행 중인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상일·김영작 외, 2005, 『일본형 시스템 : 위기와 변화』, 서울 : 일조각 참조. ‘주류의식’이라는 용어는 William W. Kelly and Merry I. White, 2006, “Students, Slackers, Singles, Seniors, and Strangers : Transforming a Family Natio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Beyond Japan : The Dynam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에서 사용되었음. 이분화된 性역할에 관해서는 Andrew Gordon, 1997, “Managing the Japanese Household : The New Life Movement in Postwar Japan,” *Social Politics*,

전후 이상적인 가족상은 ‘회사인간’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두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이러한 핵가족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전개되는 ‘능력주의’ 교육체계를 통해 지탱되었다. 즉 안정된 중산층 지위는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따라 가능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였다. 물론 이 경우 공교육제도가 평등한 교육 기회와 투명한 인재선발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⁴⁾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 사회는 교육을 통해 ‘입신출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정 정도 충족될 수 있었고, 따라서 가족 구성원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주류의식’은 가족제도, 교육제도, 회사주의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전후 고도성장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련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주류의식’이 저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진행된 10여 년에 걸친 장기불황은 자민당, 엘리트 관료,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철의 삼각구조’ 속에서 연공서열제, 종신고용, 그리고 기업노조로 알려진 ‘일본식 경영’에 의한 발전지향 개발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지속된 경제발전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제도의 사적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후 일본 경제발전의 사회적 기반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유동화가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주류의식’도 해체되기 시

Summer ; Robert J. Smith, 1997, “Gender Inequality in Contemporary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3, No. 1, Winter 참조.

4) 일본 중산층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Ezra F. Vogel, 1971, *Japan's New Middle Class : The Salary Man and His Family in a Tokyo Suburb*,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교육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 사회를 분석한 것으로는, Thomas P. Rohlen, 1983, *Japan's High School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참조.

작했다.⁵⁾

본 연구는 '주류의식'의 해체라는 큰 틀 속에서 현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의 유동화로 인한 균질적인 전후 '주류의식'의 동요가 어떻게 대중매체를 통해 '포퓰리즘'으로 재현되고 있는가를 관찰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유동화는 하나의 '대중'을 상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한류와 혐한류를 '주류의식'의 해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사회 구성요소에 의한 차별화된 반응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성(gender)과 세대(generation)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한류의 경우는 여성이, 혐한류의 경우는 젊은 전후세대가 소비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류의식'의 해체는 성별·세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II. 매개된 대중의 등장

일본에서의 '주류의식'의 해체는 '일본형 포퓰리즘'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개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매스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돌발적으로 표출되면서 대중주의적 변화의 세력으로 부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형 포퓰리즘의 작동양식은 다

5) William W. Kelly and Merry I. White, 2006, 앞의 글;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 한중일 젊은이들의 갈등 읽기』, 서울: 삼인 참조.

양한 이해대립의 조정장으로서 공론장을 선악의 이분적 구도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도덕화'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일반국민 대 엘리트,' '선과 악,' 또는 '동지와 적'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주류의식'의 외형적 틀인 기존의 엘리트 관료, 고위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으로 만들어진 '철의 삼각체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의 진보적인 전문인조직에 대한 불신감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일본형 포퓰리즘의 출현은 1990년대에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TV 방송보도 방식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전후 일본의 언론보도는 『요미우리신문』이나 『아사히신문』과 같이 전국에서 동시에 유통되는 일간지가 중심을 이루었다. 1990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하루에 인쇄되는 신문은 7,200만 부에 달했고, 1인당 신문 유통 부수는 미국의 2배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⁷⁾

그러나 이러한 신문의 사회에 대한 높은 침투력과는 대조적으로 신문이, 특히 5대 주류 일간지(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신문)가 얼마나 일본 정치경제의 투명화에 기여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특히 기자클럽을 통한 정치경제권과 주류 언론계의 밀착관계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사회의 권익을 지키는 감시인(watchdog)의 역할보다는 기득권의 권익을 현상 유지하는 데 윤택유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6) 일본형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大嶽秀夫, 2003, 『日本型ポピュリズム：政治への期待と幻滅』, 東京：中央新書；이기완, 2006, 「고이즈미식 포퓰리즘과 2005년 중의원 선거」, 『아세아연구』 49권 1호 참조.

7) 일본의 신문 유통은 1,000명당 581부수임에 비하여 미국은 1,000명당 250부수로 나타난다. 통계에 관하여 Susan J. Pharr, 1996, "Media and Politics in Japan :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Susan J. Pharr and Ellis S. Krauss eds., *Media and Politics in Japan*, Honolulu : Hawaii Press, p. 4 참조.

8) 기자클럽에 관해서는, Laurie Anne Freeman, 2000, *Closing the Shop : Information Cartels and Japan's Mass Media*,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ggie Farley, 1996, "Japan's Press and the Politics of Scandal," Susan J. Pharr and Ellis S. Krauss eds., *Media and Politics in*

이러한 현상을 유지하는 언론보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 1985년 TV 아사히방송사의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와이드쇼'식 보도방송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TV 시청률이 꾸준히 하락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성을 지닌 재미'를 극대화한 것이 바로 '와이드쇼식 보도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⁹⁾ TV 아사히는 대중음악방송의 사회자 구메 히로시[久米廣]를 심야 라이브 뉴스 보도의 종합사회자로 발탁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 방송은 보통의 직장인이 귀가하여 TV를 볼 수 있는 시간대인 오후 10시를 선택하여 뉴스보도로는 파격적인 80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배정한 라이브(生)방송으로 기획되었다. 라디오 아나운서 출신인 구메는 기존 TV 뉴스 아나운서의 정례적이고 무미건조한 뉴스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특유의 즉흥적이고 생동감 있는 보도와 해설 스타일로 뉴스 보도에 혁신을 일으켰다. 언론인으로서의 보도경험이 전혀 없던 구메는 기존 언론계의 관습과 타부를 무시한 채 복잡한 시사뉴스를 가능한 한 시각적(다양한 차트, 그래프, 지도 그리고 인형 등)으로 그리고 쉽게 편집 보도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뉴스 스테이션'은 보수적인 정계는 물론 다른 언론계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았지만 평균 2,00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면서 지속되었다.¹⁰⁾ 이후 '뉴스23', '선데이 프로젝트' 등 이와 유사한 '와이드쇼' 또는 '토크쇼'가 기획되었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 보도방송은 기존의 '철의 삼각형' 속에서 정권을 독점해 온 자민당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엘리트 중심의 일본 정치를 개혁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여론을 만들어 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구메의 '뉴스

Japan, Honolulu : Hawaii Press 참조.

9) 임경택, 2007, 「일본 대중문화 속의 '한류'」, 주영하 외, 『일본 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133~136쪽 참조.

10) Kristin Kyoko Altman, 1996, "Television and Political Turmoil : Japan's Summer of 1993," Susan J. Pharr and Ellis S. Krauss eds., *Media and Politics in Japan*, Honolulu : Hawaii Press ; 大嶽秀夫, 2003, 앞의 책 참조.

스테이션'은 1992년 8월 당시 자민당의 실력자인 金丸信과 운수회사 東京佐川急便과의 유착 스캔들을 연일 보도하면서 파벌중심의 밀실정치 집단으로 자민당 정권을 부각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네마루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것은 지금까지 종종 무시되어 온 여론, 특히 구메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된, 여론의 힘이다”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다.¹¹⁾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보도는 일본 언론계로 하여금 주류 언론매체가 지금까지 방기해 온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면서 1955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일본의 전후체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는 1993년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93년 7월의 선거전은 ‘TV 선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유형의 보도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²⁾

TV 보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론형성매체는 권력으로부터 사회공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혁 추진력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치의 ‘오락화’, ‘극장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점 커져가는 영상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인식한 정치인들이 대중매체에 영합하는 추

11) Kristin Kyoko Altman, 1996, p. 172.

12) 1993년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참조한 매체가 무엇이었나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36%가 선거관련 TV 방송이라고 대답한 반면, 신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26%에 그쳤다(Kristin Kyoko Altman 1996, p. 174). 또 다른 연구는 NHK의 198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해설을 신문에 의존한다는 사람은 45.7%, TV에 의존한다는 사람은 43.4%였던 것이 1990년에는 신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36.8%로 감소한 반면 TV라고 답한 사람은 52.4%로 급증하였다고 지적하였다(大嶽秀夫, 2003, 앞의 책, 207쪽).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정치에서 영상매체 영향의 급증 현상이 일본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진행된 현상이다. 특히 1990년대 일본의 뉴스 보도방송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1968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미국의 대중적 뉴스 프로그램 ‘60 Minutes’인데, 이 방송은 정치·사회 현상을 윤리화시키는 특유의 서술 방식으로 ‘악인 엘리트, 관료’ 들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가치체계를 재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ichard Campbell, 1994, “Securing the Middle Ground : Reporter Formulas in 60 Minutes,” Horace Newcomb ed., *Television : The Critical Vie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세와 맞물리면서 정치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란 다양한 세력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사보도방송은 특정 정책을 전체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劇化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특정 정치인의 스타일과 성격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정치인의 ‘연예인화’를 통해 정치과정을 지나치게 흥미 본위로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부패하고 악덕한 엘리트관료에 대항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혁신가’ 또는 ‘개혁가’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 드라마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이처럼 대중매체, 특히 TV 영상매체는 ‘주류의식’의 외형적 틀인 ‘철의 삼각구조’를 개혁의 대상으로 재현하면서 ‘일본 시스템’ 변혁의 필요성을 대중화한 포퓰리즘을 주도하였다. 동시에 이들 대중매체는 대외적으로 한국을 혁신의 모델로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Ⅲ. 한류의 형성 요인

‘한류’란 좁게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주로 영화, TV 드라마, 음악)를 지칭하고, 넓게는 이들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소비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류라는 단어는 2000년을 전후하여 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¹⁴⁾ 그러

13) 大嶽秀夫, 2003, 앞의 책, 225~232쪽.

14) 주영하, 2007, 「일본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 주영하 외, 『일본 한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15~16쪽 참조.

나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은 2003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KBS 제작 드라마 「겨울연가」가 2003년 4월부터 NHK 위성방송에서 방영되고, 이 방송이 예상 밖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¹⁵⁾ 이는 대만이나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보다 나중 일이다. 그러나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이 한국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국으로 부상하면서, 한류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류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소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에서 한류가 출현하게 된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 한류’의 출현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포퓰리즘에 의한 ‘혁신 한국’ 이미지 창출, 둘째, 일본 대중문화 산업의 속성, 그리고 셋째, 여성을 소비의 주체이자 객체로 멜로드라마의 정치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의 한류의 발원은 대중매체가 개혁을 주도한 1990년대의 포퓰리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류에 대한 일본인의 적극적인 관심은 위기의 일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움

15) ‘한류’라는 용어가 일본 『아사히신문』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1년 12월 19일자이다. 波佐場清, 2007, 「朝日新聞と韓流：ブーム越える‘國つくり’のパワー」, 石田佐恵子·木村幹·山中千恵 編,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 京都：ミネルヴァ書房, 178쪽. 2001년부터 2006년간 4대 일간지(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산케이 신문)에 보도된 ‘한류’ 관련 기사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産経新聞	四紙計
2001	2	0	1	2	5
2002	6	0	2	4	12
2003	3	2	1	4	10
2004	254	184	160	144	742
2005	581	386	384	369	1720
2006	257	169	173	217	816
計	1103	741	721	740	3305

※ 木村幹, 2007, 「ブームは何を残したか：ナショナルリズムの中の韓流」, 石田佐恵子·木村幹·山中千恵 編, 앞의 책, 215쪽, 〈표 8-3〉 재인용.

직임의 하나로 나타난 ‘룩 코리아(Look Korea, 한국을 배우자)’ 움직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¹⁶⁾ 일본의 대중 언론매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의 드라마화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개혁의 필요성을 비교의 시각을 통해 강조하기 위하여 아시아, 특히 한국에 눈을 돌렸다. 이들 매체는 ‘정체되어 있는 일본’과 ‘변화하는 한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1990년대 말의 한국을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면서 전진하는 나라로 객체화시켰다.

일본의 보도매체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1998), 남북한정상회담(2000), 국회의원 선거(2000) 등을 연일 보도하면서 사회의 역동성을 부각했다. 특히 2000년 총선에서 보여준 시민단체연합의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이 매스컴을 통해 일본 사회에 전달되면서 한국은 강한 리더십을 통한 외교와 민주화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정치개혁을 실행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제, 교육, 문화 각 분야에서 ‘혁신’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미지는 ‘일본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과 연동되어, 한국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즉, 대중매체가 주도한 일본의 포퓰리즘은 ‘변화하는 한국’이라는 타지를 재현해냄으로써 일본 개혁 필요성의 담론을 대중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시키고, 일본 사회에서 한류를 만들어낼 저변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이 한류라는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서 전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TV 매체가 한류 전파의 핵심 매체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한 TV 매체 NHK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지대

16) 小倉紀藏, 2005, 『韓流インパクト：ルック코리아と日本の主體化』, 東京：講談社；오구라 키조오, 2006, 「한류와 험한류의 공통성」, 『창작과 비평』 34권 2호 참조.

한 영향을 미쳤다. NHK는 일본 대중문화에서 TV 영상산업과 대중음악산업의 밀접한 관계를 극대화한 'one source-multi use' 전략과 마케팅을 펼쳤다.¹⁷⁾ 「겨울연가[冬のソナタ]」가 주간시청률 10위에 오르고, 「후유소내[冬ソナ]」, 「요사마[コン様]」 등의 용어가 유행하면서 한류에 대한 수요는 멀티미디어적으로 창출되었다. 즉 「겨울연가」와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겨울연가」 음반이 일본 대중음악계의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겨울연가」 열풍은 또 다른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에 대한 연쇄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NHK를 포함한 여러 방송매체는 동시에 '와이드쇼식'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한류'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만들어내는 데도 성공하였다. 일본의 4대 일간지(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산케이 신문)에서 '한류'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2004년은 또한 TV 방송매체가 적극적으로 '한류'를 보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2004년 배용준의 일본 방문 관련 보도를 위해 NHK는 2004년 11월 26일 저녁 7시 뉴스에서 2분 15초를 할애하는가 하면, 같은 날 TBS의 '뉴스의 숲[ニュースの森]'에서 첫 번째 뉴스로 무려 8분을 할애하여 보도하였다.¹⁸⁾ 이처럼 TV 매체에 의한 생생한 뉴스보도와 멀티미디어적 홍보를 통해 '한류'는 일본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겨울연가」가 멜로드라마 연속물이라는 장르를 통해 상영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멜로드라마는 여성을 재현의 객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하여 유통되는데, 일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멜로드라마'는 많은 경우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복잡한 성격묘사에 의한 서술 전개라기보다는 터무니없는 사건 (예를 들면, 교통사

17)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음악산업은 TV 드라마나 CM에 악곡을 제공함(타이업)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싱글연간베스트 3'의 대부분의 곡들이 '타이업'된 곡들이라고 한다. 임경택, 2007, 앞의 글, 111~113쪽 참조. 'one source-multi use'는 채지영, 2005, 앞의 책, 11쪽 참조.

18) 石田佐恵子, 2007, 「韓流ゲームのさまざまな語り手たち: 他者表象と越境する文化」, 石田佐恵子·木村幹·山中千恵 編, 『ポスト韓流のメディア社会学』,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44쪽, <표 1-1> 참조.

고에 의한 기억 상실)에 의존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상물이라는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선한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매우 단순한 결말을 통해 기존의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의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멜로드라마의 공공성에 보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부여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멜로드라마라는 장르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고 있다.¹⁹⁾ 이들 연구는 성별화된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을 배경 공간으로 하는 멜로드라마는 평범한 일상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드는 비용과 희생을 재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상성의 모순점들을 노출시키기도 하면서, 당연하게 인식되어 온 관습적인 규율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속물이라는 형태는 이러한 모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서 기존 관계의 모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킨다는 해석이다.

멜로드라마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이 보여주는 것은 멜로드라마가 성(gender), 일상생활 속의 권력관계와 이를 재현하는 데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서의 「겨울연가」의 소비, 그리고 이후 한국 관련 일본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을 고찰하는 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본의 언론은 한류 문화상품이 일본 여성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청결함’을 들고 있다.

베드신이 나오지 않는다. 단지 손과 손이 닿을 뿐인데 벌써 두근두근. 요즘의 일본 드라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남녀 간의 긴장, 거리감. “바로 그 점이 좋아요. 일본인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패션, 거의 같은 상식, 미의식, 규율.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순수한 연애. 매우 부드러운 남성. 매력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²⁰⁾

19) Jane Feuer, “Melodrama, Serial Form, and Television Today”; David Thorburn, 1994, “Television Melodrama,” Horace Newcomb ed., *Television: The Critical 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20) 中澤明子, 2003. 9. 1, 「“冬ソナ”に胸キュン」, 『AERA』 No. 36.

도시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 낭만적으로 담아 낸 「겨울연가」는 동시에 가족관계의 위기와 연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중년여성에게 인기를 얻었다. 한 일본 50대 여성의 반응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가 부럽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 문화는) 서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것은 그냥 서양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검은색 머리라서 그런지 그런 가족관계를 동경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문화지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 일본에는 없잖아요.²¹⁾

「겨울연가」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호응은 이 드라마가 가족관계로 대표되는 평범한 일상성에 대한 재발견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후유소녀’는 한국의 전형적인 드라마는 아니다.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이 가족 또는 사회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일본의 드라마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다.²²⁾ 즉 친밀성과 차별성이 어우러진 「겨울연가」라는 멜로드라마는 일본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상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일본에서의 전통적인 가족상의 재발견은 일본 (젊은) 여성들을 이기적이고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로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계 여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일본 드라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우 한국 관련 일본 드라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편입되는 고전적인 한국 여성성과 현대적이면서 이기적인 일본 여성성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²³⁾ 이는 장기불황 속에서 재편되기 시작한 일본의 정치경제

21) 하라타 유키에, 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 한류, 여성, 드라마』, 서울 : 책세상, 133쪽, 재인용.

22) 瀨川成子, 2004, 「作り手たち」 『AREA 臨時増刊「ペヨンジュン」で知る韓国』 7/1, No. 29, 24쪽.

23) 「파이팅 걸」(2001), 「결혼의 조건」(2002)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라타 유키

구조 변화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후 경제정책은 여성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역할에 한정시키면서 남성을 회사인간으로 동원한 기업중심의 발전국가 확립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사회복지에는 최소한의 지출을 하면서 복지를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는 자조원칙을 통해서 지탱되었다. 이러한 개발중심정책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추가 노동력의 수요에 따라 여성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형성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 재생산과 고령자 개호라는 가족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저성장으로 돌아서고, 198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가 1990년대에 붕괴되면서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취약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보다는 기존의 보수적인 젠더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가정적 역할을 강조한 가족의 재건을 통해서 복지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²⁴⁾

이처럼 '변화하는 한국'이라는 대중매체의 한국 재현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류가 소비될 수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하는 한편, 가장장적 가족관계를 상품화하면서 경제개발기의 이분법적 성역할을 재현하려는 담론의 저변을 재구축하는 경향을 가지고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에, 2005, 앞의 책, 제2장 참조.

24) 장화경, 2005, 「젠더의 관점에서 본 전후 일본의 가족관련복지정책의 변용」, 한상일·김영작 외 지음, 『일본형시스템: 위기와 변화』, 서울: 일조각; 오사와 마리 지, 정진성·장화경 공역, 1995, 『회사인간사회의 성: 현대일본을 젠더로 읽다』, 서울: 나남출판 참조.

IV. 혐한류를 타고

‘혐한류’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아마노 사린[山野車輪]의 『망가젠간류[マンガ嫌韓流]』라는 책이 신유사[普遊舎]에서 2005년 여름에 출간되면서부터이다. 신유사는 주로 컴퓨터 관련 잡지와 서적을 내는 출판사인데, 이 책은 아마노가 2003년부터 자신의 웹사이트에 1년 동안 연재한 만화 『CHOSEN-朝鮮』을 당시 신유사의 편집자가 발견하고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편집자는 혐한 만화를 인터넷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의 인상을 “혐한 사이트는 굉장히 많지만, 만화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처음이었다.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통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무거운 주제를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⁵⁾ 이 책은 발간된 직후 3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출판사는 그 여세를 몰아 2006년 2월에 『망가젠간류 2』를 출간하였다. 출판사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1, 2 누계 65만 부 돌파했다”고 한다. 출판사 측의 발표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망가젠간류』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출판사 측도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²⁶⁾

만화를 매체로 등장한 2005년의 혐한류를 한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혐한류의 뿌리는 그보다 오래되었다. 『망가젠간류 2』에서 필자는 “오해하면 곤란한 것은 이 만화는 소위 한류 붐 이후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한류가 표면화되기 이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⁷⁾ 따라서 혐한류는 ‘혐-한류’라기보다는 ‘혐한-류’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한류 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국, 한국문

25) 鷗野光博, 2004. 4, 「“嫌韓流現象”を讀み解く」, 『別冊 正論』, 233쪽.

26) Norimitsu Onishi, 2005, “Ugly Images of Asian Rivals Become Best Sellers in Japan,” *New York Times*, November 19.

27) 山野車輪, 2006, 『まんが嫌韓流 2』, 東京: 普遊舎, 255쪽.

화, 한국인, 그리고 재일한국인·조선인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경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⁸⁾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인들은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을 보다 생생하게 접하게 됐고, 한국의 반일정서에 대한 반발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현상으로 전개되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오키아유 가나메(沖鮎要)라는 청년이 대학에 입학하여 ‘극동아시아조사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오키아유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고교생’인데, 월드컵에서 한국인의 실태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는 신문 또는 TV 등의 한일관계 보도를 접하면서 그저 ‘막연히’ 일본은 한국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극동아시아 조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한일관계의 ‘진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은 과거 한국을 단순히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서의 ‘진실’ 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조선인의 내력, 일본 문화를 흠친 한국, 차별대국인 한국 등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키아유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진실’에 일차적으로 ‘경악’하고, 이후 ‘왜곡된 진실’을 똑바로 알리기 위해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림 1>은 오키아유와 그의 동아리 친구가 일본 문화 검도를 ‘흠친’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장면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은폐된 진실을 논리정연하게 밝혀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논쟁을 전개해나간다. 많은 경우 이러한 논쟁은 ‘반일’ 한국 대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 경우 일본인 대학생(<그림 2> 두 번째 줄 역할

28) 일본에서 인터넷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서는 Laurie Freeman, 2003, “Mobilizing and Demobilizing the Japanese Public Sphere : Mass Media and the Internet in Japan,” Frank J. Schwartz and Susan Pharr eds., *The State of Civil Society in Japa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그림 1〉 『マンが嫌韓流』, 108쪽



〈그림 2〉 『マンが嫌韓流』, 200쪽

생)은 아름다운 외모에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한국인은 광대뼈를 과장되게 부각시키면서 사납고 감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 2〉의 두번째 줄 남학생과 〈그림 3〉의 마지막 줄 남학생).

이처럼 혐한류 담론은 주로 “경악”과 ‘논파’의 문법을 사용하면서 형성되고 있다. 경악하고 논쟁하는 일 본인 대학생들의 모습은 “주류”적인 것에 대항하는 대항문화의 수법을 전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즉 ‘좌익사상’에 물든 교사들에게 독점된 공



〈그림 3〉 『マンが嫌韓流』, 216쪽

29) 이마가키 류우마, 2006, 「혐한류의 해부학」, 『창작과 비평』 34권 2호, 410쪽.

교육, ‘반일매스컴,’ 그리고 ‘자칭 양심적 일본인’들에 의해 은폐된 진실들을 밝혀낸다는 ‘소수자 의식’이 혐한류의 저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 표지에 붙어 있는 “아무래도 너무 위협해서 각 회사에서 출판거부 된 문제작!”이라는 선전문구 역시 이러한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자 의식’은 이어지는 지적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대항문화의 담당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실은 다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감, 억압감, 패쇄감을 동반한 소수자 내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타개해야 할 ‘일본인’으로서 일어서고 있다. 이것은 ‘혐한류’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 강화되어온 국민주의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다.³⁰⁾

만화를 통해 한일 간의 역사와 현실을 ‘새롭게’ 쓰려는 움직임은 물론 『망가젠칸류』가 처음이 아니다. 보다 앞선 대표적 작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가 펴낸 『고마니즘 선언(ゴーマニズム宣言)』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새역모를 중심으로 한 역사 수정주의자는 근대 일본의 대외침략과 대내 소수자 억압행위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역사관은 ‘자학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역사관을 수정해서 근대 일본이 걸어온 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운동을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바야시의 저서는 이러한 새역모의 활동을 만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³¹⁾

그러나 『망가젠칸류』를 『고마니즘 선언』 시리즈의 단순한 아류로 볼 수는 없다. 『고마니즘 선언』 시리즈와 새역모의 ‘국민의 역사’ 움직임의 중심에는 일본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술방식 역

30) 이따가끼 류우마, 2006, 앞의 글, 410~411쪽.

31) 새역모와 만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상일 : 한정선, 2006,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 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의 에필로그, 서울 : 일조각 참조.

시 만화라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망가젠칸류』는 이러한 의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망가젠칸류』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애국심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신사 또는 영령참배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국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묘사할 때 나타난다. ‘왜곡된’ 역사를 공교육을 통해 받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몰이성적이고 반일감정으로 물든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한일관계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역사인식 등의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도 가벼운 터치로 논쟁이라는 표현방식으로 박진감 있게 전개해 가고 있다. 즉 “가벼움이 이 작품의 신선함이고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이와 같은 ‘신선함’을 가져다주는 코믹하고 가벼운 터치의 서술 형태는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책임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를 흥미 위주의 오락적인 것, 나아가 하찮고 진부한 것(trivialize)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만화가 취하고 있는 서술 전략, 즉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떠나가는 방식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반되는 입장의 제시는 독자로 하여금 특정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주 부분적이고 특수한 정보나 지식을 전후문맥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 만화는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중요한 논거로 드는 핵심적인 자료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논거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수법을 주로 택하고 있다. 논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표현양식은 결정적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³³⁾ 즉 특정 사건에 대한

32) 藤野光博, 2004. 4, 앞의 글, 233쪽.

33) Tessa Morris-Suzuk and Peter Rimmer, 2002, “Virtual Memories :

파편화된 정보만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건이 나타난 사회적·정치경제적 그리고 역사적 요인들을 포괄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들 논쟁은 왜곡되고 편향된 현실과 과거인식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혐한류’의 주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일례로, 『망가켄칸류 공식가이드북(マンガ嫌韓流公式ガイドブック)』에 실린 「독자의 소리」에 올려진 61명의 편지 또는 이메일 투고 모음을 분석해 보면 10대 5명, 20대 11명, 30대 21명, 40대 9명, 50대 2명, 60대와 70대는 각각 1명, 80대 2명, 연령 미상 2명으로 분류된다.³⁴⁾ 투고인의 60.5%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람들인 것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혐한류’의 내용에 동의하는 글들은 아니고, 비판적인 지적도 있으며 한국인의 글도 실고 있다(2명). 그러나 젊은 연령대 독자들의 상당수는 ‘논쟁’을 통한 박진감 넘치는 이 책의 서술양식에 매료되어 단숨에 읽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자들은 주인공 오키아유처럼 이제까지 ‘막연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확연하게 정리되고, ‘주류 언론’과 ‘좌익적’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혐한류’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기존 보수 우파의 논리를 포퓰리즘의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즉 기성구조와 ‘주류’에 대한 막연한 반발감과 국내 소수자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이 겹치면서 ‘혐한류’가 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혐한류’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기성구조에 대한 반발감의 사회적 요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고도성장기의 ‘철의 삼각구조’와 이를 사회적으로 지탱한 ‘회사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지점에서 발생한 젊은이들의 실업과 유동적 임금 노동자화라는 사회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Japanese History Debates, in *Manga and Cyberspace*,” *Asian Studies Review*, Vol. 26, No. 2 참조.

34) 「『まんが嫌韓流』読者の聲, 『まんが嫌韓流公式ガイドブック』(2006), 東京: 普遊舎, 15~38쪽.

들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기에 20대를 지낸 이들로서, ‘중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라는 ‘회사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구조 변동기에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사회 구조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었다. 즉, ‘중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 유지를 위해 기성세대에 들어가는 임금 비용으로 인하여 신규고용이 힘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임시고용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1990년대의 사회·경제의 거시적 요인에 따라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젊은이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혐한류’의 저류를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³⁵⁾

V. 맺음말 :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한류와 혐한류는 한국이라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 전혀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뿌리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류와 혐한류는 1950년대 중후반에 냉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정당, 관계, 재계의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버린 사회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는 대중주의적(populist)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한류와 혐한류의 형태를 띤 개혁과 변혁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그 저변에 깔고 있는 포퓰리즘은 1990년대 중후반 만연해진 정치적 무관심과 활발해진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정치문화의 양극화’ 사이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일본인의 무관심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히 하락한 투표율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일정한 정도의 투표율—중의원선거는 67% 이상, 참의원선거는 57% 이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35)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 2007, 앞의 책, 특히 제1장과 제2장 참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투표율의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6년 총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9%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고, 1995년 참의원 선거는 44%까지 떨어졌다.³⁶⁾ 동시에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직면해서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을 통해 시민사회가 자발적이고도 자립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5년 1월 17일 새벽 神戸시를 강타한 坂神 대지진 때 극명하게 노출된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한계가 계기가 되어 활발해졌다. 이는 3년 뒤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 법안은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세력 균형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³⁷⁾

이러한 양극적인 정치문화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와 혐한류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류가 대중매체의 매개를 통해 기존 질서와 주류의식에 대한 대중주의적 회의와 불만을 표출하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류와 혐한류 현상은 일정 정도의 정치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동시에 한류와 혐한류라는 양극적인 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형 포퓰리즘은 이질적인 문화의 포용 가능성과 고립된 일본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다.³⁸⁾ 이것은 현재 일본 사회에는 마치 조정수역과 같이 다양하고 상호 배타적이기까지 한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36) 오노 고지, 2005, 『일본의 정치문화』, 이기완 외 공저,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서울 : 매봉.

37) Robert Pekkanen, 2000, “Japan’s New Politics : The Case of the NPO Law,”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26, No. 1 ; Robert Pekkanen, 2003, “Molding Japanese Civil Society : State-Structured Incentives and the Patterning of Civil Society,” Frank J. Schwartz and Susan J. Pharr eds., *The State of Civil Society in Japa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조규철, 2005, 『복지국가의 쇠퇴와 비영리단체의 대두』, 한상일 · 김영작 외 지음, 『일본형시스템 : 위기와 변화』, 서울 : 일조각.

38) 특히 후자의 사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출판된 지 얼마 안 되어 100만 부를 돌파한 藤原正彦, 2005, 『國家の品格』(東京 : 新潮社)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 전후 개발중심의 사조가 일본 국가의 ‘품격’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후지와라는 고품격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전통 사조인 무사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고 있다.

낙관적인 시사평론가 또는 일본 전문가들은 기존 정치경제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주류의식에 비판적인 이와 같은 다양한 가치와 시선의 존재가 창의적인 가치를 생산해내는 문화대국으로 일본이 변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³⁹⁾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다. 한류와 혐한류라는 포퓰리즘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기성구조 개혁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족에서의 성역할, 그리고 과거사 및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언설구조는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적 논리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수역은 어부에게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다. 어떤 어종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들일지는 어부의 판단에 달렸다. 일본이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39) 대표적으로 Jim Frederick, "Gross National Cool," http://www.time.com/time/asia/2003/coo;_japan/story.html 참조.

[ABSTRACT]

Understanding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through
“Korea Wave” and “Hate Korea Wave”

Han, Jungsu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phenomena of “Korea Wave (Kanryu^)” and “Hate Korea Wave (Kenkanryu^)”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I argue that the “(Hate) Korea Wave” is a part of larger phenomena related to the disintegration of “main stream consciousness”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main stream consciousness” refers to the collective self-perception of Japanese people in which 90% of Japanese considered themselves as members of new middle-class. Both “Korea Wave” and “Hate Korea Wave” have their roots in populism embedded in the frustration and distrust toward the established order and the ambivalent expectation for reform of the existing social system. It still remains to be seen how these contradictory undercurrents in Japanese society will transform Japan’s self-perception and view of the other.

keywords

Korea Wave, Hate Korea Wave, mainstream consciousness, mass-media, populism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 1·2·3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
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1호(2008. 9)

초판 1쇄 인쇄 2008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9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인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